

2013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부

학술심화연구 보고

3부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및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2013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부

학술심화연구 보고

3부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및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개성한옥 보존사업”에 대한
2013년도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목 차

－ 2부 : 학술심화연구 보고 －

개성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8
1. 머리말	8
2. 개성지역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 현황	9
3. 개성 지역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의 특징과 과제	24
4. 개성 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27
5. 맺음말	45
개성 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47
1. 연구 배경 및 목적	47
2. 개성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	48
3. 개성 문화유산 관광사업의 파급효과	59
4. 개성문화관광사업의 발전방향 및 시사점	71
개성의 건축문화유산	77
1. 머리말－개성의 역사지리와 역사유적	77
2. 개성 건축문화유산의 개요	79
3. 맺음말－개성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110
개성한옥의 보존 및 활용방향	114
1. 연구 개요	114
2. 개성한옥지구 경관현황	115
3. 개성한옥지구 보존계획 수립	120
4. 개성한옥지구 보존방법론	124

5. 활용방향	131
6. 사례분석	134
7. 맺음말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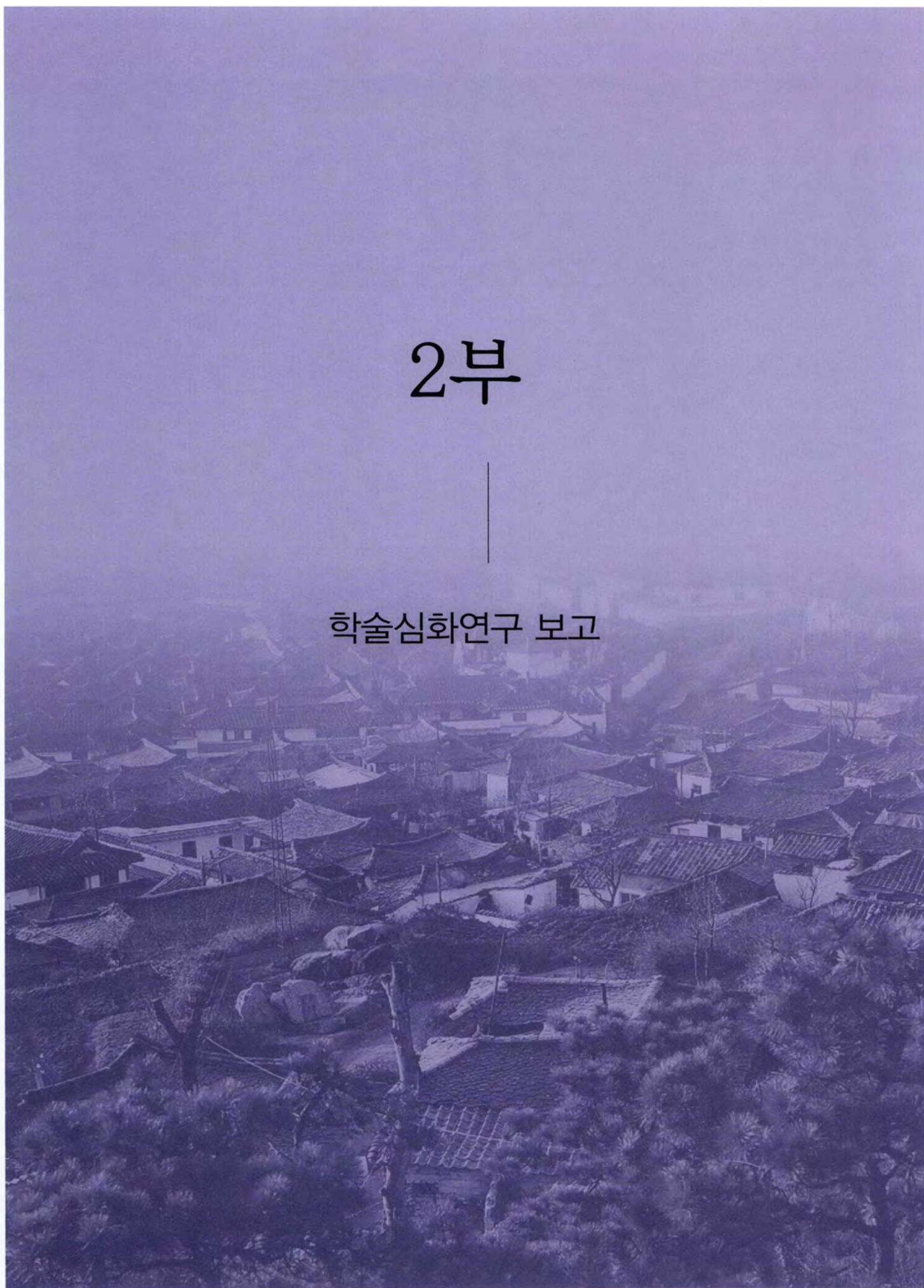
전통마을의 보존정비 및 활용 사례로 살펴본 개성한옥지구의 정비방향 설정	150
1. 서론	150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정비 사례	150
3. 맺음말-개성한옥지구 정비 방향	174

- 3부 :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및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

I. 개요	18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2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2
II.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184
1. 현황분석	184
2. 정비여건 분석	195
3.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200
4. 사업추진계획	226
III.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제작	218
1. 현황분석	218
2. 기본계획도 제작	221
3.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237
4. 개성한옥 3차원 모델링	244
5. 개성한옥 3차원 시뮬레이션	248
※ 참고문헌	253

2부

학술심화연구 보고



개성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신 준 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1. 머리말

개성은 우리에게 역사이자 현실이다. 500년 고려 왕조의 옛 도읍이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지역인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2013년 7월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개성 지역의 국제적 미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고려는 우리 민족이 세운 동아시아의 위대한 국가였으며, 고려사는 우리 민족사의 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고려의 옛 수도 개경은 500년간 고려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중세 도시로서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이다. 자연 지세를 이용한 성곽과 궁궐터, 불국토를 연상하게 하는 많은 절은 당시 개경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고려 멸망 이후 600여 년 동안 개성의 문화유산은 파괴되고 방치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도굴과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개성은 남한의 학자들에게는 지난 50여년 동안 반드시 가야하나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땅이었다.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개성 지역은 한국의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등 관련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꿈의 도시였다. 남한 방문자의 북한 방문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은 남한 연구자들에게 쉽게 개방하기 어려운 '전연 지대' 즉 최전방 군사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여러 곡절 끝에 가까스로 개성땅을 밟았던 것은 2004년 개성공단의 착공 전후였다.

현 시점에서 개성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또 인류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도시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고, 개경 500년의 역사지구가 제대로 정비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 인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남북이 어우러져 전혀 새롭고 풍부한 결과물을 창출해낸다는 의미에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건설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이 역사 문화 경제 통일 도시로서의 개성을 건설하는 첫 걸음은 현실에서 남북 간의 문화자산 교류협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 벽돌을 한 장씩 쌓아나가듯 개성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양과 질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성은 남북협력의 명품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개성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 연구, 보존, 복원 등에 걸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개성지역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문화자산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당국 간 합의사항

(1) 7·4공동성명과 문화분과위원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교류에 대한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였다. 당시 남북은 7·4공동성명 3항에서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1월 4일에는 7·4남북공동성명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설치한 공식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했다.

이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항은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북 간에 최초로 문화 분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중단되었고 문화분과위원회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림 1. 7·4 남북공동성명 발표(1972년 7월 4일)

(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 당국 간에 문화자산 교류에 대한 두 번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7·4공동성명으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노태우 정부 시기였다. 남북은 1990년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꾸준히 진행하여,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마침내 〈남북기본합의서〉(정식명칭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¹⁾에 합의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편에서는 남북간의 여러 방면의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에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의 ‘다방면적 교류’ 합의보다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제2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기구의 발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로서 남북 교

1)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3장), 수렴 및 발효(제4장) 등 4개 장 25개조로 구성되었고, 통일 이전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 한 남북 정부 간 공식 합의문서이다.

류협력에 대한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2항에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날 채택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²⁾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이 규정되어 있다. 이후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9.15~18)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4개의 부속합의서에 서명했



그림 2.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 제3차 본회의)

다. 그 중 하나가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²⁾>였다. <부속합의서> 제2장에서는 사회문화교류·협력 중에서 세부적인 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 협력, 인적교류, 연구·조사·편찬사업·교환 전시회 등의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진행할 이행체계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2년 말 이후 틱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고위급회담은 중단되었고,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역시 1970년대 남북조절위원회의 문화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3) 6·15 선언과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노태우 정부 이후 긴 휴지기를 거쳐 남북 간에 문화교류·협력위원회 설치가 논의된 것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 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5항에서는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그림 3.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2) 이 부속합의서는 경제교류·협력(제1장), 사회문화교류·협력(제2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제3장), 수정·발효(제4장) 등 4개 장, 20조로 구성되었고, 제13~14조는 남북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진행에 따른 구체적 실무 처리와 기구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의 과정을 마련해 두었다.

2000년 7월부터, '6·15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총괄하는 성격의 대화로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2003년 7월 12일 개최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까지 총 21회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과정 속에서도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4) 10·4 선언과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2007. 10. 4) 6항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2007.11.14~11.16)에서 남북 양측은 10·4선언 이행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조 4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에서는 남북의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문화협력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의했고, 특히 역사 교류와 관련하여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제4조 ①항).

6·15선언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는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정부 간 채널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계속 미온적이었다. 때문에 제1차 총리회담에서의 이 같은 합의는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할 기구와 위상을 남북 당국 간에 처음으로 합의하고 남북 문화(부서) 장관 간 채널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사회문화교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 중에 개최”(제4조 ④항)하기로 한 이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전혀 개최되지 못했다.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회문화교류의 주요 사업에 대해 과거 동·서독의 경우처럼 남북 당국이 ‘문화협정’ 등을 체결해 당국 또는 민간 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안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현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 때 정치정세에 크게 영향받는 남북 교류협력의 특성상 사회문화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정의 일괄 체결은 어렵고, 정치정세에 가장 영향을 덜 받고 남북간 교류협력 성과가 쌓여있는 분야, 이를테면 역사 문화재 분야부터 협정(합의서)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2) 개성을 중심으로 한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1) 개성 영통사 발굴 복원 지원사업

개성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사업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발

굴 복원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성시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 오관산 기슭에 위치한 개성 영통사는 고려 현종 18년인 1027년에 창건된 사찰이다. 고려 11대 문종의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한 곳으로 유명하다. 영통사는 16세기 무렵에 화재로 인해 전체 사찰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98년부터 북측과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 학자들이 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북측이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 대한불교 천태종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2001년 북한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산하 영통사복원위원회는 영통사 복원공사를 시작했고³⁾ 2003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천태종 측은 기와 약 46만장, 단청재료 3천 세트, 중장비 7대, 조경용 묘목 1만 그루, 비닐자재 60톤, 각종 건축마감재 등 40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다.

개성 영통사는 2005년 10월 31일 완공되어 남측에서 300여명, 북측에서 200여명 등 모두 500여명의 불교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낙성식 및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개성 영통사에서는 한국 불교도들의 영통사 성지순례, 칠석 법회, 우란분절 법회,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다례제 등이 꾸준히 열려 남북 천태종 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고, 개성 관광이 실시되던 시기에는 개성관광의 한 코스로 활용되기도 했다.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 사업은 남북 간의 문화자산 교류협력보다는 남북간 불교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때문에 불교계의 인식도 사찰을 문화재보다는 종교시설로 보는 측면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사업이 북한의 불교문화재 복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대역사이며, 개성을 기반으로 한 남북 간의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의 물꼬를 트고, 이후 남북의 불교문화재 교류 사업의 기반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영통사를 목재가 아닌 시멘트로 복원한 데 대해 남측 학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4. 개성 영통사 전경(북한의 전통사찰)

3) 『만불신문』, 『북한 영통사 복원 기와 지원』, 2003. 9. 6.

물론 영통사 복원 지원 사업은 남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1990년대 말에 북측이 독자적으로 입안, 주도하여 이미 복원 사업 공정이 80% 진행된 2003년 즈음에 남측이 지원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복원에 대해 남북 간에 존재하는 인식 차이를 조율하고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불교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남측의 문화재 전문가 그룹이 적극 결합해, '문화재' 관리·보존·복원에서 남북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⁴⁾.

(2) 개성공단 지표조사

북한 지역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남북공동조사 작업은 개성공업지구 예정지 내 1단계 개발 예정인 100만 평에서 이루어졌다. 개성공업지구 공단예정부지 2천만평 가운데 2002~2007년에 개발 예정인 개성시 봉동 일대 100만평에 대해 2004년 4월 20일에서 5월 6일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에는 남측에서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을 비롯해, 경기도 박물관,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단 등 5개 기관 20여명이 참가했고, 북측에서는 조선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손수호 소장과 리창언, 리창진, 지화산 박사를 비롯한 40여 명의 고고학자들이 참여했다.

총 35일간의 조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타제 석기, 신석기 시대 유물포함층, 원삼국시대 집자리 1기, 고려시대 건물지군 1개소와 함께 고려-조선 시대의 무덤 30여 기를 발굴했다. 개성 일대에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과 하남 미사리에서 조사된 것과 동일한 구조의 화덕이 개성의 원삼국시대 집자리에서도 확인된 점 등이 성과라고 평가된다.

남측과 북측이 교류 없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굴조사를 해오다가 분단 이후 최초로 공동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도 많이 발생했지만, 공단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 남북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점에서 이후 남북문화재 공동발굴조사의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⁵⁾

(3)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개성역사지구를 주제로 한 최초의 남북공동학술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2005년의 일이다. 11월 18~21일(학술회의 18일) 사이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주최한 이 학술행사에는 남측에서는 강만길(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장), 성대경(전 성균관대 교수), 김태영(경희대 명예교수),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등 44명이 참가했고, 북측에서는 박경철(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리승혁(문화보존지도국 처장), 리창진(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에는 개성에서 민간 차원의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직 개성관광이 실시되기 전이어서 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이따금씩 개최되었을 뿐 남측 민간인들이 개성공

4)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207쪽.
5) 『연합뉴스』, 『개성공단 남북공동발굴보고서 발간』, 2006, 1, 16.

단이 아닌 북측 개성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이 학술토론회가 개성 시내에서 개최되고, 토론회 후 참가한 남북측 연구자들, 특히 평생 고려사를 연구하면서도 분단으로 인해 고려의 도읍지 개경을 답사하지 못했던 남측의 고려사 연구자들이 만월대, 왕건릉, 공민왕릉 등 역사 유적지를 3일 동안 살살이 공동 답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술회의의 개최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2001년 이후 꾸준히 남북학술교류를 진행해온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북측과 쌓은 신뢰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토론회가 북측이 개성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다.

이 학술회의의 중요한 성과는 1회적인 학술회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해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남북 간의 협의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 아울러 2013년 7월 개성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데에는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개성역사지구 유적의 우수성과 인류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뜻을 모았던 것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술회의의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남 측〉

- 역사도시 개성의 중세적 특징(박종진, 숙명여대 교수)
- 개성의 성곽과 궁궐(서성호, 국립중앙박물관)
- 개성의 불탑과 불교문화(김영미, 이화여대 교수)
- 역사도시 개성 : 세계유산적 고찰(황기원, 서울대 교수)

〈북 측〉

- 개성 일대 역사유적의 문화사적 위치와 세계적 가치(리기웅, 문화보존지도국 조선문화보존사)
-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김인철,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 고려시기의 절과 그 특징에 대하여(리창언, 고고학연구소 박사)

(4)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북부 지역(북관)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공을 기록한 승전비다. 조선 숙종 때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한 최창대는 승전 비문을 직접 지어 함경도 길주에 이 비를 세웠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와중에 함경도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 여단장 이케다 마시스케가 일본군의 패전기록이 담긴 비문을 읽고, 이 비를 파내 일본으로 옮겼고, 북관대첩비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 구석에 꼭 100년간 방치되었다.

그런데 1978년 3월 재일교포 사학자 최서면이 일



그림 5.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6) 정태현, 『남북 역사학(자) 교류 10년, 그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용역보고서, 2010년, 15쪽.

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길고 긴 북관대첩비 반환 운동이 시작되었다. 1979년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민간 소유라서 정부가 간여하기 곤란하다”라는 명분으로 반환을 회피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후인 2000년 한일불교복지협의회 초산 스님이 민간 차원에서 반환운동을 펼쳐 반환운동을 한일 민간단체간에 공동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 결과 2004년 7월에는 ‘북관대첩비 한국 범민족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특히 이 해 12월에는 남북 민간단체 간에 북관대첩비 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되어 쌍방은 “남측이 인수하여 북측에 전달”한다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2005년 1월에는 ‘북관대첩비 한국 범민족운동본부 발대식’이 개최되었고 3월 1일 초산 스님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신사 책임자 난부 도시아키로부터 “남과 북이 공동 합의해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3월 28일 초산 스님은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과 만나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4월 28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요청’을 제출했다.⁷⁾

한편 남북 당국은 2005년 6월 23일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민간 남북 차원의 노력의 성과로 북관대첩비는 유출된 지 꼭 100년 만인 2005년 10월 20일 한국으로 환수되었고,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 때 일반에 공개된 후 경복궁으로 옮겨져 약 4개월 간 전시되었다.

2005년 12월 16일 개최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 소재지인 함경도 길주 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2006년 3월 1일 개성에서 남북공동의 인도인수식을 열어 이 비를 북측에 인도하였다. 개성 성균관 명륜당 앞에서 개최된 인도인수식에는 남측에서는 유홍준 문화재청장, 초산 스님, 김원웅 의원, 최서면 선생 등 154명이 참가했고 북측에서는 김석환 북관대첩비 되찾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북관대첩비는 2006년 3월 23일 원래 자리인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동에 다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시굴조사

2007년 5월 15일~7월 13일 간 개성 만월대 즉 고려 정궁 터에 대한 남북공동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2005년 개최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에서 첫 제안된 이후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거둔 성과였다.

애초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시굴조사는 2006년 7월에 착수하기로 남북 간에 합의되었으나 북측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무산되었고, 1년 뒤인 2007년 7월에야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개성은 최전방지대이고, 개성의 중심부 송악산 밑에 위치한 만월대 터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남북공동조사였으므로 사업 성사까지의 어려움은 이전까지 종종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1회적 학술행사보다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시굴조사보다 먼저 개성공단 남북공동지표조사, 금강산 신계사 터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만월대 시굴조사는 고려사의 핵심이라 할 고려 정궁 터에 대한 발굴조사인 만큼 남북 조사단 모두 발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황진적의 난으로 궁궐이 소실

7) 『서울신문』, 『시론: 북관대첩비 귀환, 그 후』, 2005. 10. 26.

된 후 600여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고려궁성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 학계의 큰 관심 속에 출발한 개성 만월대 시굴조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난다면 향후 남북 간 문화재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남북 쌍방은 개성 만월대 터 중 서부건축군 지역 1만평(33,000㎡)에 대한 시굴조사를 두 달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남측 조사단은 개성공단 내 숙소에서 묵으면서 아침에 만월대로 출근하여 작업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점심은 북측이 제공한 도시락으로 현장에서 남북이 함께 먹었다. 발굴기간 중 3차례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려사·고려고고학 전공자,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만월대를 찾아 시굴 상황을 돌아보고 자문에 응했다.

남측 조사단의 규모는 북측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최맹식(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장, 조사단장),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관, 발굴대장),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북측 조사단은 조사단 외에 인부, 운전기사, 행정담당, 도시락 배달, 기타 현장 청소 작업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5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김은룡(조선중앙력사박물관 발굴대) 발굴대장 이하 류충성, 김해일, 송정길, 김종길, 정세성, 송명철, 리철준, 박명진, 김학연, 강명도, 안영철, 김일주, 림룡선, 정철민, 신현숙(이상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리승혁(문화보존지도국 처장), 리진우, 김용권, 로남일(이상 조선민속박물관), 김철호, 오춘삼, 이정민, 정병의, 리창휘(이상 개성고려박물관), 류관성, 윤광진(이상 개성시문화유적관리소) 등이다.

시굴조사 결과, 고려 정궁 소실 후 600여년 세월 속에서도 고려궁성의 유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간 중 개성 주민들이 고려왕궁 터를 보존하기 전력을 기울인 덕분으로 해석된다.

60일간 시굴조사 결과, 건물지 20여 곳, 축대, 배수로, 석교 등이 확인되었고, 명문기와 114점이 수습되었다. 시굴조사의 상세한 성과는 『개성 고려궁성 -시굴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굴조사 결과 남북조사단은 공히 자신감을 갖고 개성 만월대를 본격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과 2007년 가을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지역 건물지에 대한 긴급발굴이 다시 60일간 진행되었다.

(6)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긴급발굴조사

2007년 9월 3일~11월 16일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건물지 유적(약 3300㎡)에 대한 남북공동긴급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2007년 봄에 60일간 진행된 시굴조사 결과 고려 정궁 유적이 대규모로 확인된 서부건축군에 대한 긴급발굴이 필요하다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측은 윤용이(명지대 교수), 이성원(문화재청 차장) 등 자문단 10여명,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연구관) 등 발굴팀 및 3D스캔-촬영팀 등 총 1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북측은 리의화(문화보존지도국 부국장) 등 자문위원단, 김은룡(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대) 등 조사단을 합쳐 총 40여명이 참가했다.

긴급발굴조사 때는 시굴조사 때와 남북 조사단의 공동작업 방식을 달리하게 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시굴조사 때는 남북의 첫 공동조사인 동시에 1만평(33,000㎡)에 달하는 면적에서 유적의 존재 여부를 60일 내에 확인해야하는 작업이라서 대상 면적을 남북이 각기 절반씩 맡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긴급발굴조사 시에는 조사대상인 건물지 유적 1천평(3300㎡)에 대해 남북측 조사단, 인부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 진행된 남북공동 발굴조사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다. 1천 평 정도의 작은 면적에서 남북 60여 명의 조사단이 몸을 부대끼고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남북간 문화재 협력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긴급 발굴조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축대와 7건물지 발굴, 3배수로와 석교 확인
- 출토 유물 : 명문기와 170여 점을 비롯한 다양한 기와류, 청자기, 백자고 작은 철정 및 가락바퀴, 용도를 알 수 없는 토제품 등 출토
- 일곽 건물지군(一廓 建物址群)의 독특한 공간 배치 구조 확인
- 새로운 형태의 「아」(亞)자형 건물 평면 확인
- 고려 궁궐 축대의 다양한 변화를 확인
- 명문기와를 비롯한 총 400여 점의 다종다양한 유물을 수습

2007년 말 긴급발굴조사를 마친 후, 조사단은 개성 만월대 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전면발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만월대 전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려면 대략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산이었다. 연중 발굴조사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크나, 남측은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 1년에 4개월 내외, 5년씩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남북 정세나 기타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제반 남북교류사업에서 1년 단위의 합의서 체결을 관행으로 해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성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측의 장기계획 필요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그림 6.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2007년 9월)

(7) 제3차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2008년 11월 4일~12월 23일 개성 만월대 제3차 남북공동발굴조사가 만월대 서부 건축군 지역에서 진행

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역시 재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로 인해 사업 착수에 대한 정부 승인이 늦어진 것이다. 때문에 발굴조사 실시에 가장 좋은 기간인 봄·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11월에야 제3차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보수·진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와 같은 남북 간 문화재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측 발굴단은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발굴대장),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조희경(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 8명으로 구성되었고 북측은 김은룡(조선중앙력사박물관, 발굴대장), 류충성(조선중앙력사박물관), 김해일(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송정길(조선중앙력사박물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3차 남북공동발굴조사 결과 건물지들과 가치 있는 유물 1천여 점이 새로 발굴되었다.

그런데 제3차 남북공동발굴조사 기간 중 남북관계 악화로 북측이 개성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12.1 조치를 발표하면서, 만월대 발굴조사 일정 중 후반부에 작업이 예정되어 12월 10일 경 개성에 도착하기로 되어있었던 촬영팀의 출입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애써 발굴조사한 성과들에 대한 촬영이 무산될 수도 있는 비상사태 하에서 남북조사단은 지혜를 모아, 2008년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구와 유물, 2007년 제2차 발굴조사 출토 유물 중 시간관계상 정리·기록하지 못한 유물들에 대한 3D 실측과 사진 촬영 작업은 북측 조사단이 제3차 발굴조사 종료 후 유물들을 평양으로 옮겨 놓고, 남측 조사단이 2009년 2월 중에 평양을 방문해 진행하기로 하고, 발굴 현장 유구에 대한 실측 촬영은 향후 개성 출입차단조치가 풀리는 대로 만월대 현장을 방문해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07년 시굴조사와 긴급발굴조사, 2008년 제3차 만월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가치 있는 유물이 총 3천여 점에 달하나 북측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개성고려박물관의 수장 능력이 한계에 달해, 새로운 유물 수장시설의 건립이 시급했다. 남북조사단은 2009년 2월 평양 방문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공간적 환경을 확인한 후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을 위한 수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8)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보존관리 사업

2009년 2월 24일~3월 5일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보존관리를 위한 촬영·실측 조사와 남북공동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부터 50일간 진행된 3차 발굴조사 중 북측이 취한 12.1 개성 육로차단조치로 자문위원회와 유물촬영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를 평양에서 재개한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남측에서는 김봉진(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윤광진(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장),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한나래(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등 22명, 북측 참가자는 조희승(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박봉철(문화보존지도국 처장), 황철(민족화해협의회 부장), 김은룡(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대장), 류충성(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김해일(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박철룡(조선중앙력사박물관 보존실장) 등 22명이었다.

2월 26일부터 약 2주간 동안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내에서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에 대한 촬영 작업이 진행되었다. 기간중 출토유물 촬영 분량은 3D는 645점, 사진촬영은 2,500점 이상이었다. 한편 남북조사단은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을 위한 수장고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지상 1층에 30평 정도 규모로 세 개의 실을 새로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남측은 수장고 조성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은룡 북측 발굴대장의 사회로 열린 남북공동자문위원회에서는 북측 류충성 조사단원(조선중앙력사박물관), 남측 박성진 조사단원(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사)의 발굴보고가 있었고 남북 자문위원들이 함께 출토유물을 참관, 검토하고 출토 유구, 유물, 발굴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대략 아래와 같다.

- 지난 2년 간 실시된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개성 만월대 터는 고려궁성 터이므로 유물보다는 유구(건물지)의 발굴이 더 큰 의미를 가짐.
- 황건적 침입으로 폐허가 된 후 60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개성 만월대 터에서 불과 180일간의 조사에서 49개 동에 달하는 궁성 유구들이 건축학적으로 구조 파악이 가능한 양호한 보존 상태로 출토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임. 이는 조선시대에서 일제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성 주민들이 만월대 터 보존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의 최대 성과는 경령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예제건축군’의 발견임.
- 앞으로 경령전과 주변 건축지, 고려 도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확대 심화해간다면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고려의 국가예제를 밝혀내고 국가예제 건축군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될 것임.
- 이제까지 만월대로 불리던 지역이 고려 궁성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었음. 훨씬 넓은 규모의 고려 궁성의 구조가 확인된 것임.
- 출토 유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이 80cm 달하는 원통형 청자임. 이와 같은 청자는 현재까지 출토된 적이 없고, 사용 용도를 알 수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출토 도자기들에서 강진·부안 등의 고려 가마에서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글씨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고려 왕실에 납품되는 최고 품질의 대규모 청자 제작지가 강진·부안이었음을 확인하는 계기임.
- 이번에 만월대에서도 강진·부안 제작 청자들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강진, 부안이 고려 왕실과 중국 황실에서 사용된 도자기를 납품했던 당대 최고품질의 청자 생산지였음을 확인하게 됨.
-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함. 현재로서는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긴급발굴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국제관례대로 남북 간에 중장기사업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인력, 재정, 현장 접근성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전면 발굴 단계로 이행해야 할 것임.



그림 7.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청자)

(9)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10년 3월 23일~6월 10일까지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기간 중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여, 당초 남북조사단이 합의했던 6월 10일까지 공동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남측 조사단은 5월 18일 긴급철수 하였고, 북측 조사단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복토와 원상회복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단 구성을 보면, 남측에서는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윤형준(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등 10명, 북측 참가자는 류충성(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김해일(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등 전문가와 인부 등 총 55명이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가 4차에 접어들면서 남북 간의 협력체계도 심화되었고 쌍방의 사업 의지도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측도 해마다 사업 합의를 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매해 정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연차사업합의서에 서명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남북조사단 간에 협력체계가 심화되어 공동발굴조사가 심화되고 있던 즈음에 불행히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 발생 이후 4~5월 중에는 공동발굴조사는 근근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남측조사단에 대해 언제라도 철수 명령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불안한 상황 진행 속에서도 남북조사단이 지혜를 모아 만월대 4차 공동발굴조사가 실시된 5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조사 성과를 창출해낸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4차 공동발굴조사 대상은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지구 '가' 건물지군 남측지역이었고, 조사내용은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지구 '가' 건물지군 남측 구역 남북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유구 보존 처리와 기록 등이었다. 이밖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 개성역사유적 보수 관리를 위한 남북전문가 간의 협의도 이루어졌다.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는 다음과 같다.⁸⁾

○ 토층조사를 통해 만월대 궁궐 전체시기에 걸친 유구·유물을 확인.

- 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만월대 궁궐의 건물 배치와는 다른 선행 유구의 존재를 확인.
- 건물지 하부에서 확인된 선행 건물지의 층위 관계로 볼 때 3차례에 걸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유구의 변화와 더불어 출토 유물에서도 상대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연 지세를 활용한 만월대 궁궐의 축조 양상 파악

- 기존 고려 궁성의 건축적인 특징인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건물의 배치 양상이 토층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됨.
- 고려궁성의 건물 배치는 최초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건물군과 건물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10) 개성 만월대 유적 남북공동 안전진단 및 복구·보존사업

2011년 11월 14일~12월 23일 사이 개성 만월대에 대한 안전진단사업과 수해복구보존사업이 실시되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인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역시 중단 상태였으

8) 「개성 고려궁성유적 4차 발굴조사 결과보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 2010년, 11쪽.

나 2011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5.24조치 유연화 적용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7월 여름철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개성 만월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복구사업 기간 중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남측조사단은 12월 20일 긴급철수하고 북측 조사단은 23일까지 현장에 남아 복토와 발굴현장 정리 등 뒷수습을 담당하였다.

수해복구보존사업 남측 조사단은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윤형준(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등 10명, 북측 조사단은 류충성(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김해일(조선중앙력사박물관 유적발굴대) 등 전문가와 인부를 포함하여 총 55명으로 구성되었다.

개성 만월대에 대한 안전진단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심건축군 서편 축대와 서부건축군 건물지(33,000㎡)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 자연 풍화와 석축 하중에 의해 석재 손상 심화.
- 석축에 '배부름' 현상 2개 소, 상부 지표면에서 침하 흔적 나타남.
- 향후 장마나 집중호우의 영향을 급격히 받게 되면 석축 변형이 심화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건물지의 기존 발굴조사 지역 대부분에서 토사 유실, 유구 노출 교란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함.
- 특히 만월대 전역의 건물지 아래에 바둑판 모양으로 위치한 배수로 지붕돌들이 교란되어, 내부 벽석 노출로 배수로 전체의 붕괴 가능성이 우려됨.

안전진단 이후 개성 만월대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보존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성 만월대 중앙축대 서편 석축 상부 표토층에 흙을 비스듬히 쌓아올려 덮개를 만들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빗물 유입을 차단함.
- 만월대 석축 이격 공간에 완충재를 보강한 후 단절 구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급격한 변형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함.
-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건물지 내의 이탈된 배수로 지붕석을 원상회복하여 붕괴 위험 요소를 제지함.
- 1~4차 발굴조사구간에 대한 복토 등 추가 보존조치를 실시함(긴급철수로 완료 못함).

한편 2011년 수해 복구 보존 조사 중 새로운 유적·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후 관계가 확인되는 건물지 8-9동 확인
- 축대 주변에서 명문기와 및 유물 1,500여점 수습
- 완형 철정(鐵鼎) 2점 출토

2011년 개성 만월대 복구보존조사 중 남측 조사단이 긴급철수 함에 따라 만월대 서부건축군 기존 발굴지역 복토 작업이 70-80% 미결되어 향후 완결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 만월대 서편 축대의 임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긴급복구조사

가 실시된 30일 간 시행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복구보존조치만 실시했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축대 하부를 노출시켜 석축 조성기법을 파악한 후 상부 정비 방안을 남북 합의로 수립해야 하는데, 그 방법론으로 전면 해체 수리, 현 구조 활용 지지(철골 보완)와 일부 수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자산 교류협력 분야에서 분단 이후 개성을 포함하여 남북한 전역에서 진행된 교류협력 사업 사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문화자산 관련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사례⁹⁾

형태	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영상물 제작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촬영	1998. 4	- 남측 MBC와 북측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합작. - MBC 촬영팀이 백두산 촬영.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촬영	1998. 8	- 남측 스포츠아트와 북측 아태 합작. - SBS에서 '평양리포트'로 방영.
학술 회의	제1회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	1993. 8. 11~14	- 중국 집안에서 개최. - 최초의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 북측 박시형(김일성대학 원로교수) 참석.
	동아시아 원시·고대문명의 재발견 학술회의	1994. 8. 4~6	-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에서 개최. - 고조선과 고대국가에 대해 남북 역사학자들 발표.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1997. 7. 20~21	- 일본 학습원대학에서 개최. -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남·북·중·일 학자 발표.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토론회	2002. 1. 3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 발표된 논문을 학술지 『단군학연구』에 게재.
	제2차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토론회	2003. 10. 2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 학술토론 후 단군릉, 동명왕릉에 대해 답사.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토론회	2004. 2. 24~28	-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최.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보내는 편지 채택.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토론회	2004. 9. 11~12	- 금강산에서 개최. - 북측에서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간접 비판함.
	남북러 3국 공동학술회의	2005. 2. 24~25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 발표문을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으로 출판.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토론회	2005. 11. 18~21	- 개성 자남산리관에서 개최. - 토론회 이후 개성에 산재한 문화유적 답사.
발굴 복원 사업	신계사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	2004~2007	- 현대아산, 조계종, 아태간 금강산 문화유적 복구 협약 맺음. - 6·25전쟁 때 소실된 전각을 발굴, 서례, 건축에 이르기까지 복원.
	개성공단 지표조사 후 시굴 발굴조사	2004. 6. 24~7. 31	- 개성공단 1단계 부지에서 시행. - 조사 결과 주거지, 건물지, 묘 등 조사.

9)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연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147~149쪽.

형태	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발굴 복원 사업	북한사찰건축문화재 실측조사	2004~2009	- 황해도 지역에 산재한 국보, 보물급 사찰 실측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까지 4권의 책으로 조 사보고서 출간.
	안학궁 발굴조사	2006. 4. 8~19	- 안학궁 성벽, 건물지, 고분, 유물 조사. -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출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만월대 발굴 조사	2007. 5. 15~7. 13	- 개성 만월대 회경전 서편 지역에 대한 시술. - 20여 동에 이르는 건물지 확인, 축대·배수로· 석교 등 확인.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 재를 위한 개성 만월 대 긴급발굴조사	2007. 9. 9~11. 13	- 일곽 건물지군의 독특한 배치 구조 확인. - 2자형 건물 평면 확인. - 명문기와 등 총 400여 점의 다종다양 유물 확인.
	2차년도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2008. 11. 4~12. 23	- 만월대 서부건축군 경령전 구역 3,000㎡를 남북 구분없이 공동 발굴. - 1천여 점의 유물 발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만월대 발굴 조사	2010. 3. 23~6. 10	- 만월대 서부건축군 '가' 건물지군 공동조사.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 고분 보존사업	2007. 5. 30~6. 9	- 진파리 1호분과 4호분 보존처리. - 환경측정 장비 설치, 안료 특성 파악, 변화 손상도 면 제작, 표면 오염물질 제거 등 작업 수행.
	만월대 출토유물 보존 관리 사업	2009. 2. 24~3. 5	- 만월대 출토유물 3D 및 사진촬영.
	개성 만월대 유적 안 전진단 및 수해피해 유적 복구사업	2011. 11. 4~11. 23	- 개성 만월대 서편 축대 안전진단. - 축대 주변에서 명문기와 및 유물 1,500여점 수습. - 완형 철정 2점 출토.
전시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2002. 12. 6~2003. 3. 5	- 코엑스 특별전시관에서 전시. - 311점 전시, 벽화모사도는 일본 조선대학교 박물관 관 소장 자료를 전시.
	우리의 땅, 살아오는 고구려	2004. 4. 9~6. 20	- 한솔동의보감 컨벤션 홀에서 개최. - 고구려 벽화고분모형도 등 227점 전시.
	고구려고분군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회	2004. 10. 25~12. 5	- 여의도 공원, 국회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고려 대학교, 낙성대공원, 대전 엑스포 공원 순회전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측 벽 화고분 사진 63점 야외 전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조국광복 60돌 고구려유물 전시회	2005. 5. 7~8. 31.	- 54점의 북측 소장 진품 유물 전시. - 54점 중 15점은 국보급 유물.
	북녘의 문화유산-평 양에서 온 국보들	2006. 6. 13~10. 26	- 전시품 중 70점을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대여. - 전시회 후 도록 『북녘의 문화유산』 출간.
도서출판 및 북측 문화 유산현황조사	중앙일보 북한문화유 적 답사	1997. 10	- 11박 12일간 북측 문화유산 답사. - 결과물로 유홍준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출간.
	북한 문화재 자료 정 보화사업	1998	- 경향신문과 아태가 '문화재 자료교육계약' 맺음. - 1만여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형태	사업명	일시	사업내용
도서출판 및 북측 문화유산현황조사	개성공단 지표조사	2004. 4. 20~5. 6	- 개성공단 1단계 부지에서 각종 유물 수집 및 분묘 확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학술조사	2005. 7. 20~29.	- 평양 및 안악일대 고분 조사. - 대성산성, 평양성, 백두산 정계비 등 답사.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2006. 4. 19~5. 2	- 평양 및 인근지역 고구려고분군 조사. - 유네스코 등록 고분의 실제 보존환경 및 상태에 대한 조사 분석.
	조선향토대백과 편찬	2008~2009	- 북측 각 지방을 총 망라하여 자연지리정보와 인문지리정보 수록. - 『조선향토대백과』(전 20권)으로 출간.
문화재 반환	북관대첩비 반환	2006. 3. 23	- 2005년 10월 북관대첩비 한국 도착 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에서 일반에 공개. - 2006년 3월 23일 원래 자리인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동에 다시 세워짐.

3. 개성 지역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의 특징과 과제

1) 개성 지역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의 특징(평양 대비)

남북 간에 개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진행된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인 2003년 말부터 대한불교 천태종에 의한 영통사 복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는 순수 문화자산 교류라기 보다는 종교 교류 내지 불교문화재 교류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넓은 의미에서 남북 간의 문화교류의 시초는 1985년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진 '예술단 교환공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오랜 단절기를 거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이후 평양을 기반으로 한 남북문화교류는 다시 재개되어 2000년 6·15 행사 이후에는 상당한 양적 확대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개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가 2004년에야 시작된 것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남쪽의 입장에서 보면 평양보다는 개성이 지리적으로도 서울에서 가깝고 6.25이전에도 남쪽 지역이었던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해 훨씬 접근하기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북측 입장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개성은 서부 전선의 최전방 주요 군사도시라 할 수 있고, 평양에 비해 남북 교류의 무대로 되기가 훨씬 어려운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천태종의 영통사 복원 불사 지원도 남북 간에 개성관광이 합의된 데 따른 성과라 할 수 있겠고, 2004년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역시 개성공단 건설이라는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기에 실현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이처럼 개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는 남북 대치의 최전방 군사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

양을 중심으로 한 그것에 비해 시작은 늦었으나, 일단 시작된 이후에는 평양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에 비해서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라는 면에서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특징을 보였다.

물론 개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 역시 '문화유산 복원 지원', '지표조사', '개성문화재 관련 학술회의' 등 일회성 교류 행사로 시작했으나, 그 같은 행사들도 분단 상황에서 볼 때 성사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 동시에, 남북 쌍방이 그 같은 일회성 행사를 기반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등의 장기사업에 합의해 5년여에 걸쳐 꾸준히 공동사업을 진행한 것은 상호 이해와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자산 교류 차원에서도 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에서는 남북교류의 일회적 이벤트적 행사 위주의 한계를 탈피하여 사업의 지속화·정례화·제도화 등 교류의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 같은 진전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개성 만월대 지역의 배후에 남북협력지구인 개성공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측 인원이 북측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평양 방문 시 남측 인원의 체류 기간은 통상 1~2주 이내로 국한된다. 문화자산 교류의 경우 이 같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의 경우 남측조사단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면서 만월대로 출퇴근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 매 조사 때마다 40~75일까지의 공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남측 조사단의 숙소가 개성공단에 있기 때문에 사업방향에 대한 본부의 지휘를 받기도 원활하여 북측지역에 장기 체류하면서도 고립감 없이 조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고, 필요시 인력과 장비의 추가 공급도 신속히 이루어져 조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개성 지역의 특징에 힘입어 장기적인 남북공동작업이 진행되면서 조사단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져 조사방식, 체계 등에서도 어느 일방의 방식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제도화가 이루어져 나갔고, 이 연장선상에서 북측도 남북교류사업을 진마다 일일이 사업기간을 특정해 합의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의 경우 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개성 기반의 문화자산 교류에서의 조사의 질적 성과의 축적은 향후 전체 문화자산 교류협력 확대의 풍요로운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강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전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었다. 대북정책 재검토의 결과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중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만이 계속 추진을 허가받았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경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던 배경이 컸다고 한다면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의 경우는 우선 역사 문화재 분야 교류가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성격이 강하고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은 분야라는 평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의 무대가 개성공단과 인접한 개성지역이라는 점도 사업이 계속 추진을 승인 받은 무시 못 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남측 조사단이 개성공단 지역에 체류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염려하는 신변안전 보장의 우려가 평양 지역에 비해 적다는 점과 개성 지역 자체가 평양에 비해 정치성이 적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고려의 옛 수도 개성이라는 등의 역사문화적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발발로 모든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다는 5·24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도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5·24조치 적용의 유연화 확대로

201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성 만월대에 대한 수해복구조사 사업이 실시되는 등 극히 일부의 사회문화교류가 재개되었다.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가 이처럼 5.24조치 유연화 확대의 대상으로 재개될 수 있었던 첫 역시 문화자산 교류의 비정치적 성격과 개성 지역을 교류사업의 무대로 한다는 강점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남북 민간교류에서 가장 큰 한계가 남북 간 정세 변화에 따라 사업의 부침이 잦다는 점이라 한다면 개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남북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전체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 중 가장 큰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성지역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의 한계와 과제

(1) 정치·군사적 정세 변화로부터 교류협력의 안정성 확보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간 정치·군사적 정세 변동에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개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 역시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남북관계 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역시 2007년 착수 후 2013년 현재 7년차를 맞이했으나, 2012년 이후 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착수 시 2007~2012년 간 5개년 계획으로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중 33,000㎡를 발굴조사 대상으로 잡았으나, 2011년까지 10,000㎡ 내외를 발굴 조사하는데 그쳤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정세 변동에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과 같은 비정치적, 민족적 성격의 교류협력은 예외 조치를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교류협력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문화자산 교류의 특성상 일회적 사업으로는 특기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과 관련해, 남북 당국 간에 제도화된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13년 8월 남북 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합의와 유사한 남북 당국 간 협약으로 남북문화재 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행상의 리스크 테이킹 장치를 마련해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남북 문화재 협력 성과의 체계적 축적과 장기 비전 제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이 최초로 시동되었던 2004년 전후에는 분단 60여 년간 접하지 못했던 북한 문화재를 남쪽에서 전시한다든지, 남측 문화재 전문가들이 북한 문화재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학계의 큰 호응과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 문화재교류협력의 역사가 10년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일회적 이벤트적 행사 위주에서 한 발 나아가 '학술적 성과' 도출과 축적, 성과의 국민적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회적 이벤트적 행사로는 이 같은 학술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관계 정세변화에서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류 주제 내에서도 개성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하에 단계별로 가능한 다양한 교류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과제로 제시된다.

(3) 남북 문화재협력 사업 관련 민관협력체제 구조화

현재 개성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은 민간 주도, 중앙·지방 정부 후원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개성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에 관련되는 통일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 개성 문화자산 남북 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인천시 등 지방정부, 여타 민간기관과 단체들 간에 중복사업이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 당국 간에 기왕에 합의되어 있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가동되는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도,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분야 전반에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4. 개성 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1) 교류 협력의 단계 설정과 단계별 추진 전략

개성 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계속 그 영향을 받으며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류협력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남북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 설정한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화해협력기/남북연합기/통일국가 완성기)를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의 내용을 단기적으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단계 화해협력기와 2단계 남북연합기 과정에 집중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화해협력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전략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기는 현재 우리가 그 과정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2단계인 남북연합기까지 가는 긴 과정에서 분수령이 되는 핵심적인 관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즉 화해협력기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을 분수령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고 각 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지므로 화해협력기를 '화해협력기 전기'와 '화해협력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화해협력기 전기

화해협력기는 남북관계가 냉전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길게 볼 때 지난 1990년대 초반 남북 간에 고위급회담이 시작되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즈음을 전후하여 화해협력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90년대 초반 시작된 화해협력기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된 북핵 문제가 남북당국 간은 물론 민간교류협력의 진전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화해협력기는 북핵

문제 해결을 분수령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가능한 화해협력을 위한 민간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기 전기는 남북 당국 간 관계에서 6·15선언이나 10·4선언과 같은 큰 진전을 보이는가 하면,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같은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시시때때로 고조되기도 하는 등, 화해와 대결 국면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시기다. 민간교류협력 사업 역시 이 같은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자율성을 갖기 어렵고, 그 결과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성이나 정기성을 갖기 어려워, 일회적·이벤트적 행사 개최라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화해협력기 전기의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 공히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대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교류의 기반 조성 과 확대, 상호 이해 증진에 힘써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개성 지역은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개성은 고려의 황도로서 500년 고려사의 풍부한 역사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6.25전쟁 이전까지 남측 지역에 속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친근감이 높다. 아울러 2013년 7월 그 주요 핵심 유적이 개성역사지구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어, 민족적 차원 뿐 만 아니라 인류사적 차원에서도 남북이 힘을 합쳐 연구 보존해야 할 역사유산으로 평가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성 지역을 기반으로 남북이 펼칠 수 있는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문화재 발굴, 보존, 수리, 복원, 정비, 관리, 활용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일회적 행사나 이벤트적 접근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남북 간의 정치·군사 정세 변화에 따라 시시때때로 긴장이 고조되는 화해협력기 전기의 특성상 협력사업의 지속성이나 정례화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로 북한 지역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남북공동조사 작업인 개성공단 예정부지에 대한 지표 조사는 2004년 실시된 후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다.

그러나 개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 중에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일회적, 이벤트적 행사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즉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그에 따른 5.24조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11년까지 중단 없이 매년 계속 실시되었다.

이는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이 갖는 비정치적·문화적 성격 덕분임과 동시에 사업의 소재지가 북의 수도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이 위치한 개성 지역이라는 지역적 강점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역시 2007년 사업 초기부터 지속성이나 정례화가 담보되었던 것은 아니다. 남북 조사단 공히, 600년 전에 화재로 소실된 고려 황궁의 옛 터인 만월대 지하에 유적 유구가 의미 있게 보존되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첫 해 발굴조사는 발굴 대상인 서부건축군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고려사 연구의 핵심이자 개성역사유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만월대 유적·유구가 교란이나 훼손 없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힘을 받기 시작했다. 남북 간의 합의로 2007년 봄의 시굴조사에 이어 가을에 예정에 없던 긴급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공동발굴조사가 연례화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 사례는 개성지역 문화자산 협력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우선 그 대상을 남북 공히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비교적 훼손 교란 없이 원형이 잘 남아있는 역사유적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된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조치에 따라 여타 다른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여타의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이 중지된 것과 달리 2008년 11월 협력사업이 재승인되어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 배경은 우선 남북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문화재 협력사업이라는 성격에 기인한 바 크고, 국내외 학계에서도 사업의 의의를 인정하는 고려 황궁 터에 대한 발굴조사는 평가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보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는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 재검토 조치의 결과 지속 존치된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만월대 사업에 비해 몇 배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특별법으로 그 시행이 강제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 재검토 조치에 즈음하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학계, 언론계, 국회 등지에서 끊임없이 이를 정부에 권고해준 것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여론을 조성해 낸 것은 사업 주체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측의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의 결과이므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있어 사업 주체의 강력한 의지가 결정적인 측면이라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당국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고조 국면이 시시때때로 도래하는 화해협력기 전기에도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의 특성과 추진 주체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지속적·상설적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속적 상설적 단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특정 개별 사업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 전반이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면 통일부 차원에서도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을 전체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 속에서도 중점 전략사업으로 배치하여 확대 발전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민간교류가 정치정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화해협력기 전기의 현실에서, 이 같은 환경 조성 and 제도화는 비현실적인 과제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모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중지하는 5·24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 만든 예외로 했던 과정을 보면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 치부할 수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간 군사긴장이 격화되면서 개성공단 역시 일시적인 중단 상태를 겪었지만, 현재 남북 당국이 "정치정세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발전시킨다."는 합의서를 채택하고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의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만큼 중요한, 민족적 정체성과 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특징을 부각시켜 정책당국을 설득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도 정치정세 악화 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예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 간에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채택한다면, 개성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불안정한 화해협력기 전기에도 안정성을 획득하여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1886년 문화교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예술, 관광, 체육, 언론, 도서관, 언어, 문화재, 저작권 등 문화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일괄협정으로

서 문화협정¹⁰⁾을 맺었지만, 남·북한의 오늘의 현실에서 이 같은 포괄적인 문화협정 체결은 화해협력기 전기에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포괄적인 문화협정은 화해협력기 후기로 미루고, 전기에서는 우선 남북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 합의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일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현재 남북간의 교류협력 현황을 볼 때 여러 문화 분야 중 가장 그 가능성이 큰 분야가 문화재 분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더 큰 합의로 나아가자는 점진적 접근이다.¹¹⁾ 특히 박근혜 정부의 남북문화교류 공약에는 '북한 문화유산 복원 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 DB구축'¹²⁾이 포함되어 있고, 2013년 통일부의 국정과제에도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제하에 '문화 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에 역점',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¹³⁾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개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을 박근혜 정부 사회문화교류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류길재 장관은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은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¹⁴⁾ 현 시점에서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위 두 개 사업에 대한 우선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 추진 사업 대상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서 '개성 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으로 넓혀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보다 여러 면에서 교류협력의 성과를 내기가 용이한 개성 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이 중점 추진되기 시작하면 이는 여타 지역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도 추동력으로 역할할 수 있다.

② 화해협력기 후기

화해협력기 후기라 현재로부터 몇 년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화해협력기 전기에서 가장 큰 남북 간의 갈등요인이었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수순으로 접어들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현재 6자회담 재개 등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 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 그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하면서 화해협력기 후기에 추진 가능한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의 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화해협력기 후기로 접어들면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북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남북경협이 본격화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 간의 상호군축으로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소멸됨에 따라 북한이 화해협력기 전기 때와는 달리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이 시기의 문화적 과제를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통일에 대비한 남북 주민의 공동

10) 동서독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1986년 '문화협정'을 체결했고, 1987년 11월에 실질적인 문화 교환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동서독은 재반 예술 문자와 학술 및 출판 교류, 박물관 교류 등으로 문화교류의 폭을 대폭 넓혔다(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평화통일』, 2005. 이우영 외, 『화해·협력과 평화변명, 그리고 통일』, 한울아카데미, 2005, 367쪽).

1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부, 2013.

12) 박근혜 후보 공약집 『새상을 바꾸는 약속』, 2012년, 367쪽.

13) 『통일부 업무보고』, 2013년.

14) 2013년 11월 1일 정기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청의화 의원(새누리당) 질의에 대한 류길재 장관 답변.

체 의식 함양과 통일 문화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사회문화적 통일은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던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남북연합기를 바라보면서 화해협력기 후기에 사회문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장 유력한 수단은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라 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그를 위해 사회문화 분야의 당국 간 대화도 정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해협력기 전기에서 정치·군사적 정세 부침이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하게 달성되지 못했던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의 제도화·정례화라는 과제가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정례화되고 '남북문화협정' 등의 체결이 가능해지는 환경에서, 문화자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더한층 진전을 도모할 수 있다. 화해협력기 전기에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비정치적 민족적 특성에 힘입어 남북 간에 '문화자산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이미 채택했다면, 그 합의서를 더욱 발전시켜, 이 시기에 포괄적으로 맺어질 문화협정의 내용 속에서 더욱 구체화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 위에서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 역시 제도화와 정례화는 물론, 남북 공동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다음으로 도래할 남북연합기(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하면 남북 정부가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고, 이를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 발효함에 따라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¹⁵⁾에 대비해 남북한 민족공동문화자산의 체계적 조사·보존·활용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간 통합 DB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자산 연구 보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비·기술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연합기에 대비해 남북한의 문화자산 관련 법령·제도의 비교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문화자산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달성돼야 할 목표를 내용적으로 살펴본다면,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수렴·공존을 모색하고 '정치적 차이'는 완화하는 방법론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여기에서 '문화적 차이'란, 예를 들어 고고학 용어에서 북측이 '돌곽 무덤'이라 표기하는 것을 남측에서는 '석실 고분'(남)이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단순 표기상의 차이를 의미한다. 반면 '정치적 차이'란 북측이 민족사에서 고려·고구려를 중시하는 사관에 비해 남측에서는 조선·신라를 중시하는 것과 같이, 상호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치적 적대성이 내재된 차이를 의미한다. 아직 남북통일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화해협력기 후기에서는 남북 간의 적대적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는 수렴·공존하고 적대적 차이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보면 남북 간의 역사인식 속에 존재하는 문화적·정치적 차이를 수렴·완화하여 장차 도래할 남북연합기에 남북 간의 정치체제적 연합 만이 아니라 '역사인식에서의 연합'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남북연합기를 대비해 남한 국민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15)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통일연구원, 2005, 94~95쪽.

16) 정태현,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정책 대안』,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012년 여름, 317쪽.

문화자산 협력사업을 활용해 상대에 대한 이해력·포용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남북연합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전략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하면 남북 정부가 남북연합현장을 공동 채택하고, 이를 각기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 발효시킴에 따라 한반도는 남북연합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완성이 아니라 첫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화해협력기 후기에서는 남북의 각 정부가 평화공존을 모색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례적인 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을 추구했다면, 남북연합기에서는 통일의 첫 단계라는 위상에 걸맞게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 등의 기구가 상설화·정례화 되면서 남과 북이 실질적 통합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즉, 남과 북 정부는 남북연합 과정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각자 고유의 기구나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기구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등이 바로 그것인데, 문화자산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남북 공동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사업도 신설될 남북공동기구가 주관하여 남북 문화재 통합관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 역시 남북공동기구에 의해 본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보면 '남북연합기'는 남북 간의 역사인식에서 정치적 차이의 적대성을 완화시켜 상호 인정과 공존을 모색하여 공동역사 개설서를 집필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단계이다. 때문에 남북연합기에서도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그 중요한 수단으로서 본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세부 추진방안

(1) 화해협력기 전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세부 추진방안

화해협력기 전기는 북핵 문제의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과 긴장고조 사이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시기이고, 이에 따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도 가다 서다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적 남북협력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기적 특성도 존재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지난 1992년 남북 간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한 시점부터 이미 남북관계는 화해협력기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 정확치 않은 현 상황에서 화해협력기 전기가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시행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정리하고 그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하고자 한다.

화해협력기 전기는 그 단계의 특성상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대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우선 그간 시행하다 중단된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성사 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나아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교류협력 사업의 부분적인 상설화, 정례화를 모색하고, 남북 당국 간 합의로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하에서 화해협력기 전기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아이템과 추진 방안을 각 사업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보존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성 문화자산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지난 2007~2012년 간 1차 5개년 사업이 실시되었고, 2차 5개년(2013~2017) 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단계다. 1차 5개년 사업 기간 동안의 문제점이라면 부족한 연중 발굴조사 일수,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중단과 재개의 반복, 발굴 대상 유적에 대한 보존처리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연중 발굴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발굴조사가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던 중에, 2012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그나마 발굴조사가 전면 중단돼, 만월대 유적의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공동 발굴조사 중단이 장기화될 시, 개성 만월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황에서 북측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등에 대비해, 남북공동발굴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 단독이라도 발굴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 되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북측의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향후 남북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조속한 재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발굴조사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문화재 파괴를 수반하는데, 1차 5개년 계획 동안 발굴조사 일수와 예산의 부족으로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만 시행되었고, 발굴 대상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가 미흡해 북측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차 5개년 기간 중에는 제반 여건을 보완해 발굴조사와 유적 보존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개성 만월대 회경전 영역 계단

아울러 발굴조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출토 유물·유적 기획(사진) 전시회와 남북공동학술대회 개최, DB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월대 유적에 대한 중장기 발굴·보존·복원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만월대 발굴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월대 전체 전각에 대한 복원 논의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발굴조사 결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면, 일부 유적들에 대한 복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려 궁성에 존재하는 여러 문들 중, 문루는 없어졌으나 홍예가 남아 있는 놀리문·북창문 등의 복원은 발굴조사가 빠른 시기 안에 실시된다면 그 성과에 따라 복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밖에 2차 5개년 계획 중 발굴조사와 함께 요청되는 사업으로는 주변 지역 지표조사 추진, 궁궐·성곽 현상 기록, 만월대 중심건축군 관람용 생태계단 설치, 만월대 발굴유물 전시관 건립, 3D 복원 관람시설 구축 등을 들 수 있겠다.

② 개성 민속거리 한옥 남북공동 보존사업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연구원)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개성 지역의 전통가옥에 대한 학술조사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⁸⁾ 남북관계 악화로 2012년에는 기초연구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 들어 복측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성 지역은 고려의 황도로서 갖는 중세적 전통을 바탕으로 이후 시대의 전통 한옥과 근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그 보전가치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역사지구'의 한 유적으로 추가 등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개성한옥군락

17)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 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205~206쪽.

18)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보고서』 1부 사업보고,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2, 15쪽.

그런데 개성 민속거리 한옥군은 현재 주민들이 실제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남북공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할 때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측조사단의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북측이 개성 민속거리 한옥 주민 전체에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조사대상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다. 예를 들어 개성한옥 지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출입을 허가하고 있는 건축물인 '민속려관'(북측은 개성한옥 지구의 한옥군들 중 일부 한옥군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속여관으로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음)을 조사 첫 단계의 접근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실측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여타 한옥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북측과 협의해 보는 것이다. 1단계에서 민속려관 실측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북조사단 간에 상호 신뢰가 쌓여 남북이 공동으로 민속려관 건너편에 위치한 북한 주민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려우면 민속려관 실측조사 사업 기간 중 북측 전문가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남측 조사단이 작성한 실측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③ 개성 주요 건축문화재 남북공동 실측조사

문화재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형 보존의 실측도면인데 북한에는 문화재에 대한 실측도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남한과 같은 정밀실측 개념이 북한에는 정립되어있지 않고, 훈련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기본 도면 작성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⁹⁾ 과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국 측 중개인을 통해 북한 문화보존지도국 산하 문화보존사, 평양 건재대학 전문 인력에 의뢰하여 북한 소재 국보 및 보물급 사찰 건축문화재 31동에 대한 실측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로 총 4권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남측의 조사방법 및 기술을 전파하여 북측 인력의 도면 작성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북한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측조사 진행 형태로, 실측조사 대상을 개성 지역에 소재하는 관아와 서원 및 향교, 사묘, 누정, 주택 등의 목조건축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석조건축과 근대건축 분야까지 확장하여 지속적인 남북공동 실측조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성지역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민가 등 일반건축은 급격히 소멸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측조사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④ 개성 유형문화재 남북공동 수리·복원사업

개성 지역에는 많은 유형의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많은 수의 문화재가 수리·복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화재 소재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군사지역 등 개성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남측 인원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북측은 남북공동사업단이 참가하는 공동 수리보다는 북측사업단이 수리·복원을 진행하고 남쪽에서 자재와 예산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우선 문화재 수리·복원 자재 등을 지원하면서 남측 인원들은 그 모니터링 형식으로 현장을 방문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남측 인원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의 문화재 수리·복원 현장에 남한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보여준다면, 남북공동 수리·복원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160쪽.

⑤ 개풍군 조선왕릉 남북공동 발굴 보존 조사

개성에는 제릉(태조 왕비릉)과 후릉(정종과 왕비릉) 등 조선왕릉 2기가 개풍군에 소재하고 있다.

남한에 소재한 조선왕릉 40기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총 42기의 조선왕릉 중 북한 지역에 위치한 2기의 왕릉만이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개풍군에 소재한 제릉과 후릉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와 보존 사업을 통해 조선왕릉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보존관리조치를 취해 세계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사업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조선왕릉은 조선 연구에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전주이씨 종친회 등 여론의 반대로 조선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는 전혀 실시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북측 소재 조선왕릉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가능하다면 이 분야에 대한 귀중한 연구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측과 이 사업의 실시를 협의했으나 일단 보류된 바 있다. 제릉과 후릉 인근에 인가가 없어서 접근성 문제는 아니었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이제 막 시작했으니 그 사업에서 먼저 성과를 낸 후에 순차적으로 착수하자는 의견이었다.

북측에 존재하는 조선왕릉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발굴조사에 대한 남측 내부의 반대 여론이 클 경우, 북측 조사단이 발굴하고 남측 학계가 참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⑥ 공민왕릉 보존과 벽화 관람시설 설치

공민왕릉은 한반도에 현존하는 왕릉 중 가장 아름다운 왕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 소재한 다른 중요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공민왕릉도 여러 가지 수리 보존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석조 구조물 부식 방지 처리, 탑·비석 보존시설 설치, 봉분 분열 대보수, 배후수림 정리·방제, 방문객 안내소 건립, 진입로 확대포장 등의 보존 사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민왕릉 내부 벽화는 뛰어난 화가였던 공민왕이 직접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적 관심이 높으나 왕릉 내부로 들어가는 연도가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관람이 불가능하다.

남북이 협력하여 왕릉 내부에 내시경 촬영기를 설치하고 촬영 화면 관람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한다면, 벽화 보존과 관광자원화 모두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성관광이 재개되는 수준의 남북정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민왕이 그린 벽화가 내시경 촬영으로 공개된다는 면에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왕릉 내부에 내시경 촬영기를 설치하고 촬영 화면 관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왕릉 일부를 개방하는 공사가 필요하므로 북측의 이해와 우리 정부의 관련물자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 공민왕릉의 문화적 가치와 국민적 관심도 등을 볼 때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남북 양 정부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0)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208쪽).

⑦ 개성 불교 문화재 종합조사

불교 국가 고려의 옛 도읍인 개성 전역에는 광범한 불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이 같은 불교 문화재 현황에 대한 종합조사와 관리 보존 복원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불교 문화재 조사에서 가장 큰 장애는 문화재가 개성 외곽은 물론 개성 시내 곳곳에도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북측과 합의 가능한 외곽 지역부터 조사하여 신뢰를 쌓은 후 대상 지역을 인구밀집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복원에 대해 남북 간에 일정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남쪽 내부에서도 학계와 불교계 간에 일정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학계와 달리 불교계에서는 불교 문화재를 종교시설로 보는 측면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 불교 문화재 조사와 보존 사업 추진에서는 정부, 학계, 불교계가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불교문화재 조사 사업에서 ‘문화재’ 관리·보존·복원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교 문화재 조사와 복원 이후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 문화재 복원 후 남북 사찰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불교계의 자체 관리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초기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⑧ 개성-경기도 박물관 교류 협력

현재 개성시에는 별도의 박물관 건물의 부재로 국보 유적 성균관이 개성고려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균관 자체의 훼손과 진열 유물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성박물관의 신규 건립으로 개성 소재 고려 유물을 종합 보존하고 국보 유적 성균관을 원형대로 보수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화해협력기 전기에 가능한 박물관 교류 방안을 살펴본다면 ‘유물 보존처리 기술 교류협력’과 ‘개성 문화재의 경기도 순회 전시’ 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개성고려박물관(성균관)에 진열되어 있는 유물의 상태를 볼 때 개성박물관-경기도 박물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유물 보존처리 기술의 전수와 기자재 약품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물관 진열·조명 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전시·관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자재와 기술의 전수도 필요하다. 현재 북측이 사용하는 질소아르곤가스 충전법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전시·관람시설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성에 있는 민족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물 보존처리 기술지원 및 전시 관람시설 개선을 통해 개성-경기도 박물관 간의 신뢰를 쌓은 후 개성고려박물관 소장 문화재들의 경기도 순회 전시를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 소재 문화재들이 한국에서 몇 차례 순회 전시되었는데 주로 시대사별 전시가 진행되었으므로 개성고려박물관 소장 문화재 전시는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적 특징을 살려 진행해볼 만한 전시라 할 수 있다.

⑨ 개성 고려문화 관광

개성 지역은 만월대·고려박물관·송양서원 등 정몽주 관련 자원, 왕건 왕릉·관음사 등 역사문화도시로



그림 10. 개성 남대문 전경



그림 11. 개성 민속거리 전경

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개성 민속거리 한옥마을·박연폭포 등도 활용 가능성이 높고, 판문점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구성하기도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가까워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한 단기 관광상품 운영이 용이하여 경기도 차원에서는 개성 고려문화관광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전시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개성 고려문화관광 작수를 위해서는 우선 금강산관광 재개가 우선되어야 하나, 북한의 금강산 관광 국제화에 따른 현대의 독점권 확인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개성 고려문화관광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성 고려문화관광이 재개된다면 과거와 같은 1일 관광 프로그램만으로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문화유산 관람에 몰려들어, 관람 편의 보장이 어렵고,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도 크기 때문에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1일·1박2일·2박3일 등으로 관광상품을 다양화하여 관광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3년 7월 개성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개성역사지구 내 관광개발에서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리에 따른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개성 만월대 관람을 위한 생태 계단 설치, 성군관 수리·복원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 유적의 보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⑩ 개성 고려문화 답사 수학여행

과거 서독 정부는 서독 청소년의 동독으로의 수학여행을 장려하여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실시했다. 이 결과 서독 청소년의 동독 방문 가운데 75%가 수학여행 형태였고, 나머지 25%는 동서독 청소년 단체나 협회 차원의 교류에 의한 방문이었다.

향후 개성 고려문화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개성 지역 역사유적을 답사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 지원으로 실시한다면 남북 청소년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박연폭포 전경

표 2. 정부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의 동독 수학여행 현황²¹⁾

년도	수학여행그룹별						총횟수 (총인원:명)
	대학생 그룹	%	청소년그룹	%	학생그룹	%	
1984	45	5.2	127	14.5	705	80.3	877 (22,000)
1985	34	3.5	160	16.7	709	73.8	961 (-)
1986	45	5.2	136	15.7	665	77.0	864 (22,551)
1987	64	5.7	171	15.2	889	79.1	1,124 (26,326)
1988	71	6.5	186	17.1	833	76.4	1,090 (26,812)
1989	62	5.8	189	17.8	811	76.4	1,062 (-)

① DMZ내 근대 문화재 남북공동 학술조사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DMZ)²²⁾가 설정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지난 40여 년간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고고학·천연기념물·식물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학술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 당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미군과 국방부의 승인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아울러 지뢰 매설 등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는 당장은 어려우나, 화해협력기 전기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조치 실현될 시에는, 우선 다리·건물 등 근대 건조물 남북공동 학술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대 건조물 남북공동 학술조사만이라도 선행된다면 그 조사 성과를 통해 DMZ 조사에 대한 국내 분위기 환기도 가능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도 청신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2) 화해협력기 후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세부 추진방안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간의 협상이 진전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를 화해협력기 후기로 규정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합의한다 해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 완전한 이행에 물리적으로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므로²³⁾, 현 정부 임기 내에 북핵 협상이 급진전된다 해도 2017년경 전후에 서야 화해협력기 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협력기 후기는 남북이 본격적인 평화공존의 시기로 접어들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북한은 그 동안의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각 분야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21)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원, 1993.

22) 『두산백과』, 『비무장지대』

23)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211쪽.

된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제도화·정례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개성 문화 자산 교류협력 역시 제도화·정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문화교류 각 분야를 포괄하는 ‘남북문화협정’의 체결이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앞서 화해협력기 전기에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합의서’가 이미 맺어져 있다면, 포괄적인 남북문화협정 체결이 가능해지는 이 시기에는 이미 체결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합의서’를 보다 체계화하여 문화협정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가동하는 등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특히 남북 역사인식 상의 문화적 차이는 수렴·공존을 모색하고 정치적 차이는 완화시키는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은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성과를 활용해 상대에 대한 이해력 및 포용력을 제고하는 대 국민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화해협력기 후기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아이템과 추진 방안을 각 사업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개성 문화재 남북공동 현황조사 및 DB구축

현황조사의 대상이 개성의 유·무형 지정문화재 및 일반 유적·유물을 총망라하므로 남북 공동 조사단이 개성 전역에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화해협력기 후기이지만 여전히 분단 상황에서 최전방 지대인 개성의 성격상 군사지역 등 일부 접근 불가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접근 가능지역부터 조사하여 신뢰를 쌓으면서, 사업을 장기화하여 접근 불가 지역까지 완료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문화재 지정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1차자료로서 개성 문화재 대상을 전수 조사하고 남측 내부에 공개할 때 현행 법령에 따라 재분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개성 문화재 남북공동 현황조사 추진 중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황조사 후 성과를 DB로 구축해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다가올 남북연합 이후 통일 시기에 남북의 국보문화재를 공동 지정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그 때를 대비한 기초조사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다.

② DMZ내 문화재 남북공동 종합조사

1953년 설치된 후 접근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는 그 성격상 역사학, 고고학, 식물학, 동물학 등 다양한 학제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개성 지역은 DMZ에 인접해 있는 곳이므로, DMZ내 문화재 남북공동종합조사 사업도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의 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물론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작업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매장문화재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해협력기 후기에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야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종합조사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간혀있는 태봉국 수도 유적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실시되면 이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고학, 천연기념물, 식물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DMZ 조사에 대한 국내 분위기 환기도 가능하다.

③ 벽란도 남북공동 수중 발굴조사

벽란도는 중세 동아시아의 국제도시 개성의 무역항으로, 개성 외곽을 흘러 한강 하구에서 서해로 흘러드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들었던 국제무역항 벽란도—예성강 하구를 수중 발굴조사 하면 당시 벽란도 인근에서 좌초한 세계 각국의 무역선과 유물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수중 발굴조사의 성격상 그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남측 조사팀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벽란도 인근 수역에 대한 접근성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단 평화협정 체결 전이라도 화해협력기 후기에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진전되면 그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실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중 발굴조사 작업의 과정과 기술,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벽란도 남북공동 수중 발굴조사는 민간차원만으로는 어렵고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개성시 개풍군 선사 유적 남북공동 발굴조사

남한의 경우 영종도에서 최근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다수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개성시 개풍군의 인근인 황해남도 배천군·연안군에서 다수의 선사유적이 발굴되었으므로 인접한 개성시 개풍군에서도 선사유적의 출토 가능성이 크다.

⑤ 개성 유형문화재 공동 수리·복원

현재 개성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유형 문화재가 수리·복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 문화재의 수리·보수 현장에 남북한의 최고 장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리한다면, 민족문화재 보존이란 측면에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며, 이렇게 수리되어진 문화재를 일반 국민이 관람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⑥ 강화도—개성 소재 고려왕릉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재 인천시가 강화도에 소재한 고려왕릉 4기와 개성의 고려왕릉들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13년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개성에 존재하는 왕건왕릉, 공민왕릉, 철릉떼와 명릉 등 일부 고려 왕릉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성에 소재한 이외의 고려왕릉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연구와 보존성고가 축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개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문화자산이 밀집되어있는 개성 지역 전체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역사문화도시란 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복원하여 현대 속에 공존하는 과거 도시를 만들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한옥마을 정비, 만월대 고려궁궐 복원, 개성 성균관 기능 회복, 고려박물관 건립 등 대규모 보존 정비와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남북한이 공동 부담, 추진하여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만 된다면 개성을 경주나 제주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판단이

다.

개성의 경우 인천공항이나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 분단시대를 상징하는 관문점과의 인접성 등 관광지의 확장성이 크고, 벽란도 포구까지 복원 정비한다면 고려 시대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최고의 명품 문화도시화가 가능한 것이다.

개성 지역 전체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종합계획 합의 및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유산 복원 원칙에서 남북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으나 개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자원은 향후 관광자원화 이후 수입구조를 계상하여 남측이 선부담하고,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며, 차후 관광수입으로 상호 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개성 역사문화도시가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함께, 통일 이전에 '남북 공동의 지역'이 형성되는 통일 선행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⑧ 개성 박물관 건립

박물관은 문화시설이면서 가장 강력한 관광자원이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현재 고려 왕조의 유물이 지극히 허술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개성 고려성균관 구내에 보관 전시되고 있다. 또한 6·25 이전 개성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고려유물들 중 일부의 소재도 확인해야 할 과제이다. 당시 개성박물관장이 전란 중의 급박한 상황에 개성 박물관 전체 유물을 옮길 수 없어 일부를 인근에 매장하고 피난했다고 알려져 있다.

개성박물관을 새로 건립해 고려 성균관 전시유물과 여타 고려유물들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 전시하고, 유실된 고려유물들을 수습해 보존 전시한다면 개성 박물관은 개성 역사유물의 보고는 물론 개성역사도시의 중심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성박물관-경기도 박물관 간의 남북한 박물관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박물관 사이의 교환 전시, 학예·전시기획·교육 등 박물관 전문 인력의 상호 교환 근무, 공동 해외 연수 등의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⑨ 개성 만월대 보존 복원 관광자원화

문화재 복원 시, 원형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보존되어야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확보되고, 그 문화적 가치가 클수록 활용가치 즉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역시 높아지게 된다.

개성지역 문화재 중 유실되거나 망실된 역사유적들의 복원 작업이 필요한데, 복원된 역사유적에서 원형 못지않은 기쁨이 느껴져야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동시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정궁인 개성 만월대 궁궐 등이 대표적인 복원 대상 역사 유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공동 발굴조사에서 풍부한 자료와 데이터들이 얻어지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⑩ 한국의 개성관광 컨설팅 협력 사업

북한의 고려 문화자원과 남한의 관광개발 노하우를 결합해 문화관광에 대한 필요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다.

남한은 오랫동안 외국 관광객 유치 중심의 관광정책을 펼쳐 최근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개성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남한의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활성화 경험을 토대로 한 개성 고려문화관광에 대한 컨설팅 사업 및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⑪ 개성 역사 유적을 매개로 한 남북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²⁴⁾

평양지역, 개성지역, 서울지역, 경주 지역의 역사유적을 매개로 한 남북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남북한 연계관광의 활성화로서 남북의 윈윈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계관광의 가장 큰 그림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TCR, TSR 등)가 연결될 때 실현 가능하다. 즉 평양—개성—서울—경주가 경의선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남한 입장에서 북한관광과 대륙관광을 연계하는 상품이 가능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를 통한 남북한 연계관광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3. 고려 첨성대(만월대 인근)

⑫ 개성 무형문화유산 보존관리 남북 협력과 민속축제 관광자원화

북한은 과거 무형문화유산을 원형대로 향유하는 것을 복고주의라 비판하는 정책을 취하여 남한과 같은 수준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북한에서 이미 사라진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남한에서 전승 보존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봉산탈춤·북청사자놀이 등 연희 양식만이 아니라 음식·공예 등 그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통해 개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복원하면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관광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 고려 왕조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되었던 연등회나 팔관회와 같은 행사를 개성 지역에서 개최되는 연례 민속축제로 재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⑬ 개성 세시풍속, 생활문화 등의 공유 프로그램 개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성 지역의 세시풍속이나 생활문화를 남북한이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단오 그네뛰기, 윷놀이 등과 같은 민속놀이·세시풍속 행사를 세시절기에 남북이 함께 하는 기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북측에서 봉건잔재 등의 이유로 멸실된 풍속·문화의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남측에 보존되어 있는 문화들을 전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개성식 김치 담그기, 개성 향토술 맛보기, 개성 전통 장류 담그기 등과 같은 지역 고유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북공동으로 개성과 경기도를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문화가 남측보다 많이 살아있는 개성에 잘 보존되어 있는 고유 생활문화를 남측에 보급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4) 박영정, 「민족공동 문화자산을 활용한 남북관광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공동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208쪽.



그림 14. 개성시 궁술 대회(관덕정 활쏘기)

⑭ 개성 지역 무형유산 종합조사 및 기록화 사업

개성 지역에 전승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와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68년에 시작되어 1980년에 마무리된 한국민속종합조사에서 실험민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다.²⁵⁾

이의 현지조사 격이라 할 ‘개성 지역 무형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분단 기간 중 민족의 삶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영상, 녹음, 사진, 지리정보 확인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는 개성지역 무형유산 전승자 구술 채록 사업, 무형유산 자료 수집 등을 들 수 있다.

(3) 남북연합기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세부 추진방안

화해협력기 후기에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남북 정부가 공동으로 남북연합현장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기가 시작된다.²⁶⁾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도래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힘든 장기 전망이므로 이 시기의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은 종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남북연합기는 남북 정부가 남북연합현장을 채택하고,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 등을 구성하여 상설적이고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의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남북 쌍방이 각자 고유의 기구와 조직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와 조직을 구성하여 상설적이고 정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25)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2013, 164쪽.

26)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통일연구원, 2005, 94~95쪽.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남북(북남)문화유산공동위원회'와 같은 문화유산 통합관리를 위한 남북 공동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연합현장에 따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남북의 제반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어 나가고, '남북문화유산공동위원회(가칭)' 산하에 민관 합작으로 문화유산 별, 시대 별 공동위원회와 공동학회, 연구소 등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국보 등 주요 문화재를 공동으로 재지정하고, 남북의 문화재를 통합 관리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공동 신청하는 등 문화유산 관련 제반 사업들을 '남북문화유산공동위원회'가 주관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화해협력기 전기와 후기를 통해 남과 북이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에서 꾸준히 쌓아온 성과가 남북연합기에 다다르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개성 문화자산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개성문화자산 남북 통합관리 정책으로 변화·발전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 사업은 '통일국가'의 기반 조성을 위한 민족공동체 강화 차원의 사업이자, 북한의 경제난으로 훼손 멸실 위기에 처한 개성 소재 문화자산들을 보존 관리하고, 긴급 구난하는 측면도 크다.

특히 개성 소재 문화자산들을 남북 공동으로 보존 관리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민족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관광 활성화로 북한 경제 재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분단으로 인해 남북 상호가 접근하지 못했던 상대 지역 문화자산들에 대한 연구를 교류협력을 통해 심화함으로써 기존 민족사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남북학술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북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정세가 안정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민간교류가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푸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은 그 성격상 이 같은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라 평가할 수 있다.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비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므로, 개성 문화자산 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은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행과정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의 불쏘시개 역할을 함은 물론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추동력으로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정태현 외, 『남북역사학교류 10년, 그 성과와 전망(2000-2009)』,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통일부, 2013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2010
- 김근식 · 김연철 · 김갑식 · 정영철, 『통일 · 남북관계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개성 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심 상 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8년 11월에 남북 역사상 최초로 시작되었던 금강산관광은 사업의 시작부터 민족 간의 관광교류 확대와 북한의 외화수입원 확보를 주목적으로 시작된 관광사업 프로젝트였다. 반면 개성 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은 주목적인 개성공업지구가 합의한 내용대로 순조로이 개발되고, 공업지구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른 후 관광운영을 시도해 보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프로젝트이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은 같은 남북관광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달랐던 것이다.

개성역사지구는 2013년 6월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확실 시 되었다. 개성문화관광은 단순히 명승지를 돌아보고 오는 일반 관광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우리에게 먼 곳으로만 느껴졌던 고려시대의 고도를 돌아보는 역사기행인 동시에, 남한관광객이 직접 개성시내를 발로 걸어 다니면서 북한사람과 서로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도를 깊이하고, 이를 통한 이질감의 해소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의미 깊은 여행이다.

이에 금강산관광과 개성문화역사관광의 상이한 점을 고찰해 보고 개성문화역사관광자원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성문화관광의 발전 방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 (1) 공간적 범위 : 개성문화관광지구(개성직할시,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등)
- (2) 시간적 범위 : 2007년 12월 개성문화관광 시작 시점부터 2013년말 까지
- (3) 내용적 범위 : 개성문화관광에 대한 북한의 인식, 금강산관광과의 비교,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시사점

2. 개성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

1)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북한은 관광산업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서 인정하여 관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북한의 경제가 그나마 나왔던 60년~80년대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모범 노동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묘향산이나 금강산의 탐방이 허용되었었고, 외국인관광은 체제선전 목적이나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나마 북한의 안내원이 전 일정을 동행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모든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에 외국과의 합작대상으로 관광사업도 추진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1986년에는 국가관광지도총국 주도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기 시작하고 1987년에는 9개 관광개발지역을 선포하고 WTO에도 가입하였으며, 평양산업대학에 호텔학부 등을 신설하여 관광요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에 관광개발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한 특유의 폐쇄성과 낙후된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2년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된「자유 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등에서 관광을 정치적 선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의 사업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나 1998년까지 10년간 계속되었던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계획으로 그쳤다.

1998년10월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만남에 의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8년 11월에는 금강호가 출항하여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된 이래 육로관광으로까지 발전하여 북한에게는 놓치기 어려운 매력 있는 외화획득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5년간 북한은 남한정부에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시절을 세계 제일의 관광대국인 스위스에서 보낸 젊은 지도자는 관광산업의 효용성을 간파하고 관광산업이야 말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마식령스키장을 중심시설로 하는 원산관광지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며 백두산, 칠보산관광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중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상황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2013년 8월 북한은 외국여행사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지난 10월 국가관광총국의 김영일 국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마식령 스키리조트 등 북한의 대표관광지를 15박이상의 일정으로 둘러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외국 관광객의 휴대전화 소지와 일반 주민과의 접촉도 허용하는 등 관광에 대한 커다란 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외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만 북한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현 단계까지 발전한 것은 큰 진보라고 할 것이다.

2) 개성문화관광에 대한 북한의 인식

북한의 개성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남한에서는 개성문화관광도 금강산관광처럼 북한이 외화획득사업의 일환으로 개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성문화관광은 그리 탐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의 인식이었다. 개성시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고스란히 남한 관광객에게 개방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으며,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남한관광객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리 수월하지 않은 과업인 동시에 하루 300명 정도의 관광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남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 관광노선에 배치되는 북한의 경비요원과 관광유적지 마다 투입해야 할 관리요원, 식당 및 판매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의 보충, 관광안내요원 확보 등 북측에서 동원되는 인원수가 관광객 수 보다도 많게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주장도 일면 이해가 간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북한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개성문화관광은 가능한 실시하지 않거나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었으면 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시작 배경을 볼 때, 개성문화관광에 대한 현대의 줄기찬 열정적 노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개성문화관광의 시작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개성문화관광은 북한이 달려 수입을 목표로 시작하였다기보다는 개성공단과 연계되어 마지못해 시작한 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취약한 사업구조로 출발한 개성문화관광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 등에 따라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고 2008년 11월21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후 북한은 11월24일 '12월1일부로 개성관광 및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남한에 통보하여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3) 개성문화관광과 금강산관광의 차이점

개성문화관광과 금강산관광은 사업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운영방식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개성문화관광은 철저하게 원활한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와 북한과 개성문화관광사업에 대한 논의는 1999년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8월 북한이 개성지역을 특별경제지구로 지정 선포하기로 합의 한 이후 2004년 4월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가 착수되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준공식,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 후에야 2005년 7월 현대아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에 합의하고 같은 해 8월과 9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1,635명이 참가한 개성시범관광이 실시되었다.

둘째, 개성과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차이에 따른 주민과의 접촉 여건이다. 금강산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북한이 금강산을 남한관광객에게 개방하면서 가장 우려하였던 부분은 북측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와는 별개로 남한 관광객만이 사용하는 6km의 관광도로를 신설하였다. 도로 양옆으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군 초소를 곳곳에 만들어 북한주민들과 금강산관광객들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금강산의 경우는 관

광자원의 대부분이 주민들과 격리되어 있는 산이나 바닷가(해금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교적 수월하였다. 반면에 개성문화관광은 대부분의 관광자원이 개성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남한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개성시내를 북한의 차량과 같이 움직이고 남한관광객이 관광하는 시간대와 개성시민들의 일상생활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남한 관광객의 움직임을 그대로 개성시민들이 볼 수 있고 개성시민들의 생활상은 있는 그대로 우리 관광객에게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금강산관광의 경우처럼 개성시민을 남한관광객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개성 시내 전체를 금강산관광 경우처럼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은 3차에 걸친 시범관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고심한 끝에 2007년 12월에 이르러서야 개성관광을 정리화하게 된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성문화관광의 개방은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고 북한의 실무선에서는 개성문화관광의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개성문화관광과 금강산관광은 접근로 확보의 과정이 다르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때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해로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남한의 관광객이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을 오고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고 모든 관광계획은 해로를 중심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육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도 난제 중의 난제였다. 전혀 풀릴 것 같지 않던 육로 길은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된 지 4년 9개월이 지난 후인 2003년 9월에서야 가능하게 되었고 그 조차 고 정몽헌 현대그룹 이사회 의장의 투신으로 인하여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북한이 서둘러 육로에 의한 금강산관광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50여 년간 분단되었고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동부지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금강산 육로관광길이 열리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지났던 것이다.

반면, 금강산 관광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육로통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게 개성문화관광은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도로가 있었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어 2004년 4월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조성공사가 착수되고 같은 해 9월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개성공단까지 정기버스가 운행되는 등 개성문화관광은 시작부터 북한 측의 육로 통행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개성관광 실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2003년 개성시범관광이 실시된 이후 개성관광사업자 선정의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극복하고 2007년 12월에 개성관광이 정리화 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개성문화관광의 운영형태이다. 금강산관광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 관광지 및 유적지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체의 책임을 현대가 지는 조건으로 식당 및 판매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을 현대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반면에 개성문화관광의 경우에는 식당의 운영과 식자재 조달, 종사원 관리, 관광안내원까지도 북한 측이 책임지고 입장료 징수와 식당 및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북한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개성문화관광의 개방에 마지막까지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왕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강산관광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능한 수익을 많이 내고 추후 남북관광이 확대 발전되는 상황을 고려한 실리적인 접근 방식이라 보인다.

다섯째, 금강산관광은 1일 관광객을 1천명 이상 2천명 정도의 대규모 수용계획으로 시작한 것과는 다르게 개성문화관광은 북한이 시민들에게 가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에 식당 등의 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 수용력 한계를 이유로 1일 300명으로 시작하였고 추후에 4~5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다가 관

광운영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 북한은 오전에는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개성문화관광을 즐기는 '산업시찰+문화관광'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 제안을 받아들여 총 650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였고 시작한지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개성을 찾은 관광객의 수는 11만명이 초과하게 되는 등 상품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수용능력 보다는 예약 대기자의 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여섯째, 접근성이 우수하다. 금강산관광의 경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금강산을 오고 가는데 반나절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서 개성관광은 서울 도심에서 불과 60~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서울 중심지에서 아침 6시30분에 출발하면 도라산 출경 수속과 개성 입경수속을 마치고 개성 시내에 8~9시면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2년 기준 서울인구 1천 20만 명, 인천 280만 명, 경기도 1천 2백만 명으로서 총 인구의 약49.3%, 2천 5백만 명이 개성을 당일로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

표 1.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비교표

비 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관광자원의 유형	자연경관 중, 내금강 유적		역사·문화·유적 기행
주요 관광 대상	만물상, 구룡연, 세존봉, 해금강, 내금강, 신계사, 표훈사 등 불교유적		고려박물관(성균관),선죽교, 송양서원, 공민왕릉, 왕건왕릉, 영통사, 문화역사유적과 개성공단 등
관광자원의 분포	방대한 금강산 전 지역에 산재		반경 13~15km 모든 관광자원 밀집
관광형태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당일관광
북한에 지불하는 관광요금 (1인당)	평균 55~60달러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의 평균)		100달러
관광요금	당일	100,000 원	188,000 원 / 208,000 원
	1박2일	250,000 원	
	2박3일	350,000~500,000 원	
국내외 여행 성격과 개발	Outbound 성격에 가까움		국내관광 성격에 가까움
	금강산관광지구 단독개발		개성공단과 연계개발
관광운영방식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본인프라, 호텔, 식당, 운송수단, 현지 병원에 이르기 까지 현대가 전부 책임 운영		도로, 유적지 관리 및 유지보수, 관광안내원, 식당, 식자재 수급 등 100% 북측에서 관리
서울 시청에서 관광지 입구 까지 소요시간	약 4시간 내외 소요		1시간 30분소요
지리적 접근성 (서울 시청 중심으로)	약 250km		약 70km
육로 접근성	2~4차선(왕복)		10차선 자유로(왕복)통일대교~MDL(5.1km)~개성 (7km), 왕복 4차선
철로 접근성	저진 - 금강산 청년역 연결 됨		철도 연결 완료
	저진 - 군사분계선 9km		군사분계선 - 개성역(15.3km)
	저진 - 강릉 118km 철로 구간 복원에 규모 자본 및 10년 이상의 공사기간 소요		문산역 - 개성역 완결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에 어려움		TCR, TSR 등과 연결성 큼
주민 접촉정도	주민의 생활상을 보고 느끼는데 한계성 있음		개성시내를 관통하여 주민생활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음
북한주민에 대한 영향	안전 울타리로 상당 부분 격리되어 있음		안전 울타리 없음, 개성 시내에 있는 식당 이용, 북한의 문화 직접 체험 가능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도	수도권에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당일관광 참여 어려움(전체 관광객 중 1% 내외 차지)		수도권 지역 외국인 당일 관광 참여 가능 (전체 관광객 중 3% 내외 차지)

4) 개성문화관광 사업

(1) 사업범위

- 위치 : 북한과 합의한 개성문화관광사업의 범위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등 12개동 전체 지역과 개성시 고려동, 운덕동 등 12개 동의 일부, 관문군의 관문읍 일부, 삼봉리, 전재리의 일부 지역등을 그 대상으로 함.
- 면적 : 개성공단 전체지역의 면적은 2,000만평(6,612만 m²)로서 공장구역 800만평(2,645만m²), 생활구역 600만평, 상업구역 50만평, 관광구역 150만평, 기존시가지 400만평
- 관광지 : 개성시내, 박연폭포, 관음사, 선죽교, 숭양서원, 고려박물관(성균관), 민속여관, 왕건왕릉, 공민왕릉, 영통사 등(추후 만월대 터 등으로 확대)¹⁾

(2) 현대 vs 북한 개성문화관광 관련 합의 내용

- 남북사이의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
[2007.11.3 현대 vs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개성관광사업에 관한 부속합의서 :
[2007.11.22 현대 vs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명승지개발지도총국]
- 개성지구에 들어오는 협력단체들의 개성지구관광 합의서 :
[200.8.22 현대 vs 명승지개발지도총국]
- 개성공단 방문 단체의 개성시내 오후관광 업무협약서 :
[2008.5.7. 현대 vs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표 2. 현대아산과 북측과의 주요 합의 내용

구 분	내 용
관광사업권	○50년 관광사업권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사업과 투자, 운영하는 사업 포함
관광모집대상	○남측인원, 해외동포, 외국인
관광시기, 규모, 형식	○2007년 12월초부터 시작 ○당일관광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00명 규모 ※ 수용능력을 보아가며 일 650명 내외로 증대 합의(2008.7.9) ○현대 측의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에 북측 관광안내성원 2~3명씩 보장
관광대상지	○박연폭포, 왕건왕릉, 공민왕릉, 영통사, 고려박물관, 선죽교, 표충비, 숭양서원 등
출입 및 세관수속	○관광객과 관광버스 등 관광과 관련되는 남측인원과 운수수단의 출입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질서에 따름 ○관광객의 휴대품과 관광객을 위한 운수수단 밖의 사항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련법규와 질서에 따름
안내 및 해설	○관광객 인솔은 현대가, 관광지 해설은 북측 해설원이 맡음
식사	○따로 식당을 건설하기 전까지 통일관, 민속려관에서 보장
유지관리 및 보수	○관광대상지와 이동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아태-명승지가 함

1) 관광객들은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상기 일정표의 박연폭포, 관음사 대신 왕건왕릉, 공민왕릉, 영통사 등으로 대체 선택 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관광비 등	○관광비는 1인당 50 US\$로 함 ○식사비 1인당 20 US\$로 함 ○관광보장비용 1인당 30 US\$로 함 ※ 관광안내 및 해설비, 관광대상지 시설물과 도로의 유지 관리 및 보수비 등 포함
관광질서 및 위약책임	○관광객이 자연환경보호질서를 어기거나 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 촬영을 한 경우에는 금강산관광객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기 타	○발생되는 분쟁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강산관광사업에 준하여 처리함 ○관광지에서의 이동 및 관광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표 3. 관광객 현황 (2007.12.5 ~ 2008.11.27)

구 분	관광객	관광 회수	평균 관광객	비 고
당일 관광	109,001명	309회	353명	
오후 관광	1,548명	27회	57명	
총 계	110,549명	309회	357명	

표 4. 개성문화관광 일정표(예)

시 간		장 소	주 요 일 정
~07:00		도라산CIQ	
07:00~08:00	1h	도라산CIQ	출경 수속
08:00~08:10	10'	비무장지대	CIQ → 북측CIQ 이동
08:10~08:40	30'	북한CIQ	입경 수속
08:40~09:30	50'		북CIQ → 박연폭포 이동
09:30~11:40	2h10'	박연폭포	박연폭포, 관음사 관광
11:40~12:30	50'		박연폭포 → 식당 이동
12:30~13:30	1h	식당	중식
13:30~13:40	10'		식당 → 선죽교 이동
13:40~14:10	30'	선죽교	선죽교 관광
14:10~14:20	10'		선죽교→송양서원 이동
14:20~14:50	30'	송양서원	송양서원 관광
14:50~15:00	10'		송양서원→고려박물관 이동
15:00~16:00	1h	고려박물관	고려박물관 관광
16:00~16:20	20'		고려박물관→개성공업지구 이동
16:20~16:30	10'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경유
16:30~17:00	30'	북한CIQ	출경 수속
17:00~17:10	20'	비무장지대	CIQ → 남한CIQ 이동

5) 개성의 자연 및 지리적 조건

개성시에는 시생대·하부원생대·하부고생대·신생대 지층들과 중생대 관입암인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성시의 55%가 산지이며, 기후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나 대륙성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다. 연평균 기온 10.4℃, 1월 평균기온 -6.2℃, 8월 평균기온 25.3℃, 연강수량 1,253mm 이다.

개성지방의 토호세력이었던 왕건에 의하여 918년에 세워진 고려는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국되어 1392년까지 474년간 고려의 수도로서 한때 인구가 70여만 명에 달하였다. 근거리에 있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등과 교역을 주고받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도시이었다. 고려는 935년에 신라를 936년에는 후백제를 복속시키면서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개성은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까지 남한에 속해있었으나 한국동란이후 북한에 속하게 되었으며, 개성은 한국동란 시 양진영에서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개성에는 이산가족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성중심부에서 남쪽으로 8km에는 판문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의 토질은 특히 인삼재배에 적합하여 고려인삼의 생산지로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성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예성강, 임진강, 한강과 인접하여 있어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발달하였고 강을 따라서 경작지가 발달되어 수도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처음 수도의 명칭은 개주였으며 개성이라는 명칭은 995년에 개성부로 변경된 이후에 부르게 되었다. 1018년에는 개성부 대신 수도권 지역 전체를 경기도로 했다가 1062년 다시 개성부로 고치면서 관할지역이 확대되었다. 1232년에는 몽고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다가 1270년 환도하였으며, 이 사이 개성현으로 불리다가 1308년 다시 개성부로 되었다. 당시 개성에는 10만호에 이르는 살림집이 있었다고 한다. 1392년 고려왕조가 멸망하면서 1934년에 한양으로 수도가 옮겨 간 후에도 개성은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개성은 남한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요충지로서 앞으로 남북관광에 있어서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6) 개성의 관광자원 현황

(1) 자연 관광자원

① 자남산 : 개성의 주산인 489m의 송악산에서 태어났기에 자남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이야기와 영웅호걸이 배출된다는 속설이 있어 자남산이라고 불린다. 나지막한 산으로서 시내를 한눈에 조망하기에 적합하다. 높이는 104m 산이지만 산 정상에서는 서울의 삼각산이 보인다. 자남산 가까이는 통일관 식당이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산책 삼아 둘러보기 좋은 곳으로서 1780년에 개축되어 활쏘기 연습장으로 사용되었던 관덕정이 있다. 자남산에서는 옛 개성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잘 보존된 민속어관마을을 볼 수 있다.

② 박연폭포 : 박연폭포는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하나이며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한국 3대 명폭으로 꼽힌다.

개성 시내에서 북쪽으로 27km 지점에 위치한 박연리(朴淵里)에는 천마산과 성거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고, 그 아래로 37m 낙수의 박연폭포가 있다. 아호비령산맥의 험준한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폭포 위에는 너럭바위가 바가지 모양으로 패여 이루어진 둘레 24m, 지름 8m, 깊이 5m 정도의 박연이라는 연못이 있으며, 폭포수로 패인 고모담의 서쪽 기슭에는 용바위와 범사정(泛斯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친 후 이곳에서 승전연을 열었다고 한다. 박연폭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개성난봉가(박연폭포 노래)의 무대가 된 곳이다. '박연'이라함은 연못 모양이 바가지처럼 개울바닥이 둥글게 움푹 파여 있는 모양을 하였기 때문에 박연이라 불린다. 박연폭포가 아래에는 고모담이라는 연못이 있고, 연못 가까이 있는 큰 바위를 龍岩(용바위)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바위에 올라 폭포를 구경한다. 고모담과 용암의 유래와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피리를 잘 부는 이 고장朴선비가 이 연못가를 자주 찾아 피리를 불었다고 한다. 연못 속의 龍女가 피리소리에 매혹되어 그 선비를 유혹하여 물속으로 이끌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선비의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연못에 투신하였다고 한다. 노파가 투신한 곳이라고 하여 姑姆潭이라고 한다.」

서경덕과 황진이이는 이곳을 즐겨 찾아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 용암에는 아직도 황진이의 필적이 새겨져 있다. 그녀는 李太白의 詩를 인용하여 박연폭포를 묘사했다. 즉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날듯이 흐르는 물이 곧게 흘러내려 삼천척에 이르는데, 이것이 혹시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못 근처에 그녀의 노래를 새긴 “黃眞伊 歌碑”가 서 있는데 “靑山裏 碧溪水”노래가 새겨져 있다. 폭포 옆에는 폭포를 觀賞하도록 세운 범사정이 있고 여기에 올라 철따라 바뀌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폭포에서 벗어나면 관광객을 위한 휴게소,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폭포는 깎아지른 듯 한 벼랑과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선 층암절벽에 안기어 절경을 이룬다. 폭포 주변에는 고려 때 쌓은 대흥산성과 성의 북문, 관음사, 대흥사(大興寺) 등의 소중한 유적들이 즐비하다. 대흥산성 북문을 통해 조금만 오르면 관음사 대웅전이 그 단아한 자태를 드러내고, 대웅전 옆 관음굴에는 유백색 대리석으로 조각한 높이 1.2m 정도의 관세음보살 좌상이 2개 있었는데, 현재 그 중 1개는 평양의 중앙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1개는 그대로 남아 있다.

③ 송악산 : 고려의 옛 도읍인 송도(松都)의 북쪽에 자리 잡은 송악산(松岳山)은 높이는 488m로서, 아호비령산맥의 끝자락에 솟아 있으며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아서 송악산(松山, 松嶽)이라 불렀고 부소갑(扶蘇岬)·곡령(鵲嶺)·문송산(文嶺山)이라고도 한다.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지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조화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황해도와 강원도 사이 내륙으로 뻗어 내려온 阿虎飛嶺산맥이 이곳에서 끝나며 개성의 鎭山으로 신성시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산 정상 능선에 38선이 그어지고 젖으며 약 2시간의 산행시간으로 정상을 왕복 할 수 있다고 한다. 송악산 북쪽에는 천마산과 박연폭포가 있고, 남쪽 기슭은 급경사를 이루고 북쪽은 완만한 산세이며 남쪽으로는 진봉산과 용수산의 안산이 솟아 있다. 산 남쪽 기슭에는 옛 고려의 고적으로 으뜸가는 왕궁터인 만월대(滿月臺)가 있다. 산 동쪽 기슭에 자하동(紫霞洞), 서쪽 기슭에 광명사정(廣明寺井)의 명승지였으며 신라, 고려시대의 성터가 남아있다. 산의 모습이 만삭의 여인이 머리를 풀고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과 같다고 하며 그 발치에는 아들로 낳은 자남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세는 남한의 도라산까지 연결된다.

④ 그 외 자연 관광자원 : 송악산 이외에도 개성에는 태조 왕건의 시조 강충이 살았다고 하는 성거산(聖居

山), 개성을 대표하는 명산으로서 청량봉의 지족암에서 낙조가 유명한 762m의 천마산, 바위봉우리가 5개라고 하여 오룡산이라고도 불리는 용암산, 천마산 남쪽에 위치한 봉우리 다섯 개가 선비의 관처럼 솟아 올라있다고 하여 오관산이라 불리는 오관산 등이 있다. 오관산 아래서 왕건이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외에도 영취산, 대개산, 수룡산, 용수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연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자원 하나 하나에는 고려의 500여 년 역사와 조선시대의 500년 역사가 합쳐진 1천년 역사의 향기가 배어 있다.

(2) 개성의 문화 역사유적 관광자원

개성의 문화역사유적은 3개 분야로 대분된다. 첫째, 고려 왕실의 정궁이었던 만월대의 궁궐터와 침성대, 고려왕릉, 도심방어시스템을 보여주는 개성의 내성, 중성, 외성 등 성벽과 성곽, 남대문 등의 대문과 돌쩌, 송악서원, 선죽교, 표충각 등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창건한 조선시대의 왕들조차 신하들에게 충신의 표상으로 강조하였던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유적,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교육기관인 고려 성균관 등 3개 분야로 대분된다.

수도의 위성으로서로는 북쪽의 대흥산성, 동북쪽의 백치진성, 동쪽의 구화산성, 서쪽의 여현진성, 라산성, 영안성, 후강토성, 어아산성, 남쪽의 승천부성, 신성리토성, 구읍리토성, 배남산성, 동남쪽의 임한리토성, 덕물산성 등이 2중, 3중으로 배치되어 있다. 개성시 해선리에는 고려태조 왕건왕릉, 8대왕 현종의 선릉 1, 2, 3릉과 7릉, 25대 충열왕 왕비의 고릉, 왕건 아들의 태릉, 31대 공민왕릉 등, 수십 개의 고려 왕실릉이 존재한다.

그밖에 개성일대에는 수락암동 1호 벽화부덤 등이 있으며 불교관계 유적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흥산성 안의 관음사와 대흥사, 송악산 중턱의 안화사, 보불산 중턱의 화장사, 오관산 남쪽 기슭에 있는 새로 발굴되어 복원된 천태종의 성지 영통사, 국정사터, 덕물산 남쪽에 흥왕사터, 현화사터, 원통사터, 등 1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들과 사찰터가 있다.

송악산 마루에는 고조선의 시조 단군과 동명왕의 어머니 류화를 제사 지내던 단군사터와 류화사터가 있으며, 송악동에는 천문관측시설이었던 고려침성대가 있다.

개성에는 고려시대 뿐 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유적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데 고려시대의 별궁이며 이태조가 즉위한 수창궁터, 이태조의 집이면서 후에 이태조의 초상을 모시고 제사지내던 목청전과 경덕궁, 최영의 사당터, 박지원묘, 황진이묘, 서경덕의 묘가 있다. 이처럼 개성은 원시시대로부터 고대, 중세에 이르는 유적과 유물이 풍부한 고도이다.

2008년 한국토지공사와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합동 문화유적지표 보고서에 의하면 개성에는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궁성과 만월대를 비롯하여 북한의 국보가 20여개 있으며 수백여 개의 역사유적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13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개성역사유적지구(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됨으로서 개성은 세계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하였다.

① 만월대 : 만월대는 개성의 진산인 송악산(489M)의 남쪽 기슭에 태봉국이 쌓은 발어참성을 토대로 하여 쌓은 궁성에 지어진 회경전을 중심으로 길이 약 445m, 너비 약 150m의 궁터를 말한다.

건물배치는 정남(正南)에 승평문이 있었으며, 좌우에 동락정(同樂亭)이 있었고, 신흥문(神風門), 춘덕문(春德門), 춘궁(春宮), 태초문(太初門)이 있었으며, 장화전(長和殿), 원덕전(元德殿), 장령전(長令殿), 연영전

(延英殿), 자화전(慈和殿) 등과 왕이 거처하던 건덕전(乾德殿)이 있었다. 1361년 홍건적의 난에 소실되어, 8.15 광복 후 발굴되었다. 궁의 중앙에 회경전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궁성 동쪽 벽까지 약 135m, 서쪽 벽까지 약 230m이며, 남쪽 벽의 성문인 승평문(昇平門)까지 약 250m이다. 1009년부터 1029년 사이에 수도 전체를 둘러싼 23km의 성이 축조되었으며, 1391년부터 1394년 사이에는 내성이 건설되어 개성성은 궁성, 황성, 내성, 외성 등 4개소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승양서원 : 개성시 선죽동에 위치한 승양서원은 고려 충신 정몽주의 집터로 1573년(선조 6년) 개성유수 남응운(南應雲)이 유림들과 협의 끝에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고, 아울러 서경덕(徐敬德)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문충당(文忠堂)을 세웠다. 1575년 문충당에 '승양(崧陽)'의 사액(賜額)이 내려 국가가 공인한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1668년(현종 9년) 이후金玉(金堉), 조익(趙翼), 우현보(禹玄寶) 등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사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이고,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동재(東齋)와 서재는 각각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지었다. 현재까지도 정몽주의 유적이 잘 보관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③ 선죽교 : 선죽교는 너비 2.54m 길이 6.67m의 돌다리로서 고려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피살된 장소이다. 개성 선죽동 중심부에 위치한 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인 1216년 다리를 축조하였을 때는 선지교(善地橋)라 불렀다가, 1932년 정몽주의 죽음 이후부터 핏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주위에 충절의 참대나무가 돌아났다 하여 선죽교로 개칭하였다. 원래 없었던 난간은 1780년 정몽주의 후손들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다리 옆에는 명필 한석봉의 필체가 새겨진 비각 등 3개 추모 비석이 서있고, 길 건너편 표충각 안에는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 강직한 충신의 원혼을 달래고, 널리 칭송하기 위하여 1740년 영조와 1872년 고종이 각각 세운 것이다.



그림 1. 개성문화관광 안내도1(자료 : 현대아산)

④ 고려박물관(고려성균관) : 개성시내 북동쪽 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박물관은 고려시대 성균관의 건물과 부지를 이용하여 1988년 개관하였으며, 고려의 역사, 경제, 과학, 문화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1,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성균관 건물 18채로 꾸며진 전시실은 모두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 전시장에는 불일사5층 석탑, 흥국사탑, 현화사7층 석탑, 현화사비, 개국사 석등 등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활쏘기터, 그네터, 널뛰기터, 씨름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⑤ 왕건왕릉 : 고려의 시조, 왕건의 무덤인 왕건왕릉은 개성 남대문에서 북서쪽 약 6Km 떨어진 서쪽 개풍군 해선리 송악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왕건왕릉은 3단 축조 형식의 웅장한 무덤과 왕건의 초상, 후삼국통일 시기의 문인 및 무인 석상이 함께 서 있다. 무덤의 방위는 약간 서쪽으로 틀어진 남향이고 무덤 안은

돌방으로 되어 있다.

1994년 왕건 탄생(AD 877년 탄생) 1,117돌을 맞아 새롭게 단장된 왕건왕릉은 내부 동쪽 벽에 왕대와 매화청룡이 그려져 있고, 서쪽 벽에 노송과 백호가 그려져 있다.

청룡백호 등의 벽화는 고구려 때부터 많이 그려져 왔으나, 왕대와 매화노송은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⑥ 공민왕릉 :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으로 개성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14km 떨어진 개풍군 분선봉에 자리 잡고 있다. 공민왕릉은 풍수지리상 명당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대표적 쌍분 능묘로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왼편이 공민왕의 현릉이고, 오른편이 노국공주의 정릉으로, 조선시대 왕릉과는 달리 3개의 층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봉분의 높이는 6.5m이고 각 봉분에는 12각의 병풍석을 돌려 12지신상과 연꽃문양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노국공주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공민왕이 직접 7년에 걸쳐 건립한 왕릉으로 봉분 사이에는 두 영혼이 서로의 무덤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 있어 지금도 그 애절함이 살아 숨 쉬는 듯하다.

⑦ 개성남대문 : 개성시 북안동(北安洞) 개성 남대문은 개성 내성의 남문으로 정남향을 향하고 있으며, 개성 시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이다. 남대문은 1391년(고려 공양왕 3년) 착공하여 1393년(조선 태조 2년) 준공하였다.

1950년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으나, 1954년에 다시 복구되었고, 직사각형의 화강암 축대 위에 세운 단층 문루로, 정면 3칸(길이 13.63m), 측면 2칸(길이 7.96m)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3포(包)집의 구조로 되어 있다. 축대의 한가운데에는 무지개문(虹霓門)을 내었다. 문루의 기둥은 모를 죽인 1m 높이의 4각 돌기둥 위에 배흘림기둥의 기법으로 나무기둥을 이어 올렸다.

문루에는 보루단청을 입혔으며, 유명한 개성 연복사종(演福寺鐘)이 보존되어 있다. 남대문은 장식이 소박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는 고려 말의 건축기법 잘 보여주는 건축 유산이다. 연복사에서 옮겨온 무게 14톤에 달하는 연복사종이 걸려있다.

⑧ 영통사 : 개성 시내에서 북쪽으로 18km 지점의 송도저수지를 지나면 관모산(박달산) 기슭 영통골에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1027년 창건된 영통사가 위치하고 있다. 영통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여러 차례 전란으로 폐사되었다가 2005년 한국 천태종의 지원으로 복원되었다. 천태종에서는 불자를 조달하였고 노력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서 담당하여 남북이 함께 복원하게 되었다. 사찰 내에는 북한의 문화재로 지정된 대각국사비, 당간지주, 삼층석탑, 오층 석탑이 있다.

16세기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영통사는 2002년 남과 북이 합심하여 2005년 복원 낙성식이 봉행되었고, 예전의 모습을 잘 살려내어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내의 수많은 문화재와 더불어 전망대, 장수바위, 마애불 등 다양한 명승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⑨ 민속여관 : 개성 남대문 북쪽에 위치한 개성민속여관은 조선시대 전통가옥단지를 여관으로 개조하여 1989년 개장하였다.

개성민속여관은 총 52동(1등실 2동, 2등실 6동, 3등식 44동)으로 구성된 단층 숙박시설로 온돌방, 전통 침구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여관 내 민속식당에서는 반상기, 닭곰, 약과 등 토속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다.

전통가옥단지를 가로 지르는 실개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고풍의 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개성만의 묘미를 느낄 수 있고,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여관 객실은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볼거리다.

(3) 개성의 대표식당

① 통일관 : 개성 남대문 뒤편 자남산을 오르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관은 2개의 대형 연회장과 10개실이 넘는 식당을 갖춘 500명 수용 규모의 대형 민속요리 식당이다. 북측이 자랑하는 통일관 식당에서는 반상기(개성정식), 개성보쌈김치, 인삼담곰, 개성약밤 등의 특산 요리를 즐길 수 있다.

② 민속식당 : 개성 민속여관 내에 위치한 민속식당은 고풍스러운 전통가옥의 온돌방에서 개인상을 차려 토속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이 곳에서는 반상기, 인삼담곰, 약과 등 개성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고, 친절한 북측 봉사원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개성 문화유산 관광사업의 파급효과

1) 사회적 파급효과

60여 년간을 분단되어 전혀 다른 정치 체제와 사상, 문화, 환경에 처해 있던 남북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성문화관광이 남북 양측에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는 그 다양성과 강도에 있어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개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침예한 지역이다. 해방 때에는 남한에 속해 있다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개성시 자체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수km 떨어져 있는 북한의 최전방에 위치한 도시이고 북한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군사요충지이다.

이렇게 예민한 지역을 남한관광객에게 개방하였다는 것은 남북한의 대결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치·군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개성문화관광의 시작은 개성은 물론 북한지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개성문화관광은 남북양측의 상호 이해와 군사적 긴장해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남북 상생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핵심 시범 준비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성문화관광의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 세속적 기준인 수익이 많고 적음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 민족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폭 넓고,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간의 문제, 주변국가들과의 문제 등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산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개성문화관광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발점이라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현명함과, 남북관계에서 시시 때때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에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민족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전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남한의 사회적 파급효과

- 민간차원에서 비정치적인 개성문화관광을 발전시킨다면 이를 토대로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
- 민간관광객의 비무장지대 및 휴전선을 통해 보장을 위한 군사통신선의 유지
-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우호도 증가
- 개성문화관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 및 안정적 관리 가능성을 높임
-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
-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정치 관계 발전
- 반복되는 남·북 군사담당자들의 접촉은 상호 이해 및 신뢰의 단계로 발전 가능성(이는 남북 군사비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사비에서 절감된 자원을 남북의 경제적 분야로 발전으로 전환 가능)
- 군사비에서 절감된 자원을 남북의 경제적 분야 발전으로 전환 가능
- 군사적 대처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의 접경지역 개발 및 발전 가능
-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조 종결
- 투자 불안 해소
- 대외신인도 상승에 따른 국격의 위상 제고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체제 기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 확산 및 점진적인 통일 준비에 촉매 역할 가능
- 남한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지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목적지 다양성 확보
- 북한을 통한 백두산관광이 활성화되면 이제까지 중국을 거쳐서 등정하였던 장백산이 아닌 우리 민족의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남한의 관광사업자 및 제3국 관광사업자 또는 개발사업자에게 새로운 개발 기회 제공
- 관광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른 남한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및 수익원 제공
- 개성관광자원을 매개체로 하여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 촉진 및 한반도 공동체 실현
- 남북을 연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남한의 인바운드 시장을 활성화
- 남북관광의 활성화는 남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2020년 2천만 명 해외관광객 유치의 대표 상품으로 육성 가능.
- 개성문화관광은 동시에 남북한을 관광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판문점 관광이나 땅굴관광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 가능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Demilitarized Zone)를 통일과 평화의 꿈을 만드는 평화의 공간화 가능, (Dream Making Zone 또는 PMZ Peace Making Zone, PLZ Peace Life Zone으로 발전 가능성)
- 광측면에서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남북관광으로 일부 전환하여 관광수지 개선 효과
- 개성문화관광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냉전시대에 조성되었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고 한반도의 반도성을 회복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2) 북한의 사회적 파급효과

개성문화관광이 북한에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남한의 그것 보다 그 진폭이 크다 할 것이며 그 파급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 감소 및 우호도 증가

- 북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북한의 관광인프라 발전
-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사업 사업 활성화
- 관광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가 및 수용능력 확충
- 남한 관광객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
- 북한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 관련 선진 기술 습득
- 북한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 증가
-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감소
- 북한 자체로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대한 투자여력 증가
- 북한 SOC 발전에 따른 남한을 비롯한 해외자본 투자 증가
- 북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
- 북한에 시장·경제(자본주의)에 대하여 점진적 노출 기회 제공 및 학습 기회 제공
- 개성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증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
-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에 도움
- 개성문화관광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개성, 평양, 원산, 금강산, 칠보산, 백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남북연계관광벨트의 활성화
- 김정은 체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관광지 개발과 외래 관광객유치에 결정적인 도움

(3) 남·북한의 사회적 파급효과

개성문화관광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다양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며, 개성문화관광의 활성화는 인적·물적 교류가 양적·질적으로 발전 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반복된 만남을 통해서 남북한 간 인식격차 해소와 이질성 완화를 가져오게 되고, 정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이미지 구축은 남한의 Korea Discount의 감소 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신인도를 동시에 높이게 되어 한반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현실화시켜 남북의 상생모드가 정착되게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 확산 및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통일비용을 감소시켜 가면서도 실질적인 통일을 거쳐 완전한 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남북한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북한의 자본, 자원 및 인력의 효율적 연계
- 개성문화관광산업에 소요되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고용창출 및 증대 효과
- 개성문화관광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북한 내 타 지역으로 관광영역 확대
- 군사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활용 및 발전
- 관광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과 물자의 왕래를 초래하며 이는 접경지역의 도로 등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확충 및 빠른 속도의 발전을 가져옴
- 만월대 발굴사업 등을 시작으로 남북 간 역사, 고고학, 문화 학자의 교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 증대
- 과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고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 촉진
- 남북한 간의 물류비 절감
-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에 장애요소인 문화이질성 극복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강화
- 한반도횡단열차 → 중국횡단철도 → 시베리아횡단철도 → 유라시아철도 연결에 촉매작용

개성문화관광이야말로 상호 이해를 통한 신뢰회복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개성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DMZ, 휴전선을 통과하는 분단의 특수성 체험, 이제까지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을 당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매력은 남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2) 경제적 파급효과

개성문화관광은 그 규모에 있어서 금강산관광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않지만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는 데에서, 개성문화관광자체의 경제적 가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55~60달러의 관광비를 북한에 지불하였던 반면에, 개성문화관광에서 관광객 1인당 100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2007년 12월 5일에 시작해서 2008년 11월 27일에 개성문화관광이 중단 될 때 까지 개성문화관광에 참여한 관광객은 110,549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북한에 지급된 관광입장료는 총 1천1백5만4천9백 달러이다.

개성관광은 남한 정부에 의해서 중단된 금강산관광과는 다르게 북한 당국의 조치에 의해서 중단 되었으며 북한은 지난 5년간 개성관광비로 약 1억1천2백7만 달러와 음료수 및 상품의 판매수입으로 약 2천2백5십5만 달러(1인당 약 20 달러 소비 기준)등 총1억3천5백3십만 달러의 외화 획득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성문화관광은 북한이 그리 개방하고 싶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개성문화관광의 시작은 하루 당일 관광객 300여명이라는 미미한 숫자로 시작되었지만 개성문화관광이 점차 확대 발전된다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을 통과하는 개성문화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경기와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 증가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의 확대와 해외 자본 조달 금리의 하락에 따른 이익 등 개성문화관광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개성문화관광이 선사하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상태가 주는 경제의 간접파급효과가 더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8월 발표한 '외채동향'에 의하면 2013년 6월말 기준 한국의 총 외채는 4,118억 달러이다. 한반도에 대한 불안정성이 제거됨으로서 스프레드 하락과 기채비용 등 해외조달 총비용이 0.01%만 낮아져도 4천1백18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조성되어 총 외채에 대한 조달 비용이 0.0243%만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총 외채 조달 비용은 연간 1억 달러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개성문화관광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못지않게 한국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간 1억 달러라는 금액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5만4천명 북한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포함한 총비용 보다 약 10%를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개성문화관광이 한반도에 가져다주는 평화적 파급효과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주식시장과 투자심리, 소비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남북관광의 발전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물류의 증가와 문산~개성~평양까지 연결되는 물류라인이 가동됨에 따라 물류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인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포함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며,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개성문화관광의 파급효과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개성문화관광을 포함한 남북관광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고 단순한 관광산업을 떠나서 국가의 전략적 사업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한 자체 역량으로 북한의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면 향후 천문학적 단위로 들어갈 통일 비용의 절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남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① 2008년 개성문화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관광시작일 2007년 12월 5일~관광종료일 2008년 11월 27일)

개성문화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축적된 자료가 매우 적었다. 그 이유는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고로 금강산관광이 2008년 7월12일 잠정 중단 조치되었고, 2008년 11월 한국정부의 유엔 결의안지지 등의 이유로 인하여 2007년 12월 5일에 시작된 개성문화관광이 1주년을 며칠 앞 둔 2008년 11월 29일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성문화관광객 수는 당일관광 309회와 오전에는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개성문화관광을 하는 문화관광과 산업관광을 조합한 관광객을 포함하여 총 110,549명으로 집계 되었다.

표 5. 2008년 개성문화관광관광객 및 관광 회수(자료 출처 : (주)현대아산)

구 분	관광객	관광 회수	평균 관광객	비 고
당일 관광	109,001명	309회	353명	
오후 관광	1,548명	27회	57명	
총 계	110,549명	309회	357명	357,76명

개성문화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3년 10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근 자료인 산업연관표(2009년)와 산업연관표(2008년)를 분석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활용하였다. (2011년 자료 분석자료는 2013년 말에 발간 예정으로 되어 있음)

저자인 이강욱은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국제관광표준분류(SICTA-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분류하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9년 산업연관표의 403 기본부문과 비교하여 관광산업을 적합하게 재조정하였다.

표 6. 연도별 당일여행 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연 도	지출 금액 (원)
2008년	69,636
2009년	62,673
2010년	61,241
2011년	75,738
2012년	72,464
2013년	74,421

산업연관표에서 관광쇼핑은 '소매부문(322)'과 연계시키며, 식음료 부문은 '일반음식점(323)', '주점(324)', '기타음식점(325)', 숙박업은 '숙박(326)', 관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은 '철도여객운송(327)', '도로여객운송(32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332)', '외항운송(333)', '항공운송(334)', 그리고 운수보조업은 '육상운수보조서비스(335)', '수상운수보조서비스(336)', '항공운수보조서비스(337)'로 연계하였고, 차량임대업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368)', 여행업은 '기타사업서비스(371)', 문화예술 공연은 '문화서비스(386, 387)', '영화제작 및 배급(388)', '영화상영(389)',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390)', 운동경기는 '운동 및 경기 관련서비스(391)', 오락 및 유흥은 '기타오락서비스(392)'로 연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였음.²⁾

(가) 매출 기준³⁾ :

- 2007.12.5.~2008.11.29. 개성문화관광에 참석한 총인원 : 110,549명.
- (주)현대아산 관광요금표에 의하면 개성문화관광의 관광요금은 평일 188,000원, 주말과 공휴일 208,000원으로서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 참가한 주중, 주말과 공휴일 인원내 대한 매출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 관광 횟수로 총관광객수를 나눈 평균 관광객 357.76명을 1일 기준 인원내로 산정하였다. 관광이 실시되었던 309일을 2007년과 2008년의 주말 및 공휴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7년 12월5일~12월31일, 총 27일(주말 및 공휴일 7일)
 - 2008년 1월1일~11월29일, 총 333일(주말 및 공휴일 107일)
 - 주말 및 국경일 등 휴일(이하 주말요금으로 칭함) 총 114일
 - 평일 관광(309일 - 115일 = 194일) 총 194일

(나) 계산 시 준용 조건

- 조건 1 : 주말과 주중 관광객을 구분해 놓은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관광객수가 많았을 수도 있고, 주말관광요금에 약 10.6% 비싸기 때문에 평일을 선호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중이나 주말, 공휴일의 관광 참여 인원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함.⁴⁾
- 조건 2 : 2013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실시하는 분석이지만 개성문화관광이 시행되었던 시기가 2007년 12월5일부터 2008년 11월 27일 까지이었으므로 한국은행이 2008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강욱)에서 산출한 2008년의 관광산업승수를 준용함
- 조건 3 : 개성문화관광 총 매출에서 북한에 지불하는 1인당 관광요금 총액 100달러는 남한의 매출에서 제외시킴.
 - 광객 1인당 북한에 지불하는 관광비용 총 \$100
 - 식사비 \$20 (개성 13점 반상기 정식)
 - 비자비용 명목 \$50
 - 관광안내비 \$30 : 입장료, 해설비 및 유적 및 시설 유지비 등
- 조건 4 : 환율은 2008년 평균 환율인 1,259.5원을 적용함.
 - 추정 매출액
 - 평일 관광객 194일 * 357.76명 * 188,000원 = 13,048,350,372 (130.48억 원)

2)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0. 11

3) 개성문화관광의 총 매출 추정은 (주)현대아산 내부자료인 관광객 누적통계 및 관광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4) 실제로 주중과 주말에 배치된 차량의 숫자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활용.

- 주말 관광객 115일 * 357.76명 * 208,000원 = 8,557,702,920 (약 85.57억 원)
- 매출 총액 : 216억 원

상기의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1월27일까지 진행 된 개성문화관광의 국내분 매출은 다음과 같다.

- 평일 매출액 : 13,048,350,372원(A)
- 주말 매출액 : 8,557,702,920원(B)
- 총매출액 : 21,606,053,292원(C = A + B)
- 북한 지불액 : 13,923,646,550원(D)
- 순수 국내 매출액 : 7,682,406,742원(E)

표 7. 관광산업의 승수효과(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준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구분	2008년	2009년
생산유발승수	1.6339	1.6526
소득유발승수	0.3368	0.3396
취업유발승수	18.1333	20.8846
고용유발승수	10.7270	12.8848
부가가치유발승수	0.8229	0.8331
수입유발승수	0.1771	0.1669

표 8. 2008년 개성문화관광사업의 승수효과

구분	2008년	국내 매출액(E)	파급효과(백만원)
생산유발승수	1.6339	7,682	12,552
소득유발승수	0.3368		2,587
취업유발승수 (명 /10억 원)	18.1333		140명
고용유발승수 (명 /10억 원)	10.7270		83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229		6,322
수입유발승수	0.1771		1,361

- 조건 5 : 개성문화관광을 위해서 (주)현대아산에 지불하는 관광요금 이외에 개성문화관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오가는데 지출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지출금액 69,636원을 적용하였음.⁵⁾

5) 국민 1인당 당일관광 참가 시 지출 비용 69,636원 준용,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 2008.

표 9. 2008년 개성문화관광 당일 참가자의 교통편 등 추가지출 비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승수	관광산업 평균	국내 매출 금액(F)	파급효과(백만원)
생산유발승수	1.6339	7,698백만원	12,578
소득유발승수	0.3368		2,593
취업유발승수	18.1333		140명
고용유발승수	10.727		83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229		6,335
수입유발승수	0.1771		1,363

2008년 (2007.12.05. ~2008.11.27.) 실시된 개성문화관광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관광일수 309일, 총 참가인원 110,594명, 평일 관광요금 188,000원, 주말 및 공휴일 관광요금 208,000원과 당일관광을 실시한 관광객의 1회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출총액 (G)	: 15,381 백만원(E+F)
생산유발 파급효과	: 25,130 백만원
소득유발 파급효과	: 5,180 백만원
취업유발 파급효과	: 279 명
고용유발 파급효과	: 165 명
부가가치유발 파급효과	: 12,657 백만원
수입유발 파급효과	: 2,724 백만원

표 10. 2008년 개성문화관광의 종합적 경제적 파급효과(2008년 개성문화관광요금 + 당일 교통편 등 추가지출 비용의 합)

승수	관광산업 평균	개성관광+당일추가 매출(백만)	파급효과(백만)
생산유발승수	1.6339	15,381	25,130
소득유발승수	0.3368		5,180
취업유발승수	18.1333		279명
고용유발승수	10.727		165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229		12,657
수입유발승수	0.1771		2,724

(다) 2008년 개성문화관광의 종합적 경제적 파급효과

2008년 개성문화관광은 국내매출 153억 8천만 원으로 산출되었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51억 3천만원, 소득유발 51억8천만원, 취업유발 279명, 고용유발 165명, 부가가치유발 126억5천7백만원, 수입유발 27억2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②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개성문화관광이 지속되었을 때의 파급효과 추정

남북관계에 문제가 없어 개성문화관광이 2008년 11월 말에 중단되지 않고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말 까지 계속 되었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5년간의 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 기준⁶⁾

- 조건 1 : 북한이 개성문화관광에 대한 확대 발전의지를 보이며 현대와 합의한 일일 관광객 상한선 650명을 2009년 개성문화관광 1일 참가관광객 수의 기준으로 설정함.
- 조건 2. 2007년 12월~2008년 11월 기간 동안 개성문화관광 참가희망자의 예약이 넘치는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력 한계로 인하여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2013년 까지 1일 관광객의 수를 북한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650명으로 시작하여 남한관광객의 당해 연도 당일여행 성장률을 대입함.(국민여행실태조사 통계자료 준용)
- 조건 3 : 연도별 개성문화관광 참가자 수 추이(추정)는 2009년에는 총313일 관광운영일수에 일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650명을 대입하여 203,450명을 개성문화관광 참가자수로 산정하였고 2010년에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국내여행 관광객이 -12% 성장률을 적용하여 179,036명, 2011년은 전년대비 21.15% 증가한 234,806명, 2012년은 9.2% 증가한 256,408 명, 2013년은 1% 감소한 253,844 명 등 총 1,127,543 명으로 추정하였음.
- 조건 4 : 연도 별 개성문화관광 운영일수는 2009년~2011년 북한이 유적지 및 도로,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북한 관광관련 인력의 휴식을 위하여 정한 52번의 월요 휴무일을 제외하고 313일을 관광운영일로, 2012년은 윤년으로서 314일을 개성문화관광 운영일로 하였음.
- 조건 5 : 연도 별 개성문화관광 요금 추이에 대해서는 개성문화관광의 관광요금 정책은 (주)현대아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관광요금을 결정하는 정책을 반영한 추정요금을 적용하였음, 2008년의 평일과 주말의 평균요금인 195,000원을 2009년도에도 유지하려 하였었으며, 북한에 지불되는 관광요금은 100달러/인당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고정시켰고, 한국은행 발표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함. 그 결과, 2009년의 평균관광요금은 195,000원, 2010년~2013년의 관광요금은 각 201,000원, 209,000원, 214,000원, 219,000원으로 산정하였음
- 조건 6 : 연도 별(2009~2013년) 개성문화관광 매출 추이(추정)는 개성문화관광요금에 연도별 관광객 추정인원을 곱하여 매출총액을 구하고 그중에서 북한에 지급되는 관광객 1인당 100달러를 연도별 평균 환율을 반영한 한화금액을 제외시켜 개성문화관광의 국내 매출분으로 계산함.

(나) 연도별 지출액 : 국민당일 여행 참가자 지출액국민여행실태조사서의 국민당일 여행 참가자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연도별 지출액은 2008년 76억9천8백만원, 2009년 127억5천1만원, 2010년 109억6천4백만원, 2011년 177억8천4백만원, 2012년 185억8천만원, 2013년 188억9천1백만원, 총 866억7천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다) 2009~2013년 5개년 개성문화관광의 종합적 경제적 파급효과 : 개성문화관광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5년간 지속되었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개성문화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매출액 1,876억 8천만원(개성관광 국내매출분 1,087억 1천만원 + 당일관광 추가 지출분 789억 7천만원)과 그에 따른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3,228억 9천만원, 소득유발파급효과는 663억 5천만원, 취업유발파급효과는

6)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 8월 발간한 '개성관광 종합계획'에 의하면 개성문화관광 관광객 수 추이를 1년차 34만명(약 1,066명/일), 2년차 50만명(약 1,597명/일), 4년차 100만명(약 3,195명/일), 10년 뒤엔 연 200만명(약 6,390명/일)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07년12월~2008년 11월 기간 동안 (주)현대아산과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 국 사이에 의해서 실시된 실제적인 실적과 북한의 관광객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2009~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등의 통계자료 당일관광객 증가 추이 등을 준용함.

4,081명, 고용유발파급효과는 2,518명으로, 부가가치유발 파급효과는 1,627억7천만원, 수입유발파급효과는 326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2009~2013년 5개년 개성문화관광의 종합적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의 관광산업평균지수를 준용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승수	관광산업 평균	국내 매출금액 (백만원)	파급효과(백만원)
생산유발승수	1.6526	187,683	310,164
소득유발승수	0.3396		63,737
취업유발승수	20.8846		3,920명
고용유발승수	12.88488888		2,418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331		156,359
수입유발승수	0.1669		31,324

매출총액 (G) : 187,683백만 원
 생산유발 파급효과 : 310,164백만 원
 소득유발 파급효과 : 63,737백만 원
 취업유발 파급효과 : 3,920명
 고용유발 파급효과 : 2,418명
 부가가치유발 파급효과 : 156,359백만 원
 수입유발 파급효과 : 31,324백만 원

③ 연도별 개성문화관광 매출 추이 및 당일 여행 참가자의 추가지출 비용

연도별 개성문화관광 매출 및 당일 여행 참가자의 추가지출 비용을 근거로 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연도별 5개년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조건 1 : 2008년과 2009년의 관광산업 승수효과의 차이는 취업유발승수 는 매출액 10억 원당 +2.7514명, 고용유발승수는 +2.1578으로서 각각 15.1%, 20.1%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그 외의 항목은 생산유발승수 0.0187, 소득유발 승수 0.0028, 부가가치유발승수 0.0102, 수입유발승수 -0.0102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2009년 이후의 Trend를 추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 2009년 산출된 관광산업 승수효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다만, 취업유발승수와 고용유발승수 효과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Data가 확보되면 재조정 될 수 있음.
- 조건 2 : 2009년~2013년 파급효과 계산은 십만 단위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백만원 단위로 표기하였음.(백만 단위의 합이 ±1차이 날 수 있음)

표 12. 2009~2013년 개성문화관광의 종합적·경제적 파급효과

년도	승수	관광산업 평균	A + B(백만원)	파급효과(백만원)
2009	생산유발승수	1,6526	28,732	47,483
	소득유발승수	0,3396		9,757
	취업유발승수	20,8846		600명
	고용유발승수	12,8848		370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331		23,937
	수입유발승수	0,1669		4,795
2010	생산유발승수	1,6526	26,633	44,014
	소득유발승수	0,3396		9,045
	취업유발승수	20,8846		556명
	고용유발승수	12,8848		343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331		22,188
	수입유발승수	0,1669		4,445
2011	생산유발승수	1,6526	39,813	65,795
	소득유발승수	0,3396		13,521
	취업유발승수	20,8846		831명
	고용유발승수	12,8848		513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331		33,168
	수입유발승수	0,1669		6,645
2012	생산유발승수	1,6526	46,001	76,021
	소득유발승수	0,3396		15,622
	취업유발승수	20,8846		961명
	고용유발승수	12,8848		593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331		38,323
	수입유발승수	0,1669		7,677
2013	생산유발승수	1,6526	46,504	76,852
	소득유발승수	0,3396		15,793
	취업유발승수	20,8846		971명
	고용유발승수	12,8848		599명
	부가가치유발승수	0,8331		38,742
	수입유발승수	0,1669		7,761

(2)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 북한의 관광 수입 증대
- 북한의 경제 회복에 기여 (Seed Money 역할 수행), 경제력 향상
- 북한의 신인도 증가에 따른 제3국의 투자 증가
-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북한에 국제적인 종합관광지 개발 가능성)
- 개성문화관광을 백두산관광으로 확대 시킬 경우 연간 약 12만~15만명으로 추정되고 남한 관광객의 백

두산 관광을 위해서 중국에 지출하던 백두산 관광비용을 북한의 관광수입으로 확보 할 수 있음.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1년 간 개성문화관광 참여자 110,549명으로 받은 1인당 100달러의 수입은 약 1천1백만 5만 달러에 달하고 관광객 1인당 개성문화관광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달러를 합치면 총 1천3백26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2013년까지 개성관광이 계속되었다는 가정 하에 1백12만7천여명의 관광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 1억1천2백7십5만달러와 관광객 1인당 개성문화관광시 음료수 및 간단한 기념품 및 개성야과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약 20달러의 수입 약 2천2백5십여만 달러 등 총 1억3천5백3십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개성문화관광을 시작할 때 개성을 관광지로 개방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 수입을 5개년으로 나누면 개성관광으로부터 얻어지는 외화수입은 1년 평균 약 2천7백만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3년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5만4천여 명의 근로자의 기본임금67.5 달러에, 연장·야간 근무 시에 시간당 노임의 50%를 가산하고, 휴일의 경우 주 4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무 노임에 더해지는 100%수당과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 상금, 인센티브, 이에 더해 월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임금의 총임금 약 145달러이다.

1년 평균 약 2천5백8십만 달러라는 관광수입은 2012년, 개성공업지구에 2012년에서 근무한 5만4천여 명의 연간 임금 총수입 약 9천4백만달러와 비교하였을 시 28.7%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입이라 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근로자 5만4천여명이 하루 8시간 임금과 초과 근무를 하였을 때 생기는 수입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개성문화관광에 투입되는 인원을 비교할 때 개성문화관광은 북한에 외화획득 측면에서 다른 어떠한 남북경협사업보다도 고효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개성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부분의 남북경협사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파급되는 효과는 간단히 계산되기에 어려울 정도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성문화관광 운영에 투입되는 북한의 인력을 1천명이라고 가정하여도 1년에 개성문화관광에 종사하는 1인당 약 27,000달러의 외화 획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는 개성문화관광사업 이상으로 외화획득에 효율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번 연구에서는 1일 관광인원 650명을 가정하여 산출된 수치이지만, 한국관광공사의 2005년 연구보고서에서 예측한대로 1년차 관광객수 34만명 (약 1,086명/일), 2년차 50만명(약 1,597명/일), 4년차 100 만명 (약 3,195명/일), 10년 뒤엔 연 200만명(약 6,390명/일)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대로 개성문화관광에 대한 수용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이 개성문화관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막대하게 될 것이다.

하루에 2,500명의 관광객만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성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면 1년에 78만여명(1일 2,500명 * 313일)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임금 수입과 동일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계산을 얻을 수 있다.(관광비용 100달러 + 식음료 선불비등 20달러 ⇒ 관광객 1인당 120달러 외화획득 가능, 120불 * 313일 * 2,500명 = 9천3백9십만달러)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북한의 다른 지역의 관광지 개발에 재투입 되고 그 곳에서 창출 되는 수익이 또 다른 북한 관광산업에 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게 된다면 북한에서의 관광산업은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개성문화관광은 안보, 평화, 북한의 신비성과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적지라는 요소들이 잘 융합된다면 이미 1천1백만 명이 넘어진 남한의 외래 관광객들에게 다른 나라 어느 곳

에서도 접할 수 없는 특징 있는 관광 상품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1일 2천5백 명의 관광객 유치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의 근본이념이 사람의 교류, 상호 이해와 평화의 창출이라는 것을 되돌아 볼 때 북한에게 개성문화관광사업은 갈고 닦아야 할 흙속에 묻혀 있는 금강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4. 개성문화관광사업의 발전방향 및 시사점

1) 개성지역 문화유산 관광사업의 발전방향

개성문화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사이에 개성시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었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 개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을 잘 활용하여 역사문화관광, 왕릉관광, 산성관광, 성군관관광, 사찰관광, 새로 개축된 영통사 불교 기행 등 독창성 있는 개성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개성문화관광이 활성화된다면 개성문화관광프로그램은 비정치적인 민간차원에서 남북의 상호이해와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직후인 1998년 12월7일에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통일의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교류 확대(44.4%)로 조사되어 있고, 관광교류는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영운, 1997)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관광이 동독주민과 서독주민의 왕래를 촉진시키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 되었다. 따라서 남북의 관광교류는 남북한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정착 및 통일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정철 2002)

개성문화관광자원 상품개발 전략과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성문화관광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성 보장과 한번 예약해 놓은 관광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많은 관광지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기까지에는 탐색과정과 결정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약 해놓은 여행이 일방적인 통보 하나로 취소된다면 그 관광상품은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당국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개성문화관광관리위원회' 또는 남북관광을 총괄하는 '남북관광관리위원회' 같은 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가칭 '한반도 관광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관광의 중장기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문화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관광객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박연폭포와 같이 잘 보존된 자연경관과 송악산 등을 대상으로 자연탐승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잘 융합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남한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자연

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고 감상하는 자연탐승관광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 역사 유적지에만 중점을 둔다면 역사나 유물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관광객에게 자연관광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1년간 실시되었던 개성문화관광객의 반응을 보았을 때 북측의 관광안내원이 너무 역사 이야기만 하였을 때 관광객의 반응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셋째, 자연탐승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기본으로 하고 DMZ 생태관광상품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성을 출입하려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후에 유엔사령부와 북한, 남한이 동시에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DMZ 통과 시 잠시라도 그 지역의 순수한 공기와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관광객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넷째, 개성문화관광이 정착하게 되면 개성문화관광을 확대 재생산시켜 남한의 많은 관광객이 육로를 통하여 개성 이외의 많은 북한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한 평양관광까지 연결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전적으로는 남한 관광객만을 위한 개성문화관광이 아닌 관광객과 개성주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합동 공연 도라산~개성을 잇는 평화마라톤 대회, 휴전선과 DMZ을 지나가는 자전거 타기 등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개성시와 그 인근 지역의 역사유적지, 북한식의 고유한 건축물, 북한의 탈출 등 문화프로그램, 아직까지 남아있는 화문석, 수예, 수공예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으로 매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치적, 군사적 남북관계가 정색될수록 개성문화관광은 적극 추진되어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즉 정치적, 군사적 환경에 가능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성문화관광을 개성공업지구법의 범주에 넣는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13년 9월에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개성문화관광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전제로 시작되었던 만큼 개성공업지구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성문화관광이 추구하는 평화와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장판 역할을 할 수 있다.

2) 시사점

개성문화관광의 순조로운 진행은 북한주민에게도 관광, 식음료, 음식점, 숙박, 교통, 민속공예품, 그림, 서예작품을 포함한 북한 상품 판매 등,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북한 내부의 생산증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증진 등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는 김정일은 제1위원장이 대외에 공표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획득과 경제발전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개성문화관광의 운영에 있어서 북한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개성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하였고, 개성이 고구려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남북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관광객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많은 산업 중에서도 관광산업 이상으로 외부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교하여 수요의 탄력성이 큰 산업인 동시에 안전성 확보에 민감한 사업이

기 때문이다.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관광을 하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세계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동향은 많은 관광객을 흡인하는데 그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나 경제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관광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아시아 지역의 입국 관광객 수는 향후 2030년에는 총 5억 2,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국내 관광객 수가 총 30억 명에 이르렀고 중국이 세계관광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력과 점유율을 더욱 커져 갈 것이다.

북한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접경지역 관광객과 평양을 비롯한 전지역을 포함한 외래방문객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강산에도 중국관광객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에 남한은 2012년에 이미 외래방문객수 1천1백14만 명을 달성하였고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인바운드 관광객의 25.5%를 차지하면서 2백8십만 명을 넘었다. 2013년에는 1천2백5십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한의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일부만이라도 개성문화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은 비교적 수월하게 남한을 통하여 적지 않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 및 재발방지, 금강산 시설 동결 및 몰수, 지난 5년간의 토지 및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등의 임대료 문제와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5·24조치, 새로운 '금강산관광특구법' 발효와 같이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과 다르게 개성문화관광은 북한이 2008년 11월에 예고한 "남북통행 제한 조치"에 의하여 중단되었기 때문에 관광재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침체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때 관광재개에 별반 문제가 없는 개성관광부터 재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이며, 이러한 시도가 진정한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성문화관광은 남한의 수도권과 1~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호텔 건립 등에 들어가는 대규모 초기투자 없이도 식당 시설 확충 정도의 투자와 주차장 정도만 확보한다면 당일관광객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반경 13~15km 이내에 주요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으므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투자에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며 이미 통일대교부터 개성공업지구를 거쳐서 개성 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완비되어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개성문화관광의 활성화는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남한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 관광상품의 매력도 및 유인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2015년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1억명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남한이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1%만 더 유치하여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수도권과 개성지역 등 남북한 접경지역 관광으로 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한 인바운드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에 해외로 여행을 나간 남한 관광객의 수가 1천3백7십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북한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루 평균 3만7천5백여 명의 남한관광객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남한국민의 국내 당일여행 횟수는 5천5백5십만회, 숙박여행의 횟수는 4천2백7십만회를 기록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하루에 2천5백여명의 관광객을 개성역사문화지구나 개성 인근의 새로운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다면 북한은 5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어지는 외화획득과 동일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무공해, 지속가능한 21세기 최고의 첨단 산업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통찰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가 계량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반면 관광분야는 비정치적 남북교류 중에서 교류의 규모면에서 인원수나 금액으로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분위기 정착, 그리고 남북 모두에게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관광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열쇠는 남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숙고할 때가 되었다.

북한은 개성문화관광이야말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회생을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는 '마식령스키장'과 같이 자금이나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아도, 관광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만 제대로 조성한다면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남한은 개성문화 관광을 단순한 관광사업의 하나로 보지 말고 진정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최선의 방책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성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과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 현재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국제화 문제 등도 개성문화관광이 재개 된다면 국면전환으로 인해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이 남한의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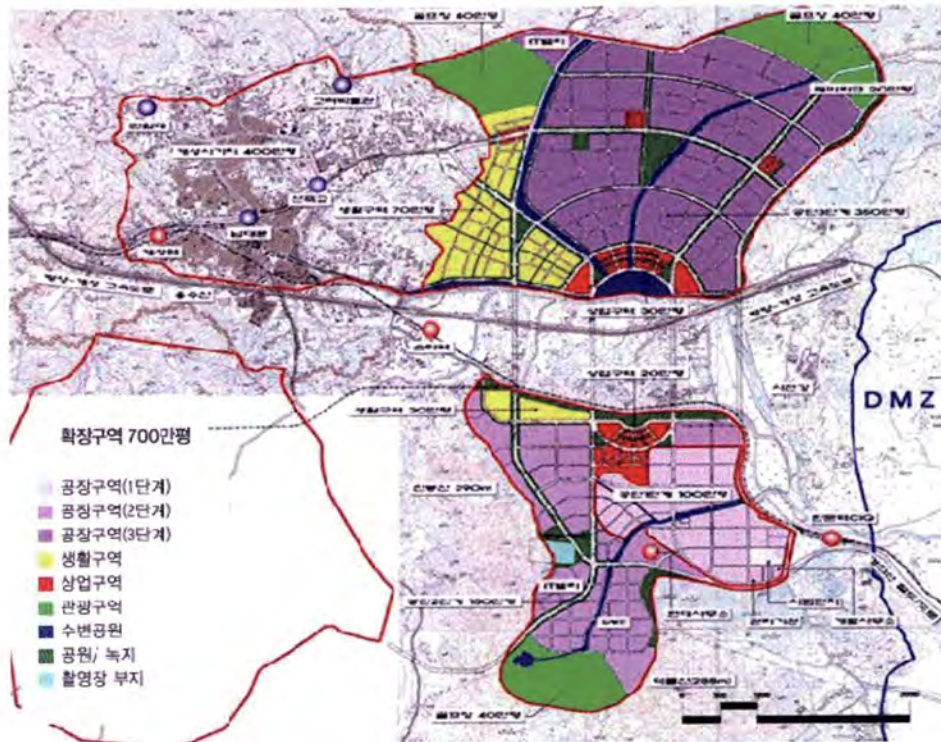
- 정광렬 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전망 및 방향, 2009
- 이강욱,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9
-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10
-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2011
- 정광렬 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전망 및 방향, 2009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분석, 201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 분석, 2011
-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개성문화관광 심포지엄 자료집, 2007
- 안성호, 글로벌 외교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9
- 김철원, 남북관광 협력과 통일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08
- 신용석 외,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005
- 김사영,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2010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1997
- 김사영 외,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 분석, 2009

- 최용환,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 채택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2013
- 이규석,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0
- 홍순직, 개성공단 개발 가시화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0
- 고태호 외,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1
- 이영희, 지명 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 2006
- 한국관광공사, 개성공단 개발 대비 체계적 개성관광 육성 방안, 2004
- 한국관광공사, 개성관광 종합계획, 2005
- 홍순직,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2007
- (주)현대아산 홈페이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통일부 평화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통일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 문화재청 해리티지 채널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여행신문, Travel Times www.traveltimes.co.kr.
- 국민여행실태조사, 2008, 2009, 2010, 2012
- www.dailyNK.com
-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년

※ 별첨 자료



서울-개성-인천 삼각 연계도(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조감도 및 개성문화관광 구역구역도(자료 : 현대아산)

개성의 건축문화유산

강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1. 머리말 - 개성의 역사지리와 역사유적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 고려의 건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곳이다. 최근 개성의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다시 한 번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게 하여 주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6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등록이 결정되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는 개성성벽 5개 구역, 만월대(滿月臺)와 첨성대(瞻星臺) 유적, 개성 남대문(開城南大門), 고려 성균관(成均館), 숭양서원(崇陽書院), 선죽교(善竹橋)와 표충사(表忠寺), 왕건릉(王建陵)과 7개 왕릉, 명릉(明陵), 공민왕릉(恭愍王陵)을 포함한다. 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것 외에도 많은 수의 고려시대를 비롯한 한국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이전에 이러한 자원에서의 조사 및 연구가 진행¹⁾된 바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와 연구 등을 통해 추가 등재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그러한 관점에서 개성에 남아있는 건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목록화한 후 현황을 고찰해보고 향후 보존 방향 등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 『대동여지도』 개경 부근

1) 최근에 진행된 사업 중 개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성의 문화유적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으로는 사단법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 KOREA),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사업 - 북한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1 - 개성 역사지구』 2004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심포지엄들이 개최되면서 논고 형태로 정리 발표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1) 개성의 역사지리

개성은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하며 서해안을 접하는 평야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일찍부터 사람들의 거주가 이루어진 지역이며, 이러한 사실은 발굴을 통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출토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세력이 부딪치는 지점이었다.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고구려에 편입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신라에 복속되었다. 고구려 시기에는 동비홀(冬比忽)과 부소갑(扶蘇岬) 등 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후기 신라 때에 동비홀을 개성군으로, 부소갑은 송악군으로 고쳤다.

이러한 개성지역이 도성으로 이용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9세기말이다. 왕건의 부친이 태봉국의 왕 궁예에 건의하여 송악산 남쪽에 성곽을 쌓았는데 그 성이 발어참성(拔禦塹城)이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918년에 수도를 송악산 아래로 정하면서 개성은 한 나라의 도읍지가 되었다.

최초 수도로 정할 당시의 명칭은 개주(開州)였으며, 그 후 995년에 개성부(開城府)로 변경되었다. 1018년에는 개성부 대신 수도권 지역 전체를 묶어 경기도(京畿道)로 하였다가 1062년 다시 개성부로 환원하였는데, 이전의 개성부보다는 관할지역이 넓어졌다.

몽고 침입시에 일시적인 천도가 이루어지는데 1232년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1270년 환도하였으며 이 무렵 개성현으로 불리우다가 1308년에서야 다시 개성부가 되었다. 조선의 개국과 함께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도읍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개성은 유구한 역사만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고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궁성을 중심으로 왕성(王城), 나성(羅城)을 쌓아 3중의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그 때문에 성곽과 관련된 유적이 풍부히 남아 있다. 또 이 지역의 건축문화유산은 특히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의 왕도로서 궁궐을 비롯한 공공건물, 불교 및 유교 관련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지금도 풍부하게 남아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뒤에서는 이러한 개성의 문화유산 중 특히 건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개성의 역사유적

개성 지역의 역사유적은 고려 이전의 것도 남아있으나 왕도로서 존속하였던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중요 유적은 우선 궁궐(宮闕)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도성(都城)을 비롯한 여러 성곽들이 풍부히 남아 있다. 한편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 풍부히 남아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이러한 주요 유적과 관련하여 왕릉, 비석, 다리 등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주요한 역사적 자료로 존속하고 있다.

뒷 장에서는 남아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개별 건축문화유산을 상세히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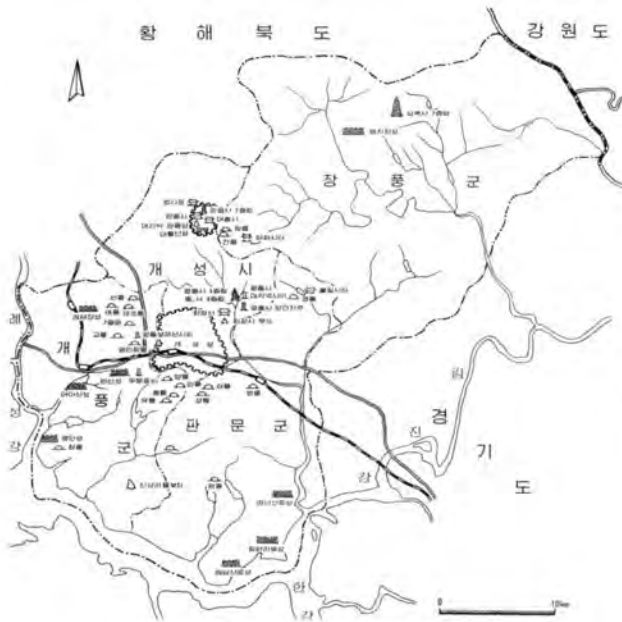


그림 2. 개성 주변 주요 유적 분포도
(『북한의문화재와 문화유적 IV』, 2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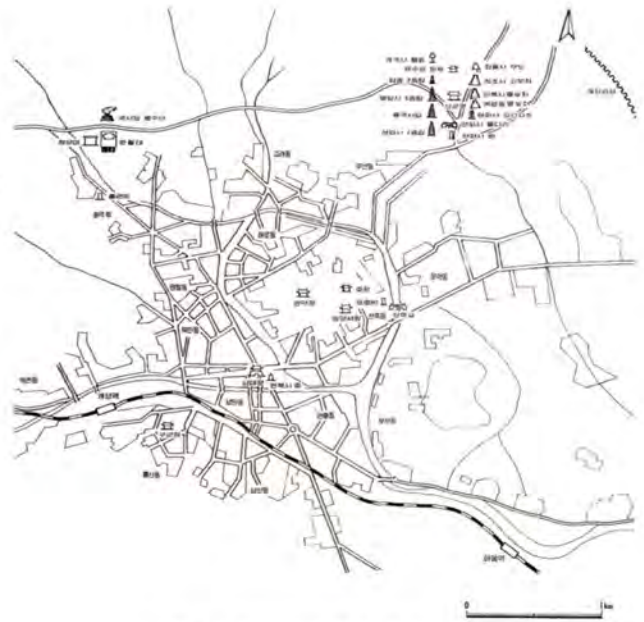


그림 3. 개성 시내 주요 유적 분포도
(앞의 책, 262쪽)

2. 개성 건축문화유산의 개요

현재까지 확인된 개성 일대의 문화유산은 주로 개성시와 서측인 개풍군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동쪽의 장풍군, 판문군은 상대적으로 그 수량이 많지 않다. 개성 일원에서 유적이거나 유구가 확인되는 것은 북측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48개소이다.²⁾

1) 궁궐건축

개성의 건축문화유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궁궐이다. 궁궐은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당대의 최고의 건축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성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적은 고려의 법궁(法宮)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만월대(滿月臺)이다. 만월대는 삼국으로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궁궐 조영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만월대의 경우 왕조가 망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터로서만 남아 있기는 하나 석축과 기단, 초석 등 석물들이 잘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만월대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지표조사 수준에서 조사된 것이 전부였다가 최근 북측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이 진행 중이다. 최근 관계 악화로 인하여 발굴의 진전이 더딘 점은

2) 궁성희,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반부편 20, 21)』, 『조선고고연구』2000-1,2, 사회과학출판사, 2000.(참호수, 앞의 글, 78쪽에서 재인용)

아쉬우나 지속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려 궁성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성에는 만월대 이외에도 왕과 관련된 유적으로 목청정(穆淸殿)과 경덕궁(敬德宮)의 터가 남아 있다.

표 1. 개성의 궁궐 관련 유산

순번	문화재명	유형	시기	지정사항	소재지
1	만월대(滿月臺)	궁궐	고려	국보유적 122	개성시 송악동
2	경덕궁터(敬德宮址)	궁궐	고려	보존급 1545	개성시 남산이동
3	목청전(穆淸殿)	궁궐	조선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운학동

(1) 만월대(滿月臺)

송악산 아래 위치한 만월대는 고려시대의 전 기간 왕조의 정궁으로 이용되었던 유적이다. 고려의 건국과 함께 조성되어 11~12세기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궁궐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이후인 15세기에 황폐화 되어 터만 남게 된 유적이다. 만월대가 처음 건설된 것은 고려가 건국된 다음 해인 919년이며, 이후 광종연간에 한 차례 대규모 증축을 거치면서 초기 궁궐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궁궐의 주요 건물로는 정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천덕전(天德殿), 편전인 상정전(祥政殿), 중광전(重廣殿), 내전인 신덕전(神德殿) 등의 전각과 위봉루(威鳳樓), 구정(毬庭) 등이 있다³⁾. 이후 1011년 거란의 침입으로 초기의 궁궐이 완전히 불타 버렸는데, 현종이 환도 후 2차례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회경전(會慶殿)을 비롯한 다수의 전각을 신축하여 전성기의 궁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126년 이자겸의 난으로 다시 궁궐이 잿더미가 되어 당시 궁궐에 남은 건물은 금원의 정자뿐이었다. 난 수습 후 인종이 궁궐을 중수하고 전각명의 개명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1232년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면서 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환도 이후 다시 궁궐을 중건하였으나 예전의 위용은 갖추지 못하여 왕들은 주로 이궁에 거처하였으며 1362년 홍건적의 난으로 다시 폐허화되어 다시 복구되지 못하였다⁴⁾.

궁성은 황성의 내부 북편, 송악산에서 내려오는 구릉이 끝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정궁인 본궐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919년 철원에서 개경으로 천도하였을 때 후고구려의 궁궐을 이용해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길이는 2.17km이다. 궁성 북편에 있는 얇은 구릉에 의지하여 건물들이 남편으로 전개되어 있다. 성벽은 서벽 일부와 동벽이 남아 있으며, 특히 동성벽에는 문설주로 사용된 하나의 석주와 계단이 남아 있고, 여기에서 남으로 광명천에 이르기까지 토담 형태로 잔존한다고 하였다⁵⁾.

궁궐은 크게 입구구역, 외전구역, 내전 및 침전구역, 동궁구역, 금원구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입구구역은 궁궐의 정문인 승평문(昇平門)에서 구정(毬庭), 광명천(光明川), 신봉문(神鳳門)을 거쳐 회경전 앞의 궁문인 창함문(闕闔門)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이다. 구정은 각종 의례와 격구를 하던 곳으로 신봉문에서 왕이 참관하였다.

신봉문에서 정전이 있는 외전구역으로 진입하는 창함문, 내전 및 침전구역으로 가는 태초문(太初門), 동궁으로 가는 춘덕문(春德門)이 위치하였다.

3) 『고려사』 권92 열전5 崔彦福 (충명의, 『고려시대 개경의 도시구조와 주거』,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37쪽에서 재인용.)

4) 이삼준, 『개성의 문화유산과 개성의 현모』, 『2012 개성한옥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13쪽.

5) 정찬영, 『만월대 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69년 제1호.

외전구역은 창합문을 들어서면 높다란 축대가 나오고 축대 위에 회경전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정전인 회경전이 자리한 중심공간 뒤편으로 장화전(長和殿), 원덕전(元德殿)이 각각 회랑으로 둘러쳐진 일곽을 이루며 그 뒤 북쪽으로 전개되었다. 특이한 점은 회경전과 축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의 궁의 입지와도 연관되지만 엄격한 제도의 구현보다는 지세를 따른다는 점에서 조선의 궁궐과 비교해 볼 경우 경복궁(景福宮)과 대비되며, 창덕궁(昌德宮)과 유사하다. 또한 좌우에 있는 동궁이나 내전 및 침전구역에 비해 4~10m 정도 높은 축대를 쌓아 중심축의 건물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 공간의 위계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회경전은 궁궐의 정전으로 국가의 의례와 사신 영접 등의 주요한 의전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였다. 한편 장화전은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던 곳이며, 원덕전은 군사회의 및 죄인의 형벌을 다스리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내전 및 침전 구역은 회경전이 위치한 중심공간의 서편에 위치하며 편전이라 할 수 있는 건덕전(乾德殿)을 비롯하여 만령전(萬齡殿), 장령전(長齡殿), 선정전(宣政殿), 경령전(景寧殿) 등의 전각이 밀집해 있었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건덕전 뒤에 만령전, 건덕전 동편에 장령전, 장령전 북쪽에 연영전, 연영전 북쪽에 청연각과 보문각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발굴조사를 통해 전각의 위치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 중 경령전과 집희전(集喜殿)은 발굴조사를 통해 위치가 밝혀졌다. 경령전은 5대왕의 진영(眞影)을 모신 진전(眞殿)이며, 집희전은 경령전에서 의식 거행시 왕이 잠시 머무는 장소이다⁶⁾.

동궁 구역은 중심구역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록에는 좌춘궁(左春宮)과 동지(東池)가 있었다고 전한다. 북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심구역 동편 80m 지점에서 지하 배수시설이 발견되었고, 이 배수시설에서 다시 동으로 70m 떨어진 곳에서 둘레가 1,030m에 이르는 연못이 발굴되어 이 곳이 동지로 확인되었다.

금원 구역은 궁궐의 가장 뒤쪽에 있는 낮은 구릉으로 산호정, 상춘정, 의춘루(宜春樓) 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만월대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유적과 출토되는 유물들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향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략히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개성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 합의를 체결하고 그 해 3월에 발굴조사와 관련한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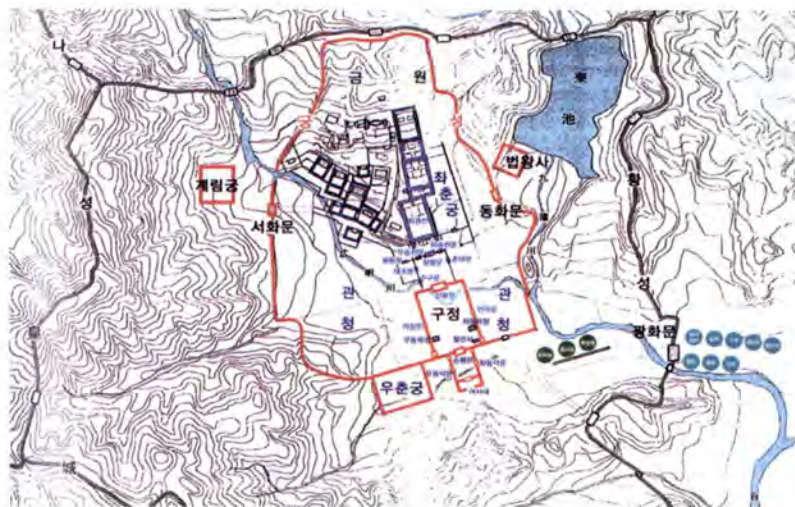


그림 4. 『고려도경』에 따른 인조 당시 궁궐과 관청
(홍영의, 『고려시대 개경의 도시구조와 주거』,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보고서』, 45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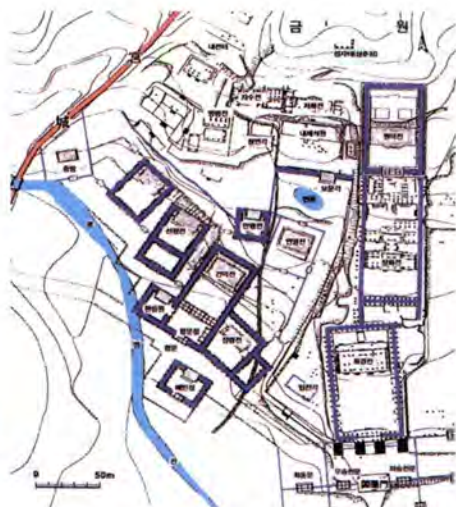


그림 5. 궁궐 배치도 세부
(홍영의, 앞의 글, 46쪽, 재인용)

6) 이상준, 앞의 글, 13쪽.

협의 및 고려 궁성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개요가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동년 6월에 <개성역사 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합의서>를 채택하여 만월대에 대한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 발굴은 2007년 5월 15일 1차 공동발굴조사가 착수되었으며, 그해 7월 13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이 발굴조사는 만월대 서편 건축군에 대한 시굴조사로 약 33,000㎡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2008년 7월 보고서로 발간되었다⁷⁾. 이후 거의 매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조사는 2007년 9월 7일~11월 16일까지 시행된 조사로 시굴조사 지역 중 긴급발굴 필요지역 2,880㎡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3차 조사는 2008년 11월 4일~12월 23일 실시되었는데, 시굴조사 지역 중에서 경령전 일대 3,000㎡ 정도의 지역이 조사되었다. 이 때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는 도록의 형태로 2009년 우선 정리되어 발간되었다⁸⁾.

이후 2009년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10년 다시 재개되어 4차 조사는 2010년 3월 23일~5월 18일까지 경령전 일대 남쪽 건물지군 3,000㎡에 대한 조사가, 그리고 2011년 5차 조사는 수해 등으로 훼손된 유적의 안전진단 및 복구조사와 병행되었으며, 유적 전체 지역에 대한 석축 등의 안전 검토와 유구조사가 병행되었는데,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건덕전 북측지역 3,000㎡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11월에는 개성 고려궁성과 관련된 국제 학술심포지엄⁹⁾을 개최하기도 하여,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고려궁성은 개성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축문화유산 자원으로 향후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 경덕궁지(敬德宮址)¹⁰⁾

경덕궁은 개성시 남산2동에 있는 조선초의 왕궁터이다. 궁지는 동서로 긴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다. 담장의 길이는 450m 정도이며 높이는 1.5~2m 정도이다.

원래는 개성 중부 남계방(南溪坊 : 속칭 楸洞)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태종도 이 곳에서 살았는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경덕궁이라 하였다. 태종이 궁을 증설하였으며, 태조 18년(1418) 4월에 새로이 누각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7월에 또 북량정(北凉亭)을 신축하였다. 정종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다시 도읍을 개성으로 옮긴 뒤 태종이 즉위하자 본궁이 협소해서 위사(衛士)들이 노숙을 하는 형편이라 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환도한 뒤에도 후대의 왕들의 순행시나 제릉(齊陵 : 태조비 신덕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의 능)과 후릉(厚陵 : 정종과 그의 비 정안왕후 김씨[定安王后 金氏]의 능)을 참배할 때면 이곳에서 묵었다. 종종 때 대대적인 수리계획을 세우고 29간을 증축하려 하였으나, 중신들의 건의로 보류로 중지된 적이 있으며 별제(別提) 2인을 두어 지키게 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옛터만 남아 있다.

현재 건물지는 찾아 볼 수 없으나 동쪽 담장에 경덕궁의 정문인 삼문이 남아 있다. 또한 경덕궁지 담장안 서쪽에 경덕궁비가 있으며, '어정(御井)'으로 전해지는 우물도 하나 남아 있다. 건물지가 명확하지 않아 배치가 원래 어떠한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서쪽에 궁궐의 주건물이 자리하고 기타 부속건물이 북쪽과 남쪽 좌

7)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8)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9)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수도 개경과 동아시아의 도성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10) 전홍철 · 김진석, 앞의 책, 30~31쪽.

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문(三門)은 정면 3칸(7.4m), 측면 2칸(2.4m)의 맞배지붕 홑처마 건물이다. 높이 1m 정도의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세웠다. 초석은 모두 방형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바깥쪽에 있는 4개의 초석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형태의 것인데 비해 문 안쪽의 초석 4개는 아래위가 같은 형태의 것이다. 초석의 높이는 문 안쪽의 것이 66cm로 높은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지름이 30cm 정도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문 안쪽의 양측면 기둥 2개만 38cm 정도로 굵은 것이 사용되었다. 기둥의 높이는 어간은 2.32~2.39m, 양측면의 기둥은 1.8~1.85m 정도이다.

정덕궁지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원래의 모습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목청전(穆淸殿)¹¹⁾

목청전은 개성시 운학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곳은 원래 태조의 잠저(潛邸)로 태조가 왕이 되기 전 살던 곳이다. 조선 초 태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진전(眞殿)으로 태종 18년(1418) 원래의 집을 중건하여 최초 창건되었다. 당시 숭효사(崇孝寺)를 세워 명복을 빌게 하였으나 후에 철거되었다. 세종 25년(1443)에 정인지(鄭麟趾)에 의해 태조 어진이 봉안되었으며, 임진왜란 시 완전히 소실되었다. 효종 8년(1657)에 담장을 쌓고, 숙종 19년(1693)에 비석을 세웠다. 현재의 목청전은 광무 5년(1901)에 복원된 것이다. 이 때 영전 및 재실과 행랑들을 재건하였다. 당시 태조의 초상을 다시 걸었으나 1908년에 다시 초상을 거두어 빈 집만 남게 되었다. 한국전쟁 시 다시 한 번 훼손되었던 것을 1954년 8월 복구하였으며, 현재는 정자각(丁字閣)과 비각, 재실 등이 남아 있다¹²⁾.



그림 6. 목청전 전경(『朝鮮古蹟圖譜』 수록)

정전은 외문에서 이어지는 답도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기단 위에 축을 맞추어 자리하고 있다. 정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본전에 전면 1칸, 측면 2칸의 각(閣)을 덧붙여 '丁'자형의 평면 형태를 갖는 건물이다. 공포는 이익공(二翼工) 형식의 공포이며, 주간에는 화반을 두어 상부의 부재를 받도록 하였다. 전면의 각은 팔작지붕이며, 본전은 맞배지붕이다. 초석은 원형주좌를 둔 초석이며 원주를 사용하였다.

창호는 돌출된 전면의 각 3면과 본전의 양협칸에 시설되어 있는데 모두 네짝의 띠살문이며, 창방과 문인방 사이에는 광창을 두었다. 본전의 양측면은 화방벽으로 마감하였다. 처마는 모두 겹처마를 사용하고 지붕마루는 전부 양성마루로 처리하여 격을 갖추었다.

창호는 돌출된 전면의 각 3면과 본전의 양협칸에 시설되어 있는데 모두 네짝의 띠살문이며, 창방과 문인방 사이에는 광창을 두었다. 본전의 양측면은 화방벽으로 마감하였다. 처마는 모두 겹처마를 사용하고 지붕마루는 전부 양성마루로 처리하여 격을 갖추었다.

2) 성곽 및 공공건축

개성은 896년 건설된 태봉국의 발어참성(拔禦塹城)을 기반으로 황성(皇城)을 건설하였다. 이후 1029년

11)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Ⅲ-일반건축편』, 2002, 297; 전용철·김진석,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88~89쪽의 내용을 주로 참조.

12) 전용철·김진석, 앞의 책, 88쪽.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나성(羅城)¹³⁾을 축조하면서 궁성(宮城), 황성(皇城), 나성(羅城)의 체계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나성은 조선초인 1393년에 축조된 내성과 비교하여 외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각 성곽의 요소에는 문루 시설들이 설치되었는데 현재 성곽과 함께 이러한 시설들의 일부가 남아 있다. 한편 개성에는 궁궐을 제외한 공공건축물로 조선시대 설치된 관영건물들이 일부 남아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개성지역에 남아 있는 정자건축도 지역의 경관 주요요소로 주요한 건축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개성에 남아 있는 정자건축으로는 박연리에 있는 범사정(泛沙亭), 용산동의 구군정(九君亭), 선죽동의 호정(虎亭), 자남동의 관덕정(觀德亭) 등이 있다.

(1) 개성 남대문(開成南大門)

개성 남대문의 개성의 내성(內城) 남문으로 조선 개국초 내성이 건축될 당시 건립되었다. 내성은 고려의 도성 방어를 위해 나성(羅城) 안의 일부 구간을 막아 쌓은 성이다. 축성공사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진행되었으며 평면이 반달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반월성(半月城)이라고도 불리운다. 내성을 쌓을 때 남대문과 동대문, 서소문과 진언문(進言門) 등 여러 성문들이 같이 건설되었는데 현재 유존하는 것은 남대문이 유일하며, 이 문도 한국전쟁 기간 중 폭격으로 소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남대문은 중세 성곽에서 흔히 보이는 홍예문이 있는 석축 위에 문루를 둔 형태이다. 현재의 육축부는 매우 낮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랫부분이 많이 문혔기 때문으로 석축의 높이가 원래보다는 많이 낮아졌다¹⁴⁾. 상층의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서울의 숭례문(崇禮門), 광화문(光化門), 수원 화성의 팔달문(八達門), 장안문(長安門) 등에 비해 건물의 격이 낮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개성 남대문 내부에는 종이 걸려 있는데, 이는 원래 연복사(演福寺)에 있던 종¹⁵⁾으로 명종 18년(1563년) 연복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지며, 개성 시가지에서 타종하여 시각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홍예문은 통로의 전후로는 아치를 쌓고 가운데 부분은 상판을 대어 마감한 일반적인 형태이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내부에는 기둥을 두지 않고 어간에 우물마루를 깔았다. 초석은 약 90cm 높이의 장초석으로 방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모서리를 죽인 형태로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형태의 초석이다. 기둥은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는데 안솔림과 귀솟음이 있다.

남대문은 다포식 건물로 주상포 외에 어간에 3구, 양협칸 및 측면 주간에는 각 2구씩을 두었다. 공포는 내외 1출목의 것으로 내외가 동일한 출목을 갖는 초기 형식 공포이며, 주상포와 주간포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형식의 것을 사용하였다. 공포의 짜임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두 위에 양서의 쇠서가 달린 살미첨차와 소첨차를 결합하여 초제공을 짜고, 그 위에 권비형의 살미첨차와 대첨차를 결합하여 2제공을 구성한 위에 바로 대량을 받도록 하였는데 대량의 보머리가 외목도리 장여를 받는 첨차, 즉 행공첨차와 직접 결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보머리를 첨차와 결구시키는 방식, 즉 공포와 비교하여 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결구되는 방식은 려말선초까지 보이는 방식으로 고식에 속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13) 나성에는 송인(崇仁), 선가(宣旗), 보장(保定), 광덕(光德), 덕산(德山), 회빈(會賓), 선계(仙峯), 태안(泰安), 홍인(弘仁), 건덕(乾德), 보태(保泰), 선의(宣義), 산예, 영평(永平), 선암(仙巖), 자안(慈安), 창신(彰信), 영양(迎陽), 안화(安和), 성도(成道), 회창(會昌), 안정(安定) 등의 문이 있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14) 현재는 이치가 시작되는 부분의 하단에 장대석이 3단 정도 보이나,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에 의하면 4단 이상 보이며, 최근 숭례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조선시대 때 더 많이 문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정화한 높이를 파악하려면 지대석 위치의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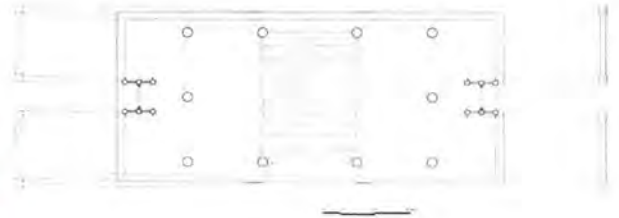
15) 고려 충목왕 7년(1364) 원나라 장인들에 의해 주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보물급 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공포 상단의 가구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외진주 기둥 상에서 도리를 사용할 때 외목도리, 주심도리, 내목도리 등 3개의 도리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중후기의 경우 주심이나 내목을 생략하여 2개의 도리로 상단의 서까래를 지지하는 방식¹⁶⁾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법도 초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성 남대문은 단층 문루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조선초기의 건축물로 건축사적 의의가 큰 건물이다.



개성 남대문 전경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그림 7. 개성 남대문(『북한문화재해설집 Ⅲ』, 103~105)

(2) 대흥산성 북문(開成南大門)

대흥산성은 개성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박연리에 있는 고려시대 산성이다. 동쪽의 성거산, 서쪽의 천마산 및 능선을 연결하여 쌓은 성으로 전반적으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에서 성의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계곡을 중심으로 능선을 연결하여 쌓은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다¹⁷⁾. 성의 전체 형태는 동서 길이 약 2,500m, 남북 길이 약 3,000m로 남북이 약간 긴 타원형이다. 성벽의 길이는 약 10km로 7,800m 정도는 돌로 성벽을 쌓고 나머지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성벽은 평균 높이가 3~5m 정도인데 평

16) 처마에 쓰이는 장연의 경우 주상에 3개의 도리를 모두 사용하면 서까래 하단의 지지점이 외목도리, 주심도리, 내목도리, 종도리 등 4곳이 되어 실제적으로는 지지가 안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중후기 이후 필요없는 부재를 생략하는 경제성 추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법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7) 손영식, 「V. 성곽」, 『북한의 문화유산 1』, 고려원, 1990, 300쪽.

지 및 계곡 등에서는 6~8m 정도로 높으며, 저변폭은 5~6m, 상단폭은 3~4m 정도이다. 축성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성내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와편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초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선 순조년간에 쓰여진『중경지(中京誌)』에 숙종 2년(1676)과 정조 7년(1783)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⁸⁾.

대흥산성에는 북문, 남문, 동문, 서문, 소동문, 소서문 등 6개의 큰 문이 있었는데, 그 중 현재 북문에만 문루가 남아 있다¹⁹⁾. 평지형인 소동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모두 홍예형 문이다. 이 밖에 산성에는 4개의 암문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으며, 수문도 4개소가 있었다. 군사 지휘소인 장대는 영청대를 비롯하여 모두 3군대가 있었으며, 주둔군 지휘관 관청인 제승당터도 남아 있다. 산성 내에는 대흥사와 관음사가 남아 있으며, 그 외에도 백련암, 선암, 적조암, 해인암, 취운암, 범암, 태안암, 운흥암 등이 남아 있다²⁰⁾.

대흥산성 북문은 송도삼절(松都三絶)로 꼽히는 박연폭포에서 길을 따라 약 200m 동남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은 폭과 높이가 3.7m, 통로의 길이가 5.5m인 홍예 상단에 장대석의 석축 한 단을 더 쌓고 그 위에 문루를 세운 것이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단층 우진각지붕 건물로 초익공 형식의 공포를 사용하였다. 지붕은 홑처마 양식이며 모로단청을 사용하였다. 초석은 방형의 장초석을 사용하였으며, 3칸 중 중앙칸과 측면 1칸에는 평난간을 두르고 마루를 깔았는데, 누마루 형식으로 높이가 높고 계단을 통해 오르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아담한 규모이지만 홍예문이 있는 육축부와 좌우로 연결된 성벽과 어울려 균형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루는 구조형식으로 보아 성벽의 보수시기인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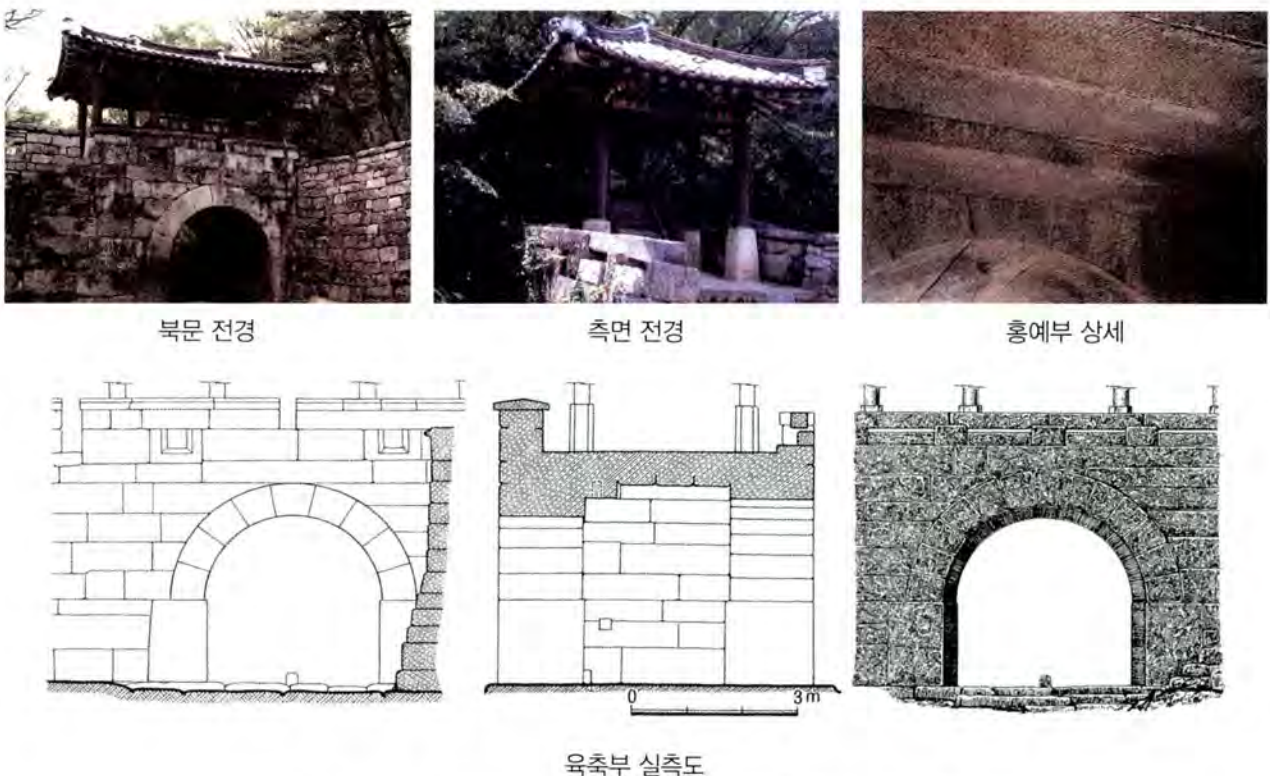


그림 8. 개성 대흥산성 북문(『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 76~77쪽)

18) 『북한문화재해설집 III -일반건축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08쪽.

19) 전룡철·김진석,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2002, 40쪽.

20) 전룡철·김진석, 앞의 책, 41쪽.

(3) 개성 유수영 문루(開成留守營門樓)

개성은 조선 건국 후 지방행정단위로 개편되었다. 건국 직후인 1394년 개경을 개성으로 고쳐 부르고 한양 천도 이후의 개성을 관할하기 위해 '유후사(留後司)'를 설치하였다. 이후 1438년 '유후사'를 '유수부(留守府)'로 고쳤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유수영의 여러 건물들을 건립하게 되는데, 유수영 문루는 이때 유수영의 정문으로써 다른 건물들과 함께 건립된 건물이다. 이후 1768년에 중수가 있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이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래의 위치는 북안동(北安洞)에 있던 것을 선죽동(善竹洞)으로 이진하였다가 현재는 고려 성균관(成均館) 구내, 즉 현재의 고려박물관 내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장초석을 이용한 누각식 건물로 공포를 사용하지 않은 굴도리집 형식에 팔작지붕 건물이다. 초석은 방형으로 모죽임을 한 장초석으로 전면의 어칸 양 옆 초석에는 '관리중진(管理重鎭)', '분사고도(分司故都)'라는 음각된 명문이 남아 있다. 장초석 위에 귀틀을 설치하여 마루를 깔았는데 우물마루 형식이며, 마루 주위로는 계자각 난간을 설치하였는데, 초각이 화려하지 않은 간략한 형태의 것이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 위에는 공포를 두지 않고 창방과 굴도리만을 설치하여 서까래를 받도록 한 간략한 구조이다. 처마 역시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가 아니라 홀처마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소박한 형식의 의장으로 처리되어 있다. 현재 문루에 오르는 계단이 후면쪽 어칸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아의 문루로 사용하는 경우 누의 하부가 진입부가 되므로 계단을 가운데에 설치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성 유수영 문루도 이진 과정에서 건물들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개성 유수영 문루는 다른 관아 정문과 비교해 볼 때 그 의장이 매우 소박한 것을 사용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문루 전경



문루 내부



초석 상세

그림 9. 개성 유수영 문루(『북한문화재해설집 Ⅲ』, 40~41쪽)

(4) 개성객사 태평관(開成客舍 太平館)

개성객사 태평관은 현재는 소실된 건축물이나 일제강점기까지는 존속하던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발간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태평관의 모습을 보면 정면 4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었다. 건물 전면 마당에는 박석으로 포장한 보도가 건물로 연결되고 있으며, 기단은 치석이 잘 된 장대석을 사용하여 전면은 2단으로 하고 측면과 후면은 외벌대로 구성하였다. 공포는 익공을 사용한 건물로 가구는 전후퇴 2고주 형식으로 고주 상단에 종보를 설치하고 대들보와 뒤통보는 고주 몸체에 삽입하여 고정한 형태이다.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 형식으로 천장의 반자를 설치하지 않았다. 처마는 겹처마 형식이며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등의 지붕마루는 양성바름을 하여 마감하였다. 관아건물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일제강점

기까지 남아 있던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소실되었다.



그림 10. 개성객사 태평관 전경
(『朝鮮古蹟圖譜』 수록)



그림 11. 내부 가구
(『朝鮮古蹟圖譜』 수록)

3) 불교건축

고려시대는 불교가 중흥하던 시기이므로 개성 주변에 남아 있는 불교관련 건축문화유산은 불교사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찰은 그 수가 매우 적는데, 이는 조선시대 폐사된 경우도 있으나, 특히 해방 이후 많은 수의 사찰들이 북한의 정책에 의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제정된 토지개혁령에 의하여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고 산림도 몰수하였으며, 또한 승려들을 노동현장에 부역케 하는 등의 정책 시행으로 사찰의 경제적 기반을 잃고 몰락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존 사찰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므로 개성 불교건축문화의 규명과 보존을 위해서는 현존 사찰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개성 지역 소재 지정 사찰 및 사지

번호	문화재명	시기	지정사항	소재지	비고
1	관음사(觀音寺)	조선	국보유적 125	개성시 박연리	
2	영통사(靈通寺)	현대	국보유적 192	개성시 용흥동	
3	안화사(安和寺)	고려	보존급 1646호	개성시 고려동	
4	화장사(華藏寺)	고려 이전	보존급 530호	개성시 용흥리	
5	대원사지(大院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용흥동	
6	대흥사(大興寺)	조선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박연리	
7	묘각사지(妙覺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선죽동	
8	묵사지(墨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풍군 개풍읍	
9	미륵사지(彌勒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동흥동	
10	배야사지(排也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판문군 진봉리	
11	백련사지(白蓮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풍군 신서리	
12	보국사지(輔國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방직동	

번호	문화재명	시기	지정사항	소재지	비고
13	보현사지(普賢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동흥동	
14	불일사지(佛日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판문군 선적리	
15	섭절지	고려	일반유적유물	판문군 신흥리	
16	성불사터(成佛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장풍군 덕적리	
17	송림사지(松林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용산동	
18	흥왕사지(興旺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판문군 삼봉리	
19	경천사지(敬天寺址)	고려	일반유적유물	판문군 대련리	

여기에서는 사지는 생략하고 현존 사찰을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에는 사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나 우선은 남아 있는 사찰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존 사찰을 위주로 현황을 검토해보았다. 한편 사지의 경우에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가치가 발굴되고 보존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개성시 현존 사찰

사찰명	소재지	창건	현존건물	문화재	비고
관음사(觀音寺)	개성시 박연리	고려초	대웅전, 승방	국보유적 125	
영통사(靈通寺)	개성시 용흥동	940년 이전	보광원 등	국보유적 192	2005년 복원완료
안화사(安和寺)	개성시 고려동	고려 태조시	대웅전, 오백전 등 3동	보존급 1646호	89년 복구
화장사(華藏寺)	개성시 용흥리	고려시기 이전	대웅전, 명부전, 나한전	보존급 530호 (사리탑 보물급 34호)	83년 이전 복구

(1) 관음사(觀音寺)

관음사는 개성시 박연리에 소재하는 고려시대 창건 사찰로 국보유적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개성의 배후산성인 대흥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천마산(天磨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의 북쪽 수구문이 위치하고 있는 박연폭포 뒤쪽 자리하고 있다. 사찰의 배후에 관음굴(觀音窟)이 남아 있으며 사명도 이와 연관되어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굴은 광종 21년(970)에 법인국사 탄문(坦文)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1393년에 크게 중창이 되었다.



그림 12. 관음사 전경
(『북한문화재해설집 II』, 28쪽)



그림 13. 대웅전 건물 전경
(『조선의 절 안내』, 167쪽)

관음사는 인조 24년(1646)에 중창되었으며, 정조 21년(1797)에도 중창불사를 하여 5채의 전각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웅전 뿐이며 그 외에 후대에 건설된 승방(僧房) 건물과 7층석탑, 사적비가 유존하고 있다.

대웅전²¹⁾은 정면 3칸(8.4m), 측면 3칸(6.61m)의 소규모 불전건물로 다포계 우진각지붕 건물이다. 현존하는 건물 중에 조선후기 이루어진 성곽문루와 해인사 장경판전(海印寺 藏經版殿) 등을 제외하면 우진각 지붕이 매우 드물어 관음사 대웅전은 희소성이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주칸은 정면의 경우에는 3칸의 주칸이 동일하도록 하였고, 측면의 경우에는 어칸이 양협칸에 비하여 넓다. 이는 측면 3칸 불전에서 불단이 자리하는 내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단은 장대석을 이용하여 1.7m 높이로 쌓은 것으로 건물의 평면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나 건물의 입면이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높이가 높은 공포를 사용하고 지붕의 형태도 우진각지붕을 사용하여 수직적인 형태라 건물의 비례와 잘 어울리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초석은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원주를 사용하였다. 평주나 우주 모두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사용하였는데 평주의 경우 밑지름 43cm, 우주의 경우 45cm로 처마의 하중을 많이 받는 모서리 기둥의 지름을 굵게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의 다포식 공포로 전체적으로 집의 규모에 비해 화려하다. 주간포는 전후면 3칸과 측면의 어칸에는 각 2구, 측면의 양협칸에는 1구를 두었다. 공포의 외단은 앙서(앙서 형태의 쇠서를 단 형식이며, 꺾기둥과 전면 어칸 양쪽의 기둥 공포의 4제공은 용두로 처리하였다. 공포의 내부는 주상포와 주간포에 차이를 두어 주상포의 경우에는 초를 틀고 연봉을 단 장식적 형태임에 반해 주간포의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인 교두형으로 처리하였다. 내복도리와 중도리 사이는 빗반자를 대었고, 중앙의 천장부는 중도리 위치에 귀틀을 설치하여 우물천장을 꾸며 마감하였다. 대량의 양단을 지지하고 있는 동자주 형태의 중대공 하단에 끼워 넣은 부재의 처리형태는 조선초기 이전 건물에서 많이 보이는 양식이다. 특이한 것으로는 대들보의 중앙에 연꽃 문양을 응용하여 제작한 동자기둥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창호는 전면 3칸에 삼분합문을 달았으며, 측면의 경우에는 전면쪽 협칸, 그리고 후면의 어칸에 각각 쌍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전면과 후면의 창호는 꽃살문으로 그 조각수법이 매우 뛰어나다. 건축수법과 관련 기록을 비교하여 검토해 볼 때 현재의 건물은 인조 24년(1646) 중창 당시의 건물로 인정된다.

창호는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화려한 문양의 꽃살문²²⁾을 두어 이채롭다. 건물 내부에도 화려한 2층 단집을 두어 장식성이 풍부한 의장을 지니고 있다.

승방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ㄴ'자형 평면이며 팔작집이다. 사역 내에 남아 있는 주요 유물로는 대웅전 기단 전면 마당의 서쪽에 7층석탑 1기와 축대 아래 쪽에 사적을 기록한 비석이 있다. 관음굴에는 원래 관음보살상 2구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 1구는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 이안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1구만이 남아 있다. 관음보살상은 대리석을 이용하여 조각한 것으로 고려시대 조각기술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2) 영통사(靈通寺)

영통사는 고려 초기에 세워진 절로 추정되며, 개성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개성시 용흥리에 자리하고 있

21) 관음사 대웅전은 일제강점기 수리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를 졸업하고 문화재 수리에 한국인으로 처음 참여한 이한철(李漢哲)이 최초로 수리를 담당한 사항이어서 문화재 보존사의 측면에서도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22) 강화도에 있는 청수사 법당(淸水寺 法堂)의 꽃살문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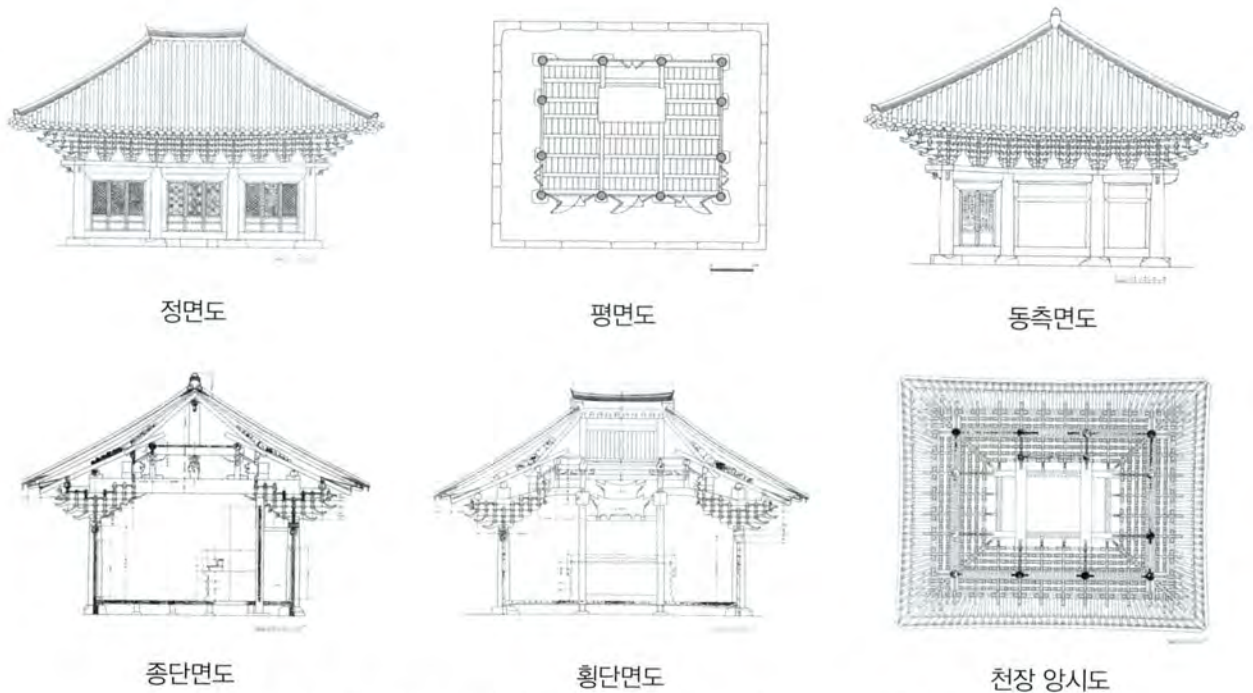


그림 14. 관음사 대웅전 실측도면(『북한문화재해설집 II』, 32~33쪽)



그림 15. 대웅전 전면 창호
(『북한문화재해설집 II』, 30쪽)



그림 16. 대웅전 후면 창호
(앞의 책, 30쪽)

다. 개성의 나성 밖인 동북쪽의 오관산(五冠山) 남쪽 위치이다. 정확한 창건년대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고려 초의 이름난 승려였던 균여(均如, 923~973)의 행적 기록²³⁾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940년 이전에 창건된 사찰로 판단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사세를

23) 균여의 행적을 기록한 『대화엄수좌원통이중대사균여전』에 균여가 영통사의 승 의순의 제자로 불도를 닦았다고 하며, 영통사의 한 건물이었던 백운방이 지은지 오래 되어 비가 새고 무너졌으므로 균여가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리철, 리기웅, 『개성 영통사』 조선문화보존, 2005, 10쪽]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²⁴⁾에서는 소실된 것으로 묘사되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거치면서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히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이 이 곳에서 출가하고 수행하였으며, 사후에는 그의 묘와 묘탑, 탑비를 조성한 사찰이었으며, 고려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찰이었다. 조선시대 폐사된 후 사지로 남아 있던 것을 1998년 일본 대정대학(大正大學)과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한 이후에 복원 논의가 일어 남측 천태종(天台宗)의 지원을 받아 복원되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문화유산 복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영통사 복원사업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한국의 천태종단에 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추진된 사업이다.

영통사지는 1997년 북측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이 공동답사를 실시한 이후 1998~99년에 걸쳐 공동 발굴작업을 진행한 이후 복원사업이 기획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²⁵⁾. 조선불교도 연맹과 문화보존지도국, 조선경제협력위원회의 참여로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원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추진이 여의치 않던 차에 한국의 천태종단과 연결되어 복원사업의 지원 요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공동의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북한의 현지답사가 이루어지고 실무협의를 전개하여 남측은 여기에서 복원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그림 17. 영통사 전경(『북한의 전통사찰 5』, 113쪽)



그림 18. 보광원 및 석탑(앞의 책, 1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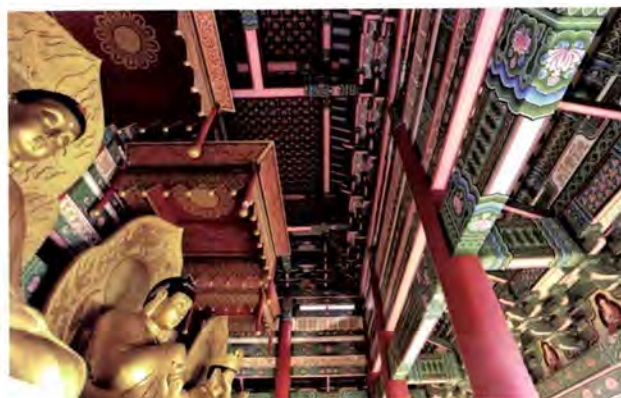


그림 19. 보광전 내부 가구(앞의 책, 142쪽)



그림 20. 전면 좌측 종루(앞의 책, 122쪽)

24) 1670년에 김창협이 쓴 『송도유림기』에는 “사찰의 주요 건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12동의 부속건물과 마당에 세워진 돌탑 3기와 문 밖에 세워져 있던 의천의 비만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676년의 <영통사비>에도 “이 절은 본래 화엄경을 가르치던 절로서 한때는 매우 번창하였다. 후세에 이르러 점차 조락하여 현재는 이름만 남은 절”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5) 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 2000, 『靈通寺跡發掘調査概報』, 日本 大正大學.

북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되었으나, 최초 협의에서는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이나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2003년에 다시 실무협의를 재개되어 복원불사에 필요한 현물 지원 협의가 이루어져 기와를 비롯한 건축자재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2003년 10월 27일 제1차 지원을 시작으로 모두 16차에 걸쳐 복원불사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40만장의 기와 지원을 계획하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지원물품과 지원물량이 확대되어 기와, 단청, 건축 마감재, 조정용 묘목 등 총 50억원에 달하는 물자가 지원되었다.



그림 21. 일제강점기 화장사 전경
(『북한의 전통사찰 5』, 198쪽)

결국 최종적으로는 2005년 10월 31일 낙성식 및 학술토론회²⁶⁾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

복원된 영통사의 중심영역 구성은 가장 중심이 되는 중층의 보광원(普光院)을 둘러싸고 축선을 따라 배치된 일군의 건축군과 그와 병렬하여 배치된 보조원(普照院), 영녕원(永寧院) 등을 둘러싸는 일군의 건축 등 2개의 직선축으로 배열된 건축군이 병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찰의 가장 전면에는 남문(南門)이 위치하고 있는데, 서측의 보광원이 있는 중심건축군의 축에 맞추어져 있으며 남문을 통과하면 보광원으로 통하는 중문이 일직선상에서 마주하고 있다. 중문의 우측에는 보조원으로 통하는 중문이 위치하며, 보광원으로 통하는 중문의 좌우에는 회랑에서 돌출한 형태의 종루(鐘樓)와 경루(經樓)가 있다. 중문 뒤의 보광원 전면 중심공간에는 영녕사 5층석탑과 동서 3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사지에 오층탑을 가운데 두고 병렬하여 서있던 것을 현재는 5층석탑을 가운데 두고 2기의 석탑을 경루와 종루쪽인 앞쪽으로 배치하여 '品'자 형태로 배치하였다.

보광원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중층건물로 내진주를 고주로 하여 상층을 구성한 온칸물림 방식의 건물이다. 그러므로 상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줄어든 형태이다. 공포는 2출목의 침차 위에 하양(下昂)을 둔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광원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좌상을 중심으로 서측에는 석가여래불좌상, 동측에는 노사나불좌상을 배치하여 삼신불을 모셨다. 각각의 불상 상단에는 단집을 설치하고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마감하였다. 보광원의 뒤편에는 정면 7칸, 측면 3칸의 중각원(重閣院)이 자리하고 있다. 중각원은 대각국사 의천과 제자들이 강학을 하던 곳을 복원한 것으로 『고려사』에서 50여차례의 대규모 강의가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다. 다시 중각원의 뒤편으로는 회랑으로 구획된 공간에 숭복원(崇福院)이 자리하고 있다.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행궁(行宮)의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복원된 곳이다. 동측의 중문으로 진입하는 공간에는 보조원(普照院)과 영녕원(永寧院)이 축선상에 전후로 배치되어 있는데 보조원은 관음보살을 모신 불전이며, 영녕원은 영통사와 인연이 있는 역대 고려왕들의 어진을 봉안하는 곳이다.

중심건축군 주변으로 요사채와, 대각국사 묘실 구역 등이 있으며, 뒤편의 산 중턱에 대각국사의 화상을 모신 경선원(敬先院)이 있다. 경선원에는 대각국사 부도가 있으며, 회랑에 영통사 발굴 당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26) 낙성식 이후 거행된 학술토론회에서는 위영철(명양건설컨선탄대학 교수)의 「영통사 복원과 그 역사적 의의」, 리창언(사회과학원 부교수)의 「영통사는 조선 천태종의 성지」 등 영통사 복원과 관련된 남북, 그리고 재일본 한인 불교학자의 발표문이 발표되었다.

(3) 화장사(華藏寺)

화장사는 개성직할시 용흥리 모봉산에 소재한 고려시대의 사찰로 보존급 제5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말 지공(指空) 선사가 처음 터를 잡았고, 사명은 계조암(繼祖庵)이었다고 하며, 《화장사중창비(華藏寺重創碑)》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계조암 터에 화장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인도의 승려인 지공(指空)이 고려에 머문 것은 1326년부터 1328년이므로 지공이 직접 터를 잡았거나 혹은 그 문도에 의해 절이 이루어진 이후 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찰이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이 절이 이후 총림(叢林)이 되고 불전과 승당의 제도가 팽창하여 많은 승려들이 모여 참선을 하는 것이 양주 회암사(楊州 檜巖寺)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하여 매우 큰 대찰로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등사본말사지(傳燈寺本末寺誌)』에는 공민왕 2년(1353) 조가(朝家)에서 중건하고, 인조 23년(1645)과 효종 3년(1652)에 송해(崇海)가 중창하고 철종 5년(1854)에는 무경대사(無鏡大師)가 중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종 2년(1865)에는 적묵당(寂默堂)이 소실되었는데 용파대사(龍波大師)가 재건하였다고 한다. 근세의 기록으로는 1908년(隆熙 2년)에는 화주 지수(智水)가 중건하였다는 기록과 1927년 초암, 중화 등이 7년간 중창하였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한편 조선시대 김창협(1651~1708)이 쓴 『송도유람기(松都遊覽記)』에는 소실 후 복구 기록이 남아있으며, 당시 사찰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불전, 나한전(羅漢殿), 조사전(祖師殿) 등이 있었으며 공민왕의 진영과 지공의 소상 등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사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때 불전들이 거의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절은 1980년대 초 복구한 모습이다.

현재 사찰에는 복원된 대웅전(大雄殿), 명부전(冥府殿), 나한전(羅漢殿) 등의 불전이 있고 기타 석조물로는 명부전 옆에 화장사 부도로 불리는 지공선사(指空禪師)의 부도 1기 등이 남아 있다. 지공선사의 부도는 직경 5m가 넘는 8각의 단의 만들고 다시 그 중앙에 연화를 새긴 8각의 대 위에 종형(鐘形)으로 만든 독특한 형태의 것으로 조각의 수법이 매우 섬세하다. 신록사 보제존자부도와 함께 한국의 종형부도 중 이른 시기의 것 중 하나이다²⁷⁾.



화장사 부도 전경



평면도



입면도

그림 22. 화장사 부도(『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4』, 161쪽)

27)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고려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61~162쪽.

(4) 안화사(安和寺)

개성시 고려동 송악산 남쪽기슭에 자리한 안화사는 고려 태조 13년(930)에 처음 안화선원(安和禪院)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건립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과 대립하고 있을 당시 불모를 통한 강화를 모색하던 도중에 4촌 동생인 왕신(王信)이 죽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의 원당으로 창건한 것이며, 안화사로 된 것은 예종 13년(1118)에 크게 확장하여 국가적인 대찰이 되었을 때이다.

당시의 안화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1123년에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던 서긍(徐兢)이 기록한 『고려도경(高麗圖經)』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시내에 놓인 다리 뒤편 언덕에 청현정(淸軒亭)과 연의정(漣口亭)이 있으며 그 뒤로 산문각(山門閣)이 있었다. 산문각 뒤로 사찰의 정문인 안화문(安和門)이 있으며, 그 안쪽으로 들어서면 서쪽에 냉천정(冷泉亭)이 있고 그 북쪽으로 자취문(紫翠門)과 신희문(神護門)이 있다. 문 안의 동무(東廡)에는 제석상이 있으며, 서무는 향적당(香積堂)이다. 중앙에 중심건물인 무량수전(無量壽殿)이 자리하고 그 측면 좌우로 양화각(陽和閣)과 중화각(重華閣)이 있었다. 무량수전 뒤로는 3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은 신한문(神翰門)으로 그 안쪽으로 능인전(能仁殿)이 있다. 가운데 문은 선법문(善法門)으로 그 안에 선법당(善法堂)이 있으며 서문은 효사문(孝思門)으로 그 안에는 미타전(彌陀殿)이 자리하였다. 당(堂)과 전각 사이에는 양하(兩廈)가 있어 한 곳에는 관음상(觀音像), 다른 한 곳에는 약사상(藥師像)을 봉안하였으며, 동무(東廡)에는 조사상(祖師像)을 그리고, 서무에는 지장왕(地藏王)을 그렸다. 나머지는 승도(僧徒)가 기거하는 실들이며, 그 서쪽에는 재궁(齋宮)이 있다. 왕이 절에 이르면 심방문(尋芳門)을 거쳐 들어오는데 전문(前門)은 응상문(凝祥門)이라 하고 북문은 향복문(嚮福門)이라 불리우며, 가운데 인수전(仁壽殿)이 있고 뒤에는 제운각(齊雲閣)이 자리하였다.”²⁸⁾

요약하면 본전인 무량수전(無量壽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양화각, 중화각이 있고, 능인전(能仁殿), 선법당, 미타전, 요사채 등과 왕이 행차시 거처하던 재궁(齋宮)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말에 폐사되어 유적만이 전해지다가 1930년 김만영 스님이 중창하고 그 후 1987년 김정일의 지시로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²⁹⁾



그림 23. 안화사 전경
(『조선의 절 안내』, 173쪽)



그림 24. 대웅전 전경
(앞의 책, 174쪽)

28) 靖國安和寺 “安和寺 一宗각- 橫溪爲梁 隔岸建二亭 半麓灘磯 曰淸軒 曰漣漪 相去各數百步 復入深谷中 過山門閣 傍溪行數里 入安和之門 次入靖國安和寺 寺之額 即今太師蔡京書也 門之西有亭 榜曰冷泉 又少北入紫翠門 次入神護門 門東廡有像 曰帝釋 西廡堂 曰香積 中建無量壽殿 殿之側 有二閣 東曰陽和 西曰重華 自是之後 列三門 東曰神翰 其後有殿 曰能仁殿 二額 寔今上皇帝所賜御書也 中門曰善法 後有善法堂 西門曰孝思 院後有殿 曰彌陀 堂殿之間 有兩廈 其一 以奉觀音 又其一 以奉藥師 東廡 繪祖師像 西廡 繪地藏王 餘以爲僧徒居室 其西有齋宮 王至其寺 則自尋芳門 過其位 前門曰凝軒 北門曰嚮福 中爲仁壽殿 後爲齊雲閣 有泉出山之半 甘潔可愛 建亭其上 亦榜曰安和泉 植花卉竹木怪石 以爲游息之玩 -하락-”

29) 『북한사찰연구』 50쪽에는 “1930년 승려 김만영이 중창하였고 1989년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북한측 발간자료『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2002, 119쪽에서는 “주체 20년(1931)에 일제가 안화사를 복구한다고 하면서, -종각- 본래의 모양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주체 76년(1987)년 8월 -종각- 안화사를 원상대로 개건하고 그 안의 유물들을 복원하여 -종각- 방침을 제시하여”라고 하여 연대 착오가 발견되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성기와 같이 서술하였다.

현재 안화사에는 대웅전과 오백전(五百殿), 7층석탑 등이 남아 있으며, 건물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근세 복구된 것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양식 팔작집이다. 오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식 맞배집으로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본존 1구와 오백나한(五百羅漢)의 소상(塑像)을 모신 전각이다. 7층석탑은 대웅전 전면 기단 아래 자리하고 있다. 그 밖의 유물로 서쪽 개울가에 석조(石槽)가 남아 있다.

4) 석탑

개성지역에는 지금은 폐허가 되어 사지로 남았지만 많은 수의 사찰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석탑 등의 석조 유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석탑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당시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로 사지에 남아 있으나 일부는 고려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향후 사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지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원위치로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개성 지역 소재 주요 석탑

순번	문화재명	시기	지정사항	소재지
1	흥국사탑(興國寺塔)	고려	국보유적 132	개성시 방직동
2	영통사 5층탑(靈通寺五層塔)	고려	국보유적 133	개성시 박연리
3	불일사 5층탑(佛日寺五層塔)	고려	국보유적 135	개성시 방직동
4	현화사 7층탑(玄化寺七層塔)	고려	국보유적 139	개성시 방직동
5	심복사 7층탑(心腹寺七層塔)	고려	보존급 532	장풍군 덕적리
6	관음사 7층탑(觀音寺七層塔)	고려	보존급 540	개성시 박연리
7	영통사 동3층석탑(靈通寺東三層石塔)	고려	보존급 541	개성시 용흥동
8	영통사 서3층석탑(靈通寺西三層石塔)	고려	보존급 542	개성시 용흥동
9	탑동 3층석탑(塔洞三層石塔)	고려	일반유적유물	개성시 방직동

(1) 흥국사석탑(興國寺石塔)

원래는 만월대 동남쪽에 위치한 흥국사(興國寺)에 소재하였던 고려시대 석탑으로 현재는 개성시 방직동의 고려박물관에 이관되었다. 흥국사는 고려초 태조 7년(924)에 개성의 흥국방에 세운 절로 국가적 대법회가 열리고 기우제(祈雨祭)와 연등회 같은 불교의례가 행해지던 사찰이다. 그러므로 당시 불은사(佛恩寺), 국청사(國淸寺) 등과 이 석탑은 연화대형 기단 중석의 전면에 명문이 남아 있어 정확한 조성년대를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탑이다. 현재 기단부는 온전히 남아 있으나 상부는 초층탑신석과 옥개석 3매만이 남아 있다. 명문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광을 얇게 새기고 그 안에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평장사(平章事) 강감찬(姜邯贊, 948~1031)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천희(天禧) 5년(현종 12년, 1021) 5월에 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강감찬은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시대의 명장이다.

흥국사탑은 독특한 형식의 탑으로 방형 지대석 위에 기단을 연화대형으로 조성하고 그 위에 탑신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지대석에는 상단에 띠 형태로 조각하고 그 아래에 안상(眼象)을 새겼는데 각 면에 4개씩 배치되었다. 기단은 복련(覆蓮)이 조각된 하대석과 꽃기둥을 모각한 중석, 양련(仰蓮)이 조각된 상대석의 3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대석의 연화문은 문양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하대석은 단판 복엽의 연화이며 상대석은 단판 단엽의 잎 안에 곱팍이 형태의 무늬를 새겨넣은 형태이다. 상대석 상부에는 탑신 받침을 조출하여 1층 탑신을 받도록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부재의 탑 높이는 2.16m이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1층 탑신석에는 모서리부에 얇게 꺾기둥을 표현하고 남쪽면의 중앙에는 문비와 자물통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3개 모두 같은 양식으로 하면에 옥개받침 3단을 둔 형식이다. 옥개석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평박한 느낌인데 처마가 탑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느낌이어서 이를 통해 탑 전체의 비례를 추정해 보면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고준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부재로 추정해보면 5층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홍국사석탑 전경



석탑 입면도



명문

그림 25. 홍국사석탑(『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53쪽)

(2) 영통사 5층석탑 및 동서3층석탑(靈通寺東西三層石塔)³⁰⁾

영통사는 태조 2년(919)에 건립된 사찰로 개성 나성 밖 동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오관산(五冠山) 남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지에는 고려시대 조성한 석탑 3기와 대각국사비, 당간지주 등의 석조유물이 남아 있었다. 사지에 남아 있을 당시에는 중앙에 5층탑이 그리고 좌우로 3층석탑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복원 공사시 5층석탑과 동서 3층석탑 2기를 옮겨 중심건물인 보광원(普光院)의 전면에 새로이 '品'자형으로 배치하였다. 3기의 석탑이 병렬하여 배치된 형식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배치 방법으로³¹⁾ 원래의 석탑 배치가 그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에 있던 5층석탑은 단층기단에 5층의 탑신부를 올린 일반형 석탑으로 상륜부는 노반을 제외하고는 소실된 상태이다. 현존 전체 높이는 6.5m이다. 복원된 영통사에 세워진 현재의 탑을 보면 여러 개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2단이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원래의 석탑을 세워 놓았다. 기단의 하대석은 몇 개의 별석을 조립하여 만든 것으로 측면은 한면을 3분하여 탱주를 세웠는데 안상(眼狀) 형태로 보이도록 처리하였다. 기단

30) 리철, 리기웅, 『개성 영통사』 조선문화보존사, 2005.

31) 유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령 성주사지의 석탑을 들 수 있다.

몸체는 통석으로 제작하여 사면에 꺾기둥을 모각한 형태이다. 기단 갑석은 큰 판석 2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는데 하면에는 2단의 받침을 두었으며, 상면에도 탑신을 받도록 탑신받침을 조출하여 탑신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층석탑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부분은 상층 기단갑석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매우 넓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매우 특이한 느낌을 준다.

탑신부는 각 층 탑신 및 옥개석 모두 1매의 통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탑신석에는 모두 우주를 모각하였다. 옥개석은 1, 2층은 옥개받침이 4단, 3층 이상은 3단씩으로 차이가 있다. 옥개석의 네 모서리에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보인다.

동서 3층석탑은 5층석탑을 중앙에 두고 좌우로 서 있던 것으로 얼핏 보아 비슷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탑이다. 동서탑 모두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에 속한다. 영통사 복원 이전의 사진에서는 하층기단이 보이지 않았으나, 영통사 복원 이후 이진된 모습을 보면 하층기단을 갖춘 이중기단의 탑으로 되어 있어 기존에 지면 아래 묻혀 있던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탑의 차이점으로는 동3층석탑의 경우 상층기단 면석에 탱주를 하나 둔 형태이나 서3층석탑의 경우에는 우주만 두었을뿐 탱주가 없다. 또한 탑신을 받기 위한 괴임대도 차이가 있는데, 동3층석탑의 경우 괴임대 혹은 탑신받침을 1단 두었는데 반해 서3층석탑의 경우에는 2단을 두어 차이가 있다. 두 탑 모두 건립년대를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는 탑으로 일반형 석탑의 계열에 속하면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적으로 흥미 있는 탑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6. 복원 이전 영통사지 석탑 3기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4』, 150쪽)



그림 27. 복원 영통사 앞 이진 석탑
(『북한의 전통사찰5』, 129쪽)

(3) 불일사 5층탑(佛日寺五層石塔)

불일사 5층탑은 현재 고려박물관에 있는 고려 초기 석탑이다. 원래는 개성시 관문군 선적리의 불일사지에 있던 것을 1960년 봄 개성시 내성동 삼각공원으로 이진하였다가 1988년에 현재의 위치인 박물관으로 옮겨 세웠다.

불일사(佛日寺)는 고려 광종(光宗)이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951년에 세운 절로 개성시 관문군 선적리 보봉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현재는 사지만 남아있다. 원래 석탑은 금당지 전면 중앙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상륜부는 소실된 것을 새로이 만들어 넣은 것이다.



그림 28. 5층석탑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85쪽)



그림 29. 5층석탑 입면도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85쪽)



그림 30. 동3층석탑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61쪽)

석탑은 이중기단 위에 5층 탑신부를 세운 것으로 총고가 7.94m(상륜부 제외)이다. 기단부는 상하층을 둔 가구식 이중기단이며 하층기단의 한변 길이는 4.32m이다. 하층기단에는 양끝의 꺾기둥과 탕주석을 2개 두어 4개의 기둥석을 두었으며, 상층기단은 탕주 없이 우주석만 두었다. 탑신은 1층이 높고 2층부터는 현저히 낮은 일반적인 형태이다. 탑신과 옥개석은 모두 1매의 통돌로 만든 것으로 탑신에는 우주만 모각하였으며, 옥개석의 경우에는 하부에 3단의 층급 형태로 옥개받침을 조출하였고, 상단에는 위의 탑신을 받도록 자리를 만든 형태이다. 특이한 것은 옥개받침으로부터 치마에 이르는 바닥면을 호형으로 들어올려 탑이 경쾌한 외관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옥개석 전각부에는 풍경(風磬)을 달았던 구멍 흔적이 남아 있다.

불일사 5층탑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체이전(解體移轉)된 탑으로 그 과정에서 사리기와 공양물들이 발견되어 주목받은 탑이다. 사리기를 안치한 사리공은 두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우선 초층 탑신의 방형 사리공은 한변 17cm의 정방형 평면에 깊이가 18cm였다. 그 안에는 도기 및 자기로 된 사리함 3개와 소형 청동제 3층탑 1기, 소형 석탑 12기가 들어 있었다. 녹유도기 2개(덮개가 없는 작은 것은 높이 2.3cm, 너비 2.1cm, 뚜껑이 있는 큰 것은 높이 5.2cm, 입구경 2.3cm) 중 큰 것에는 인골가루가 있었고, 청자단지(높이 6cm, 입구경 2.8cm)에서도 역시 인골가루가 발견되었다. 소형석탑은 청동제 3층탑 둘레에 놓여진 채 발견되었다.

2층 탑신에도 역시 또 하나의 사리공이 있었는데, 이 사리공의 크기는 한변 길이 24cm의 정방형 평면에 깊이 37cm였으며, 그 안에서는 금동제 9층탑을 중앙에 놓고 그 주위로 금동제 5층탑과 소석탑 10기를 배치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또한 금동제 9층탑의 경우 탑신과 기단부를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단부에 한변 6.8cm, 높이 3.5cm의 방형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종이에 쓴 다라니경을 접어서 갈색, 청색, 백색의 천으로 세겹을 싸고 그 위에 청록색 유리제 사리병(높이 4.7cm, 입구경 1.6cm)을 두었다. 이 사리병 안에도 역시 인골가루가 같은 것이 있었다. 다라니경은 보협인다라니경으로서 금분으로 선을 긋고 12행에 경문을 썼다³²⁾.

불일사 5층석탑은 양식적으로 보아 고려 초기의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석탑으로 그 중요성이 높으며, 또한 발견된 유물들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어서 그 중요성이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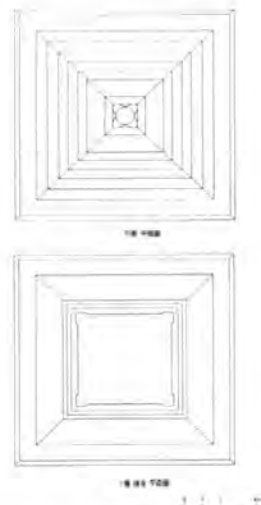
32) 사리기 및 공양물 등의 출토상황에 대한 내용은 리기웅, 『우리나라 중세탑』 조선문화보존사, 2004, 25~26쪽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불일사 5층석탑 전경



입면도



지붕·1층탑신 평면도

그림 31. 불일사 5층석탑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60쪽, 102~103쪽)

(4) 현화사 7층석탑(玄化寺七層石塔)³³⁾

현화사 7층석탑은 원래는 개성시 장풍군 영추산 남쪽 기슭의 현화사지에 있던 탑으로 현재는 개성시 방직동의 고려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있다. 현화사는 고려 현종의 아버지 안종(安宗)과 어머니 헌정왕후(獻貞王后)의 명복을 빌고자 세운 원당사찰이다. 현종 9년(1018) 공사를 시작하여 1023년에 완공한 사찰로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화사의 폐사시기는 미상하다. 현화사지에는 7층 석탑을 비롯하여 당간지주, 현화사비, 석교, 석조, 석등, 석계 등의 유물이 남아 있었으며, 건물지 초석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석탑과 당간지주, 현화사비는 현재 고려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석등은 일제강점기 경복궁에 옮겨진 후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022년 조성된 〈현화사비〉에 의하면 석탑은 현종 11년(1020)에 완성하였으며, 이때 영아(靈牙) 1쌍과 사리 50립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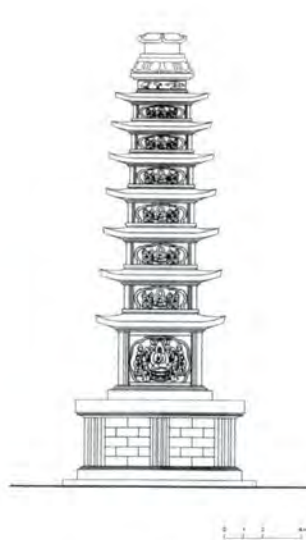
석탑은 단층 기단에 7층 탑신과 옥개석, 상륜으로 구성된 방형 7층석탑이다. 높이 8.64m, 기단 너비 3.9m로 고려시대 탑 중에는 큰 편에 속하는 탑이다. 기단부는 여러 매의 장대석으로 지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 높직한 지대석을 두어 기단의 기둥과 면석을 세웠는데, 기둥은 각 모서리의 꿰기둥 4개와 각 면에 1개씩의 탱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와 탱주 사이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면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전석(模塼石)을 쌓아 채워놓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특이하다. 갑석은 두께가 두툼한 편이며 하단에 1단을 두었다. 갑석 상면은 우동선이 뚜렷하지 않고 평평하며 다시 별석으로 탑신받침을 두어 1층의 탑신이 안치되도록 하였다. 별석으로 조성된 탑신받침에는 1층의 탑신 크기에 맞추어 다시 조출한 부분을 조성하였다.

탑신부는 모두 1매석의 통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특이한 점은 탑신석 7개 층 모두 사면에 부조상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기단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점차 층고 및 폭이 줄어드는데, 1층은 높고 2층에서 7층까지 체감률이 낮아 세장한 비례를 갖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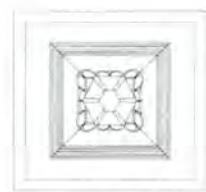
33)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사업 - 북한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1 - 개성 역사지구』 사단법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 KOREA), 2004,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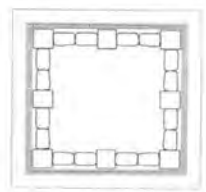
현화사 7층석탑 전경



입면도



지붕 평면도



상층부 평면도

기단·지붕 평면도

그림 32. 현화사 7층석탑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62쪽, 105~106쪽)

(5) 심복사 7층탑(心腹寺七層石塔)³⁴⁾

심복사 7층석탑은 개성시 장풍군 덕적리에 소재한 심복사지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남아있는 사지의 모습으로 볼 때 매우 대찰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7층석탑과 비석 1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석탑은 전체 높이 3.53m로 기단부가 매우 낮으며, 1층 탑신과 옥개석은 원래의 것이 아니다³⁵⁾. 석탑은 고려 초기에 세운 것인데 그 후에 여러 차례의 보수가 있었다. 1684년에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전등사본말사지(傳燈寺本末寺誌)』에 남아 있으며, 1935년에 탑이 도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탑은 3층의 기단 위에 7층의 탑신부가 놓이고 가장 상단에 상륜부가 설치되는 형식이다. 기단부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석탑이 단층 또는 중층의 기단을 갖는 것에 비해 매우 특이한 기단 형태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여러 개의 탑재를 혼합하면서 이루어진 형식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현황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지면에 여러 개의 장대석을 놓고 그 위에 판석 여러 장을 두어 지대석을 설치하였는데, 지대석은 일반적인 기단 갑석과 동일한 형태로 네 모서리에 우동선을 두었으며 위에는 제일 하층 기단의 몸체를 받기 위한 받침을 조출하였다. 그 위에 놓인 3단의 기단은 모두 별석을 조립한 형식으로 특히 2층 기단의 경우 귓기둥(隅柱)과 탕주(撐柱) 하나가 모각되어 표현되어 있다. 3층 기단의 경우 갑석 하면에 2단의 부연을 모각하였으며 그 상단에는 탑신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이 안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을 1매의 통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모두 귓기둥만을 모각한 형태이다. 1층 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높은 것은 일반적인 탑의 형태와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1층 탑신마저도 낮고 평활하여 다른 일반적인 석탑과는 느낌이 다르다. 이것이 기단을 3층으로 둔 것에 맞추어 한 것인지 혹은 변형된 것인지는 미상하다. 옥개석은 하면에 옥개받침을 두었는데 4층까지는 4단씩이며, 5층부터는 3단씩 두었

3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북한문화재해설집 | - 석조물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34~35쪽,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사업 - 북한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1 - 개성 역사지구』, 사단법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 KOREA), 2004, 390쪽.

35) 천룡철, 김진석 공저, 앞의 책, 127쪽.

다. 현재 확인되는 탑신 및 옥개석은 6층까지이다. 그 위로 상륜부까지는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석탑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상의 문제가 보여 중수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복사비는 1663년 건립된 것으로 신라의 자장율사가 절을 지을 터를 돌아보다가 이 곳에 이르러 진덕여왕 5년(651)에 절을 창건하고 심복사라 하였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³⁶⁾

(6) 관음사 7층탑(佛日寺五層石塔)

개성직할시 산성리 대흥산성 내 관음사에 있는 단층기단의 7층 석탑이다. 기단부가 일반적인 석탑과는 달리 복련(覆蓮)과 양련(仰蓮)의 연화문을 조각한 석재를 사용하여 불대와 형식으로 꾸민 기단³⁷⁾을 이용하여 탑신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기단은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기단부를 구성하였는데, 지대석 위에 바로 놓인 것은 1단의 탱주 없이 모서리에만 꺾기둥을 모각한 형태를 별석을 사용하여 구성한 단이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가구식 기단의 우주를 새긴 의장 형태와 비슷하여 그 위에 바로 놓이는 불대와식 기단의 하대석이 서로 의장적으로 잘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원래의 구성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 위에 놓인 나머지 기단부는 복련을 새긴 하대(下臺)와 중간의 중대석, 양련이 새겨진 상대(上臺)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각 1매의 통석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우선 하대석은 각 모서리에 연판이 하나씩 새겨지고 사이에 3개의 연판을 새겨 전체적으로 16개의 연판이 있는 형태이다. 중대석에는 꺾기둥이 얹게 모각되어 있어 탑신과 같은 형태이며, 상대석은 연판이 전체 12개가 새겨져 있는 모습이다.

기단부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탑신부는 세장하며 수직적인 모습의 고려시대 탑의 비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탑신에는 우주를 모각하였고 옥개석은 3단의 옥개받침을 조출하였는데, 처마 하단을 들어올려 경쾌한 맛을 주는 형태의 것이다. 옥개석의 모서리부에는 구멍을 뚫은 흔적이 보여 원래는 풍탁(風鐸)을 달아 장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륜부에는 현재 방형의 노반(露盤)과 보주 하나가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남아 있지 못하다.

관음사 7층석탑의 경우 고려시기 탑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크나, 부분적으로는 중수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심복사 7층석탑 전경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 74쪽)



그림 34. 관음사 7층석탑 전경

36) 비문의 찬자는 김보이며, 글씨는 홍명기의 글씨이다.

37) 이러한 형태의 기단을 사용하는 석탑 사례로는 명명사 8각 5층탑(永明寺八角五層塔), 지혜사 5층탑(慈惠寺五層塔) 등이 있다.

(7) 탑동 삼층석탑(塔洞 三層石塔)

개성시 판문군 삼봉리 흥왕사지(興王寺址)에서 약 2km 떨어진 탑골에 있던 고려시기 석탑이다. 판문 흥왕리 3층석탑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1988년 8월 고려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이층기단에 3층의 탑신을 지닌 일반형 석탑으로 전체 높이는 4.87m이다. 하층기단은 각 모서리에 우주를 배치하고 각 면에는 탱주 1개를 둔 형태이며 갑석의 경우 매우 두툽한 형태의 것을 사용하였다. 하층기단 갑석 상단에는 상층기단 면석을 받기 위한 괴임대를 마련하였으며 그 위에 상층기단이 놓였다. 상층기단 역시 우주와 각 면 1개의 탱주가 있는 형태이며 기단 갑석은 하면에는 한 단의 턱을 두어 부연을 표현한 형태이다. 상층기단 갑석 상부에는 2단의 괴임대를 조출하여 탑신석을 받도록 하였다.

탑신부는 각 1매의 통돌로 탑신석, 옥개석을 만든 것으로 각 층의 탑신에는 우주석만을 새겨 놓았다. 옥개석은 3층 모두 하단에 5단의 옥개받침을 둔 것인데, 1층 옥개와 3층 옥개를 같은 높이의 옥개받침을 사용함으로써 3층의 경우에는 옥개석의 크기에 비해 받침의 수가 많은 느낌이다.

이 석탑의 건조년대는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며, 전형적인 신라의 일반형석탑이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므로 석탑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 판문 흥왕리 3층석탑 전경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4』, 149쪽)

5) 유교건축

(1) 개성 성균관(開成 成均館)

개성 성균관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곳으로 선죽교 북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고려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는 고려의 별궁(別宮)이 있던 곳으로³⁸⁾, 유교 정전에 관한 사무를 보던 숭문전(崇文殿)으로 사용되었다가 선종 6년(1089년)에 국자감(國子監)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³⁹⁾

조선이 개국하고 태조 5년(1396)에 한양에 성균관을 건립하면서 개성의 성균관은 향교(鄕校)의 지위로 바뀌었으나 다른 곳의 향교와는 차별되는 위상을 유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성종 5년(1474)에 기둥 및 서까래 교체, 단청 등 일괄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어다. 선조 7년(1574)에는 명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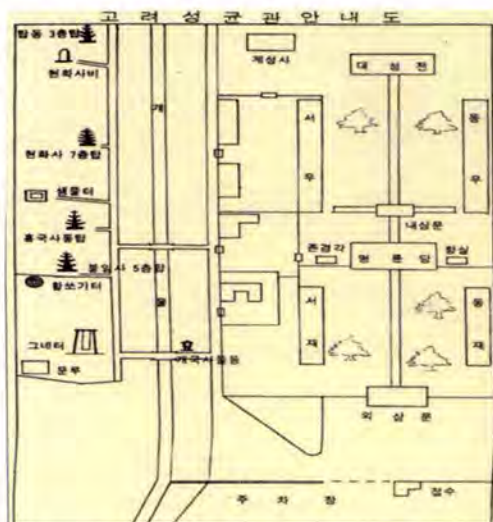


그림 36. 고려박물관 안내도
(『개성관람』, 21쪽)

38) 고려 11대 문종왕(1046~1083)이 대명궁이라는 별궁으로 건설하였다.

39) 고려의 국자감은 성종(成宗, 981~997)에 설립되었고, 충렬왕 30년(1304)에 '국학(國學)'으로 개명하면서 대성전(大成殿)을 건립하였고, 충선왕 2년(1310)에는 다시 성균관으로 개명하였다. 이후 공민왕대 다시 국자감으로 칭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균관으로 불렸다.



그림 37. 개성 성균관 전경
(『북한문화재해설집 Ⅲ』, 229쪽)



그림 38. 성균관 배치도
(『朝鮮古蹟圖譜』 수록)

(嘉靖)의 제도에 따라 원대부터 안치하였던 선성십철(先聖十哲)의 소상(塑像)을 철거하고 위판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선조 35년(1602)에 같은 위치에 대성전을 중건하고 이후 몇 년에 걸쳐 다른 건물들을 복원하였다⁴⁰⁾.

약간 경사진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게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18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성균관과는 달리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로 먼저 외삼문과 동서재, 명륜당으로 구성된 강학공간이 자리하고 그 뒤로 내삼문과 동서무, 대성전으로 구성된 제향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39. 외삼문 전경(『朝鮮古蹟圖譜』 수록)

우선 전면에 위치한 강학공간부터 살펴보면 외삼문(外三門)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평삼문 형식이다. 일제강점기 사진에 의하면 장대석 외별대 위에 자리하고 전면이 경사가 져 있었으나 현재는 계단을 두었다.

외삼문(外三門)을 지나 자리하고 있는 명륜당(明倫堂)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초익공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 길이 19.3m, 측면길이 9.34m이다. 높게 쌓은 장대석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장대석 기단 전면에는 3개소의 계단이 시설되어 명륜당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의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전후에 퇴칸을 둔 형식이다. 평면은 중앙은 마루를 둔 대청이며 좌우 퇴칸 뒤쪽으로는 단칸 규모의 동서실(東西室)을 두었다. 명륜당의 서쪽에는 유교경전을 비롯한 도서들을 보관하던 존경각(尊經閣)이 있고, 동쪽에는 향불을 보관하던 향실(香室)이 각각 붙어 있다.

명륜당 앞 마당 공간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동서재(東西齋)는 각각 전면 9칸, 측면 3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5량가의 구조형식을 사용하였다. 전후로 퇴칸을 두었는데 양재 모두 향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40) 《中京誌》

록 하였다. 즉 동제는 동향, 서제는 서향하도록 하였다⁴¹⁾.

제향공간인 대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륜당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내삼문을 거쳐야 하는데,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3량가의 민도리식 건물로 중앙에 두짝 판문을 달고 측벽은 전돌로 화방벽을 구성하였다.

제향공간의 가장 중심건물인 대성전(大成殿)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초익공 팔작지붕 건물로 전면길이 14.69m, 측면길이 9.75m인 장방형 건물이다. 높게 쌓은 장대석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단 전면으로는 3기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의 계단은 잘 조각한 소맷돌을 설치한 계단으로 좌우의 계단에 비해 급이 높도록 하였다. 창호는 원래 정면 각 칸에 두짝 띠살문이 달려있었으나 현재는 네짝문으로 변형되었다. 가구형식은 1고주 7량가로 전면 고주 형식이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전면 1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방형 초석 위에 원형기둥을 세운 구조로 가구구조는 3량가를 채용하였다.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정면의 3칸(4, 7, 10번째 칸)에는 두짝의 판문을 달았으며, 나머지 칸은 고식의 살창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띠살창으로 바뀌었다.

한편 제향영역인 대성전 서측에 계성사(啓聖祠)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계성사는 전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을 퇴칸으로 비운 형식이다.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다. 창호는 원래 전면의 각 칸에 두짝의 판문이 달려 있었으나 현재는 네짝 띠살문으로 변형되었다.



그림 40. 명륜당 전경
(『북한문화재해설집 Ⅲ』, 230쪽)



그림 41. 동무 전경
(『朝鮮古蹟圖譜』 수록)



그림 42. 일제강점기 대성전 전경
(『朝鮮古蹟圖譜』 수록)



그림 43. 대성전 전경
(앞의 책, 231쪽)

41) 『북한문화재해설집 Ⅲ -일반건축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232쪽.

개성 성균관은 현재 고려박물관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경복궁(景福宮)을 전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부 전통건축물을 박물관 용도로 변용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전통건축물의 경우 실제 전시기능을 수용하기에는 평면형태나 규모 등이 잘 맞지 않고, 또 공기조화 등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 특히 유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개성 성균관의 건물 자체 보존 및 그 곳에 수장된 유물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서는 박물관의 기능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44. 계성사(『朝鮮古蹟圖譜』 수록)

(2) 송양서원(崧陽書院)

송양서원은 개성시 선죽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정몽주(鄭夢周)의 집터에 건축한 것으로 고려 후기 사(祠)의 형태로 창건되었다가 조선조에 들어 선조 6년(1573)에 서원으로 창건되었다. 당시 개성유수였던 남응운(南應雲, 1509~1587)이 정몽주와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문충당(文忠堂)을 짓고 정몽주를 주향(主享)으로 두었는데, 선조 8년(1575)에 선조로부터 송양(崇陽)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김상헌(金尙憲), 김육(金堉), 조익(趙翼), 우현보(禹玄寶) 등이 추가 배향되었다. 순조 23년(1823)에 유수 김교근과 김이재가 양재(兩齋)를 중건하고 사당과 강당을 중수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이상훈에 의해 전반적인 보수가 진행된 바 있다⁴²⁾. 송양서원은 임진왜란의 피해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흥선대원군 당시의 서원철폐령에도 잔존하였던 서원이기 때문에 유교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원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일반적인 서원의 배치와 동일하다. 즉 외삼문을 들어서면 강당과 동서재로 구성된 강학영역이 있고, 그 뒤로는 내삼문과 사당으로 구성된 제향공간이 있는 전학후묘의 형식이다. 특이한 점은 제향공간인 사당의 위치가 높아 비교적 높은 3단의 석계를 두고 그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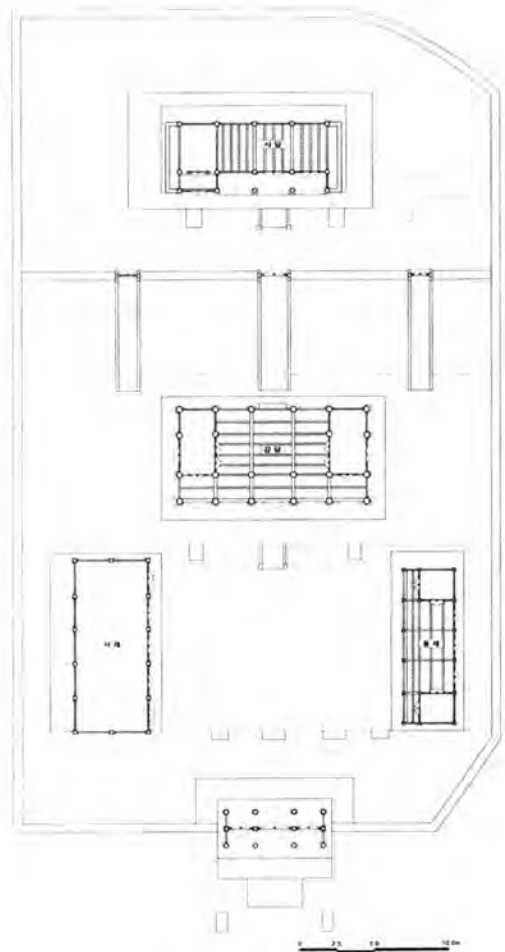


그림 45. 송양서원 배치도
(『북한문화재해설집 III』, 261쪽)

42) 『북한문화재해설집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260쪽.



그림 46. 일제강점기 송양서원 전경
(『朝鮮古蹟圖譜』 수록)



그림 47. 최근 송양서원 전경
(『개성관광』, 15쪽)

외삼문(外三門)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중앙칸의 지붕을 높인 솟을삼문 형식의 문이다. 외삼문의 전면에는 조각이 정교한 하마석(下馬石)이 놓여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주하고 있는 강당(講堂)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이중기단 위에 놓인 건물이다. 하부 기단은 지형을 이용하여 전면만 조성한 기단으로 기능상으로는 석단과 그 역할이 같다. 그러나 제일 상단의 장대석은 높이가 낮을 것을 사용하고 그 아래는 높은 석재를 사용하여 면석과 갑석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기단으로서의 외관형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 외별대를 두른 위에 건물이 위치하여 전면에서 보면 높은 이중기단 위에 건물이 놓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당당한 외관을 보여준다. 전면석축에는 3개소의 계단을 두었다. 전면석축의 높이는 1.6m 정도이다. 공포는 사용하지 않고 전면 고주를 사용한 전퇴 1고주 5량가 형식의 건물이다.

강당 앞 마당 동서측에는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다. 동재와 서재는 모두 전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나 건축형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동재의 경우는 전면에 퇴칸을 둔 형식으로 중앙 3칸은 마루를 들어 대청으로 처리하고 좌우 각 1칸은 실(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서재의 경우에는 퇴칸이나 마루 없이 5칸을 모두 실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림 48. 송양서원 강당 전면
(『북한문화재해설집 III』, 2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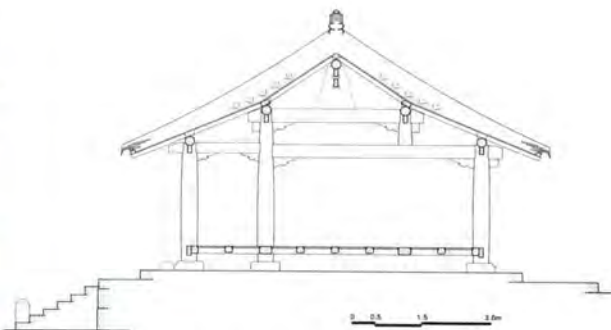


그림 49. 강당 종단면도
(『북한문화재해설집 III』, 264쪽)

제향공간으로 진입하는 내삼문(內三門)은 3단의 석단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3개의 일각문을 거리를 두어 병렬시킨 형태이다. 사당은 문충당이라 하며 전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약 1.3m 높이의 기단 위에 자리한 건물로 공포를 사용하지 않은 간략한 형식의 건물이다. 전면칸이 짝수칸으로 특이한데 내부의 평면계획을 보면 중앙 2칸과 동측 1칸을 당(堂)으로 하고 서측 1칸은 실로 구분하여 사당으로 사용하는 3칸은 전면에 개방형의 퇴칸을 두고 실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퇴칸을 2쪽의 판장문으로 막아 폐쇄형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전면 계단의 위치도 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측 3칸의 중심에 맞추어져 설치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을 건축형식을 보전해 창건당초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배치나 남아있는 기단, 초석 등의 석조 유물 등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초기 건축 양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유교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기타 건축

(1) 개성 침성대(瞻星臺)

고려시기의 천문대로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고려 궁지인 만월대 서북쪽 부분에 자리하고 있으며, 궁궐 조성 초기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유구는 방형평면의 네 모서리에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주를 세운 방형 구조물의 축대만이 남아 있다. 원래는 상부에 천문관측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천문대는 장대석을 이용한 외별대의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보이는 것은 2매 정도의 장대석이 기단 위치에 남아 있다. 기둥은 총 5개가 사용되었는데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운 것으로 네 모서리에 4개, 내부 중앙에 1개의 기둥이 있다⁴³⁾. 네 모서리의 기둥 머리 위에 방형 석재를 평방석처럼 올려 연결하고 중앙의 기둥 위에도 1매의 장대석을 가로질러 올린 후 매열 각 3매의 판석을 그 사이에 우물마루처럼 깔아 상부의 바닥면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상판을 구성하고 있는 평방석에는 상단에 별도의 난간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형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발견된 길이 38cm, 28cm 방형기둥이 각 2개씩 확인되어 이를 토대로 원래 3층이 아니었나하고 추정하는 견해⁴⁴⁾도 있어 다시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한 기둥 부재가 연결된 흔적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네 개의 모서리 기둥 상단에 수평으로 설치된 방형석재는 상단부에 한단의 턱이 저 있다. 현재 부재의 결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원두은장홈이 측면에 보이는데, 은장이 측면에 설치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가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는 의문이다. 침성대의 평면 한 변 길이는 2.6m이며, 높이는 2.8m이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침성대가 보이지 않으나, 고려 초기부터 천문 및 관측 등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태복감(太卜監)⁴⁵⁾과 태사국(太史局)⁴⁶⁾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문관측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침성대에서 어떠한 관측기구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관측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의 경우 주천문대는 궁궐 밖에 별도로 설치하고 궁궐 안의 천문대는 보조 천문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 고려의

43) 네 모서리 기둥과 중앙주로 구성되는 기둥 배열은 불국사 다보탑(佛國寺 多寶塔)의 탑신에서 보이는 방식과 유사하다.

44) 최성준 외, 『조선기술발전사 3 -고려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45) 고려(高麗) 초기(初期)에 천문(天文)을 맡은 관아(官衙)로 현종(顯宗) 14년(1077)에 주마(主馬)로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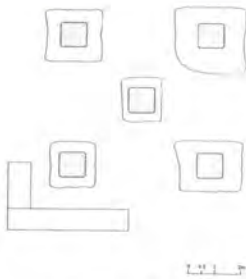
46) 고려시대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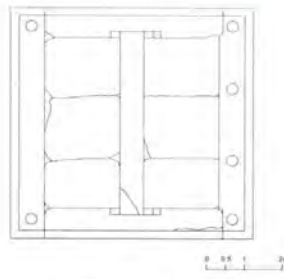
개성 첨성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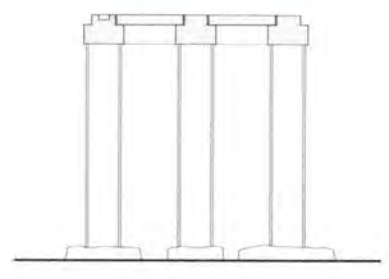
상판 상세



기둥 배치도



상판 평면도



입면도

그림 50. 개성 첨성대(『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편』, 338~352쪽)

(2) 개성 선죽교(善竹橋)

개성시 선죽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시대 석교로 최소한 13세기 초 이전 건립된 고려시대 다리이다. 선죽교라 하는 이름은 후일 태종이 된 이방원(李芳遠)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고려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가 이 다리에서 피살된 이후 다리 옆에서 참대가 솟았다고 하여 고쳐 부른 것으로 보인다.

다리는 길이 8.35m, 폭 3.36m의 화강석으로 축조한 널교이다. 교각은 4개로 폭 40cm 정도의 방형 석재기둥을 세웠고, 이 위에 춤이 20cm이고 폭이 50cm 정도 되는 장방형의 장대석들을 명에석으로 횡으로 걸었으며, 다시 그 위에 길이 방향으로 길이



그림 51. 선죽교 전경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문화유산』, 35쪽)

2m, 폭 0.5m, 두께 25cm 내외의 큰 판석을 명에석에 걸쳐 답판을 구성하였다. 원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1780년 정몽주의 후손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석물 가운데 범자(梵字) 2자가 보이는 석물이 있는데 이는 개성 묘각사지(妙覺寺址)에 있는 다라니 석당(陀羅尼石幢)을 가져다 사용한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다리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다른 돌다리 하나는 선죽교 통행을 대신하여 나중에 만든 다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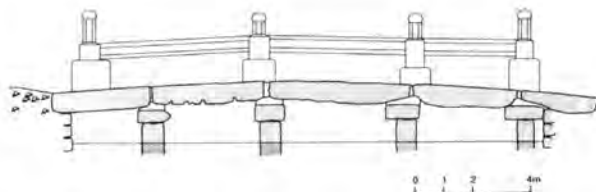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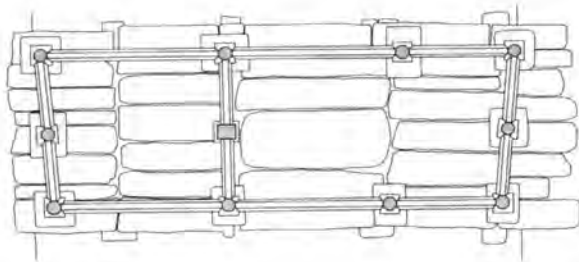


그림 52. 선죽교 평면도 및 단면도
(『북한문화재해설집 1-석조물편』, 353쪽)

선죽교 근처에는 바로 옆에 한석봉(韓石峰)이 쓴 선죽교비(善竹橋碑)가 있으며 동쪽에 정몽주 관련 인물들과 관계된 여러 개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고, 선죽교 서편에는 송양서원(崧陽書院)과 표충비(表忠碑)가 있어 관련 유교 건축문화유산이 밀집된 곳이라 할 수 있다.

3. 맺음말 - 개성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개성의 건축문화유산은 다른 일반적인 지역의 건축문화유산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개성의 역사지리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고려의 수도라는 고도로서의 성격 때문이다. 이것을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성의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된다.

첫 번째로 보존을 위해 시급한 것은 현황의 조사이다. 이것은 개성의 문화유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전역에 걸쳐 있는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건축문화유산의 경우 박물관처럼 보존환경이 통제되는 곳에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퇴락하며 보수를 필요로 한다. 이때 원형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남기지 않고 보수되는 경우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의 출발이 조사연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건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보다 더 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실태를 보면 건축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된다. 특히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확한 정밀실측도면들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실측 작업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면 자료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훼손이 진행되기 이전에 시급히 주요 문화재에 대한 실측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북측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실측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정확한 실측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농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

47) 북한의 대표적 문화유산 관련 기구인 문화보존국이나 문화보존사 등의 기관에서 도면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 확보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확인이 불가하여 자료의 보유에 대해서는 필자의 의견으로는 회의적이다. 일례로 필자는 고구려 고분 보존을 위한 조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6년 4월 19일~5월 2일까지 14일간 평양에 체류하며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과 벽화의 보존상태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조사를 준비하면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현상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실측자료와 수리 이력 등의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우선 실측자료는 기존에 남한에 알려져 있는 도면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현장 조사시 활용하였으나 건축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치수가 삽입된 도면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북측에도 요청하였으나 결국 단 한 장의 도면도 받을 수 없었다.

는 남한에서도 정밀실측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러한 실측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일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남한에서는 3D 스캐너와 같은 측량기기의 발달로 실측이 보다 정밀해지면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정밀한 도면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의 실측 장비는 아직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므로 정밀실측을 포함한 현황 조사 작업이 북한의 건축문화유산 보존에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생각된다.

또 하나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특징 중의 하나로 복구개건에 대한 태도가 주목된다. 즉, 북한 문화재 보존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복구개건(復舊改建)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흔히 쓰는 용어로 복원(復原)이라 불리우는 복구사업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이다. 전쟁시 폭격, 방화 등으로 인해 파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구사업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개성 남대문과 만월대를 비롯한 고적들은 귀중한 역사유적이므로 아직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교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개성시민들과 군인들이 동원되어 복구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⁹⁾.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어 현행 <문화유물보호법>에서도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원, 즉 '복구개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에 의하면 "복구개건"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규정하고⁵⁰⁾ 이러한 사업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원래의 진정성이 있는 유물이나 유적으로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 일차적이라 하면, 복원은 부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령에 '복구개건'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지니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보여주는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문화유물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원칙적이면서도 선언적 문구이기는 하나 사회교육의 수단으로 문화재가 인식되고 있는 일단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도 고적조사나 보존사업이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사회교육과'로 통합되는 모습에서 문화재가 이데올로기적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단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복구 작업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북한이 문화재를 본격적으로 보수·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붕괴는 북한에게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재 관련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⁵¹⁾. 현재 북한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된 것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전쟁 시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⁵²⁾. 서구적 보존철학의 관

48) 실제 북한에서 발간된 건축문화재 관련 자료에 실측도가 실려 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수록된 도면은 약실측 수준의 도면이나 일제강점기 제작된 도면 등에서 다시 제작한 도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49) 이성순,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개성지구의 역사유적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 『역사과학』, 2002-1(장호수, 『개성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관리』,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86쪽에서 재인용.)

50)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제36조~제4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법률출판사, 2004, 338~339쪽.

51)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19쪽.

52) 국보유적 제10호인 대성산성(大城山城) 남문은 고구려 시기 대성산성의 정문으로 평양 천도 이전인 4세기말에서 5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건물은 1978년에 복원한 것이다. 제17호인 평양의 부벽루(浮碧樓) 역시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던 것을 전후 다시 복구한 것이며, 제22호인 평양성의 전금문(轉錦門) 역시 한국전쟁 때 파괴된 것을 1959년 복원한 것이다. 최근 발굴후 전면 복원된 신개사(神溪寺), 영통사(靈通寺) 등이 모두 국보유적 제191호, 192호로 지정된 것을 보면 복원된 건물에 대한 태도가 남한과는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점에서 보면 복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복구개선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최근 남한에서도 복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⁵³⁾, 철저한 고증연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복원이 가져올 유적의 진정성 훼손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나,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러한 반대는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한 고증연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는 원형의 훼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서도 이러한 복구 및 복원이 보다 신중히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개성의 건축문화유산은 그 특성을 심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성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심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보존 및 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도(古都)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고도지역으로 경주, 부여, 익산, 서울, 평양 등과 함께 도읍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건축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고도는 보통 궁성(宮城)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성(都城), 그리고 그 주변의 시설들이 하나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개성 역시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도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산성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방어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도시이다. 개별 건축문화유산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보존되고 그 맥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의 보존 및 활용 전략도 고도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려의 불교문화를 볼 수 있는 유적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측의 해방 이후의 사정은 불교 문화유산을 보호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불교문화유산의 경우 북한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의 지정 문화재는 지금까지 파악된 국보유적 193건을 포함하여 약 2,800건 정도로 그 전체 수량이 남한의 1/4 정도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그 수량이 적은 편이다. 문화재의 지정 수량은 관련 정책이나 지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선 절대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조사연구 등이 진행이 될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향후 조사연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발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문화재 중 사찰 소장 문화재의 경우 사찰이 멸실된 경우에 이미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매장문화재의 형태로 존속하는 사지의 경우에는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된 남한에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사지들이 남아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많은 수의 불교문화재들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성의 경우 많은 불교유적들이 산재해 있으며, 발굴의 진행에 따라 고려시기의 불교문화를 밝혀낼 소지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된다.

53) 실제로 경주의 환룡사지(皇龍寺址), 익산의 마륜사지(彌勒寺址), 부여의 정림사지(定林寺址) 등 고대의 주요 사찰들에 대한 복원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참고문헌

- 우만형(禹萬亨) 편저, 『개성』, 예술춘추사, 1970
- The Cultural Relics Publishing House, 『Historical Relics in Kaesong』, Pyongyang, DPRK, 1989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유적발굴개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1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사찰연구』,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1993
- 『朝鮮觀光地圖帖』, 朝鮮國際旅行社(平壤), 1995
-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문화유산』, 동아일보사, 1997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I-석조물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II-사찰건축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 장호수,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 관리』, 백산자료원, 2000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III-일반건축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 전룡철 등,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평양), 2002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건물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사찰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조선문화보존사, 『조선의 절 안내』, 2003
- 사단법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 KOREA),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사업 -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1 - 개성 역사지구』, 2004
- 리기웅, 『우리나라 중세탑』, 조선문화보존사, 2004
- 사단법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ICOMOS KOREA), 『북한문화재연구 No.2-고려 개성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보존』, 2005
- 『경기도박물관 학술세미나 -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5.22.
- 리철 · 리기웅 등 저, 『개성 령통사』, 조선문화보존사(평양), 2005
- 리철 · 리기웅 · 김명철, 『문화유산 애호가들의 벗』, 조선문화보존사, 2005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북한의 건축문화재-사찰건축편 · 일반건축편』, 2006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 5- 개성』, 도서출판 양사재, 2011
- 『북한국보유적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개성관광』, 현대아산(주), 출판년 미상

개성한옥의 보존 및 활용방향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연구개요

1) 개성한옥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성한옥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온 역사적 산물이며, 문화 자산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다.

개성한옥 지구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만들어 놓은 삶의 궤적이며, 현재의 기록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를 기록해 두게 된다. 개성한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림 1. 개성한옥 밀집지역(구글사진에 표시)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는 개성한옥지구를 대상으로 한 ‘보존 및 활용방안’이다. 연구대상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한된 지역이므로 연구내용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존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즉 북한 당국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원칙적인 내용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용어문제와 관련하여 ‘한옥’은 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조선기와집 거리’, ‘민속여관 거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 용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한과 개성한옥보존문제를 협의할 경우 지속적으로 ‘한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잠정적으로 ‘한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개성한옥은 개성시 중심부의 남대가와 배천을 중심으로 북흥동과 자남동에 밀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형성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한옥 중 오래된 것은 조선말기, 일제 강점기 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건립된 것도 많이 있다. 특히 해방 이후 건립된 한옥은 시멘트 등 현대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은 기와지붕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현대화된 한옥(?)을 한옥의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개성한옥의 소유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주택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과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방법과 내용이 필요하다.

2. 개성한옥지구 경관 현황

개성한옥군락지 내의 한옥 수, 양식 및 구조, 규모, 재료, 거주실태 등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 당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조사보고자료, 최근의 위성사진(2011년) 등을 통해 한옥 밀집지역, 한옥 분포지역의 면적, 가옥별 배치유형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¹⁾ 자료에 의하면 개성한옥은 자남동과 북흥동 일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그림 2. 개성 중심부 약도

1) 김태영, 『개성 지역 한옥군락의 분포와 배치』,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보고서(2-3부)』, 경기도·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2

표 1. 2011년 현재 개성 자남동, 북흥동 일원 한옥의 유형(자료, 김태영, 2012)

한옥유형	'口'자집	'ㄷ'자집	'ㄱ'자집	'ㄴ'자집	'一'자집	계
자남동일원	40	60	111	24	26	261
북흥동일원	37	53	46	26	16	178
계	77	113	157	50	42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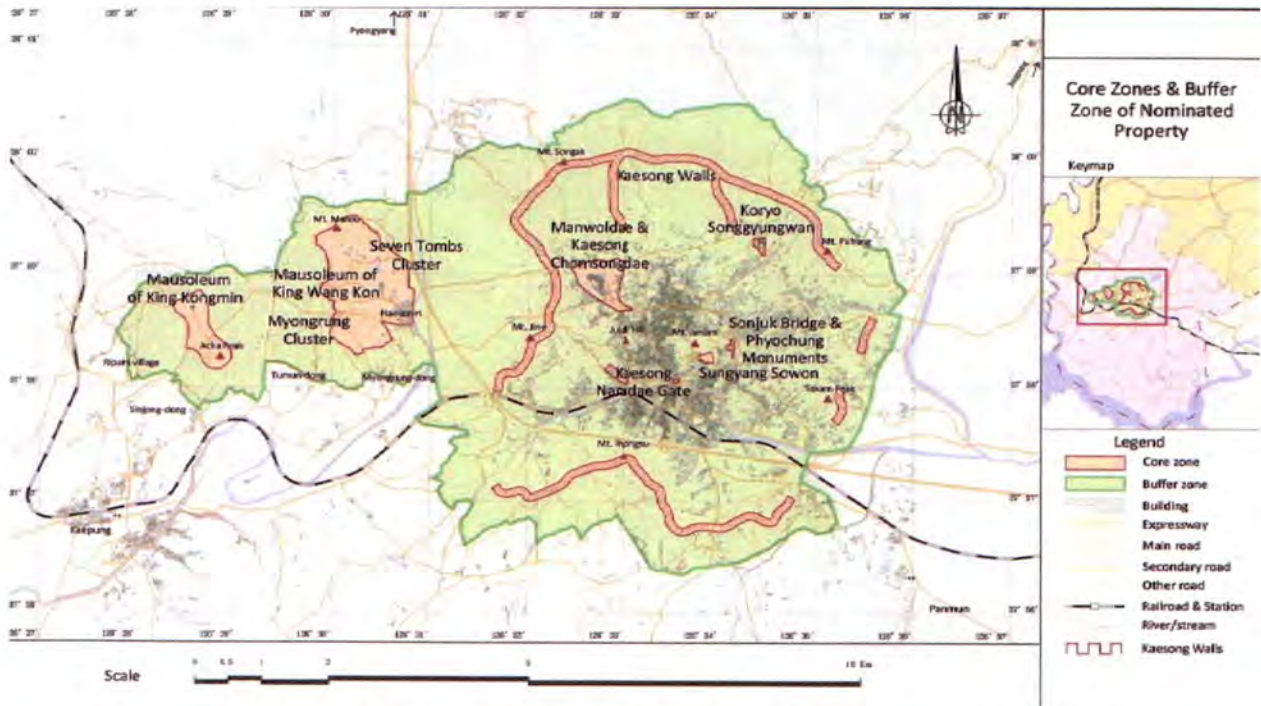


그림 3. 개성역사지구 문화유산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자료,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신청서, 2013)



그림 4. 개성한옥군락지 위성사진(자료 : Google earth, 번호는 근경사진 위치)

530여 동의 살림집 가운데 약 430여 동이 전통한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옥의 배치형태는 ‘口’자집, ‘ㄷ’자집, ‘ㄱ’자집, ‘ㅡ’자집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배치 형태는 ‘ㄱ’자집(207동)과 ‘ㄷ’자집(113동)이다. ‘口’자집도 77동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ㄱ’자집은 ‘ㄷ’자집에 포함시킴)

개성한옥 군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주거지역이 일제 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낡거나 훼손된 구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지으면서 한옥군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이 지역에 기존 경관에 맞추어 전통기와를 올린 가옥이 지속적으로 건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한옥군락이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개성의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역사지구가 중요 유적은 핵심구역(core zone)으로 지정되고, 개성시까지 대부분은 완충구역(buffer zone)으로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북흥동과 자남동의 한옥 밀집지역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었다. 이 완충구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의 경관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약속이므로 당분간 현재의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한옥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목조건축 양식이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신축하거나 보수한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시멘트나 벽돌을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면 특히 해방 이후 신축 또는 증축한 가옥은 대부분 시멘트와 벽돌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를 분석해 보면 축부에 목재기둥을 유지하고 있는 가옥은 거의 없으며 벽돌 또는 시멘트로 마감하고 문틀은 목재를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목재 기둥을 세우고 기둥 외부로 화방벽을 둘러 목재기둥이 보이지 않게 만든 사례도 보이고 있다. 창호는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였고, 지붕에는 전통적인 기와지붕을 올려 외부경관은 한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대부분 홑처마로 만들었으나 겹처마로 만든 지붕도 일부 보이고 있다. 기와는 막새를 사용하지 않고 단부에는 대부분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굴뚝은 대부분 벽돌로 만들었다.

한옥 군락 중에는 블록이나 벽돌로 만든 현대식 건물이 증축되거나, 지붕 한쪽에 현대식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도 있다.



1. 개성 남대문



2. 배천변 개성한옥



3. 남대가 주변 전경



5. 남대가 주변 한옥1



6. 남대가 주변 한옥2



7. 남대가 주변 한옥3



8. 남대가 주변 한옥4



9. 개성한옥 지구 전경1



10. 개성한옥 지구 전경2



11. 개성 민속려관 전경1



12. 개성 민속려관 전경2



13. 남대가 전경



14. 배천 전경1



15-1. 배천 전경2



15-2. 배천전경3



15-3. 배천 전경4



16-1. 민속려관 내부1



16-2. 민속려관 내부2



17-1. 배천변 민속려관1



17-2. 배천변 민속려관2



17-3. 민속려관 내부3



18. 남대가 북편 전경



19. 배천 북편



20. 민속려관 외관



21-1. 민속려관 인근1



21-2. 민속려관 인근2



22. 민소거리 안내판



23-1. 남대가 개성시민들1



23-2. 남대가 개성시민들2



23-3. 남대가 개성시민들3



23-4. . 남대가 개성시민들4



24. 남대가 개성시민들5



25. 개성한옥지구 북편전경



26-1. 개성시 골목길



26-2. 민속려관 정문



27. 민속려관 북편



개성역



개성 시가지(일본인 사진)



개성 통일거리

그림 5. 사진으로 본 개성한옥군락지의 경관 현황
(자료 : Google earth, 번호는 그림 4의 위성사진에 표시된 위치)

3. 개성한옥지구 보존계획 수립

1) 보존의 목적

개성한옥은 인류와 함께 한 역사를 가진 문화 산물로서 시대성, 장소성이 포괄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인류 문화가 지속하는 한 함께 존속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개성한옥을 원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말은 한옥이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만들어질 당시의 물성 그대로 유지하여 당시 시대성, 장소성,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옥의 물적 특성상 영원히 원래의 물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존노력을 통하여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개성한옥에는 역사적 정통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 개성한옥에 담긴 예술적 가치, 기술, 환경, 재료, 양식은 역사성을 비정하는 근거가 된다. 보존관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개성한옥에는 시대의 문화적 특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문화란 당시의 시대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이 담겨있다. 시대정신은 곧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이를 유지하기위해 개성한옥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

개성한옥에는 문화재의 물적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성 확보나 문화성 확보는 곧 지속성을 말한다. 지속성은 물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하고, 화재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성한옥은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개성한옥이 문화재로 가치도 있지만 대중과 함께 할 때 그 가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려 주는 교육자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한옥의 보존 목적	문화유산의 진정성	⇒	진정성을 위한 원형보존 건축적 특성 유지
	역사적 정통성	⇒	역사적 정통성 유지 노력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
	시대문화적 특성	⇒	시대정신 시대적 예술과 기술
	건축유산의 지속성	⇒	전통건축물의 완전성 지속가능한 보존
	교육자료와 사료	⇒	인류의 정신적 자산 민족의 역사교육자료

그림 6. 개성한옥지구 보존 목적

2) 개성한옥 훼손요인

개성한옥과 같은 목조건축유산은 그것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훼손 요인이 많다. 유산의 성격, 위치 및 활용조건의 다양성, 환경조건 등 각종 훼손요인으로부터 보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개성한옥의 훼손 요인을 크게 자연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생활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살림집과 같은 목조건축 문화유산의 경우 자연환경 요인, 도시 사회적인 요인, 생활환경 요인에 의해 보존환경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적 요인이 개성한옥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적인 요인

- 자연풍화작용 : 병충해, 습기, 누수 등에 의한 부패, 산성비로 인한 풍화 가속
- 자연재해 : 폭풍우, 강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훼손

(2) 도시사회적 요인

- 국토개발 :
 - 도로 및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 문화재 위치변경으로 인한 고유한 경관을 상실하는 것 등
- 도시개발 :
 - 도시개발, 주거지 개발, 지역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경관훼손, 위치변경
 - 현대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양식으로 건립한 주거단지
- 도시화 현상 :
 - 인구증가로 인한 도심의 변화
 - 도심의 이동과 확산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

(3) 생활환경적 요인

- 기능 및 용도 변경 :
 - 기존의 기능이나 용도가 소멸되거나 변화되어 원형이 훼손
 - 원래의 기능이 바뀌면서 구조변경이나 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훼손
 -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경관 훼손
- 유지능력 부족 :
 - 관리능력 부족으로 방치
 - 지속적인 관리가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한 관리능력 상실
- 생활패턴과 도구의 변화 :
 - 각종 생활도구의 변화(현대식 시설, 가구, 설비, 가전제품 등)
- 현대적인 건축재료의 사용 :
 - 시멘트, 유리, 금속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 부주의에 의한 화재 등

(4) 제도적 요인

- 북한정부의 의지 문제
- 사회체제 문제
- 재정 문제

- 관련 전문가 문제
- 관리방법의 문제

3) 보존내용과 범위

개성한옥을 보존하는 내용은 크게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타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있다. 유형문화유산에는 건축물, 도로, 개천, 교량 등과 같은 기반시설물, 그리고 수목, 기념물, 비석 등과 같은 경관 및 조경시설이 있다. 관련 자료로는 각종 문헌, 회화, 공예품, 기록물, 역사자료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유산 보존

- 건축물 : 한옥 살림집, 여관
- 기반시설물 : 도로, 개천 및 교량
- 경관 및 조경시설 : 수목, 기념물, 비석 등

(2) 무형문화유산 보존

- 세시풍속, 음식, 복식

(3) 관련자료

- 개성한옥관련 각종 문헌, 회화, 기록물, 역사자료 등을 전시관에 보존

4) 보존계획의 접근

현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거치지 않으면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먼저 야기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존사업에 적극참여 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문제의 진단과 처방

-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계획경제 체제, 주택 소유문제는 남한과 다르므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개성한옥 보존’과 관련된 김일성 주석의 특별지시는 북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한옥지구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 학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 북

한 지역 협력자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북한 지역 연구자를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입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 북한사회의 집단주의 의식도 남한사회와 다른 특징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북한 중앙정부의 지시나, 당 중앙의 특별지시 등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개성한옥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북한당국의 이해와 협력

- 개성한옥의 중요성 인식 : 개성한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의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 북한 중앙정부의 담당자들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 개성한옥지역을 포함한 개성시가 대부분 세계유산 완충지역으로 설정되어 당분간 개발이나 훼손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법적(또는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개성 도시계획 정책에 한옥 및 주변경관 보존을 주요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 북한사회가 개방되거나 시장경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는 적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에 조금씩 시장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제한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개성한옥 자료(건축·역사·민속·음식·복식·전통의례·전래문헌 등)를 DB화하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개성이 개방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작업이 현황조사이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전문가를 이용하여 각종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 자료를 DB화 하도록 한다.
- 문화유산 보수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개성지역이 개방되거나 남북협력이 활발해 진다면 문화재 보수공사 분야까지도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족할만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화재 보수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인식과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3) 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

- 북한 사회체제의 특성과 행정조직
북한 사회 체제의 특성상 개성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개성한옥 보존을 위한 북한 행정체계 분석 및 관련인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통한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 ‘문화유물보호법’(1994년 제정), ‘역사유적과 유물보호에 관한 규정’(1992) 등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련법을 적용하여 개성한옥지구의 보존방법에 대해 분석한다.(부록 참조)
- 북한의 도시 및 건축 관련법을 적용하여 이 관련법이 개성한옥지구에 적용할 가능성과 적용결과 등을 분석한다.

4. 개성한옥지구 보존방법론

1) 개성한옥지구 기초 자료조사

개성한옥의 유형적 현황자료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이 자료는 개성한옥보존의 기본적인 틀이며, 문화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로, 교량, 하천, 건축, 전적, 문서와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과 더불어 전통적인 생활문화, 食문화, 依문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각종 전통의례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영상자료와 함께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한옥지구의 형성을 비롯한 역사적 문화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물적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보존 상태와 훼손상태 등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적 배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관광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보존 정비계획의 원칙

(1)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만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보존을 위한 수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함부로 상상하거나 추정하여 수리하는 것은 원형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도록 한다.

(2) 기록 유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고,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 훼손될 경우 복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 양식 유지

기존의 양식대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형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증을 통해 양식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법 유지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보존해야 한다. 장인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원형 재료 유지

건축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소 유지

건축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동산문화재는 보존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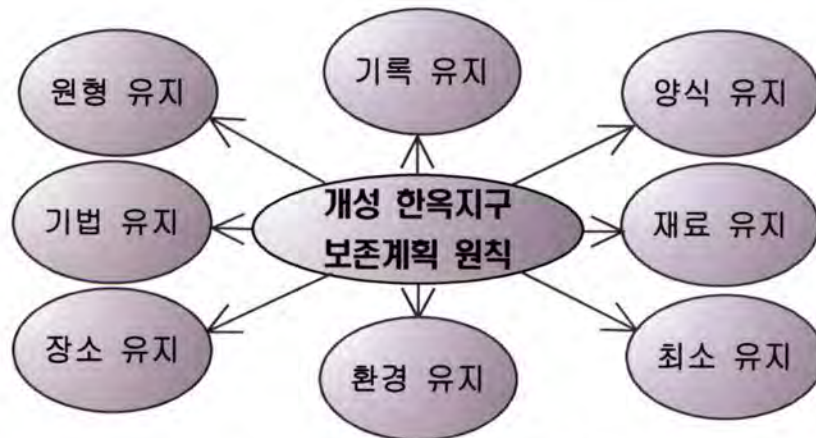


그림 7. 개성한옥지구 보존계획의 원칙

(7) 환경 유지

도시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도시개발로 인해 주변 경관이 변화되면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진정성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도시산업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건축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까지 보호,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존계획의 수립

(1) 종합 정비계획의 필요성

개성한옥지구의 진정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보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 종합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성한옥 지구의 역사 및 건축물 연혁
- 개성한옥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
- 개성한옥의 역사성, 정체성, 고진정성,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 개념설정
- 개성한옥지구 보존 및 정비계획
- 개성한옥지구 보존 및 정비계획 사업 추진계획

(2) 보존 구역 범위설정

개성한옥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범위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현재 개성한옥지구의 가옥 중에는 지붕만 기와지붕이고 몸체는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위 설정은 개성한옥의 특성, 북한 행정 당국의 의견, 보존 능력의 지속가능성, 관리 능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개성한옥 보존 능력의 지속가능성은 북한 당국의 의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3) 보존 정비계획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개성한옥지구에는 벽돌, 시멘트, 유리 등 현대적인 재료가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재료는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것, 해방 이후에 사용된 것, 최근에 사용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재료 사용 시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존 정비계획에서 정비경관의 시점은 조선시대 말~대한제국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한옥 중 부분적으로 일본식 구조나 기법이 이용된 경우 조선시기의 한옥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한옥 중 현대재료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현대재료를 최소화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해방 이후 신축 한옥은 가능한 한 조선시대 말기의 건축양식과 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러한 보존 정비계획은 북한 당국의 이해와 협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을 위한 정비계획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성한옥 지구 보존 정비를 위한 공통사항

-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보존을 위한 정비는 가능한 한 건립 당시의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냉난방기기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 설치하는 기기에는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단열을 위해 2중창을 설치할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에 달도록 한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생활보장을 위하여 내부의 평면을 일부 변경하거나 현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시설물인 경우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살림집

- 거주자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내부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곳에는 가능한 한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보온과 단열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처마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본체의 색깔과 맞는 금속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냉방기 외부기기, 외부 연료통 등은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로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내부 방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내부 간막이 벽을 제거할 경우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존치시킨다.
- 단열을 위해 창호를 달 경우 기존 창호 안쪽에 달고 크기와 모양은 기존창호에 맞추도록 한다.
- 마루바닥은 가능한 그대로 두도록 한다.
- 부엌 바닥은 원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도록 한다.
- 부엌에 설치하는 가구는 살림집과 잘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 살림집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외부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재료와 형태는 살림집과 유사하게 하도록 한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도록 한다.

③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살림집

- 건립 당시의 원형으로 보존 정비하도록 한다.
- 현재 거주하지 않는 가옥은 개성한옥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가옥 내, 외부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도구를 함께 전시한다.

④ 지붕

- 건립 당시의 원형으로 보존 정비하도록 한다.
- 기와는 전통 수제식 기와를 사용한다. 기와 형태와 규격은 기존 주택의 기와를 준용한다.
- 기와 제작은 북한에서 하도록 한다.

⑤ 마당

- 현재 남아 있는 원형을 조사하여 건립 당시의 원형으로 보존 정비하도록 한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부분적인 변경을 허용한다.

⑥ 대문

- 건립 당시의 원형으로 보존 정비하도록 한다.
- 원형을 상실한 경우 고증을 거쳐 복원하도록 한다.
- 원형고증이 어려운 경우 기존 주택의 사례를 참고하여 복원하도록 한다.

⑦ 담장

-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 담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살림집의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 시멘트 제품,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⑧ 보존지구 내 도로

- 한옥 건립당시의 옛 길 모습으로 보존 정비하도록 한다.
- 포장이 필요한 경우 조선시대 도시 골목길에 사용되었던 재료를 사용한다.

⑨ 개천(배천)

- 가능한 한 한옥이 건립될 당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한다.
- 장마, 홍수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⑩ 교량 등 시설물

- 가능한 한 한옥이 건립될 당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한다.
- 원형고증이 어려운 경우 조선시대 교량을 적용하도록 한다.
- 장마, 홍수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⑪ 편의시설 및 조형물

- 공동화장실, 관광안내소, 공동집회실, 상점 등 한옥지구 내 편의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신축할 경우 규모와 양식은 한옥지구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입, 지중화 등 고려)
-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
- 식수대, 벤치, 휴지통, 이정표, 안내설명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한옥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친환경적으로 제작 설치한다.
-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한옥지구의 특성에 맞는 형태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입하거나 담장높이 이하로 하여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⑫ 경관조정

- 개성한옥 지구 내 경관은 한옥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 내외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외래 조정양식을 배제하고 전통양식으로 한다.
- 경관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의미상 전통조경과 어긋나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 전통조경의 원형을 찾도록 한다.
- 기존에 조성된 견치석축 등 외래조경 시설물 등은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비한다.
- 전선은 지중화 하여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로는 노출형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오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을 기본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
- 배수로는 하단부에 흙막이 정도의 높이만 자연석(또는 사괴석) 석축을 쌓고, 그 위는 흙으로 경사처리한다.
- 배수로의 석축은 전통 석축양식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일본식 석축은 조선시대 전통방식으로 정비한다.

- 배수로(우수)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 하천(배천)은 생태적 안정을 이루도록 정비해야 한다.
- 기존의 자연스러운 곡선, 폭 등을 그대로 존치 하도록 한다.
- 하천의 다리는 전통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경관에 어울리게 설치한다.
- 주차장의 바닥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보존 관리계획

(1) 보존관리의 중요성

개성한옥지구의 보존관리는 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이다. 개성한옥지구를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원형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유산의 진정성이 사라지므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따라서 보존관리는 최소한 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2) 보존관리의 효율성

개성한옥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억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된다. 주민생활과 원형보존, 진정성유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개성한옥지구의 보존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형보존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산의 진정성 보다는 현재 주거생활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성한옥지구의 전통적인 가치와 조형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과 거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형으로 표출된 부분은 가능한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내부의 생활공간은 부분적으로 변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도록 한다.

둘째는 개성한옥지구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조직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관리의 기본 원칙,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관리 조직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되 남측의 경험을 조언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두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유지관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지관리 예산이다. 북한 당국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정성 보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남측에서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원형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북측에서 받아들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한다.

(3) 시설물 관리계획

시설물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황자료조사는 개성한옥지구의 역사적 배경, 건축물 현황 및 수리 이력, 주변 경관, 현재 건축물 관리 및 활용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자료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이며, 시설물 관리의 기본자료이다.

두 번째는 보존관리계획 수립이다. 보존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고 관리 방법을 수립하도록 한다. 보존의 범위는 원형보존이 필요한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하고, 인접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일정한 구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보존의 대상은 핵심구역 내의 모든 시설물은 관리 대상으로 하며, 일부 주변 경관은 탄력적인 관리대상으로 한다. 관리 구역 내의 모든 관리 대상 시설물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주거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이다.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규칙 등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개성한옥지구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행정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운영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측에서 보존관리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내용(예를 들면 관리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보존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는 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조직이 갖추어진 다음 단계이며, 실제로 한옥지구를 문화유산적 가치의 진정성과 주민의 생활이 병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옥지구의 원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물이나 개인시설물의 보수방법, 이 지역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인 원형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측과 보수기술 협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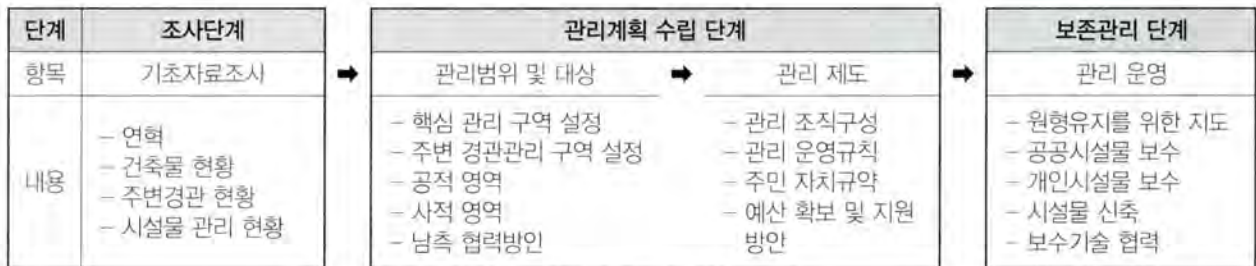


그림 8. 개성한옥 보존 관리 과정

5) 보존 정비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 인식 문제

북한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 사업소 단위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개성한옥의 경우 개인소유를 인정하느냐, 사용권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비계획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2) 북한 당국의 정책

개성한옥과 관련하여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교시 내용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이므로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지시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잘 인식하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보존 정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북한 당국의 문화유산 보존계획 수립

북한 당국에서 개성한옥지구를 문화유산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법적인 근거는 1994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동법 제36조~42조는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유적복구·개건 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할 수 있다. 이밖에 김일성 교시를 근거로하여 1993년 12월 10일자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유물보호법과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적용하면 보존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예산확보 및 지원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개성한옥지구 보존 정비계획(복구개건계획)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으므로 한옥지구 보존계획을 위하여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개성한옥지구 보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북한 당국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에서 보존 정비계획 수립을 남북한 공동 작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남측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북측 당국과의 접촉과 협력

개성한옥지구 보존정비계획은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후손에게 계승시키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이 공동협력으로 이루어낸 문화사업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간 소통이 필요하다.

5. 활용방향

1) 활용의 전제

첫째, 문화유산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 활용되지 않고 관리만 이루어질 경우 박제된 문화유산 또는 모형과 다름없다. 적극적인 보존대책은 활용이다. 현재 개성한옥지구는 북한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활용도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활용도가 높은 생활시설은 오히려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전제에는 진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다.

둘째, 개성한옥지구의 활용에 대한 북한 당국과 주민의 의식이 분명해 져야 한다. 한옥 활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활용의 의미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보편적인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변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셋째, 개성한옥지구의 활용은 외래방문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유무형적인 문화자원이 동원되었을 때 교육효과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한옥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도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활용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규칙은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의 범위는 넓히는 것이 좋다. 개방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방문객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성한옥과 관련된 모든 자료(역사·민속·음식·복식·전통의례·전래문헌·도서·사진 등)가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일곱째, 방문객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성한옥지구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한 방문과 관람,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문객이 활용하지 않게 된다. 방문객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2) 활용방향

(1)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

개성한옥지구 내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한옥을 유형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거리의 시설물, 경관, 조형물 등 모든 경관요소들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한옥지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문화자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접 문화자원을 한옥지구와 네트워크링 할 경우 장차 개성시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2) 전통 민속 음식 및 놀이 체험

개성지역 김장 담구기, 떡 만들기 등과 같은 전통음식 체험을 통하여 개성한옥 지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성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계절별 민속놀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성지방의 전통 민속을 체계화하고 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문화행사 체험

정치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개성한옥지구의 경관과 지역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즉 한옥지구 내의 공간을 이용하여 전통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하고 전통적인 공연을 하도록 한다. 특히 개성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악이나 무용을 발굴하거나 개성지역과 관련된 창작극을 개발하여 공연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 연극, 음악 공연 등) 이 문화행사에 개

성시 지역주민을 참여시킨다면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 및 남북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

(4) 각종 민속의례 재현

개성지방에 전해오는 각종 민속의례를 재현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 의례에는 혼례, 제례, 상례 등 조선시대 전통생활과 관련된 의례가 중심이 된다. 이 중에서 재현할 가능한 의례를 활용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연으로 활용하는 방안, 혼례와 같은 의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5) 고려시대 행사 재현

현재 고려시대 민속은 단절된 상태이다. 개성이 고려의 도성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민속행사, 의례 등을 복원하여 재현하는 방안이다.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고증해 낼 수 있다면 이러한 행사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개성한옥지구에서 이 행사를 거행한다면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배천을 중심으로 물과 관련된 행사

개성한옥지구 중심부를 흐르는 배천은 정관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배천을 이용하여 문화행사를 거행하는 방안,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7) 민속여관 숙박체험

개성한옥지구 내에 현존하는 민속여관을 정비하여 숙박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 현재 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양한 유형의 숙박 형태로 정비하여 숙박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8) 한옥 장기체류 체험

한옥지구 내 일부 주택을 선정하여 장기 체류 주택으로 활용한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거나, 훼손상태가 심해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정비하여 이곳에서 장기 체류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장기체류 형태로는 창작활동, 휴식 및 휴양 등이 있다.

(9) 전시공간 활용

한옥지구 내의 한옥을 이용하여 한옥 주거 생활도구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전통적인 각종 생활용구 및 주택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그 중 생활 민속용구는 전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

(1) 보존사업에 대한 남한 당국의 이해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개성한옥지구를 개방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 남한 당국에서 북한측에 개성한옥지구의 문화적 가치, 민족문화유산 보존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존·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남한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북측이 협력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개성한옥지구 보존 정비계획은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에서는 개성한옥지구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측에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보존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해

개성한옥지구는 인류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옥의 원형이 많이 변형되어 이대로 지속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개성한옥지구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개성한옥지구의 경관으로는 문화적 가치가 적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형 보존·정비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이해하여야 한다.

(3) 보존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의 협정

개성한옥지구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현재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완충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능하면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남북 당국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협정을 하는 것이 좋다. 남북 협정은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국내외 활용 사례

1) 국내

(1) 하회마을

• 입지 :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해 있으며, 풍산 류씨의 동족마을이다. 이 마을은 영남지방을 남북으로 흐르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마을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는 영남지역의 다른 곳에 비해 넓은 들이 있어 농업 생산량이 풍부하다. 하회마을이 자리 잡은 곳은 태백산맥이 남으로 뻗은 능선이 화산을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강이 감돌아 흘러 형성된 넓은 퇴적층 지대이다. 이 마을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조건에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 너머로 여러 겹의 산이 넓게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다. 마을 주변에는 경관이 빼어난 경승지가 많다.

• 마을 구성 : 하회마을의 지형은 평탄해 보이지만 중심부는 주변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다.

지대가 높은 중심부에 마을의 대종가인 양진당이 자리를 잡고 있고, 대종가 전면 길 건너편에는 파종가인 충효당이 자리 잡고 있다. 충효당은 서애 류성룡을 시조로 삼는 파종가이면서도 대종가인 양진당과 거의 비슷한 위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 두집이 마을의 중심을 형성한다. 마을 입구에서 서남향으로 나있는 중심도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작은 길들이 이어진다. 이 길들을 따라 마을 내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다. 마을의 주요 가옥들은 대체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집들은 도로와 조망, 풍수, 대지조건에 따라 각각



그림 9. 안동 하회마을 전경

자리를 잡고 있어 각 주택의 향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 서북쪽 화천 백사장에는 만송정이라고 불리는 소나무 방풍림이 있다. 이 소나무 숲은 마을의 허한 곳을 보호하는 비보풍수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하회마을에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관련된 서원, 정사, 사당, 서당 등도 있지만 마을 입구인 큰 고개와 작은 고개에는 마을의 신을 모시는 서낭당과 마을 안 삼신당인 당나무와 같은 민속신앙과 관련된 시설도 남아 있다.

• 활용 내용 : 하회마을은 마을 자체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보 제121호인 하회 및 병산탈을 비롯하여 국보 3점, 보물 3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4점, 중요민속문화재 7점, 중요무형문화재 1점(개)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는 하회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관람객이 이 마을을 찾아오고 있다. 하회마을의 년 간 방문객 수는 약 85만명(2005년) 정도이다. 하회마을은 201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활용 내용은 마을자체를 관람하는 일반 방문객,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숙박객 등으로 구별된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9-10월에 개최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의례, 민속놀이 체험과 같은 상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에는 탈춤공연, 차전놀이, 굿 한마당, 투호대회, 궁도대회, 시민한마당잔치, 농악놀이, 판소리한마당, 세계탈전시, 장승전시, 탈춤워크샵, 특산물전시회, 하회별신굿탈놀이, 선유출발놀이 등이 이루어진다. 의례프로그램으로는 제례참여, 전통혼례, 전통상례가 있고, 민속프로그램으로는 세시풍속, 마을장인체험, 장승 솟대만들기, 전통생활재현 등이 있다. 이밖에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전통고택 체험, 내림음식문화전승, 친수공간을 이용한 문화행사, 유교문화길 체험, 탈인형극 등이 있다.

하회마을은 마을 경관자체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마을 내의 무형적인 전통민속의례와 놀이, 창작행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2) 양동마을.

• 입지 : 양동마을은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해 있다. 경주 북쪽의 설창산과 성주봉에 둘러싸인 곳으로, 지형적으로 주변지역과 차단되어 있다. 설창산은 마을의 서북쪽, 성주봉은 마을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두 산

사이로 양동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두 산은 능선을 이루어 서쪽에서 절벽을 형성하는데, 절벽 아래로는 안락천이 흐르고 있다. 마을 서쪽 안락천 너머에 펼쳐진 넓은 안강들은 양동마을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 왔다. 마을이 위치하는 능선과 골짜기들은 한자의 ‘勿(勿)’자와 닮았다 하여 양동마을을 ‘勿’자형 풍수형국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勿’이라는 글자에는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기운이 흐르는 통로라고 여겨졌던 산줄기를 지키기 위해 마을의 집들은 모두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0. 경주 양동마을 전경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분중의 씨족마을이다. 두 성씨는 양동마을 입향 직후부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물을 다수 배출하여 영남지방의 대표적 양반 문종이 되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유학자들이 수양하며 학문에 몰두하고 휴식을 즐길 만한 경승지를 주변에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 서쪽으로 8km 가량 떨어진 옥산리에 있는 계곡은 경치가 매우 수려하여 정사와 서원이 자리잡고 있다.

• 마을 구성 : 양동마을의 생활영역은 ‘勿’자 모양을 이루는 여러 개의 능선과 그 사이에 있는 안골, 갈곡, 물봉골, 거림, 장터골 등의 골짜기들로 이루어진다. 집들은 거의 모두 5-7부 능선에 걸쳐 자리잡고 있으며, 골짜기는 주민들이 마을 내의 각 영역을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들 작은 영역들을 몇 개 씩 묶어서 양동마을 전체를 아랫말과 웃말, 혹은 양동천을 기준으로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아랫말은 이씨 종가인 무침당, 웃말은 손씨 종가인 서백당이 중심이 되며, 북촌은 생활영역의 중심이며, 남촌은 정자와 서당 등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의식영역이라 할 수 있다. 마을길은 능선 사이 골짜기를 따라 나뉘어 나뭇가지처럼 형성되어 있고 이 길에 면하여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넓게 분산되어 있지만 골짜기별로 영역을 형성하여 집들이 집중되어 있다.²⁾

• 활용 내용 : 양동마을은 마을 자체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 제412호인 향단을 비롯하여 국보 3점, 보물 3점, 사적 1점, 중요민속문화재 13점이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수 점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는 양동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관람객이 이 마을을 찾아오고 있다. 양동마을의 년 간 방문객 수는 약 15만명(2006년) 정도이다.

활용 내용은 마을자체를 관람하는 일반 방문객,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숙박객 등으로 구별된다. 일반 방문객들을 위하여 하촌코스, 물봉골 코스 등 여러 개의 마을 탐방코스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유교문화교실, 전통체험, 전통한옥민박 등이 있다. 유교문화체험으로는 혼례, 제례와 같은 생활에절체험이 있고, 전통체험으로는 전

2) 한국의 역사마을 회회와 양동 새개유신 등재 신청서에서 요약

통음식만들기, 연꽃차 시음, 농사체험, 물고기잡기, 승마, 한지공예, 서당체험 등이다. 또한 마을 내 한옥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단체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동마을은 마을 경관자체 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무형적인 전통 민속의례와 놀이, 행사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3) 외암마을

• 입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 위치해 있는 외암마을은 배면에 표고 441m의 설화산을 주산으로 그 서남방향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이 속한 송악면은 아산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령의 기운 때문에 아산시 내에서 가장 깊은 산간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 면적은 52.06 km²로서 외암리를 비롯해 전부 13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면의 동쪽은 광덕산을 분수령으로 천원군 광덕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해발 535m의 봉수산을 사이에 두고 공주군 유구면과 이어지며, 서쪽과 북쪽 모두 구룡성 산지에 의하여 예산군 대술면, 아산시 도고면, 아산시 읍내와 경계를 형성한다.



그림 11. 외암마을 전경(항공사진)

이 마을의 행정구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松岳面) 외암리(外岩里) 1구이고 속칭 '외암골'이라 한다. 아산 시내에서 유구를 거쳐 공주로 가는 국도 39번선을 따라 8km 정도 가면 송악면 소재지를 지나는 위치에서 동측으로 약 0.5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이 외암리민속마을이며 설화산(雪華山) 동남언덕(東南麓)의 산록 경사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외암'이라는 마을 명칭은 외암리의 서쪽에 있는 역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역말에는 조선초기부터 이미 시흥역이 있었고, 외암마을은 이 시흥역의 말을 거두어 먹이던 곳이라서, '오양골'로 불렸는데, 이 '오야'에서 '외암'이라는 마을명이 유래한 것이다.

• 마을 구성 : 외암리 주민의 대부분이 예안 이씨로 구성된 집성촌이다. 앞쪽에 넓은 농경지를 두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막아주는 사이의 구룡지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입구의 물(다리)를 건너면서 약한 구룡지에 집들이 길을 따라 독특하게 배치되어 있다. 마을 가운데로 안길이 있고 이 안길은 올라가면서 좌우로 샅길을 뺄치고 있다. 마을의 전체적인 모양은 동서로 긴 타원형이다. 마을 앞은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둥고서저 형상이다. 이러한 지형조건에 맞추어 집이 앉은 방향은 거의 서남향을 하고 있으며 간혹 남향으로 자리를 잡은 주택도 있다. 외암마을 내 가구 수는 71가구이다. 마을 내에는 이밖에 정자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건립되어 있어 실제로 건물 수는 가구 수에 비해 많다.

설화산 계곡에서 흘러 내려온 개천의 물은 마을 옆을 지나 하류로 흘러간다. 개천 중간에서 인공수로를 만들어 마을 안을 통과하도록 만들었다. 이 인공수로는 마을을 통과하면서 생활용수로 쓰이기도 하고 마당을 지나면서 곡수와 연못을 만들어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주기도 한다. 마을 안을 흐르는 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는 방화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공수로를 풍수에서 '염승'이라고 한다. 마을 주산인 설화산의 발음이 '화산'과 같다. 그래서 '수'를 끌어들이 '화기'를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안 이씨가 처음 들어와 살게 된 위치는 건재고택(영암군수택) 위치로 추정하고 있다. 건재고택은 마을의 중심을 지나가는 안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이로 미루어 볼 때 건재고택을 기점으로 일가들이 전후좌우로 확산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예안 이씨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자 주택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집을 지을 때는 남측으로는 개천을 넘지 않고, 반대쪽 북측으로는 안길에서 개천 사이만큼을 확보하여 그 범위 내에 집을 건립하였다.

• 활용 내용 : 외암마을은 마을 자체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33호)과 참관택(중요민속문화재 제195호)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가 외암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관람객이 이 마을을 찾아오고 있다. 외암마을의 년 간 방문객 수는 약 40만명(2010년) 정도이다.



그림 12. 아산 외암마을 정원대보름제 모습

마을자체를 관람하는 일반 방문객,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숙박객 등이 마을을 조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10월에 마을 축제인 짚풀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외부 방문객들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축제는 각종 전통 민속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 초가지붕 이엉잇기, 민속놀이, 문화행사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제로 정원대보름에 마을 동제와 장승제를 거행한다. 이밖에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체험, 농장체험, 전통민속체험, 문화체험 등이 있다. 농촌체험으로는 농촌음식체험(음식 만들기, 엿 만들기, 김치만들기, 메주쓰기 등)이 있고, 농장체험은 감자 캐기, 고구마캐기, 옥수수따기, 모내기 등이 있다. 민속놀이체험으로 널뛰기, 팽이치기, 굴렁쇠굴리기, 투호 던지기 등이 있으며 문화체험으로는 한지공예, 염색, 연만들기, 팽이만들기 등이 있다. 이밖에 전통혼례식, 상여놀이등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 내 한옥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단체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암마을은 마을 경관자체 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무형적인 전통민속의례와 놀이, 행사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4) 왕곡마을

• 입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에 위치한 왕곡마을은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태백준령의 중심인 금강과 설악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근대 이전 관동지방의 험준한 산악은 접촉을 막는 장애요소로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는 험로(險路)에 해당하였던 곳이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서쪽으로는 구성 2리, 남쪽으로는 인정 2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공현진리가 인접되어 있다. 해발 200m 이상인 5개의 야산(오음산, 진방산, 제공산, 호근산, 골무산)과 송지호에 의해 외부와 차단된 분지형 마을이다.

왕곡마을의 풍수국면을 보면 진부령에서 오음산으로 흐르는 산줄기가 곧 왕곡마을의 내룡, 즉 지기가 흐르는 내맥이 되며, 오음산은 왕곡 마을의 주산이 된다. 오음산으로 흐르는 산맥은 다시 송지호 남단에서 한 줄기가 갈려 동쪽으로 뻗었고, 오음산 북쪽으로 더 뻗어서 간성 고을터의 안산인 남산이 된다. 오음산에 이

른 산줄기는 동쪽으로 굽어들면서, 그 끝은 동남 쪽 방향으로 감아드는 형국에 가깝다.

•마을 구성 : 이 마을은 금성 함씨와 왕곡 최 씨로 구성된 혼성 마을이다. 이 두 성씨는 길 아래쪽에는 최씨, 위에는 함씨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마을 내에서도 거주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마을 중심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개천이 있고 이 개천을 따라 좌우로 살림집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3. 골무산에서 바라 본 왕곡마을 전경

마을에는 50호의 가옥과 5채의 공공건물(마을 회관, 방앗간, 효자각 등)이 있으며, 19세기 전후 건립되어 50내지 150년 된 북방식 전통가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평야지대의 집촌과는 달리 가옥과 가옥사이에 비교적 넓은 텃밭이 있어 조밀하게 배치된 영남 지역의 마을 구성과는 다르다. 가옥의 배치를 보면 대부분 남향, 동남향을 하고 있다. 마을 내 대부분의 가옥은 전면에 울타리나 담을 두지 않고 후면에 담을 둘렀다. 안길과 바로 연결되는 앞마당은 개방하여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뒷마당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 폐쇄적이며 뒷담길에서 내려다보더라도 지붕만 보여 공간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뒷마당은 반드시 부엌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을에 인접한 주변에는 농경지가 크지 않고, 마을을 벗어난 송지호 사이에 위치한, 소위 갯가지 지역의 갯들과 오호리의 댐들이 중요한 농업생산지이다. 특히 인근에 위치해 있는 석호인 송지호는 마을 주민들이 재첩을 채취하여 생계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활용 내용 : 왕곡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제235)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활용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마을 경관을 관람하는 일반 방문객,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머무는 숙박객이다. 특히 하절기 인근 해수욕장과 인접되어 있어 이곳을 숙박장소로 활용하는 빈도가 크다. 마을경관 활용 외에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가을철에는 체험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험축제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생활체험, 민속놀이, 왕곡장터, 생태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프로그램은 전통민요, 판소리 등 전통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프로그램은 한국화 전시, 짚풀공예전시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정통전 만들기, 왕곡주만들기, 한과만들기 등을 이용하여 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왕곡마을의 무형문화를 이용하여 마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5) 전주 한옥지구

•입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전주는 지리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중앙부를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어 있는 노령산맥의 지류인 기린봉, 고덕산, 남고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칠봉 등이 시가지의 동쪽, 서쪽, 남쪽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가지의

중심부에는 전주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한옥마을은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구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은 동쪽이 약간 높고 서쪽이 낮은 단형을 이루고 전주와 남원을 이어주는 기린로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멀리 화산공원이 보인다. 남쪽으로는 전주천이 경계를 이루면서 멀리 동고산과 완산칠봉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관동로가 경계를 이루면서 멀리 기린봉이 보인다. 지형은 동고서저를 이루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탄한 편이다. 한옥마을은 결국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형적으로는 분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전주 한옥마을 거리 전경

• 마을 구성 :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전주에 들어오게 된 일본인들이 1930년대부터 집단으로 전주에 주거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은 서문 밖, 지금의 다가동 근처의 전주천변이었다.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1930년대에 형성된 교동, 풍남동의 한옥군은 일본식과 대조되고 화산동의 양풍(洋風) 선교사촌과 학교, 교회당 등과 어울려 묘한 도시색을 연출하게 되었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바로 교동 풍남동의 한옥마을인 것이다.

전주 한옥지구 및 그 주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전북도 지정 문화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제308호 풍남문을 비롯하여 경기전(사적 제339호), 전주향교(사적 제379호)가 있고 전북도 지정 문화재로는 오목대와 이목대, 학인당, 환벽당 등이 있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주택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 및 문화시설과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이 많이 있다. 강암서예관을 비롯하여 동학혁명기념관,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 민속장터 등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 활용 내용 : 전주 한옥마을의 활용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마을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경관을 지니고 있어 지속가능한 마을로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경관 자체가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한옥지구 내에는 각종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현존하고 있어 지역의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박물관과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져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으며, 공연장에는 주말과 축제 때 각종 공연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방문객이 한옥지구와 공연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접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전주 한옥지구를 찾아오는 외래방문객들에게 한옥지구와 더불어 문화재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옥지구 내에는 한옥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있어 숙박객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시설의 활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주한옥마을 주요 문화시설

	주요문화시설	지구	건축년도	기능
기존시설	강암서예관	전통문화지구	1995	- 추사 김정희 등 서예 작품 전시
	동학혁명기념관	전통문화지구	1995	- 동학혁명 당시의 사료 등을 전시
공공문화시설(신설)	전통문화센터	-	2002	- 전통문화 교육, 혼례 체험 및 예술 공연
	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지구	2002	- 전통한옥의 특성과 양반생활사체험
	전통술 박물관	전통문화지구	2002	- 전통음주 예법 재현과 교육, 주조 사료 집적전시 및 주조문화체험
	공예품 전시관	태조로지구	2002	- 전통공예의 보존 육성 - 전통문화상품 생산·판매
	전주명품관	태조로지구	2002	- 문화도시 전주의 전통문화상품전시· 판매
	민속장터	태조로지구	2002	- 풍문시장 등의 공간 및 이벤트 장소
	테마한옥민박	전통문화지구	2004	- 황손문화 및 전통차 체험
	한옥마을 문화마당	태조로지구	2005	- 전통문화 이벤트 장소
	관광안내소	전통문화지구	2005	- 관광안내 및 홍보
	공예공방촌	전통문화지구	2005	- 옷칠 및 한지 공예 체험 및 상품 판매
	최명희문학관	전통문화지구	2005	- 혼불문학제, 최명희 소설교실
민간문화시설	양사재(수선)	전통문화지구	1560	- 한옥민박 및 문화행사 공간 제공 야생차 및 관련 전통음식 체험
	동락원(수선)	전통한옥지구	1942	- 전통음악 및 다례 체험
	한방문화센터	전통한옥지구	2004	- 사상제질 진단, 한방차 판매
	목우헌	태조로지구	2002	- 목공예품 제작 및 판매
	우동전통공예	전통한옥지구	2002	- 전통 도자기 제작 및 판매
	김해미자 한지공예연구소	전통한옥지구	2005	- 한지공예품 제작 및 판매
	미선공예사	전통문화지구	2002	- 전통 공예품 제작 및 판매

2) 국외

(1) 일본 시라카와촌(白川村)

• 입지 : 기후현(岐阜縣)과 도야마현(富山縣) 경계에 위치한 시라가와(白川)마을은 해발 500미터 되는 높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눈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지와는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해 오던 지역이다. 호쿠리쿠(北陸)지방의 험산 사이를 흐르는 쇼가와(庄川)강 옆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로 이 마을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의 두툼한 초가집 이른바 갓쇼즈쿠리(合掌造)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주변에는 높은 산이 둘러져 있고, 인접된 가까운 곳에 강이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농토가 부족하고,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농사는 주로 밭농사를 하며, 집집마다 양잠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행히도 이 마을은 산악에 위치해 있지만 마을 주위로 비교적 농지가 넓게 있어 논농사를 짓고 있지만 대부분 이 지역의 마을은 농토가 부족하고 따라서 생활환경이 척박하다.

• 마을 구성 : 마을은 안길을 중심으로 좌우에 주택이 펼쳐져 있다. 중심부에는 신사(神社)와 마을회관, 광장을 중심으로 갓쇼우츠클리(合掌造) 주택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주택과 주택 사이는 길과 경작지로 이루어지고 좁은 물길이 마을 사이를 흐르고 있다.

마을 내 건물 수는 모두 45여동이 있으며 이 중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갓쇼우츠클리(合掌造)는 113동이며, 일반 건물이 329동이다. 이밖에 시설물로 도리이(鳥居), 도로우(燈籠, 나무, 돌, 금속 등으로 만든 테두리 속에 불을 밝힌 등), 돌담 등이 있다.

갓쇼우츠클리 주택의 형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두개의 재목을 'A'자 모양으로 맞대어 지붕각도를 60도로 만들어 지었는데 눈이 많은 그 지역이라 지붕에 쌓인 눈을 쉽게 흘려내린다. 지붕 재료는 산에서 채취한 억새풀을 이용하고 있다. 이 초가집은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1976년 일본 문화청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고, 1995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15. 나가노 시라가와(白川)마을 전경

표 3. 시라카와촌의 대표적인 이벤트

내 용	개최시기
하루고마(春駒 탈을 쓰고 노래하고 춤추며 집집마다 다니는 행사)	정월
합장가옥 야간 조명	2월 하순
눈축제	3월 중순~4월 중순
곰사냥축제	4월 상순
합장가옥 지붕 교체	4월 상순
벚꽃 축제	4월 하순~5월 상순
미즈바쇼우(토란과에 속하는 다년초 야생화) 개화축제	4월 하순~5월 상순
신록(新緑) 축제	5월 중순~6월 하순
모심기축제	5월 하순
하쿠산 슈퍼 임도 개방	6월 상순
아영장 개장	7월 20~8월 31일
봉오도리(음력 7월 15일 남녀가 모여서 춤추는 윤무제)	8월 14일~17일
도부로쿠(일본 전통 막걸리) 축제	9월 25·26일/10월 10일, 14일~19일
단풍축제	10월 하순~11월 상순
일제방수(방수훈련)	10월 하순
보은강(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법회)	12월~3월 하순

• 활용 내용 :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주변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전통마을의 브랜드 이미지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마을 고유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 관광마을'로 성장한 대표적인 마을이다. 마을이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2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던 인근의 가옥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 합장촌을 조성했다.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전통문화만 보여주지 않고 전통적 생활문화와 민속 문화를 재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하여 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에서 주최하는 사진 콘테스트, 지붕이영 잇기 봉사자 참여, 축제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계절마다 독특한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마을 방문객을 끌어들여 마을을 홍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다른 마을에 비해 소득이 올라가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2) 일본 츠마고쓰쿠(妻籠宿) 마을

• 입지 : 일본 나가노 지방의 중산도에 있는 전통 민속마을로 해발 600미터 산중에 위치해 있다. 에도(江戸)시대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었는데 산을 넘어가는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해 있어 전통적인 주막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를 도로가 나있다.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계곡 중에서 약간 평지가 있는 곳이며, 마을 주위로 높은 산과 숲이 우거져 있다. 지금은 자동차도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말이 다니는 도로였다. 높은 산과 계곡으로 인해 농토가 부족하고 따라서 생활환경이 척박하여 주로 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상인, 행인들이 묶고 가는 역참마을로 발전하였다. 산기슭을 이용하여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한쪽은 산을 등지고, 다른 한쪽은 계곡을 뒤에 두고 있는 입지조건이다.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역사적인 민속마을로 일본정부에서는 '중요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해 두고 있다.

• 마을 구성 : 이 마을은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어 집들은 계곡 사이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길게 구성되어 있다. 약 80여 가구가 길 양쪽으로 나란히 길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마을 중심부에는 광덕사(光徳寺)라는 절을 비롯하여 학교, 마을회관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중심부를 벗어난 이곳저곳에 마을 공공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공동시설로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소, 우체국, 역사자료관, 공중화장실 등이 있다.

마을내 건물은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되어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모든 집은 길을 향해 열려져 있는 모습이다. 길 안쪽에는 소로가 만들어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수로를 통해 한 곳에 모여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활용 내용 :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년 간 800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잠시 머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산촌경관과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숙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을의 가옥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부분 가게를 운영하거나 민박을 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일부 공가(公家)가 있지만 이러한 공가는 대부분 그대로 관리하면서 전통주택의 모습으로 전시 활용하고 있다.

마을 내 공가 중에는 일부를 마을 홍보전시관, 민예전시관, 역사자료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여관, 주점, 제과점 등 각종 가게로 활용하고 있다.

(3) 일본 고베 이인관(異人館)

• 입지 : 고베 북부 산이 있는 곳에 서양인들이 항구를 출입하면서 그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했다. 다른 곳에 비해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한 곳을 택해 집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전망이 탁 트여 있다. 전면으로는 고베 시내와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후면으로는 급한 경사로 이루어진 구릉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경사지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 도로가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이러한 도로를 따라 오래된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입지하게 되었다.



그림 16. 일본 고베 이인관(異人館) 전경

• 마을 구성 : 서구인들은 외항이 형성된 고베를 100여년 전부터 출입하였다. 그들은 살 집이 필요했고, 영국인, 독일인,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흰 피부에 파란 눈을 지닌 그들이 일본인에게는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을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인관, 異人館)이라 불렀다. 이인관이 들어설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생소한 근대양식의 건물이 많았으나 차츰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점차 없어지기도 하고, 빈 집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소유가 되어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고베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34동의 서양식 건축물과 7동의 화풍건축물이 남아 있어 이 지역은 '중요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 활용 내용 : 고베 이인관은 주로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상업건물로 활용하고 있다. 근대 초기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숙박객을 위한 소규모 호텔, 기념품 상점, 식당, 주점, 찻집, 옷가게 등 다양하게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의 건축경관과는 구별되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다. 이러한 관광객을 위하여 건물단위의 관람 코스를 만들어 이 지역을 활용하고 있다. 주민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무료입장권, 3개관 입장권, 9개관 입장권, 개별 입장권 등의 다양한 관람권 판매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4) 체코 홀로세비치 역사마을 :

• 입지 : 프라하(Prague)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져있는 이 지역은 높은 산이 없는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평야지대이다. 홀로세비치 마을은 주변에 숲과 높이 있는 넓은 평원에 위치해 있다. 가까운 주변에 구릉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나지막한 구릉과 둔덕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이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292년이며, 1848년까지는 시토 수도회 소유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로 볼 때 이 마을은 13세기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의 주택은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18세기의 주택이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 마을도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으나 수년간에 걸쳐 복구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마을 구성 : 이 마을은 중심부에 연못과 광장을 두고 주변에 주택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연못과 주택사이로 마을길이 나 있어 마을 중심은 연못과 길로 인해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있다. 마을 주택은 박공부분이 정면이며, 지붕 경사면이 측면이 된다. 마을 주택은 모두 중심부의 연못을 향해 배치되어 자연히 박공면이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즉 연못과 광장을 향하여 마을 집들이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14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17. 체코 홀로세비치 역사마을 전경

주택의 모습은 18~19세기 체코 남부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양식은 전형적인 남부 보헤미안 바로크양식이다. 바로크식 농촌주택의 특징은 대부분 맞배지붕이고 박공지붕을 정면으로 하면서 창호 주변이나 벽면에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벽체의 색깔은 명도가 밝은 회색, 연한 베이지색, 고동색으로 칠하고 건물 가장자리는 굵은 선으로 외곽을 그어두었다. 지붕은 붉은 오지기와를 사용하였다. 박공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삼각형 박공, 반원형과 곡면으로 이루어진 박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박공 없이 우진각지붕으로 만든 것도 있다. 마을 내에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중심부에는 공공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시설물로는 교회당, 마을회관, 마을 전시관(홍보관 및 안내소 기능을 함), 식당, 민속자료 전시관 등이 있다. 마을 주변에 또 다른 연못이 있어 이 연못을 이용하여 오리 등 가축을 기르기도 한다. 1945년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인들이 거주했으나 19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후 체코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활용 내용 : 이 마을의 주요 활용 내용은 주민 거주생활과 관광객 방문이다. 주민들의 욕구는 예전과 같이 조용한 농촌생활이지만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활용내용이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마을의 주요 수입원은 농업 및 가내 축산업이었으나, 그 후 점차 인근 도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수입이 늘어난 상태이나 그 수입은 그리 많지 않다. 주로 관광기념품, 식당, 관람료 등이 가장 큰 수입원이 되었다. 현재 이 마을에는 1가구만 농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도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의 주택 중에는 일부 공가를 이용하여 마을 내 전통 민속도구, 전통 목수도구를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일부 주택은 방문객을 위한 민박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마을회관은 관광안내, 주민모임, 마을 안내를 위한 건축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12월 말에 축제를 열어 마을의 단합과 공동체를 결속하고 있다.

(5) 헝가리 홀로피 역사마을

• 입지 : 헝가리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홀로피마을은 체프하트산에 있는 작은 마을로서 전통적인 팔로즈양식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 험악하지 않은 구릉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주변 경

관과 숲으로 이루어진 지형조건을 배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전면으로는 구릉과 계곡이 있고, 마을 후면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구릉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에서 떨어진 후면 체프하트산 정상에는 13세기에 건립한 홀로코성이 남아 있다. 이 성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많이 훼손되었으나 1996년 수리를 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마을은 약한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는데 마을 입구인 남쪽이 약간 높고 마을 후면인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진다. 동쪽으로



그림 18. 헝가리 홀로코 역사마을 전경

로 나지막하고 넓은 구릉과 길게 폭 끼진 계곡이 있고, 서쪽으로 높은 구릉이 형성되면서 마을의 배산을 만들어 주고 있다. 홀로코 성은 마을의 서북 높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 마을 구성 : 홀로코 마을에는 약 120여 채의 가옥이 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길게 구성되어 있다. 일찍이 터키계 쿠만인의 후손 팔로츠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19세기 중유럽 농민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통 민속마을이다. 마을 주택은 토대 위에 진흙과 짚을 섞어 만든 벽으로 방을 꾸미고, 기둥을 세워 발코니처럼 생긴 회랑을 길쪽으로 돌출시켜 놓았다. 길에서 보면 각 주택의 발코니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다. 마을 중심부에는 14세기에 만든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 주택은 처음에는 목조에 짚으로 지붕을 올린 구조였으나 화재가 나면 거의 모든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화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그때마다 큰 화재로 번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09년에도 화재로 마을의 거의 모든 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자 그 이후부터는 석재로 지반과 벽 하부를 만들고 벽은 흙과 벽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지붕은 목재 트러스 위에 짚 대신 기와를 올려 화재에 대비하는 구조로 바꾸게 되었다. 1964년에는 헝가리 정부에서 마을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마을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1960년대로 주민이 약 800여명 정도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인근의 광산이 운영되어 마을 남자들은 대부분 광부로 일을 했고, 여자들은 가정을 지키는 생활방식이었다. 광산이 폐쇄되고 1990년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 마을인구는 400여 명이 남아 있다. 주민의 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이 마을은 198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마을 후면 산에는 홀로코성이 있다. 13~14세기의 고딕양식으로 만들었으나 지속적으로 증축하여 규모를 키웠다. 몽고군 침입이후의 13세기 중엽에 5각형의 성탑을 건축하였고 15세기 터키군의 침입이 있을 때는 성벽과 성채를 더 높이 쌓았다. 1683년에는 소비에스키 야노쉬 폴란드 왕의 소유가 되었으며 라코치 자유전쟁 이후 급격하게 훼손되었다. 1996년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 활용 내용 : 이 마을은 3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주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다. 동절기 동안은 주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방문객이 많은 계절에는 민박, 상점,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1년에 약 8만명 정도이며, 이 중 약 40%가 외국인이다. 마을에는 중심부에 성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해 신도는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에는 약 25가구가 주민이 살지 않는 공가이다. 이 공가중 일부는 비어두고 있으며, 일부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주말

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택은 마을의 전통 민예품 전시장으로 꾸며 활용하고 있다. 마을 내 약 25가구는 외부 방문객을 위한 민박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0년부터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의 주택을 구입하여 젊은 사람에게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을 주민 중 남자들은 인근 도시에 직업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며, 여자들은 전시장 운영, 민박운영, 가게운영 등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적인 경관과 풍속을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나 주민의 약 70%가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 마을은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매일 10:00~17:00 까지 관광객을 안내하며, 동절기에는 미리 예약한 방문객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마을 내 전형적인 농가 1가구를 활용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20세기 초 홀로피 마을의 주민이 사용했던 가구와 가재도구, 옷감, 장신구 등을 전시해 두고 있다. 마을 내 민예의 집은 1910 년도에 세워진 전통가옥이다. 이곳에는 헝가리 전통 민속의상과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6) 영국 에딘버러

• 입지 : 스코틀랜드 행정·문화의 중심지이며,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이다. 런던 북쪽 629km, 글래스고 동쪽 70km, 북해의 포스만(灣) 남안(南岸)에 있다. 해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하여 겨울에도 월평균기온이 4℃이고 여름은 14℃이다. '근대의 아테네'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림 19. 에딘버러 밀리터리 태투

• 도시 구성 : 시의 중앙부에 동서로 뻗어 있는 '프린세스 스트리트'의 경관은 다른 어떤 곳보다 아름답다. 스코틀랜드의 문인 월터 스콧의 기념상, 왕립 아카데미, 프린세스 스트리트 정원 등이 이어져 있고, 골짜기 너머에는 에든버러성(城)이 있다. 1437년에 수도가 퍼스로부터 옮겨올 당시 시는 이 스트리트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북쪽에서 해안까지의 부분은 18세기 중기 이후 형성된 새 시가지이다. 새 시가지는 주택지 및 상업지구이며 해안에는 외항(外港)인 리드가 있다. 옛 시내에는 바위가 많은 기복지이며 그 역사적 중심은 해발고도 약 140m의 언덕 위에 있는 에든버러성이다.

• 활용 내용 : 18세기에 축조된 고성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환상적 분위기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전통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성(古城)을 배경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축제는 매우 유명하여 이 때문에 방문객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축제는 195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0만 이상이 찾아오고 있으며, 2003년까지 누계로 약 1천1백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그 방문객의 70%가 관광객이며, 5백만 파운드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7천 2백만 파운드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7) 영국 바스(Bath)

• 입지 : 영국 잉글랜드의 에이번 주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 베스(Bath)는 로마시대부터 온천 목욕탕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도시 이름에서 목욕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bath'가 나왔을 정도다.

• 도시 구성 : 바스시에서는 18세기 들어와 발굴된 2000년 전 로마시대의 기념비적인 유적뿐 아니라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우아하고 독특한 건물들을 맘껏 감상할 수 있다. 무려 4,000여 개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어 바스시 전체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로마인들은 1세기 초 브리튼 섬을 정복한 직후 이곳의 수질을 알아보고 공중목욕탕과 미네르바 신전을 지었고, 이때부터 온천 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대 기술로 봐도 놀라운 로마 욕탕(Roman Bath)에는 온탕과 냉탕은 물론 운동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로마인들이 떠난 뒤에도 바스는 종교적인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온천 휴양지로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흙 속에 묻혀버린 로마시대의 화려했던 목욕탕과 유적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땅속에 깊이 묻혀 있던 로마 시대 유적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에 와서이며, 이 무렵부터 바스는 다시 영국 상류계급들이 즐겨 찾는 영국의 대표적인 온천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림 20. 로마 바스(Roman Bath) 유적

• 활용 내용 : 영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바스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로마시대의 목욕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적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1680년부터 운영된 빵집 Sally Lunn's에는 옛날부엌, 빵 굽는 오븐 등을 옛날모습으로 재현하여 작은 박물관처럼 운영하기도 하고, 홍차와 bun이라는 빵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Royal Crescent라는 건물은 1700년대 존우드라는 사람이 디자인 한 대표 건축물이며, 이 건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 바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또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스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도시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도시 경제 활성화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7. 맺음말

개성한옥지구는 우리의 역사와 민족 정서를 잘 표현해 주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에 두고 현대적 삶을 담고 있는 민족문화자산이기도 하다. 개성은 고려시대의 역사

를 담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문화유산은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한옥지구는 개성역사지구의 완충지역에 포함되었다. 개성한옥지구와 개성역사지구는 상호 보완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개성한옥지구의 원형 경관이 잘 보존해야 개성역사지구 역시 세계유산적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성한옥지구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성역사지구에 버금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개성한옥지구는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 분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성한옥지구 역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그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개성한옥지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관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현대적인 재료가 사용되었고, 구조와 양식에서도 옛 모습을 상실한 부분이 보이고 있다. 특히 활용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성한옥지구는 현실적으로 외부에 개방되지 않은 특별한 지역이다. 북한 사회주의 통치권역에 속해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현황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치상황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한옥지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당국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남북이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비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치적인 방면에서 남북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한적으로라도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 전통민속음식 및 놀이체험, 각종 민속의례를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개성한옥을 이용한 장기, 단기 체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자원 활용을 통하여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성한옥지구의 활용은 북측의 인식변화에 따른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남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접촉이 필요하다. 남북의 비정치적인 협력관계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통마을의 보존정비 및 활용 사례로 살펴본 개성한옥지구의 정비방향 설정

김 우 웅

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소장, 명지대 산업대학원 객원교수

1. 서론

개성은 선사시대 이래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개성한옥지구는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개성한옥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한옥이 모여 있는 북안동, 자남동, 만월동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기와집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고려 도경은 북서편에 치우친 황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남쪽의 남대가를 따라 시전행랑이 늘어서고 그 주변으로 주로 고관대작과 부유층이 거주하면서 한옥들을 많이 자리하였다. 이 한옥들이 현재의 개성한옥의 시작이다. 개성한옥지구의 큰 특징은 군집성이다. 한옥이 밀집된 이 일대는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한옥들은 상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배치와 평면형태를 갖는 기능성 한옥으로 가내수공업과 상업, 약국 등의 기능을 간직한 한옥들이 현재에도 잔존하고 있는 개성만의 독특한 성격을 갖기도 한다. 또한 황해도를 비롯한 한반도 서북지방에서 유행하였던 돌너와(청석)집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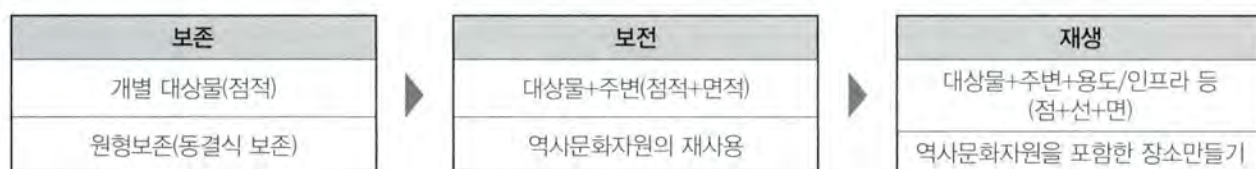
이러한 오랜 역사와 함께 독특한 성격을 갖는 개성한옥은 최근 개성공단의 확장으로 인한 개성 시가지의 난개발로 개성한옥지구의 주변환경이 파괴되면서 변화하고 있어 개성한옥지구의 문화유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성한옥지구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옥마을의 보존·정비·활용 사례연구를 통하여 향후 개성한옥 보존사업 추진 시 효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정비 사례

1) 역사문화자원 보존의 세계적 흐름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이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의 보호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가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 관리방법이 있다. 첫째, 원형보존과 함께 가꾸어가는 역사문화도시 관리이다. 원

형의 보존, 부분적 보존, 재사용, 잠재적 문화재의 고려 등 역사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시도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을 통합하여 도시의 장소성을 가꾸는 접근 방법이다. 둘째, 대상물 관리에서 도시구조와 면의 관리이다. 대상물의 공간구성원리를 고려하여 지형, 수계, 조망 등을 고려한 역사문화자원 관리하고, 개별 건축물의 점적인 보존을 넘어 주변에 대한 관리 등 면적 도시관리 접근 방법이다. 셋째는 바라보는 보존에서 생활하고 도시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존이다. 일상생활 환경과 밀접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및 지역활성화와 연계하여 역사적 사건 및 시기 등 테마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2) 문화재(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개념

문화재의 개념과 범주가 확대되고 문화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는 등 국내외의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 여가문화의 증대, 시민사회의 성장,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 보존을 바탕으로 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넘어선 창조적 문화생산의 기반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활용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활용 대상에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림 1. 문화유산 활용의 유형과 범주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 2007.12, 31쪽)

3) 국내 전통마을 사례

(1) 북촌 한옥마을¹⁾

① 역사 및 의의

북촌은 서울 6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된 도심 주거지이다. 북촌에는 아직도 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장소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900채 이상의 한옥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골목길 등 도시공간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930년대를 전후해서 조성된 북촌의 한옥은 1980년대 초 보존을 위한 규제강화 시기와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수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한옥이 헐린 자리에는 현대식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북촌의 경관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 급격하게 훼손되어 가는 북촌 한옥마을의 현실적인 위기감과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면서 북촌에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한옥을 잘 지키고 살리는 것이 한옥의 가치는 물론 북촌의 품격과 경제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정부와 주민들의 상호협력 하에 대대적인 북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그림 2. 북촌과 서촌의 입지현황

② 북촌의 정책 변화

서울시는 2000년 초 북촌에 대한 정책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서울시 유관부서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하여 수립된 2000년 10월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0년여 동안 다음과 같은 북촌 보전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1) 김우용,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재생」, 『목조건축연구포럼』 2013. 10. 18. 78쪽 참조.

-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 2002년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제정
- 2006년 북촌 장기발전 구상
- 2007년 역사문화미관지구 확대
- 2009년 서울시 '한옥선언',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개정
- 2010년 2010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③ 정비 및 활용

○북촌 사업현황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북촌마을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골목길 정비, 공공주차장, 쌈지공원, 공동정화조 조성 등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한옥의 보전 및 육성 방안으로 세금감면 및 보조금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록한옥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건축기준 완화(주차장 기준, 도로제한, 건폐율 등) 및 세제감면 추진(재산세 등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 참여 유도 및 지원으로 통해 한옥 및 비한옥을 매입하여 보수 후 공공·문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한옥 등록제,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한옥등록제는 북촌에 소재한 한옥을 소유한 자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에 찬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는 한옥을 등록할 경우 한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한옥가꾸기에 일조하고자 한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골목길 환경 개선

북촌을 살기 좋고 정취 있는 도심주거지로 가꾸기 위해 대표적 한옥밀집지역 내 골목길부터 단계적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골목길의 바닥포장 및 전신주 지중화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한옥의 매입과 활용

서울시는 북촌의 한옥 또는 비한옥을 전략적으로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2011년 5년간 서울시 연도별 한옥 등록 및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한옥 등록 및 매입 현황(서울시, 2011.12 기준)

연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옥등록(동)	116	15	7	18	42	34
한옥매입(동)	6	3	—	1	—	2
매입비용비(백만원)	18,600	774	—	14,066	—	3,760



가회민화박물관



북촌초고공방



심화숙한지공방



우리빛깔공방



동림매듭공방



서울시무형문화재교육전시관



신중헌옷칠공방



홍벽헌지형공방

그림 3. 한옥을 활용한 사례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초기에 추진된 북촌 가꾸기는 한옥보전 및 가로환경정비 등 물리적 환경의 유지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역사문화 학습장소로서 북촌의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서울시는 북촌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전통문화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연대와 아름지기 등 시민단체들도 비정기적으로 북촌탐방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장인 및 박물관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프로그램들은 행정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공동체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지역주민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행정지원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체험과 마을공동체 및 민간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행정지원 중심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성이 부족하며, 마을공동체 및 민간단체 중심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성은 갖추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및 서비스 안내가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지원 프로그램과 주민자체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센터와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면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 북촌 내 문화체험 프로그램(북촌문화센터, 북촌문화투어, 도자기체험)

○주민 참여 및 공동체 지원

2001년 시작된 북촌 가꾸기는 정책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북촌 가꾸기가 진행되어온 지난 10년은 행정과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주민과 민간의 역량이 지역관리의 주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2001년 말부터 북촌지역 내에서 북촌사업을 관리하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애로사항, 지역의 분위기 변화 등을 바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주민주도의 행정지원을 실천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역 활동가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현안과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2012년 종로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을아카데미」를 통해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단체인 ‘한사모(한옥을 사랑하는 주민들 모임)’와 시민단체인 ‘도시연대’가 주최하는 북촌 문화의 날 행사가 매년 열리고, 북촌문화포럼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확산되는 등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북촌 가꾸기 참여가 더욱 늘어났다.

○공공사업 추진현황

전통적인 북촌의 독특한 분위기와 정취를 보전하면서 현대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여 북촌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이 추진되었다. 공공사업의 내용으로는 주차장·공원(공공공지) 등의 확보, 골목길 정비, 포장, 식재, 자전거도로 확충, 전신주 지중화사업, 쓰레기 수거시설 정비, 방재 관련설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서촌 한옥마을²⁾

① 서촌의 정책 변화

최근 북촌에 이어 서촌이 새로운 한옥 관광지로 관심을 끌면서 서촌지역에는 몇 년 사이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술집 등 상업시설이 2011년 60개에서 108개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2010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촌 한옥의 집단 멸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서촌에 투자했다가 보존정책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 아직 서촌 일대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한옥 개·보수에 대한 공공 지원도 미흡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3년 서촌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4층(16m) 고도제한을 통해 경관을 보전하고, 거주환경이 상업시설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업용도 허용제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옥 개·보수 지원도 현실화해 거주지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② 정비 및 활용

○서촌의 공공계획과 사업

서촌에 적용되는 공공 계획 및 사업은 국토 기본계획 아래 서울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이 있으며, 서울시

2) 김우용, 앞의 책 83쪽 참조

관리계획으로서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에 수립되었다.

서촌 지역에는 조선시대 궁과 이 지역에 거주했던 권문세족과 관련된 문화재,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근대 시기에 지어져 의미를 갖는 등록문화재가 다수 존재한다. 그 외에도 등록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건축물들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서 역사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 지역 공동체 활동

지역 내 거주민의 삶과 활동이 중요한 가치요소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무형적 자원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2010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과 연관되어 등장하게 된다. 주민공동체의 종류에는 '세종마을 가꾸기회', '마을발전연구소', '서촌주거공간연구회'등 이 있다.

'세종마을 가꾸기회'의 구성원에는 종로구 의원과 지자체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는 주민대표단이다. 활동내역으로는 정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공원조성 등을 다룬다.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의 구성원에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를 주축으로 거주민이 활동을 한다. 활동내역으로는 서촌의 쟁점사항부터 친목회까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2~3년 전부터 예술인이 운영하는 공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마을을 이루고 더불어 문화 활동을 형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쥬폼에'가 있으며, 현재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마을 기업의 형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여러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열거나, 벚꽃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그림 5. 세종마을 선포식



그림 6. 서촌 탐방 가이드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 지역 공동체의 보존 활동

서촌의 개별 공동체들은 서로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쥬폼에'는 마을프로젝트를 핵심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 중 '효자동 마을프로젝트'와 '방방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효자동프로젝트는 동네 벼룩시장을 여는 '시장해', '영화해', '등산해' 등의 행사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폼에는 이러한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이 지역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촌연구소는 주로 서촌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주민들의 기억을 모으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 일환으로 서

촌라이프라는 일상적인 소식지를 발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촌의 추억들을 전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회상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기록되고 표현되는 결과물은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외부인에게는 홍보하게 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7. 효자동프로젝트 동네 베품시장

(3) 강진 병영마을³⁾

① 강진 병영의 역사

병영은 조선시대에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1417년(태종 17) 병마절도사의 영을 이전하면서 전라병영성을 축조하였다. 이후에 동학농민운동(1894년)으로 인해 폐영이 되기까지 500여년간 전라도의 육군 총지휘부로서 조선의 수많은 환난과 역사를 간직한 강진의 유서 깊은 유적이다. 또한 병영은 하멜일행이 체류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멜일행이 병영에서 생활한 것은 1656년 3월부터 1663년 2월까지 약 7년간이며, 하멜보고서에서 이 부분의 기록은 그들이 비교적 행복했던 기간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병영에 관해서는 주로 생계에 관해서나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병사(兵使)와의 관계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또 병영지역에 남아있는 담장 중에 빗살모양으로 쌓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잡역을 하면서 그들 식(式)으로 쌓은 듯 보인다.

병영은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삼인리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39호), 성동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85호), 병영성흥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9호), 병영마을 옛 담장(등록문화재 제264호) 등의 지정문화재와 다수의 향토유적이 밀집되어 역사속의 옛 풍경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시대를 반영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병영마을의 정비 및 활용에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니며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정비 및 활용

○ 병영마을 정비방향

전라병영성의 문헌과 철저한 고증을 통한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호국성지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변 민가와 상업시설 등을 정비하여 역사문화환경의 경관보존을 모색한다.

복원시설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되, 유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3) 김우웅, 앞의 책 86쪽 참조.

○전라병영성

당시의 건물은 사라지고 없으나 성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성곽의 흔적은 뚜렷이 남아 있으므로, 역사적 중요성과 의의를 한 차원 높여 민족의 얼이 담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과 연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고귀하고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영원토록 계승·발전시키게 된다.

전라병영성은 1991년 지표조사 및 복원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성곽 및 웅성 복원, 남·동·서 문루 복원 등 활발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복문루, 여장, 건물지, 해자 등 복원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전라병영성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및 관람객 체험을 유도하며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멜기념관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알린 하멜보고서의 저자 헨드릭 하멜(Hendric Hamel)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강진과 네덜란드 호르کم 시와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위해 하멜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전시실은 『하멜보고서』를 비롯하여 하멜의 생애, 17세기 조선과 네덜란드의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그리고 강진군과 네덜란드 호르کم 시의 자매결연 등 각 주제별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1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70여 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한골목

한골목의 담장은 황토와 돌을 이용하여 빗살무늬 방식으로 쌓아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농촌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돌담이 훼손되고 점차 한골목의 원형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여, 2006년에 한골목을 등록문화재 제264호로 지정하고 그 일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곡선을 이루며 길게 펼쳐진 한골목 길은 고즈넉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므로 병영면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하멜기념관 및 전라병영성과 인접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배진강 및 병영성 홍교

병영 출신의 승록대부 유한계(1688-1794년)정승의 금의환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병영성 홍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9호)는 배진강 다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 병영성 홍교 주변 정비를 통해 주민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배진강 저수지에는 홍련을 심고 홍교주변에 배진각을 건립하여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서 활용 중이다.



그림 8. 전라병영성



그림 9. 하멜기념관



그림 10. 한골목



그림 11. 병영성흥교

(4) 전주 전통문화도시⁴⁾

① 역사 및 의의

전주는 긴 역사의 중심에서 육성되어 온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 시민의 활발한 예술 문화 활동과 높은 친절의식을 지닌 도시다. 조선시대의 전라감영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통괄하는 행정 중심지로서 사람이 모이고, 생산물자의 교역이 시작되고, 관과 시장의 가공품과 생산품의 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의 창출로 이어졌으며, 예능인들이 집중되면서 유·무형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문화가 가치는 총체적 가치에 대한 원형을 찾고 동시대의 문화생활 및 문화도시의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도시가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전통 및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적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차별성과 경쟁력 약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고유하고 특성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부와 전주시에서는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공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최고 수준의 문화 창조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양화된 문화를 발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계획은 전통문화도시로서 육성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에 기여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출발한 보편적인 세계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내포한다. 따라서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비전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고 설정하고, 이러한 도시의 컨셉과 지향목표를 '전통생활 문화도시', '전통문화창조도시', '전통문화 체험도시'로 설정한다.

② 정비 및 활용

○전주한옥마을

한옥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개·보수와 한옥의 신축 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개선하였고, 태조로를 확장·정비하여 한옥마을의 중심가로로 조성하여 각종 축제(풍납제, 소리축제, 약령

4) 김우용, 앞의 책 90쪽 참조

시 등)와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옥마을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거점에 전주명품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등의 공공문화시설과 광장, 주차장 등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유적과 시설들 간의 연계가 원활해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회유할 수 있게 되었다.

○ 걷고 싶은 거리 등 특화·특정거리의 정비

전주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연장 830m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다. 가로 정비와 함께 상점가의 북측에 주차장(198대 수용)을 정비하였으며, 2003년에는「전주시 구도심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4대문 안 상점에 대하여 신축 또는 개축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약전거리, 영화의 거리, 동문거리 등 특화·특정거리의 지정을 통한 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화·특정거리마다 사업 진행상황과 활성화 정도는 다르지만, 단순한 물리적 가로개선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도입한 문화적 가로 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통문화 도시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전주 국제영화제

2003년부터 2004년에 조성된 영화의 거리는 인접한 걷고 싶은 거리와 함께 중심시가지의 유동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 국제영화제'의 주요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산업의 유치를 통한 전주정보영상진흥원(2001년)의 설립으로 1999년에는 이 지역에 3개의 대형 영화관(스크린은 각 1개)이 있었지만 현재는 5개의 대형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화라는 문화의 소비에서 나아가 영화제작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주를 근거지로 하여 전북지역에서 촬영된 영화편수는 2001년부터 199편이며, 2006년 한해에만 62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특히, 2005년에는 전주와 전북지역에서 대한민국 영화의 50%가 촬영되었을 정도로 한국영화의 메카로 발돋움하였다.

○ 4대 문화축제

전주의 축제는 1959년 5월 단오제에서 출발한 풍납제를 근간으로 하여 전주종이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가 통합되어 4대 문화축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약령시제전, 전주한옥마을마입축제 등 한옥마을과 중심시가지의 주요 무대로 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전통적인 축제의 올바른 전승과 현대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지역 고유의 정서와 특성을 보존·발전시켜 내포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켰다.

○ 전통문화센터

2002년 8월 개관한 전통문화센터는 전통문화의 종합 체험의 장소로서 한벽극장, 전통음식, 전통혼례, 교육체험, 전통찻집 등이 운영하고 있다.

판소리, 국악, 전통무용, 탈춤, 굿 등 연중 287건(월 평균 24건)의 전통공연이 개최하고 있으며, 전주에서 유일하게 전통혼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홍보전략

전주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자체 및 전통문화도시 관련사업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별 홍보를 차별화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관광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광 상품', '고객' 및 '홍보전략'의 3요소로 구성된다.

(5) 제주 성읍마을⁵⁾

① 역사 및 의의

성읍민속마을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초가가 집단적으로 보존된 곳이다. 성읍에는 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장소 및 건물들이 남아있고, 180채 이상의 전통가옥 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 및 전경 등 마을공간의 구조가 전통적인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1980년에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등의 사업을 실행하여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보존·정비 및 개발을 하고 있다.

가옥이나 담장 등의 보수공사 사업 추진 시 설계·시공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형고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성읍민속마을 보존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이 가능한 가옥에 대한 매입을 하고, 매입한 가옥에 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정비와 보존을 바탕으로 한 문화재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정비 및 활용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현황

○사업기간 : 2003~2012년

○주요내용

- 가옥정비 : 등급별로 나누어 보수, 대수선 및 활용을 위한 개조
- 성곽 및 관아 정비 : 내부 관아시설과 성문 및 성곽의 순차적 복원
- 마을기반시설 정비 : 우수, 오수, 상수도 시설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최소한의 정비, 마을 내의 도로 포장 및 가로등, 휴식 공간 등의 기반시설 정비
- 관광편의시설 : 전시시설, 휴게실, 민박시설, 관리소, 화장실 등을 설치

○전통초가 활용

전통초가를 매입하여 성읍민속마을 관광의 체험프로그램과 관광기반시설에 활용하고 있다. 체험공방을 10개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통초가를 이용한 민박프로그램을 6개소 운영 중이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의 가옥 역시 정비하여 마을의 전통적인 풍경을 유지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민속축제

마을보존회의 주최로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를 19회 개최(2012년 기준)하고 있으며, 10월경 당일행사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속재현 행사이다. 식전행사로 정의현감이 부임하는 과정을 재현하고, 본

5) 김우영, 앞의 책 92쪽 참조.

행사는 연물 및 민요공연, 전통혼례식 재현, 무형문화재 공연 등의 민속 재현행사와 집줄놓기, 갈옷만들기, 죽공예, 짚풀공예 등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의 운영과 볼거리 제공 등의 행사 진행을 마을주민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제주민요공연



정의현감부임재현



죽공예

그림 12. 제주 성읍민속마을 전통민속축제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성읍민속마을의 성내 남문 앞 해설사의 집에는 1일 3명씩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마을주민들 중에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에 관한 해박한 역사관과 체험담을 곁들인 해설을 하고 있다.



상가안내원 해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그림 13. 제주 성읍민속마을 문화관광해설사

(6) 순천 낙안읍성

① 역사 및 의의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전통마을로 108세대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어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양식을 볼 수 있으며 부엌, 도방, 뒗마루 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 9동, 전남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임경업군수비각, 전남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객사, 전남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은행나무 등의 문화재가 있고, 당시 관아였던 관청 건물들이 있다.

읍성마을로써 외곽 50~70m 내외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 3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② 정비 및 활용

○관광편의시설

주차장과 매표소는 동문, 서문 부근 2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시설과 읍성의 거리가 근접해 있다.

○기타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상가의 운영자를 선정하며, 위치는 동문 외곽에 밀집해 있다. 성 외곽 남동쪽에는 한창기 선생이 살아생전에 모아둔 유물을 전시해둔 박물관인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 위치한다. 마을 내 민박집은 3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에 한옥민박촌(개량한옥)이 있다.



그림 14. 순천 낙안읍성 전경

○가옥현황

성벽을 따라 초가집이 안과 밖으로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성문을 들어서면 큰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기와집이 왼쪽에는 초가집들이 자리잡고 있다. 기와집들은 높은 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반면, 초가집들은 나지막한 돌담과 고샅을 구획삼아 웅기종기 모여 있다. 실제 살림집과 일부는 각종 공방과 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의 가옥은 목조가 대부분이고, 지붕은 와가 및 초가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활용현황

체험교육 및 시연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며, 교육자는 전통 복식을 착용하여 진행한다. 체험으로는 민속생활체험, 공예체험, 기예체험, 학습체험 등이 있고, 평일 및 주말에 상시 운영한다. 민속공연은 관리사무소에서 계획, 관리, 운영하며, 읍성군악놀이 및 수문장 교대식 등 주말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다. 토산품으로 낙안민속양조, 읍성공방(초가집, 장승 등), 도예방, 낙안특산물, 천연염색 등이 있다.

순천시 축제 및 전라남도 축제와 연계하여 민속공연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민속마을을 홍보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광역시와 연계하는 축제 이외에 민속놀이 경연대회 및 민속행사를 하는 축제로 정월대보름 민속마당 큰잔치가 있다.

○관리조직

마을 내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와 보존회가 있으며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마을 내에 전반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읍성장'의 직함으로 활동한다. 대표 업무로는 매표 및 관광객 안내, 민속마을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주민 일자리 사업 등이다. 보존회는 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마을의 복지 사업을 위주로 진행한다.

○운영현황

입장료 분배는 순천시 세입으로 60%, 보존회로 40%로 분배된다. 보존회 주 수익은 입장료와 상가 등의 임대수익이며, 문화재 원형보존, 주변환경사업,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 건물 및 토지매입, 초가이영이기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짚물체험



천연염색 체험



수문장 교대식

그림 15. 순천 낙안읍성 체험프로그램

표 2. 순천 낙안읍성 활용프로그램

구분		내용
체험	민속생활체험	길쌈, 대장간, 짚물, 농기구, 소달구지
	전통공예체험	천연염색, 목공예, 도예
	전통기예체험	호남좌도농악, 판소리교실, 가야금병창
	학습체험	자연생태체험, 낙안서당, 옥사체험, 명예별감
공연	읍성군악놀이	호남좌도농악 공연, 관광객과 뒤풀이
	수문장교대식	동헌~동문 입구,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표 3. 순천 낙안읍성 축제

축제	내용
정월대보름 민속마당 큰잔치 (음력 1월15일)	- 마을축제, 임경업 장군 추모제 - 민속놀이 경연대회 : 널뛰기, 윷놀이, 투호 등 - 민속행사 시연 : 큰줄다리기, 달집태우기, 횃불놀이 등 - 주최 / 주관 : 낙안면 / 낙안읍성(추진위원회)
순천낙안 민속문화축제 (5월 중 3일간)	- 순천시 축제 - 민속공연 : 낙안두레놀이, 상설이곳, 국악공연 - 경연대회 :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 - 주최 / 주관 : 순천시, 낙안읍성 / 순천시낙안민속문화축제 제전 위원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10월경 3일간)	- 전라남도 축제 - 상달제 및 민속공연 - 남도음식 배우기 특강 - 경연대회 : 음식경연대회(대학부, 일반부), 전국대학 - 생동아리농악 - 남도 22개 시·군 대표음식 전시 및 판매 - 주최 / 주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한국음식업중앙회전남지회

(7) 고성 왕곡마을

① 역사 및 의의

고성 왕곡마을은 고려말 함부열이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간성에 낙향하여 은거한데서 연유한다. 그의 손자 함영근이 이곳에 정착한 이후 함씨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폐허화된 후 150여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이다. 함씨·최씨·진씨가 주를 이루고 이밖에 이씨·박씨·김씨·한씨·윤씨 등이 살고 있다.

19세기 전후하여 지어진 기와집들은 모두 강원도 북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양통집이다. 이는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구조로, 특히 부엌 앞 처마에 외양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집들은 원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자연경관 전통주택·농업위주의 생활 등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전체에 잘 지켜져 오고 있어 2000년 1월 중요민속자료 제 235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림 16. 왕곡마을 전경

② 정비 및 활용

○관광편의시설

숙박시설로 한옥 3개소와 초가 5개소를 이용한 전통한옥숙박체험을 하고 있으며, 마을 내 음식점 및 마을 입구에 위치한 저잣거리를 운영한다. 단체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회차로 및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가옥현황

마을 중앙의 개울을 따라 이어져 있는 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가옥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가옥과 가옥 사이에 비교적 넓은 텃밭이 있어 따로 담장 없이 텃밭을 경계로 가옥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왕곡마을의 가옥구조는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 부엌이 한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다. 부엌에 가축우리가 붙어 있는 조선시대 함경도 지방의 겹집구조이다. 진흙과 기와를 한 켜씩 쌓아 올리고 항아리를 얹어 놓아 굴뚝을 만들었다. 왕곡마을의 가옥구조는 대문이 없는 개방적인 배치구조이다.

표 4. 고성 왕곡마을 활용프로그램

구분		내용
시설	체험장	전통 한과 만들기 체험장
		디딜방아 체험장
		그네/널뛰기 체험장
숙박	전통한옥 숙박체험	전통 가옥 민박(기와3, 초가5)
체험	먹거리 체험	떡메치기
		두부 만들기
		한과 만들기
		전통전 만들기
		왕곡주 만들기(주민의 고령화로 현재 중단)



전통한옥숙박체험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그림 17. 고성 왕곡마을 체험프로그램

○활용현황

보존회에서 주체가 되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체험장을 이용한 한과만들기, 디딜방아, 그네/널뛰기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 체험 등이 있다. 또한 전통한옥 숙박 체험이 있으며, 왕곡마을 와가와 초가에서 체험한다.

○관리조직

마을은 별도의 관리사무소는 없으며, 보존회를 중심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마을 보존회는 회장인 이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1명, 운영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운영,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보존회에서는 민박 및 음식점 관리, 체험장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먹거리 체험 등을 운영한다.

(8) 아산 외암마을

① 역사 및 의의

설화산 기슭 경사지에 위치한 외암마을은 약 500년 전에 강씨와 목씨 등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조선 명종 때 장사랑을 지낸 이정 이주해 오면서 예산 이씨가 대대로 살기 시작하였다. 이 후 이정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점차 양반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정의 6대손인 이간이 호를 '외암'이라 지은 후 마을이름도 '외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누대로 예산 이씨들이 거주하였던 와가와 많은 초가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외암마을은 전통적인 수법의 상류·중류·서민가옥이 함께 남아 있으며, 2011년 3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그림 18. 외암마을 전경

② 정비 및 활용

○관광편의시설

외암마을의 편의시설은 대부분 마을입구에 위치한다. 마을 입구에는 주차장과 매표소가 있으며, 관광객은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내 장터와 마을 입구에 있는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민속관이 마을 입구



이영역기체험



농촌체험



제례

그림 19. 아산 외암마을 체험프로그램

에 위치하여 전시가옥 관람 및 영상관 이용이 가능하다.

마을 내에는 민박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옥으로 22곳이 있다.

○가옥현황

현대식 가옥으로 인해 개축하면서 지붕이 높아지고 외형상 아담한 모양이 아닌 우뚝 솟아오른 초가의 모양이 생겨나고 있다. 초가를 개축함에 있어 전통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식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인해 진정성이 결여된다.

표 5. 아산 외암마을 활용프로그램

구분		내용
농촌 체험	문화체험	음식 만들기, 엮 만들기, 한지공예 등
	먹거리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
	농산물체험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옥수수따기, 모내기
주말상설체험		공방체험, 전통혼례체험, 조청과 한과만들기, 다듬이체험 등
농장체험		각 절기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 1박~3박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표 6. 아산 외암마을 축제

축제	내용
장승제 (음력 1월 14일)	- 정월대보름 전날에 하는 마을제사 - 제사 후 다양한 민속 행사가 이루어짐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 관광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중(제례 시간대 변경) - 주최 / 주관 : 아산외암마을보존회
짚풀문화제 (10월 중 3일간)	- 해마다 추수 후의 초가지붕을 해이고 짚풀로 미투리, 망태기 등 농촌생활용구를 준비하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갔던 문화를 재현 - 재현행사 : 전통혼례, 상여행렬재현, 초가지붕해이기 등
짚풀문화제 (10월 중 3일간)	- 체험행사 : 추수체험, 아기장승 깎기, 떡메치기 등 - 전시행사 : 농경유물전시관, 짚풀공모전 작품전시 등 특성에 맞도록 주관업무 분할(홍보, 행사 진행 등은 재단에서 주관) - 주최 / 주관 : 아산시 / 외암민속마을보존회, (재)아산문화재단

○활용현황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보존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홍보를 한다.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먹거리체험, 농산물체험 등이 있다. 공방체험, 전통혼례체험 등은 주말상설로 체험할 수 있다. 농장체험에는 계절별로 전통 농경사회의 추수체험, 모내기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축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전통 농경생활을 테마로 하는 축제가 있다. 공연 및 시연,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관리조직

관리사무소의 대표 업무는 매표 및 관광객 안내, 마을 행사 보조 등이 있다.

보존회는 사단법인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마을의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현상변경행위제한, 정비사업 관련 등)을 결정한다. 주요 업무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권고, 벌칙 등 내부 규제사항 결정, 임대가옥·부동산 관련 사항 및 상공업자 선정, 민박운영 관리, 체험관광 관리 및 마을 축제 주관 및 마을 관광 홍보 등이 있다.

(9) 성주 한개마을

① 역사 및 의의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1리의 한 개마을은 조선 세종 때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가 입향하여 거주한 때로부터 560여년을 내려오면서 성산이씨가 살고 있는 전통깊은 마을이다.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9동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물의 대부분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건립되었으나, 전체적인 마을구성이 풍수에 따른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류주택과 서민주택의 배치 및 평면도 지역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지정되었다.



그림 20. 한개마을 전경



그림 21. 한개마을 와가



그림 22. 한개마을 초가

② 정비 및 활용

○관광편의시설

현재 마을을 전체적으로 정비 중에 있어 특별한 시설은 없으며, 추후 주차장 및 판매시설, 민박시설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리조직

마을의 전반적인 일은 보존회 중심으로 관리운영된다.

보존회는 사단법인으로 회장과 마을주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존회 이외에 청년회, 부녀회가 활동 중이다.

4) 국외 전통마을 사례

(1) 기온신바시 지구⁶⁾

① 개요

기온지구는 기온간진인, 키요미즈테라의 문전마을로 형성되어 카마쿠라 시대부터 참배인을 상대로 하는 찻집이 있던 곳으로 에도시대 말기에는 차뿐만 아니라 식사 및 주류, 그리고 가무를 제공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지금은 신바시 거리를 중심으로 동서 약 160m, 남북 약 100m의 범위가 역사적경관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전통적인 거리모습이 보호·활용되고 있다.

신바시거리의 양측에 세워진 건물들은 대부분 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의 2층 건물로, 건물의 70%가 1865년의 대화재 직후에 건설된 것이다. 1층에는 격자문을 달았고, 2층은 객실이 되는 정면에 서까래를 내밀어 발을 걸고 있다. 요즘은 찻집지역으로 세련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② 사적의 보존 및 활용

기온지구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우토시 교육위원회는 1976년부터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구내의 전통적 건조물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70%의 건물을 '전통적 건조물'로 지정하고 외관의 유지를 위한 수리를 실시하여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건물에 대해서도 전통적 건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선하였다. 또한 전통적 건조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경관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시리카와 거리의 석축과 가로수에 대해서도 정비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 밖에 지구의 각 요소지에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임을 알리기 위한 표식 혹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재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정비를 통하여 현재 기온신바시지구는 에도시대말기부터 메이지시대 초기에 걸친 도시주택의 장엄함과 기온의 예능과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되고 있다.

6)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 262쪽 참조.



그림 23. 가온신바시 거리 전경



그림 24. 골목의 전통 건조물 정비

(2) 아리타우치야마 지구⁷⁾

① 개요

아리타는 17세기 초 이즈미야마 자석장이 개발되어, 일본 최초로 자기를 구워낸 곳이다. 아리타자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들에 의해 끌려갔던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616년 조선인 도공 이삼평이 아리타에서 풍부한 도석이 있는 산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백자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사가관청의 보호 아래 자기생산이 본격화되었다. 아리타자기의 이름이 된 「아리타야키」는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와 유럽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우치야마는 아리타자기 생산의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서, 관청에서 아리타자기의 원료와 제품이 무단 반출되는 것을 막고 제조기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도로에 초소를 세워 지키게 했던 2km에 이르는 지구를 말한다.

1828년 아리타 남산에 큰 불이 나서 근처에 있던 작업장들이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화재를 피해 도공들이 우치야마 바깥으로 유출되게 되어 우치야마 외부에서도 자기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리타는 대상인들이 고급스런 2, 3층의 가옥들을 건축하게 되면서 복구하였고 그 후 메이지, 다이쇼, 쇼와시대를 느끼게 해주는 건물들이 아리타의 큰길을 따라 전통적 경관을 이루는 가로(아리타마치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큰길에는 에도시대 초가지붕집을 주체로 한 가로에서, 메이지시대 기와지붕과 백색칠로 도장하여 2층으로 지은 가로로, 그리고 다이쇼시대에 세운 높고 흑색칠로 도장한 가옥이 혼재하고 있는 가로로 이어지며, 게다가 쇼와시대 초기의 도로 확장을 계기로 양관이나 양풍의 요소가 혼재하여 변화가 풍부한 가로로 이어져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동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보여지는 정연한 가로의 경관과는 다르며 이러한 혼재해 있는 모습이 아리타 가로경관의 특징이 되고 있다.

한편 큰길의 뒷길에는 톰바이담장(가마에 사용했던 내화벽돌을 이용한 낮은 토담)이나 돌담, 호안의 석축, 작업장, 토광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큰길과는 다른 표정의 전통적 경관을 이루고 있다.

7)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 266쪽 참조.



그림 25. 아리타마치 전경

② 사적의 보존 및 활용

아리타의 정비는 먼저 1979년 1982년까지 관광자원보호재단의 원조에 의해 「아리타 옛가마 유적과 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보존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지역의 건축가나 디자이너에 의해 「아리타의 환경을 다시 보는 모임」, 「아리타 지역 주택 연구회」가 조직되어 거리의 환경과 가로풍경 등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4년도에는 국토청의 「전통 산업도시 모델지구 정비사업」에 채택되었고, 1986년까지는 「툼바이담장이 있는 안길」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계속 정비되었다. 그 후 지역에서 「아리타우치야마의 가로를 지키는 모임」이 발족하고 주민들이 가로 보존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새로 건축되거나 수리하는 건물은 가로경관에 맞추어야 한다. 우치야마지구는 1991년 「중요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 거리의 특징은 옛 가옥들에서 지금도 생산과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공간으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치야마지구내에서는 「경관조례」로 정한 147건을 「전통적건조물군」으로, 석조물이나 툼바이담장 등 128건을 「환경물건」으로 지정하였다. 건조물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보존지구 내 전통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및 부속실, 도자기 제조소 및 부속실, 양관, 사원건축 및 부속실을 전통적 건조물을 정한다.
- 보존지구의 특색을 부여해주고 있는 수목, 정원, 석축, 계단, 문, 울타리, 담장, 석조물, 우물, 굴뚝 등 전통적 건조물군과 일체가 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환경물건으로 정한다.
- 전통적 건조물에 대해서는 주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복원 및 현상유지를 내용으로 하고, 환경물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내용으로 한 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용하여 보존지구를 전통적 가로로 보존한다.
- 보존지구 내 현존 또는 존재했던 전통적 가옥 및 부속실, 도자기 제조소 및 부속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축양식을 내용으로 한 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용하여 보존지구를 지키도록 한다.
- 보존지구 내 전통적 건조물 이외의 건축물, 그 외 신축 등은 역사적 풍경에 조화되도록 허가하는 내용

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수리기준이 이것과 조화되는 내용으로 한다.

- 이상의 수리,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적절히 운용하되 보존지구의 전통적 가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지구의 특성을 소생시키는 생활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이외에 보존지구의 관리를 위해 마치나미센터를 설치하고 연혁과 특징을 일반에 소개함과 동시에 보존지구 관리를 위한 상담과 지도 역할을 수행하며 보존지구 내에 역사적 풍치를 높이는 표식, 설명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특히, 보존지구 내의 전통적 가로를 지키고 길러냄과 동시에 양호한 생활환경의 정비를 원활하게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주민조직과 협조하고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만들어내었다는 의식을 높여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도록 하였다.

(3) 산팡치시앙 지구⁸⁾

① 개요

중국 푸젠성의 성도인 푸조우의 도심변화가에 위치한 산팡치시앙은 동쪽으로는 바이치베이루, 서쪽으로는 퉁후루, 북쪽으로는 양치아오루, 남쪽으로는 집시앙, 광루팡 등이 있다. 산팡치시앙은 3개 마을과 7개 골목이 얹혀 있는 곳으로, 중심의 남북축상으로 난허우제가 자리한다. 3개의 마을은 이진팡, 원루팡, 광루팡이며, 7개의 골목은 양치아오시앙, 랑관시앙, 안민시앙, 황시앙, 타시앙, 궁시앙과 지비시앙이다. 광루팡, 양차오시앙, 지빙시앙은 넓은 거리로 건설하였기에 실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은 2팡5시앙이다.

산팡치시앙은 서진 말년(265~316년)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왕선지가 나성을 짓기 전까지 진나라 때 만드 성을 이용하였다. 이후 당나라 중기 '안사의 난'(755~763년) 때 남쪽으로 피난온 인사들이 이곳에 사대부주택을 지어 문인들을 중심으로 신거주지역을 형성한 것이 오늘날 산팡치시앙이 된 것이다.

② 사적의 보존 및 활용

역사문화지역인 산팡치시앙의 가치는 첫째, 1,000여 년 전인 당·송시기의 동네골목 구조와 200여채가 넘는 명·청조시기 민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월나라 당시 고도의 장인기술로 표현한 것이 남아 있고, 수많은 담장과 기와가 빼곡한 집들은 질서정연하다. 둘째, 근대 역사상 이곳에는 린저쉬, 선바오정 등 100여 명의 역사를 빛낸 명인과 민족영웅들이 배출되었으며 1839년 6월 호문에서의 아편소각으로부터 1919년 5·4 애국운동에 이르기까지 줄곧 산팡치시앙에서 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이곳의 동네 명과 골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치파오 같은 전통의상을 만드는 가게와 푸조우의 특색있는 음식점 그리고 서화나 등 또는 대나무로 엮은 안락의자 상점들이 있는 등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2006년부터 푸조우 시내에는 산팡치시앙의 복원보호사업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산팡치시앙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난허우제는 기본적인 복원이 완성된 상황으로, 2~3층 목조건물의 상점가로 일괄 정비하였다. 그 양쪽에 종횡으로 자리한 골목으로 특색있는 출입구로 복원하였고, 골목 안에는 석판길, 흰 벽 및 청기와 그리고 장식적인 대문으로 통일되게 정비하였다. 또 명·청시대 민가들은 공법이 뛰어난 구조로 잘 짜였는데 정비 시 본래의 구조를 유지하여 민월고성의 거주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명·청조 당시 푸조우시의 고성 풍모 재현에 힘쓰고 있다.

8) 국립문화재연구소, 압의 책 2/70쪽 참조.



그림 26. 신팡치시양지구 민가 전경



그림 27. 톰바이담장이 있는 뒷길



그림 28. 정비중인 가로 전경



그림 29. 정비 중인 민가

5) 소결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문화재 및 그 주변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 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활용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활용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1) 문화재의 발굴 및 통합적인 가치 연구

유·무형의 문화재(역사문화자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는데 있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 고고학, 민속, 건축, 예술 등 통합적인 시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활용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2) 지역문화의 브랜드화

전통마을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지역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브랜드는 지역 전체의 이미지와 지역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브랜드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지역주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전통마을의 우수사례를 통해 그 마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민속, 지역문화, 건축문화 등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얼마나 양호하게 보존되어 왔는지가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사라진 옛것을 찾아 복원하고, 현재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유지, 계승하며, 앞으로 어떻게 보존·관리·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향후 전통마을의 지속가능한 보존의 핵심조건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적극 참여가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그 마을만의 독특한 문화를 브랜드화 과정을 통해 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성한옥지구 정비 방향

앞에서 살펴본 우수한 전통마을 보존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성지역 전통한옥을 보존·정비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를 찾아보고, 정비여건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비기본방향의 틀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개성 전통한옥지구의 정비여건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진정성

① 유구한 개성의 역사문화유적

개성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다. 우선,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개성공단의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 유적, 개풍군 해선리의 구석기시대 유적, 개풍군 해평리·대련리와 장풍군 국화리 청동기시대 유물 등이 있으며, 고려왕조(918~1392)의 도읍지 유적으로는 만월대와 개성 첨성대, 개성 남대문 및 성곽(5개 구역), 고려 성군관, 송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과 7왕릉, 명릉, 공민왕릉 등 12개소가 '개성역사유적지구(12개소)'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2013.6.13.)되었다. 또한 개성 남대문 북서쪽에 위치한 전통가옥들도 완충지역으로 인접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 지역은 조선초(1393년) 내성을 축조하면서 십자가에서 남대문의 영역이 구분되고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의 도시구조의 틀을 기본바탕으로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지어진 전통한옥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보존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② 고려시대의 도시공간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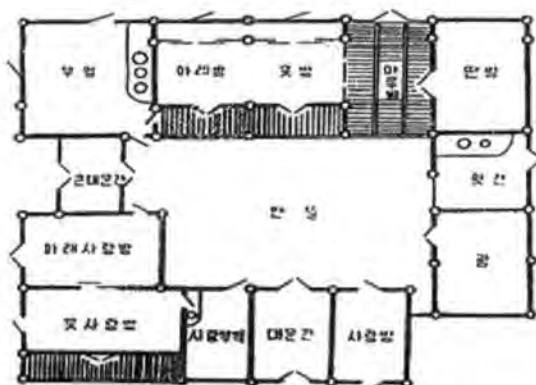
북쪽의 송악산, 남쪽의 용수산과 외성으로 둘러싸인 개성(개경)의 도심 공간이 현존하고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개성은 동서, 남북을 잇는 십자가(십자형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변화가 형성하였고, 십자가 북쪽 남대가는 고려시대 시전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까지 유지된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남서쪽과 남쪽으로 조선말,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시설물 등장(소학교, 병원, 역사, 전기회사, 우편국 등)하였다. 1912년 지적원도와 현재의 가로체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지와 도로는 현재까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남산 기슭, 북안동 서편 구릉지에는 가지형 가로망과 부정형의 소필지, 배천변 주변에는 격자형 가로망과 정형의 중형 필지, 남대가 주변에는 격자형 가로망과 정형의 소형상업용 필지가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⁹⁾

③ 도시형 한옥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개성한옥

개성한옥은 경기도라는 지역적 보편성과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이라는 특징, 개성의 독특한 도시구조가 갖는 특수성과 농업경제와 상업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기도 전통도시한옥이라 할 수 있다.

개성한옥의 배치는 중부지방형 민가 특징을 보이며, 안채의 평면은 중부내륙 지방에서 보는 가장 정형된 ‘ㄱ’자 모양이다. 안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졌고, 안방과 부엌은 남쪽에 면해 있다. 대체적으로 튼‘ㄷ’자형 배치에 ‘ㄱ’자형 안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밀집되는 도시에 위치하여 남향을 포기하기도 하는 집약적인 공간구조를 가진다. 또한, 대부분 상인인 남성들의 긴 외유에 대비하여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동선구조와 함께 각 실이 구성되었다. 상업이 발달한 개성에서 객지생활이 많은 남성의 공간(사랑채)이 약화된 것이다. 안채 중 큰방은 긴 통간으로 실을 구성한다. ‘ㄱ’자집 중에서도 대청이 한 칸 정도로 좁은 특징을 지닌다. 꺾임부와 몸체의 가운데에 크게 대청마루를 놓고, 부엌은 오히려 건물의 끝 정간에 배치하였다. 부엌에 연달아 2칸의 안방과 옷방을 붙이고 꺾어져서 대청과 건넌방을 두는 방식이다.

요약하면 개성한옥은 도시한옥이 갖는 특징과 상업도시 개성이 갖는 한옥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독특한 한옥이라 할 수 있다.



튼‘ㄷ’형집(파리집) 평면



튼‘ㄷ’형집(파리집) 투상도

그림 30. 개성한옥 튼‘ㄷ’형집(파리집) 평면 및 투상도

9) 자남산 기슭, 북안동 서편 구릉지에는 가지형 가로망과 부정형의 소필지, 배천변 주변에는 격자형 가로망과 정형의 중형 필지, 남대가 주변에는 격자형 가로망과 정형의 소형상업용 필지가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④ 개성역사지구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 개성한옥

개성은 도시 자체가 살아 있는 고려시대 역사박물관이다. 개성관광은 역사여행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속으로 여행이며, 그 중 개성한옥은 활용이 가능한 문화콘텐츠이다. 따라서 개성역사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성한옥을 활용하여 숙박 및 음식 체험, 유교 교육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향후 개성관광이 재개되면 관광객들이 가장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관광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⑤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으로서 개성한옥

개성한옥 보존사업은 남북공동 순수학술·문화 교류협력사업으로 남북이 함께 민족의 공동유산인 전통가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호·호혜적이며, 더불어 역사인식 공유 및 교류 증진, 남북한 경제 활성화 및 교류협력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로 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2) 정비여건 분석

개성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918~1392)의 통치기반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재와 조선시대 유교문화재가 현존하는 오래된 역사도시이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중세의 도시공간구조(개성 성곽, 십자가, 남대가, 배천변 등)와 가로 및 필지 체계, 도시형 한옥의 특징을 보여주는 개성한옥이 잘 보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강점이 있다.(중간 삭제) 그러나 개성은 현재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 도시화에 따른 유적 훼손 및 주변 경관 저해(개성한옥과 필지 및 가로체계 등 파괴 등)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며, 더불어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취약하고(체험, 숙박 등 체류형 기반시설 취약)과 주민참여(사회주의체제로 인한 수동적 참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한 개성한옥지구 보존·정비기본구상을 마련하여, 향후 실질적인 보존사업이 진행될 때의 합리적 대안과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1) 기본방향

개성의 역사적도시구조의 배경과 가옥의 원형고증에 의한 유적의 보존·정비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 가치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보존, 정비, 복원대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요구된다.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복원기준년도

복원정비사업에서 복원기준년도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에 해당한다. 개성한옥지구는 이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추정되는 1950년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1900년대 이전(고려말~조선시대)과 일제강점기~1950년 이전, 1950년 이후~현재로 구분한 후 차후 현장조사 시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복원기준년도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보존·정비 지침 및 절차

- 학술조사 :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복원·정비에 앞서 학술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학술연구 결과와 조사단의 의견은 복원·정비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술조사는 한옥지구의 원형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존·정비·활용을 고려한 적절한 조사계획을 마련하며, 조사의 우선순위 검토에 따른 단계별 조사계획을 통해 진행한다.
- 원형회복 : 개성한옥지구는 정주형 민속마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를 통해 변형 및 훼손 가옥의 원형을 회복한다. 가옥정비는 한옥보존지구 내 보존과 원형회복, 활용 등을 구분하고, 보존·관리를 위한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정비토록 한다.
- 가옥의 정비 : 가옥의 정비는 개성한옥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한 후 기존가옥의 보수·정비는 원형유지, 변형·훼손가옥은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원형으로 회복한다. 가옥 외부는 전통양식(가옥 외벽, 지붕)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내부는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개조를 허용한다. 가옥 및 담장 보수공사 등 사업추진 시에는 설계·시공과정에서 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원형고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경관복원 : 개성 남대문 및 개성한옥지구 내 가로환경과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개성한옥의 전통경관을 복원하고, 개성한옥지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하며, 관람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역사문화환경의 원형유지를 전제로 한 마을기반시설정비계획과 보존·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광편의시설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전통조경복원 : 개성한옥지구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수목을 조사하여 전통조경을 적용한 한옥지구 정비가 필요하다.

③ 관리운영

개성한옥지구가 개성의 역사문화환경의 지점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성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책임자급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성한옥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북측과 남측이 상호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보존방향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존사업의 결과는 결국 개성 현지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④ 활용

개성한옥지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속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통하여 개성한옥지구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옥지구의 지속적인 보존 및 문화가치 생산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남대문 및 이벤트 공간을 활용하여 체험형 관광객을 유

치하고, 개성주민의 참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개성한옥지구의 세시풍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용프로그램 등 개성한옥을 보존과 활용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한다. 주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적과 연계한 탐방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토지이용구상

남과 북의 합의의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개성한옥지구의 지역적, 도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이용에 대한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마을기반시설 :

자남동과 북안동 진입부에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집합소, 마을주민의 집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마을공동시설 옆으로는 마을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한옥보존지구 내 차량 출입을 제한하여, 관광객과 개성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② 숙박체험시설 :

기존한옥을 정비하여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을 확대 개장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 가옥은 보존가옥과 활용가옥을 구분하고, 변형 및 훼손 가옥을 정비하여 원형을 회복한 후 수공업·상업용 한옥으로 복원하여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가옥 외부는 전통양식(가옥 외벽, 지붕)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내부는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개조를 허용한다. 가옥 및 담장 보수공사 등 사업추진 시에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원형고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판매·상업시설 :

개성관광시 북측판매원들이 남측관광객들을 상대로 특산물,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상행위가 활발히 성행했었다. 이러한 판매·상업시설을 옛 시전골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남대가 및 배천 주변은 고려시대~조선시대까지 유지해온 시전지리로 복원하여 시전의 관광, 체험 및 상품구매 등을 통해 개성한옥지구를 활성화한다.

④ 종합안내센터 :

관광객이 집중되는 대형주차장 인근에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개성한옥지구를 소개하고 관람을 안내한다.

⑤ 이벤트공간 :

개성 남대문 북쪽으로 배천과 남대가 사이에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개성한옥의 체험 및 민속, 민구 등 전시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벤트 공간 주변에는 야외공연장 및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각종 놀이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⑥ 원형회복구간 :

개성 남대문 좌우의 성곽단절구간은 장기적으로 발굴조사 후 복원하여 개성 성곽의 원형을 회복토록 한다.

⑦ 주차장 조성 :

남대가의 북쪽 끝으로 배천과 연결되는 부분(현재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 위쪽으로 대형주차장을 조성하여 개성한옥지구를 찾는 내·외부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한옥의 전통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교통체계구상

① 보행자 중심도로(차량통제) :

개성한옥지구는 전통도시공간구조로 회복하기 위해 1900년 이전의 가로체계를 회복한다. 개성한옥지구 내부로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비스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차량을 통제하고, 관광객은 도보와 서틀을 이용하여 남문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한다. 남대가는 보행전용도로화하여 배천변의 탐방코스와 연계하여 순환형 관람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한다.

② 관람객동선과 거주자동선 구상 :

남대가~배천~개성남대문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과 활용으로 구분한 후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되도록 관람객 동선과 거주자의 동선을 구분하도록 한다. 관람객은 배천과 남대가 주변으로 관람 제한하며, 관람코스는 '안내센터~배천 좌측 천변도로~개성 남대문~남대가(시전거리)~안내센터'와 '개성남대문~관람대~김일성동상~송양서원'를 계획하여 운영토록 한다. 거주자는 자남동은 배천 우측 천변도로를 통한 진입, 북안동은 개성한옥지구 서쪽으로 진입을 통해 거주자 동선을 관람객 동선과 구분하여 충돌을 피하고, 축제, 행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내부 골목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국내·외 전통마을, 역사문화자원 보존정비사례를 살펴보고, 개성한옥지구의 정비여건과 정비구상에 대해 대략적으로 논해보았다. 현재 개성한옥지구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개성한옥지구가 현재 원형과 달리 보존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해야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개성현지에서의 학술조사와 연구, 실제 개성의 현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개성한옥 보존지침이나, 보존가이드라인 등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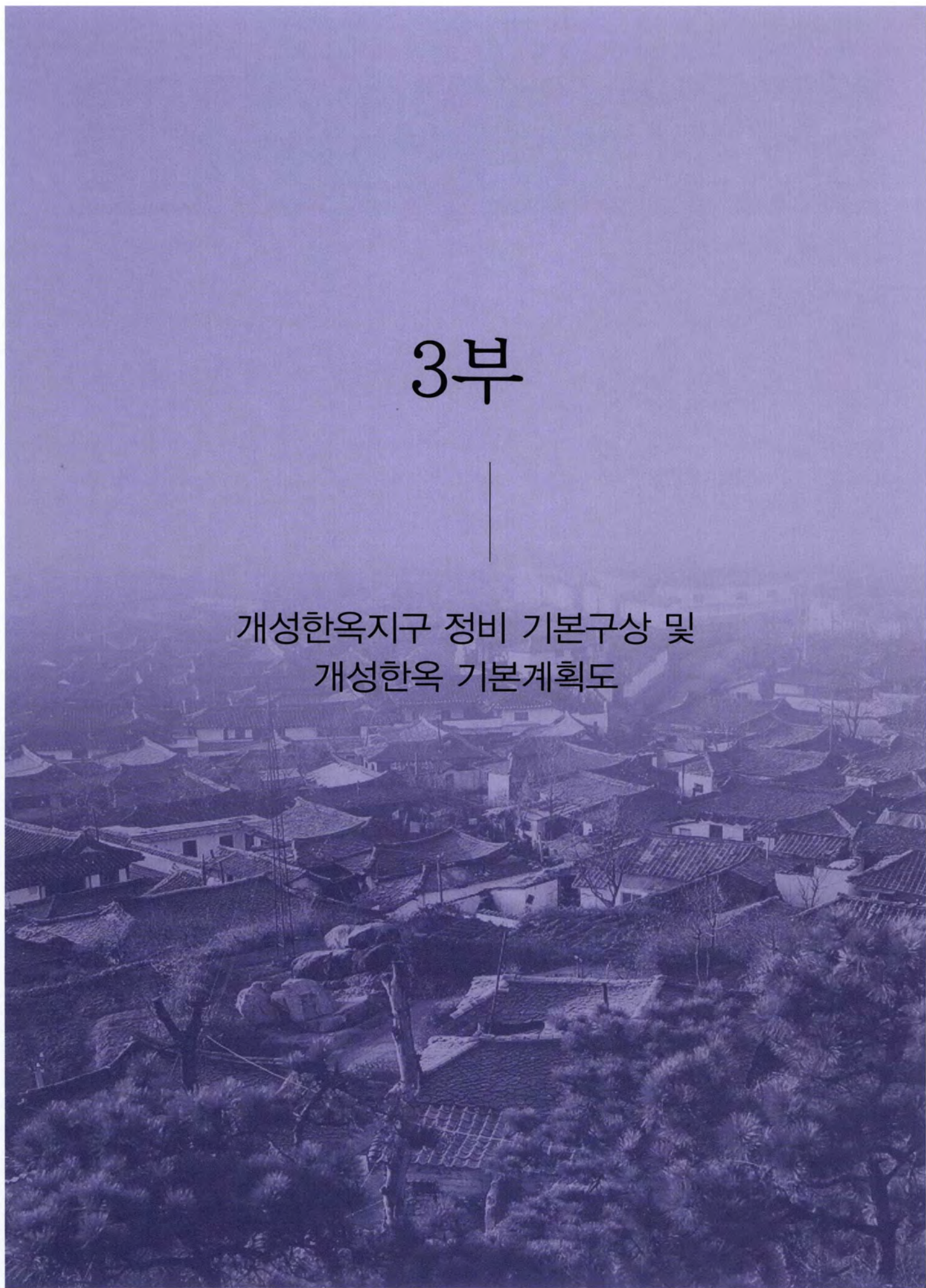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김기주, 「고려의 황도 개경」, 『건축역사연구』 제11권, 2002, 3
- 김동욱,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전통민가의 가치와 경기문화재단 조사의 의의」,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003, 12
- 김동욱, 「황도 개경의 비밀」, 『건축역사연구』 제11권, 2002, 3
- 김태영, 「개성 지역 한옥군락의 분포와 배치」,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 박언곤 · 한옥, 「강화도민가의 실측조사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제4권, 2000
- 송인호 · 김영수 「북촌 도시한옥의 기둥상부 결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2005, 11
- 송인호 · 김영수, 「북촌도시한옥의 지붕가구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4권, 2005, 12
- 유지아, 「경기도지방의 전통민가 특성에 관한 연구」, 2001

- 윤정숙·김성우·유영희, 「강화도 교동도 지역 민가의 주공간 및 주생활 특성과 변화」, 『생활과학논집』 제10권, 1996
- 이경미,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구조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 12
- 이희봉·권오경, 「거주자의 문화를 통해 본 강화도 최소중정형 뜰입구자집(Ⅱ형 평면)의 해석」,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 12
- 정연상,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평면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003, 12
- 홍영의, 「고려시대 개령의 도시구조와 주거」,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국내 조사자료집』, 2010
- 경주시청, 『양동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2002
- 경기문화재단,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2002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남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2
- 문화재청,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2004
- 서울특별시청, 『문화재 관리·활용정책 학술연구』, 2009
- 안동시청, 『안동 하회마을 종합정비계획』, 2001
- 제주특별자치도청,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2012

3부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및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및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I. 개요¹⁾

1. 연구 배경 및 목적²⁾

- 개성은 선사시대 이래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개성한옥지구는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 시가지의 난개발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 관리계획이 요구됨
- 이에 개성한옥지구 전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비 기본구상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인에 의해 조사된 개성한옥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고증연구와 현재의 도면 표기법을 적용하여 도면상으로 개성한옥의 실제적 모습을 복원해 봄으로써 향후 복원·정비사업에 기본도면으로 참고하고,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 :

- 기본정비 구상 : 개성특급시 자남동, 북안동 일대(개성 민속보존거리 일원)
- 기본계획도 제작 : 자남동 조씨택³⁾

1)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 제작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의뢰하여 '명지대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과업기간은 2013년 9월~11월로 3개월간 진행되었다.

2) 2012년 1차연도 사업을 통해 '개성한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향후 개성한옥 보존사업의 전체적인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개성한옥 정비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물은 향후 수립할 종합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학술연구를 통해 개성한옥의 배치와 평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전체적인 모습(형상)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에 1900년 초반에 조사된 배치평면도와 사진자료를 근거로 도면상으로 복원해 볼 것을 자문회의 의견을 통해 제안 받았다. 이에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고, 더불어 3차원시물레이션과 조감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본 학술연구의 결과물인 기본계획도는 향후 개성 현지에서의 학술조사연구의 기초자료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개성현지에서 한옥을 신축하게 될 경우 기본도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노무라 다카부미(野村孝文)'는 1932년 9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朝鮮と建築』에 「開城雜記」를 연재하였는데, 이 글 중 마지막인 5편에서 '개성 주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조사한 개성한옥의 배치평면에 대한 악실측도면을 수록하였는데, 이 중 '개성한옥'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池町 趙씨택'을 기본계획도 제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내용적 범위 :

- 정비 기본구상 :
 - ‘개성한옥 보존지구’ 현황분석 및 정비방향 설정
 - 관련사례 및 법규 검토
 - 개성한옥 보존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기본구상안’ 제시
 - 정비 기본구상안에 따른 ‘개성한옥보존지구’ 조감도 제작
- 기본계획도 제작 :
 - 개성한옥 기본계획도면 제작을 위한 고증자료 및 문헌자료조사·정리
 - 개성한옥 배치평면을 기본으로 기본계획도면 제작(평면, 입면, 단면도 등)
 - 기본계획도면에 근거한 3D시뮬레이션 제작

3) 연구방법

- 정비 기본구상
 - 개성한옥지구 현황분석 및 도시구조 분석
 - 정비여건 검토
 - 정비 기본 구상 및 정비 방향 설정
 - 토지이용 구상 및 교통체계 구상
 - 종합정비 구상 및 단계별 정비계획 제시
- 기본계획도
 - ‘자남동 조씨댁’ 자료수집 및 기존도면 분석
 - 개성한옥의 특징 검토
 - 서울·경기·강화도 민가 사례연구
 - 배치평면에 대한 고증
 - 입면, 단면 계획
 - ‘자남동 조씨댁’ 기본계획도 제작 및 시뮬레이션 제작

Ⅱ.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1. 현황분석

1) 개성의 자연지리환경

(1) 풍수지리상 길지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고령의 도읍지이다. 전체적인 구릉지대로서, 북쪽의 천마산(762m), 국수봉(764m), 제석산(744m) 등과 동북쪽 화장산(563m), 동남쪽 진봉산(320m), 서북쪽 만수산(228m) 등이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북쪽 송악산(진산, 489m)으로부터 남쪽 용수산(177m)으로 연결되는 구릉이 시가지 주위를 둘러싸 경계를 이루고 그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아 침입을 방어하였다.

남쪽으로 예성강 유역의 평야와 임진강과 한강 하류의 드넓은 농경지가 있어서 경제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2) 벽란도와 해양수송로

동쪽으로 임진강, 남서쪽으로 예성강이 황해로 흘러나간다. 예성강의 벽란도는 전국 각처의 세공과 물자가 들어오던 곳으로서, 중국이나 외국의 상선이 머물 수 있는 해상수송로의 요지였다.



그림 1. 개성의 자연지리환경(대동여지도)

2) 개성의 역사문화환경

(1) 선사시대의 유적

개성공단 부지에서 구석기를 비롯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편, 청동기시대 점토대토기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개풍군 해선리에서는 구석기, 개풍군 해평리, 대련리에서는 비파형청동검과 청동창, 그리고 장풍군 국화리에서 청동과가 출토되었다.



그림 2. 개성시 주변 선사시대 유적지

(2) 고려시대의 도읍지

- ① 궁성 : 둘레가 약 8.2km로 회경전과 장화전, 원덕전 중심으로 승평문(남), 현무문(북), 동화문(동), 서화문(서) 등 4개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황성 : 둘레가 2.17km이고, 4각형 모양의 방형성인 황성은 궁성의 외곽방위성으로 중앙관청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나성이 완성되기까지는 외성의 역할을 하였다. 고려말에 새로운 내성을 쌓기 전까지는 내성의 역할을 하였다. 20개의 문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11개의 문터가 알려져 있다. 정문은 광화문으로 황성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 ③ 내성 : 나성이 너무 커서 방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1391년(공양왕 2)에 건설을 시작하여 1393년(조선 태조 2년)에 약 7.8km의 길이로 완성되었다. 고려말에 이 성곽을 쌓기 시작한 것은 당시 국력으로 규모가 큰 나성으로는 외적으로부터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남대문·동대문·동소문·서소문·북소문·진언문 등 7개 성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대문만이 남아 있다.
- ④ 나성 : 개성의 방어상 어려움으로 고려 건국 후 약 100년 정도인 1020년(현종 11) 강감찬 제의에 따라 1029년(현종 20)에 둘레 약 27.6km의 나성이 완성되었다. 성문은 총 25개로 4대문과 중문 8개, 소문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제대로 남아있는 성문은 하나도 없다.



그림 4. 개경 관내 사찰(자료 : 홍영의 제공)

(4) 고려시대의 왕릉⁵⁾

고려 왕릉이 위치한 지역을 '성동·성서·성남·성북·남교·북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왕릉의 지역적 근거는 옛 송악군 및 그와 인접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특징이 있다. 왕건릉은 태조 왕건과 신혜 왕후 류씨를 함께 묻은 합장릉으로 만수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7왕릉은 만수산 기슭에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왕릉급 7기의 무덤군으로 조성 시기는 고려 말기로 추정된다. 명릉은 고려 제29대 왕인 충목왕의 무덤이다. 공민왕릉은 정릉(왕비 노국대장공주 무덤)과 나란히 조성되어 있고, 이는 고려 능제에서 왕과 왕비의 무덤이 같은 곳에 배치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고려왕릉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3) 개성한옥지구의 현황

위성사진과 최근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옥에서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 돌너와(청석)를 사용하여 지붕을 마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가지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말까지 대부분 가옥이 초가지붕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화재에 취약한 초가지붕을 불연재로 교체하면서 슬레이트 등 현대재료나 돌너와(청석)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5) 홍영의, 앞의 책, 62쪽 참조.

(1) 남대가 주변 : 개성 남대문과 십자가 지역을 일컫는 남대가에는 고려시대 시전이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다. 격자형 가로망과 중소형, 상업용 한옥이 보존되어 있다.



그림 5. 개성남대문 및 십자가 옛모습과 현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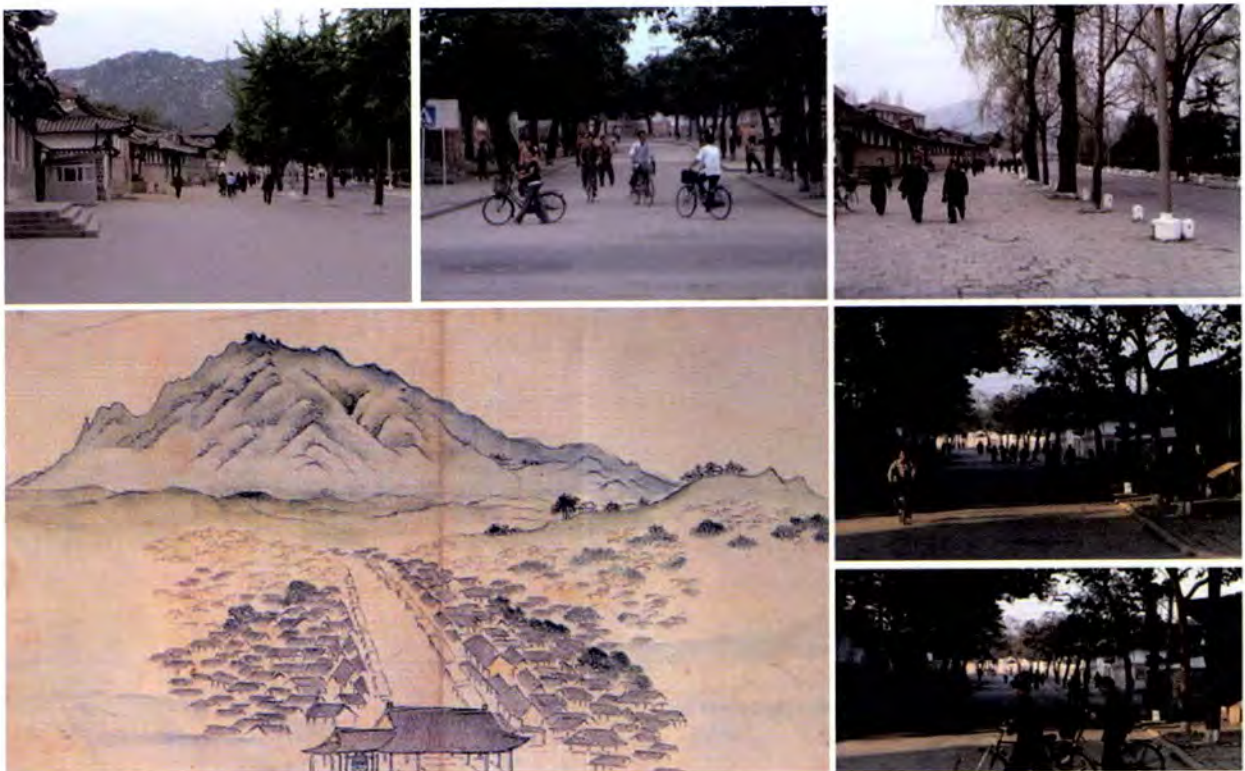


그림 6. 개성남대문 및 십자가 현황(강세황의 송도기행첩 개성시가, 구글어스 사진자료)

- (2) 배천 주변 : 가지형 가로망과 중소형 한옥이 보존되어 있고, 한옥을 보수하여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으로 개장하여 활용 중이다.



그림 7.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 내부, 경기문화재단 제공)

- (3) 자남동, 자남산 자락 : 가지형 가로망과 소형 한옥이 보존되어 있고, 점판암을 지붕재료로 사용한 돌너와(청석)집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관덕정, 승양서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그림 8. 자남동 현황(경기문화재단 제공)

- (4) 북안동 : 가지형 가로망에 중소형 한옥이 보존되어 있지만, 십자가 북쪽으로 근대시설물이 분포되어 있다. 북안동의 서편 경사지는 남대가에서 직각으로 뻗어 나온 소로와 소로에서 직각으로 뻗어나온 막다른 골목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가지형 가로망에 가까우나, 세부적으로는 정형의 격자형 가로망과 유사하다.



그림 9. 북안동 전경



그림 10. 개성한옥 보존지구(구글어스 위성사진 편집)

4) 개성한옥지구의 도시구조⁶⁾

(1) 고려시대 개성의 도시구조와 민가

송악산(북)과 용수산(남) 등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궁성과 황성, 나성(외성) 등의 성곽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중심에 동서와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십자가)가 있고 금천과 배천, 앵계 등의 하천이 도성의 중심을 흘러 사천으로 모여드는 구조이다. 특히 동서,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십자가)를 중심으로 변화가 형성되었다. 그 배후에는 기와집과 초가가 밀집하여 배치되었다. 십자가 북쪽 남대가는 고려시대 시전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다.



그림 11. 개성의 수세 및 도로

(2) 조선시대의 개성한옥 군락의 형성

수도방어의 군사적 기능과 한양의 상업적 기능을 보완하는 상업도시로서 기능을 하였다. 조선초(1393년) 내성이 축조되면서 십자가에서 남대가의 영역이 구분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시전이 1409년(태종9)에 다시 개시되면서, 남대가 좌우로 시전과 기와집이 도로를 따라 분포하였다.



그림 12. 개성 남대문 및 남대가 전경 (강세황, 송도기행첩 개성시가, 1757년 추정)

(3) 일제강점기의 도시구조

십자가를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며, 도로를 따라 상업기능이 분포하고 배후는 대부분 주거지역이 위치하였다. 십자가 서편 일대는



그림 13. 일제강점기 개성의 도시구조(용도별, 경기문화재단 제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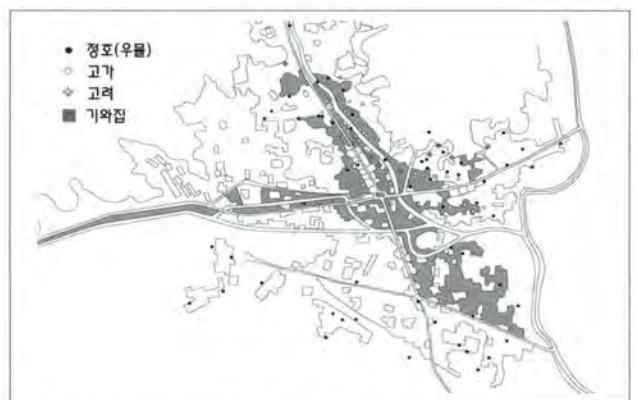


그림 14. 일제강점기 개성의 도시구조(시설물, 경기문화재단 제작도)

6) 김태영, 「개성 지역 한옥군락의 분포와 배치」,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120~131쪽 참조.

공공기능의 개성역, 관공서, 소학교 등 공공시설이 배치되어 있었고, 도심의 곳곳에 수공업, 공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었다. 주거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기와집 분포하였다. '고가'의 경우 배천변과 십자가 주변(자남산 아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고려시기 한옥의 경우 배천변과 자남산 남쪽에, 그리고 '정호(우물)'는 십자가 북편과 동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4) 남북분단 이후 개성한옥군락

현대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1980년대 중반 통일거리가 조성되고, 대형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십자가 서쪽과 남쪽도로의 확장으로 주거지 부분이 축소되었으나,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하였다. 자남동, 해운동, 북안동 일대 한옥군락 다수 분포하고 있고, 1975년에 자남동, 북안동 일대를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남대가 북쪽 배천변 주변으로는 기존 한옥을 보수하여 1989년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을 개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5) 가로체계의 변화

- ① 가지형 가로망 : 자남동 일대는 대부분 기존 가지형 가로망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배천 폭이 감소하였고, 천변도로가 개설되었다. 또한, 배천변 다리가 3개에서 7개로 증설되었다. 북안동 일대는 서쪽으로 기존 가지형 가로망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개성학생소년궁전' 건설로 북안동 남측의 내부 가로망이 유실되었다.
- ② 격자형 가로망 : 남대가 일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해 남대가가 소폭 확장되었지만 기존의 격자형 가로망을 유지하였다.



그림 15. 한옥보존지구 남대가 주변 시가지 전경



그림 16. 남북분단 이후 개성의 도시구조2

- 통일거리 조성과 대형건물의 등장
- 기존 도심 주거지의 축소
- 자남동, 해운동 일대 한옥군락 다수 잔존
- 자남동 일대 '한옥보존지구'로 지정, 활용

5) 개성한옥의 특징

- (1) 개성한옥의 배치유형 및 분포현황⁷⁾ : 개성 중심가의 한옥은 현재와 달리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와집, 돌너와(청석)집 보다는 초가집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연구자료와 사진자료

7) 김태영, 앞의 책 126~131쪽 참조.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남대가와 배천 일대는 기와집이, 자남동과 북안동의 경사지에는 초가집이 상당수 분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와 같은 대부분 기와집이나 돌너와(청석)집의 한옥으로 정착은 일제강점기 1930~40년 사이에 지붕개량이나 대규모 한옥의 신축을 통한 변화와 남북분단 이후 지붕개량이나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겠다. 2011년 위성사진을 근거로 개성한옥의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ㄱ'자집, 'ㄴ'자집, 'ㄷ'자집, 'ㄹ'자집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옥의 규모와 대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면 'ㄷ'자집 또는 'ㄹ'자집이 개성한옥의 주 배치형식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2011년 위성사진으로 살펴본 개성한옥의 배치유형

- ① 'ㄱ'자집 : 현재 개성 지역의 가장 많은 배치형식으로 가옥의 규모와 면적이 작다. 주로 자남산 자락의 고지대, 외진 곳에 분포하며 지형과 좌향의 영향(남서향, 동고서저)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 ② 'ㄷ'자집 : 'ㄱ'자집 다음으로 많은 배치형식으로 가옥의 규모와 면적이 크다. 개성한옥지구 전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③ 'ㄹ'자집 또는 튼'ㄹ'자집 : 전통적인 개성한옥의 배치형식으로 가옥의 규모와 면적이 크다. 배천변과 남대가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표 1. 개성한옥의 배치유형

한옥유형	'ㄹ'자	'ㄷ'자	'ㄱ'자	'ㄴ'자	'ㄱ'자	계
자남동 일원	40	60	111	24	26	251
북흥동 일원	37	53	46	26	16	178
계	73	117	157	50	42	439

(3) 개성한옥의 등급분류⁸⁾ : 항공사진(2011)의 한옥지붕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필지 일치(원형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성한옥의 등급을 분류하여 향후 정비 추진 시 우선순위에 반영토록 한다.

- ① A형 : 항공사진(2011)의 한옥지붕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필지가 일치하는 가옥으로 1900년대 이전 건립 가능성이 높다. 자남산 자락, 배천 주변, 북안동 서편으로 분포하고 있다.
- ② B형 : 항공사진(2011)의 한옥지붕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2~3필지를 차지하는 가옥으로 1912

8) 김태영, 앞의 책 142~144쪽 참조.

년 이후 건립 가능성이 높다. 남대가 좌우, 배천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 ③ C형 : 항공사진(2011)의 한옥지붕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필지가 불일치하는 가옥으로 남북분단 이후 신축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 등 현대식 재료 사용하였으며, 십자가 북서쪽, 남대문 북쪽, 남대가의 북쪽 끝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4) 개성한옥의 특징(배치 및 평면구성) : 개성한옥은 경기도라는 지역적 보편성과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이라는 특징, 개성의 독특한 도시구조가 갖는 특수성과 농업경제와 상업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특수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 ① 중부지방형 민가 : 중부지방형 민가 특징을 보이며, 안채의 평면은 중부내륙 지방에서 보는 가장 정형된 ㄱ자 모양이다. 안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졌고, 안방과 부엌은 남쪽에 면해 있다.
- ② 파리집 혹은 튼'ㅁ'자집 : 대체적으로 튼'ㅁ'자형 배치에 'ㄱ'자형 안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③ 도시형 한옥 : 밀집되는 도시에 위치하여 남향을 포기하기도 하는 집약적인 공간구조를 가진다.
- ④ 내향적인 공간구성 : 대부분 상인인 남성들의 긴 외유에 대비하여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동선구조로 각실이 구성되어 있다.
- ⑤ 안채와 대청의 크기 : 안채 중 큰방은 긴 통간으로 실을 구성한다. 'ㄱ'자집 중에서도 대청이 한 칸 정도로 좁은 특징을 지닌다.
- ⑥ 부엌의 위치 : 꺾임부와 몸체의 가운데에 크게 대청마루를 놓고, 부엌은 오히려 건물의 끝 경간에 배치하였다. 부엌에 연달아 2칸의 안방과 옷방을 붙이고 꺾어져서 대청과 건넌방을 두는 방식이다.
- ⑦ 사랑채의 생략과 약화 : 상업이 발달한 개성에서 객지생활이 많은 남성의 공간(사랑채)이 약화되었다.



그림 18. 항공사진(2011년) 한옥지붕선+지적원도(1912년) 필지



그림 19. 튼'ㅁ'형집(파리집) 평면



그림 20. 튼'ㅁ'형집(파리집) 투상도

2. 정비여건 분석

1) 가치 및 진정성 검토

(1) 유구한 개성의 역사문화유적

- ① 선사시대의 유적 : 개성공단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 유적, 개풍군 해선리 구석기시대 유적, 해평리, 대련리와 장풍군 국화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 출토
- ② 고려왕조(918~1392)의 도읍지 : 만월대와 개성 침성대, 개성 남대문 및 성곽(5개 구역), 고려 성균관, 승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과 7왕릉, 명릉, 공민왕릉 등 12개소가 '개성역사유적지구(12)' 세계문화유산 등재(2013.6.13.)됨. 개성 남대문 북서쪽에 위치한 전통가옥들도 완충지역으로 인접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게 됨
- ③ 조선시대 개성한옥 군락 형성 : 조선초(1393년) 내성을 축조하여 십자가에서 남대문의 영역 구분하였음.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시전이 1409년(태종 9)에 다시 개시됨. 한양 시전의 모델 개성 시전으로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형태의 개성한옥의 특징을 보여줌

(2) 고려시대의 도시공간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됨

- ① 송악산(북)과 용수산(남), 외성으로 둘러싸인 개성(개경) 도심
- ②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개성 : 동서, 남북을 잇는 십자형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변화가 형성, 십자가 북쪽 남대문은 고려시대 시전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까지 유지됨, 십자가를 중심으로 남서쪽과 남쪽으로 근대시설물 등장(소학교, 병원, 역사, 전기회사, 우편국 등)
- ③ 1912년 지적원도와 비교할 때 가로체계가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됨 : 자남산 기슭과 배천 주변, 북안동 서편 구릉지 일대에 원필지(1912년 지적원도)가 유지되고 있음. 자남산 기슭, 북안동 서편 구릉지에는 가지형 가로망과 부정형의 소필지, 배천변 주변에는 격자형 가로망과 정형의 중형 필지, 남대문 주변에는 격자형 가로망과 정형의 소형상업용 필지가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

(3) 도시형 한옥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개성한옥

- ① 중부지방형 민가 : 안채의 평면은 중부내륙 지방에서 보는 가장 정형된 ㄱ자 모양이다. 안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졌고, 안방과 부엌은 남쪽에 면해 있다.
- ② 파리집 혹은 튼'ㅁ'자집 : 대체적으로 튼'ㅁ'자형 배치에 'ㄱ'자형 안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③ 도시형 한옥 : 밀집되는 도시에 위치하여 남향을 포기하기도 하는 집약적인 공간구조를 가진다.
- ④ 내향적인 공간구성 : 대부분 상인인 남성들의 긴 외유에 대비하여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동선구조와 함께 각 실이 구성되었다.
- ⑤ 안채와 대청의 크기 : 안채 중 큰방은 긴 통간으로 실을 구성한다. 'ㄱ'자집 중에서도 대청이 한 칸 정도로 좁은 특징을 지닌다.
- ⑥ 부엌의 위치 : 꺾임부와 몸체의 가운데에 크게 대청마루를 놓고, 부엌은 오히려 건물의 끝 경간에 배치하였다. 부엌에 연달아 2칸의 안방과 옷방을 붙이고 꺾어져서 대청과 건넌방을 두는 방식이다.

⑦ 사랑채의 생략과 약화 : 상업이 발달한 개성에서 객지생활이 많은 남성의 공간(사랑채)이 약화되었다.

(4) 개성역사지구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 개성한옥

- ① 개성역사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성한옥을 활용하여 숙박 및 음식 체험, 유교 교육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 ② 개성은 도시 자체가 살아 있는 고려시대 역사박물관임. 개성관광은 역사여행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속으로의 여행이며, 그 중 개성한옥은 활용이 가능한 문화콘텐츠임

(5)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으로서 개성한옥

- ① 민족공동 문화유산인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통해 남북한 교류 확대 및 역사인식 교류 등 활성화
- ② 남북한 주민 접촉 확대, 역사인식 교류, 북한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통해 통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초석이 될 수 있음

2) 1차 자문회의(2013.10.28) 결과

구분	자문의견	검토결과
전체	- 복원기준연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역사적 흐름과 변화상 파악 •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 기준인 1950년 이전	- 복원기준연도 • 고려말~조선시대 • 일제강점기~1950년 이전 • 1950년 이후~현재 - 자료의 한계(차후 현장조사 시 검토)
	- 기초조사 없는 용역의 실효성, 타당성 확보 • 항공사진 및 1900년대 사진, 지적원도 활용	- 항공사진, 1900년대 사진, 지적원도를 근거자료로 활용
도시	- 도시가로망과 수계 검토(특히 측구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계획 포함)	- 가로체계 : 원형유지 - 수계 : 배천과 백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2개소 확인됨 - 측구는 자료의 한계(차후 현장조사 시 검토)
	- 지적도의 도로, 수계, 다리 및 항공사진의 건물배치 등 일치여부 확인	- 대상부지 내 : 복개도로 2개소, 다리 8개소 확인됨 - 지적원도와 항공사진의 건물배치를 확인하여 원형고증
	- '이문'에 대한 검토	- 남대문 옆 십자가 복개도로 부근으로 추정됨
가옥	- 민가의 경우 사는 주체의 검토 필요	- 자료의 한계(차후 현장조사 시 거주자 조사)
	- 돌너와집(정석집) : 개성한옥의 특징	- 자남산 자락으로 부분적으로 분포
	- 사례조사범위 축소 • 강화도 민가, 도시한옥 중심	- 강화도 민가의 특성 검토 - 도시한옥의 특성 검토
	- 각 시기별 가옥조사(샘플)	- 자료의 한계(차후 현장조사 시 가옥조사)
	- 보존(기존가옥)과 활용가옥 구분	- 남대가와 배천 사이 : 활용 - 남대가 좌측과 배천 우측 : 보존
민속	- 생활사(장독대 등 민구류) 검토	- 자료의 한계(차후 현장조사 시 검토)
	- 주민생활사 보존, 역사문화자료 보존, 전통계승	- 기본방향에 반영 - 상공업용 한옥, 창고형 한옥 등 보존

구분	자문의견	검토결과
기타	- 관람계획(출발, 이동시간, 관람시간, 관람대상 등) 검토	- 도라산출입국 사무소에서 출발(1일 코스) • 박연폭포, 관음사, 왕건왕릉, 공민왕릉, 송양서원, 선죽교 · 표충비, 고려박물관, 개성공업지구 - 숙박 가능한 관광코스 제안 • 프로그램, 콘텐츠, 주변 유적 연계
	-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주자를 위한 시설 포함(충돌방지 시설 필요)	- 남대가와 배천 사이의 한옥보존지구만을 관광객에게 개방 - 남대가와 배천을 완충공간으로 활용 • 남대가 좌측, 배천 우측은 관광객 통제(거주자 공간)
	- 현황사진자료 첨부	- 1900년대, 최근의 현황사진 반영

3) 2차 자문회의(2013.11.29.) 결과

구분	자문의견	검토결과
전체	- 법적근거 및 보호기준 검토	-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및 보호요건(p.33)
	- 사례연구 검토 • 북촌마을의 보존 · 관리 내용 첨부(성음민속마을 사례 제외)	- 검토중
	- 목적에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경제활성화를 통한 가치 창출, 민족문화 보존 및 계승	- 목적에 반영
	-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등록된 문화유적과 연계	- 주변 문화유적 연계계획 마련
도시	- 배천은 발굴조사 후 원형을 복구하는 계획	- 정비 기본구상에 배천을 완충공간으로 보존과 활용 가 · 배천 좌우측 천변도로 활용
	- 편의시설은 가로망에서 최대한 노출이 안되도록 계획 • 기존 가로체계는 회복하고 개성민속려관을 포함한 체험, 숙박, 화장실 등은 노출을 피함	- 기존 가로체계를 회복하는 계획 진행 • 편의시설은 주변과 어울리게 계획
	- 서비스 공간(주차장, 편의시설 등) 적절한 규모로 공간 계획	-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계획
	- 생활문화, 개성한옥의 특성을 부각시켜 개성한옥마을 을 조성, 기존 한옥은 보존 • 개성 중상류층 가옥 샘플링	- 기본계획도 제작(샘플링) • 개성 중상류층 가옥을 기준으로 기본도면 제작 및 3D시 물레이션
	- 남대가와 배천 사이 지역은 활용하고 그 외 지역은 정 주권 확보	- 남대가와 배천 사이의 지역은 활용, 그 외 지역은 보존
	- 필요시 자료가 확보되면 대한제국기의 개성 양안을 검 토하여 지적 확인 • 양안 : 지적원도(1914년)보다 15년 이상 앞선 토지 조사	- 자료의 한계(차후 자료가 확보되면 추가 검토)
가옥	- 북측의 보존상태가 더 양호해보임 •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	- 상공업, 수공업 가옥을 중심으로 개성한옥의 특징을 살림

구분	자문의견	검토결과
가옥	- 전통구조, 재료 보존	- 전통구조, 재료 보존토록 한다.
	- 사진자료에서 보이는 건축기법, 양식, 특징들을 부위별로 정리	- 개성한옥의 건축적 양식 • 화방벽높이, 강회줄눈, 굴뚝 등
	- 개성한옥 기본계획도의 주고가 높음 • 강화도 민가를 바탕으로 치수 검토	- 강화도 민가와 도시한옥의 사례를 검토하여 도면 제작
민속	- 북한의 생활·문화 등 건축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필요 • 안방, 마루, 마당, 조경 등 유형사례가 첨부되면 보고서가 알차게 됨	- 자료의 한계(차후 현장조사 시 검토)
	- 정비계획 시 적정지역에 전시가옥 배치 • 생활상, 가구, 민구 등 • 양반/중인 등으로 구별	- 계획에 반영
기타	- 용어사용 • 청석집→돌너와(청석)집 • 개성민속려관→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	- 계획에 반영
	- 조감도에서 원형과 복원을 다르게 표현	- 활용과 보존 가옥 구분
	- 비전문개일반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확실한 자료와 다양한 홍보자료 필요	- 조감도를 바탕으로 사업개요 자료 작성
	- 다양한 방안 제시하고 채택은 복측에서 진행	- 여러 연구안 제시
	- 지적재산권 저촉여부 검토 • 사진, 지도 등 자료출처 확인	- 주기, 인용, 사진 등 출처 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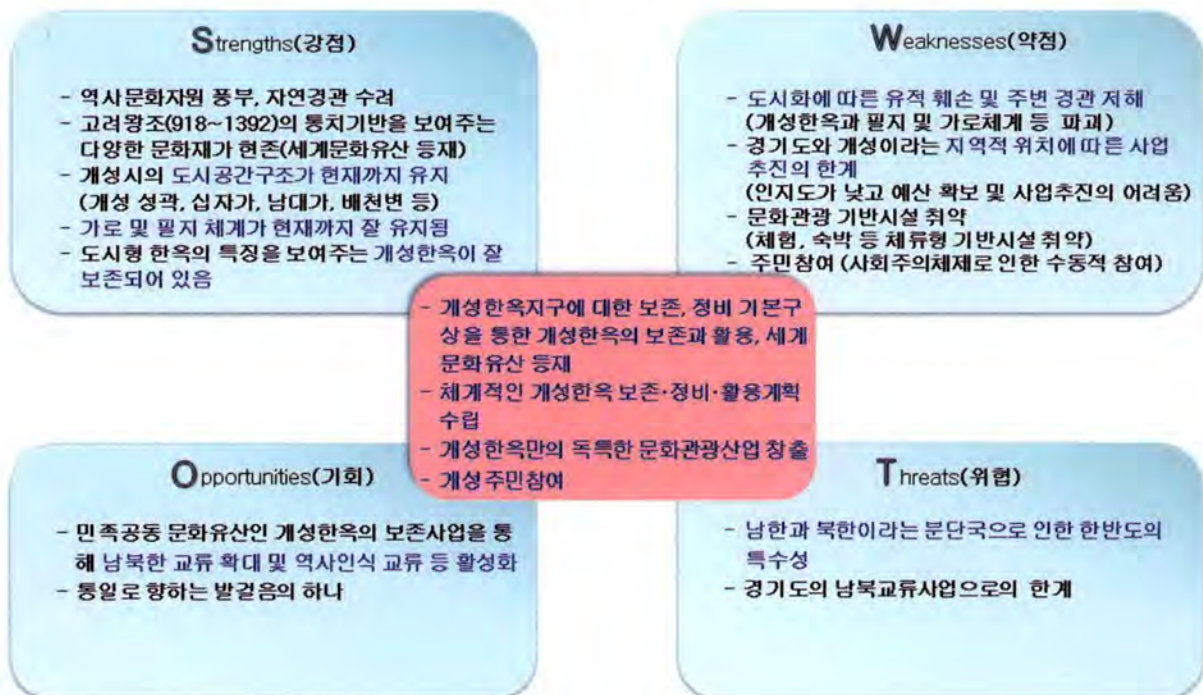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용역의 실효성 타당성 확보	- 복원기준연도 설정이 필요 - 자료의 한계(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	- 복원기준연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역사적 흐름과 변화상 파악하여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기준으로 설정 - 항공사진, 지적원도, 1900년대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차후 현장조사 시 추가 검토
도시공간 구조	- 십자가의 확장,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 가로체계 파괴 - 다양한 필지 형태와 상업용 한옥과 주거용 한옥이 공존 - 도시가로망과 수계(특히 측구), 다리 등 검토하여 원형과 일치 여부 확인	- 개성 남대문~남대가를 정비하여 고려시대 개성의 십자가(十자형 가로망) 중 북쪽 가로망 회복 - 격자형, 가지형 등 원형에 맞는 가로체계 회복(상가거리, 골목길 등 복원) - 항공사진, 지적원도, 1900년대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차후 현장조사 시 추가 검토
개성한옥	-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미흡 - 필지의 변화, 현대식 재료의 가옥에 의한 개성한옥 지구의 전통경관 훼손 - 배치, 평면형태, 도로와의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의 한옥 산재 - 돌너와(청석)집 잔존	- 개성한옥을 항공사진(2011년)의 한옥지붕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필지 일치(원형유지)여부에 따라 분류 후 보수·정비 - 배치, 평면형태 등 개성한옥의 특징(ㅁ자형 배치, ㄱ자형 평면 등)을 검토 후 보수·정비 - 남대가 주변 상점 및 공장 딸린 한옥 등 유형별로 도로와의 관계를 원형고증 후 보수·정비 - 너와(청석)집은 개성한옥이 갖는 특징 중 하나로 원형보존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민속	- 자료의 한계(생활사, 민구류 등 조사 부족)	- 개성한옥의 특징과 활용 시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차후 현장조사 시 추가 검토
한옥숙박 시설	-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개성을 찾는 관광객 증가 예상 - 현재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 19동)에 약 120~40명/일 수용 가능(1동 6~7실, 1실1인 기준)	- 현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을 약 180~210명/일 수용 가능하도록 확대(19동→30동, 1동 6~7실, 1실1인 기준)
관광 편의시설	- 주차장 및 화장실, 휴게실, 안내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부족	- 차량동선과 연계하여 주차장 및 안내센터 건립 - 휴게시설, 화장실, 안내판 등 관광편의시설 정비
이벤트공간	- 개성한옥지구만의 독특한 체험, 먹거리 등 부족	- 이벤트공간을 마련하여 개성한옥, 민속놀이, 먹거리 등 체험 - 공연장을 조성하여 개성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

5) 정비여건 분석-SWOT 분석

- (1) Strengths(강점) :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또한, 고려 왕조(918~1392)의 통치기반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재가 현존하며, 개성시의 도시공간구조(개성 성곽, 십자가, 남대가, 배천변 등), 가로 및 필지 체계, 도시형 한옥의 특징을 보여주는 개성한옥이 잘 보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2) Weaknesses(약점) : 도시화에 따른 유적 훼손 및 주변 경관 저해(개성한옥과 필지 및 가로체계 등 파괴 등)와 경기도와 개성이라는 지역적 위치에 따른 사업추진의 한계(인지도가 낮고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로 어려움이 있음. 또한 문화관광 기반시설 취약(체험, 숙박 등 체류형 기반시설 취약)과 주민참여(사회주의체제로 인한 수동적 참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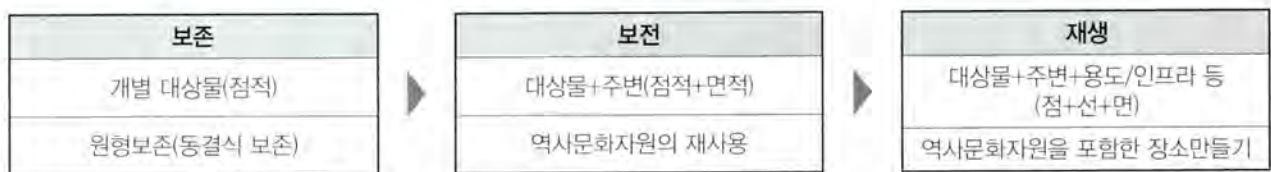


- (3) Opportunities(기회) : 민족공동문화유산인 개성한옥의 보존사업을 통해 남북한 교류 확대 및 역사 인식 교류 등 활성화를 통해 통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초석이 될 수 있음.
- (4) Threats(위협) :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국으로 인한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으로의 한계를 갖고 있음
- (5) SWOT 분석 결과 : 개성한옥지구에 대한 보존, 정비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개성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토록 한다. 또한, 체계적인 개성한옥 보존·정비·활용계획 수립과 개성주민의 참여를 통해 개성한옥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산업을 창출한다.

3.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1)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 (1) 역사문화자원의 보호를 통해 도시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3) 원형보존과 함께 가꾸어가는 역사문화도시 관리

- 원형의 보존, 부분적 보존, 재사용, 잠재적 문화재의 고려 등 역사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시도
-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을 통합하여 도시의 장소성을 가꾸는 접근

(4) 대상물 관리에서 도시구조와 면의 관리

- 개성의 공간구성원리를 고려하여 지형, 수계, 조망 등을 고려한 역사문화자원 관리
- 개별 건축물의 점적인 보전을 넘어 주변에 대한 관리 등 면적 도시관리 접근

(5) 거주민이 생활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전

- 일상생활 환경과 밀접한 역사·문화환경보전 및 지역 활성화와 연계
- 역사적 사건 및 시기 등 테마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2) 보존·정비 필요성 및 우선순위

(1) 보존·정비 필요성

- 고려시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무대이자 생활공간
- 세계문화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유적지, 박물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설정
- 최근 개성의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개성한옥보존지구에 대한 보존이 시급해짐
-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한옥으로 보존·정비 시 활용성이 높음

(2) 보존·정비의 우선순위

- 가옥 정비 : 원형유지 가옥, 원형훼손 가옥
- 가로체계 복원 : 남대가의 역사성 회복(격자형 필지에 시전, 공업용 한옥 등 복원)
- 한옥숙박시설 확대 :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 증가 예상
- 관광편의시설 확충 :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안내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3) 보존·정비의 법적 근거

(1)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및 보호 요건

- 문화유산 보호 : 문화적 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1994) 및 규정(2009)
- 완충지역 산과 숲 보호 : 환경보호법(1986)과 산림법(1992)
- 완충지역 내 도시구역 보호 : 토지법(1997)과 도로관리법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이행을 위한 규정, 개성시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지 보호 및 관리 지침(2013.9) : 완충지역도 인접 문화재로서 보호(개성 남대문 북쪽의 전통가옥들도 특별 보호 대상)
- 개성시 문화유산보존위원회가 관리 총괄
- 문화유산 관리 계획 수립(2011.1.15.) : 완충지역 내 개발 관련 지침 수록

(2) 한옥보존지구 지정 : 1975년 김일성 교시 : 보존거리로 지정, 보호

4) 보존·정비 사례연구(북촌한옥)

(1) 북촌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 북촌은 2000년 초 정책연구에 착수하여, 서울시 유관부서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2000년 10월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의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시에서는 약 10년여 동안 북촌지역에 아래와 같은 보전정책을 시행하였다.

- ① 북촌마을 환경정비계획 수립 : 골목길 정비, 공공주차장, 쌈지공원, 공동정화조 조성 등의 환경개선
- ② 한옥의 보전 및 육성방안 강구
 - 세금감면 및 보조금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등록한옥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건축기준 완화(주차장 기준, 도로제한, 건폐율 등) 및 세제감면 추진(재산세 등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 ③ 주민 참여 유도 및 지원 : 한옥 및 비한옥 매입하여 보수 후 공공·문화 용도로 활용

표 2. 북촌 관련계획 제도변화

년도	북촌 관련 정책
2001년	북촌 가꾸기 사업 시작
2002년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제정
2006년	북촌 장기발전 구상
2007년	역사문화미관지구 확대
2009년	서울시 '한옥선언',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개정
2010년	2010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2) 북촌 보존정비의 세부내용

- ① 한옥 등록제,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 한옥등록제는 한옥을 등록할 경우 한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한옥가꾸기에 일조하고자 한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 ② 골목길 환경 개선 : 북촌을 살기 좋고 정취 있는 도심주거지로 가꾸기 위해 대표적 한옥밀집지역 내 골목길부터 단계적으로 가로환경 정비 사업으로 골목길의 바닥포장 및 전신주 지중화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그림 21. 골목길(정비 전)



그림 22. 골목길(정비 후)

- ③ 한옥의 매입과 활용 : 서울시는 북촌의 한옥 또는 비한옥을 전략적으로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④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초기에 추진된 북촌가꾸기는 한옥보전 및 가로환경정비 등 물리적 환경의 유지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역사문화 학습장소로서 북촌의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서울시는 북촌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전통문화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연대와 아름지기 등 시민단체들도 비정기적으로 북촌탐방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오고 있다.
- ⑤ 주민 참여 및 공동체 지원 : 북촌 가꾸기가 진행되어온 지난 10년은 행정과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주민과 민간의 역량이 지역관리의 주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북촌문화포럼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활동



가회민화박물관



북촌초고공방



심화숙한지공방



우리빛깔공방



동림매듭공방



서울시무형문화재교육전시관



신중현울칠공방



홍벽한지형공방

그림 23. 한옥을 활용한 사례

이 확산되는 등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북촌 가꾸기 참여가 더욱 늘어났다.

- ⑥ 도시관리계획 현황 : 2010년 1월 21일 북촌일대는 한옥주거지의 특성과 북촌 고유의 경관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 및 한옥 보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근거의 마련, 노후한 주거환경개선 및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충,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인 관리방향 설정 등을 통해 살아있는 도시박물관으로서 북촌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후 관리되고 있다. 건축물 주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71.3%로 주거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가회로와 삼청동 길을 따라 일부 문화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촌 가꾸기 시행이후 북촌지역 내 한옥의 부동산 거래와 주민전입이 증가하여 주민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한옥 매수자의 한옥등록률이 비교적 높아 한옥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로 주민구성이 변화하는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매수자는 북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 ⑦ 공공사업 추진현황 및 한계점 : 전통적인 북촌의 독특한 분위기와 정취를 보전하면서 현대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여 북촌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이 추진되었다. 공공사업의 내용으로는 주차장·공원(공공공지) 등의 확보, 골목길 정비, 포장, 식재, 자전거도로 확충, 전신주 지중화(地中化)사업, 쓰레기 수거시설 정비, 방재관련설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촌 한옥경관 보전정책의 한계는 이것이 개별 한옥 또는 가로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촌이 하나의 역사문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개별 한옥에 대한 개·보수의 지원을 넘어, 북촌 전체를 아우르는 경관계획이 요구된다.
- ⑧ 기타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공공, 민간단체 등) : 현재 북촌관광코스는 건축물, 골목길, 도보여행 또는 박물관, 공방 관람 중심의 유형문화관광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촌 한옥(살림집)과 북촌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북촌의 문화와 역사자원을 발굴하여 문화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춰 북촌과 종로 일대 문화예술계 인물

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발굴하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마을문화콘텐츠를 발굴,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주민들이 함께 보존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연속적으로 향후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운영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현재 북촌한옥마을은 끊임 없이 찾아오는 관람객으로 인한 소음과 관광지화 되면서 곳곳에 늘어나는 쓰레기처리가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조용하고 품격 있는 한옥마을로서 주민들의 주거권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관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촌한옥마을 조용한 관람문화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사업내용은 주민 간담회와 컨설팅과 함께 주민들의 조용한 관람문화 만들기 캠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⑨ 사업의 성과 : 북촌의 한옥이 더 이상 급속히 멸실되지 않고, 상태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북촌 가꾸기 시행에 따른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한옥멸실 및 신축추이

한옥멸실추세		구분	신축허가추세	
	3.7건/년	1980년대		
	35건/년	1990년대	30동/년	
	13건	2001년	12동	
	7건	2002년	7동	
	6건	2003년	6동	
	4건	2004년	4동	
	0건	2005년	0동	

각종 정책을 통한 가장 큰 성과는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투자를 통해 한옥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적 주거지로서 북촌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240여동의 수선된 한옥을 평가해본 결과, 북촌한옥이 가지는 유형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재가 아닌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자산으로서의 한옥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서 현대도시에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감소하였고, 한옥생활과 북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역시 2000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2000년 설문조사 당시 한옥 매각의사를 밝힌 주민이 46%였으나 2005년도에는 27%로 감소하였고, 북촌을 매력 있는 거주지라고 응답한 주민이 66%에 달한다.

북촌 가꾸기 이후 북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여 북촌의 변화와 한옥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국내·외 언론보도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북촌을 찾는 국내·외의 방문객 수도 늘고 있다.

표 4. 한옥의 상태변화

구분	한옥상태(2000)		한옥상태(2005)		증감률
	동수	구성비	동수	구성비	
양호	241 동	25.5%	404	42.7%	+ 17.2%
보통	379동	40.0%	281	29.7%	-10.3%
불량	327동	34.5%	260	27.5%	-7.0%
합계	947동	100.0%	947	100.0%	0%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북촌한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옥의 가격이 단시일 내에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커져 공공의 한옥 매입 및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므로 향후 매입 및 활용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옥으로의 전입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주민구성이 변화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촌 가꾸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북촌의 역사경관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계획적 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옥의 멸실 및 난개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신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층수와 형태에 대한

북촌관련정책 성과 및 한계 분석			북촌가꾸기의 지향
정책의 효과평가	북촌한옥 되살리기	• 한옥의 수량 • 한옥의 상태 • 한옥의 가치 • 한옥에 대한 인식	
	한옥 주거지 정취 보전	• 북촌 경관의 향상 • 주거지 기능 보호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	• 주거편의시설 확충 • 가로환경 개선	
	공공가치 창출	• 북촌보전비용 지불의사	
정책추진 체계평가	추진 방식	•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 • 주민참여 및 민간참여	• 개선방향 • 추진방향 • 정책제안
	커뮤니티 거버넌스 형성	• 북촌 공동체 특성 • 거버넌스 형성의 가능성	
한옥 개보수 평가	한옥 개보수 질	• 개보수 한옥의 질 • 한옥개보수기준	
	한옥 개보수 관리체계	• 개보수 절차 • 관리 • 감독의 문제	
의견청취	주민, 전문가, 방문객 설문조사	• 사업의 평가 • 한옥거주자 인식 변화 • 북촌에 대한 인식	
	관계자 의견청취	•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 향후 북촌 가꾸기의 방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촌 전역의 경관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래상 설정과 실천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경관관리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한옥의 개·보수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양옥의 건축과정과는 다른 한옥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 적용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들도 있고, 수선업체마다 한옥시공수준의 편차가 심하며, 쉬운 공사방식으로 수선이 진행되어 자칫 고쳐진 한옥의 모습이 획일화될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한옥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서울시한옥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실제 수선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의 한계점은 급속히 멸실되어가던 한옥의 보전과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옥의 보전에 국한되지 않는 북촌지역 전체의 보전과 발전은 물론 나아가 북촌을 넘어선 역사도시 서울의 도심 전체를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5) 기본방향

(1) 기본원칙

- 원형고증에 의한 유적의 보존·정비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 가치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 유적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보존, 정비, 복원대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절차를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한다.

계획의 기본원칙	기본원칙에 따른 기본방향	수립 계획
원형 보존 최우선	• 원형고증에 의한 유적의 보존·정비에 중점 • 역사적 가치와 주변 지역 연계성 고려 • 지속적인 보존 관리	개성한옥지구 정비 기본구상 • 기본 원칙 및 방향 • 토지이용구상 • 교통체계구상 • 종합구상도 • 단계별 정비계획
명확한 정비목표 수립	•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 설정 • 보존, 정비, 복원대상의 명확한 구분 •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존·정비 •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계획 수립	개성 한옥 정비 기본구상 • 기본원칙 • 유형별 정비방향 • 단계별 정비계획
현실성 있는 실천 수단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절차 제시 •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	사업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사업추진방안

(2) 보존·정비

- 개성한옥지구는 정주형 민속마을로서의 가치 인식, 변형 및 훼손 가옥의 원형 회복
 - － 가옥정비는 한옥보존지구 내 보존과 원형회복, 활용 등을 구분하고, 보존·관리를 위한 세부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정비한다.
- 개성한옥지구 내 가로환경과 마을기반시설을 정비, 개성한옥의 전통경관 개선
- 개성한옥지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차량통행 억제, 관람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조성
- 개성남대문 앞의 경관 회복, 이벤트 공간 조성
- 개성한옥지구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목조사를 통하여 재래수종 정비
- 가옥 및 가로체계 보존정비계획, 마을기반시설정비계획, 관광편의시설정비계획
 - － 유적의 원형보존에 최우선하는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원형유지를 위한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 － 개성한옥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하고, 개성한옥의 역사문화환경과 전통성 보존을 위한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 － 유적의 훼손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원형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제시한다.
 - －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를 통한 보존·정비방법을 모색한다.
 - － 역사문화환경의 원형유지를 전제로 한 마을기반시설정비계획과 보존·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광편의시설정비계획을 검토한다.
- 학술조사계획
 - － 선행 조사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적의 원형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사방향을 설정한다.
 - － 조사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존·정비·활용을 고려한 적절한 조사계획을 마련한다.
 - － 조사의 우선순위 검토에 따른 단계별 조사계획을 제시한다.
- 개성한옥보존지구 정비계획
 - － 마을공간구조 및 전통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고 유적지 보호를 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한다.
 - － 개성한옥지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유적의 영역을 고려하여 개성한옥보존지구를 조정한다.

(3) 관리운영

- 보존·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자율적인 보존활동으로 유도한다.
- 개성한옥지구가 개성의 역사문화환경의 거점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강구한다.
- 개성주민의 화합과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개성한옥지구의 보존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개성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개성한옥지구의 수익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언한다.

(4) 활 용

- 개성한옥지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속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통하여 개성한옥지구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개성 남대문 및 이벤트 공간을 활용하여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개성주민의 참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방안을 제시한다.
-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 및 문화가치 생산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개성한옥지구의 세시풍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용프로그램 등 개성한옥을 보존과 활용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한다.
- 주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적과 연계한 탐방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

(5) 사업추진계획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을 제시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사항 검토와 더불어 사업을 구분하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다.
- 개성한옥지구 종합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의 산정, 재원확보방안 및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한다.

6) 토지이용구상

(1) 한옥보존지구

① 정비여건

- 기존 가지형 가로체계 유지 : 일부 구간의 도로확장
- 현대화, 도시화로 인하여 기존 도심의 축소, 근대시설물 등장
- 일부 지붕재료의 변화 : 초가→와가, 점판암을 사용한 돌너와(청석)집 잔존, 2~3필지를 합필하여 중형의 필지로 변형

② 정비방향

- 변형된 가옥을 원형으로 회복
- 개성한옥 보존관리 지침 마련
- 개성한옥보존지구 내 가옥 원형 회복
 - 기존 가옥 보수·정비는 원형유지, 변형·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정비한다.
 - 보존가옥을 수리하고, 변형 및 훼손 가옥을 정비하여 원형을 회복한다.
 - 가옥 외부는 전통양식(가옥 외벽, 지붕)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내부는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개조를 허용한다.
 - 가옥 및 담장 보수공사 등 사업추진 시 설계·시공과정에서 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원형고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성한옥지구 내 마을경관 정비
 - 가옥의 외형은 원형으로 보존·정비하여 개성한옥 주변의 전통경관을 회복하되, 내부는 현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마을기반시설 정비

- 자남동과 북안동 진입부에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하여 마을의 경조사 및 집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 마을공동시설 옆으로 마을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한옥보존지구 내 차량 출입을 제한하여 개성 한옥을 보존하고, 개성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 대형주차장 및 안내센터 조성
 - 남대가의 북쪽 끝으로 배천과 연결되는 부분(현재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 위쪽으로 대형주차장을 조성하여 개성한옥지구를 찾는 내·외부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한옥의 전통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관람객이 집중되는 대형주차장 인근에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여 개성한옥지구를 소개하고 관람을 안내한다.
- 이벤트 공간 조성
 - 개성 남대문 북쪽으로 배천과 남대가 사이에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개성한옥의 체험 및 민속, 민구 등 전시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
 - 이벤트 공간 주변에 야외공연장 및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각종 놀이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2) 남대가 및 배천 주변

① 정비여건

- 기존 격자형 및 가지형 가로체계 유지
- 가로수 식재로 남대가 소폭 확장
- 배천 양쪽으로 천변도로 개설로 배천폭 감소
- 북쪽 배천 주변의 일부 한옥을 보수하여 숙박시설(개성 민속려관)로 활용
- 남대문 북쪽 시전 뒤쪽으로 수공업, 상업용 한옥 잔존

② 정비방향

- 고려시대~조선시대까지 유지해온 시전거리 복원
- 시전의 관광, 체험 및 상품구매 등을 통해 개성한옥지구 활성화
- 기존 한옥을 정비하여 숙박시설(개성 민속려관)을 확대 개장
- 활용가옥을 구분하고, 변형 및 훼손 가옥을 정비하여 원형을 회복한다.
 - 수공업, 상업용 한옥으로 복원하여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
 - 가옥 외부는 전통양식(가옥 외벽, 지붕)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내부는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개조를 허용한다.
 - 가옥 및 담장 보수공사 등 사업추진 시 설계·시공과정에서 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원형고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차장 및 안내센터

- 주차장 및 안내센터 건립

● 토지이용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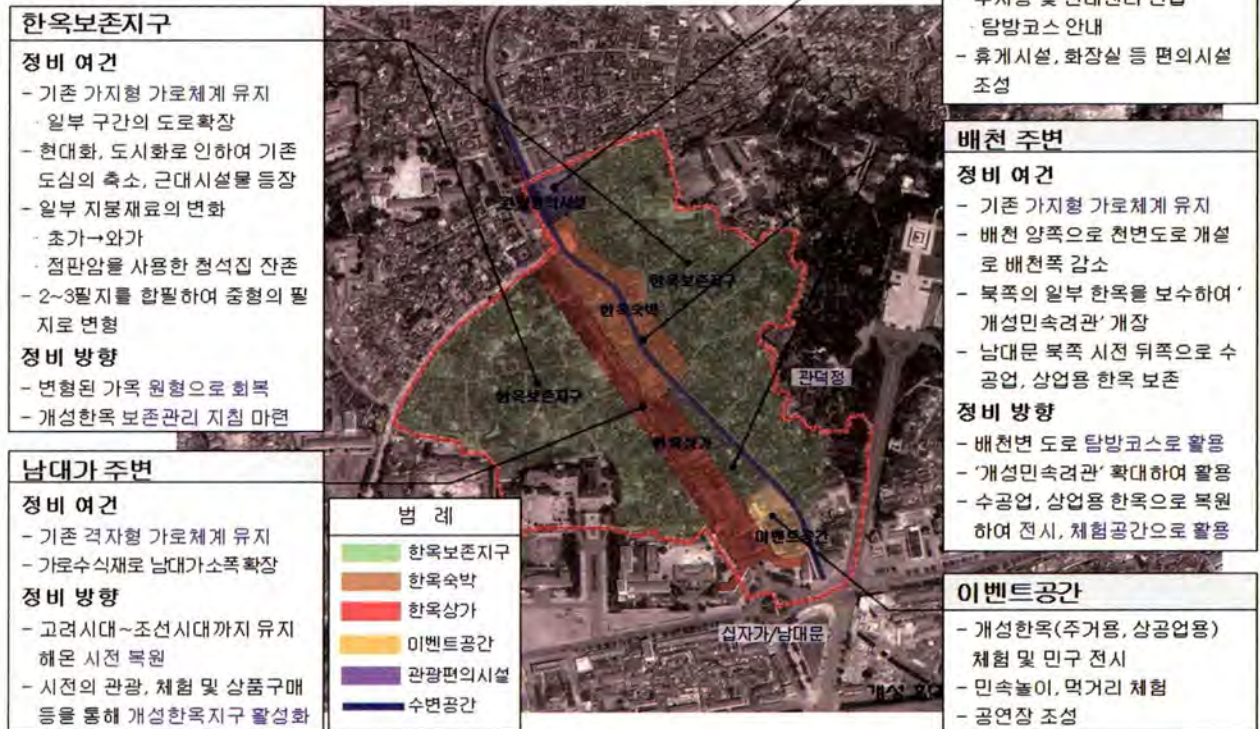


그림 24. 토지이용구상

- 한옥보존지구와 활용구간을 구분하여 탐방코스 안내
-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4) 이벤트 공간

- 개성한옥(주거용, 상·공업용) 및 민구 전시 및 체험
- 민속놀이, 먹거리 체험 / 공연장 조성
- 공연장 조성

(5) 개성 성곽 복원

- 개성 남대문 좌우의 성곽단절구간은 장기적으로 발굴조사 후 복원하여 개성 성곽의 원형을 회복한다.

7) 교통체계구상

(1) 차량통제를 통한 보행자 중심도로

- 개성한옥지구 전통도시공간구조 회복
 - 1900년 이전의 골목길과 올레를 복원하여 개성한옥지구의 전통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회복한다.
 - 개성한옥지구 내부로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비스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교통체계구상

▶ 기본방향

- 차량통제를 통한 보행자 중심도로
- 남대가, 배천변 도로는 차량 중행을 제한하고 서비스 동선으로만 활용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보행체계 구축

▶ 관람객 동선과 거주자 동선 구분

- 관람객(배천 좌측천변도로~남대가로 관광 제한)
 - 1코스(순환) : 안내센터~배천변~개성 남대문~남대가(시전거리)~안내센터
 - 2코스 : 개성남대문~관풍대~김일성동상~송양서원
- 거주자
 - 자남동(배천 우측천변도로 남쪽과 북쪽으로 진입), 북안동(서쪽으로 진입)
 - 축제, 행사 시 일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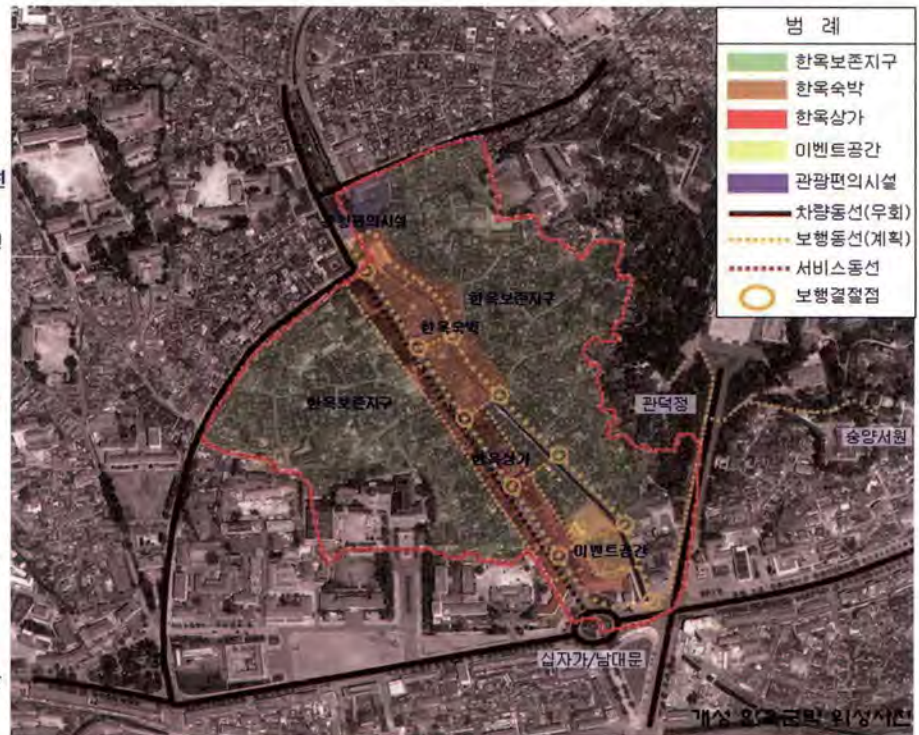


그림 25. 교통체계구상

- 십자가 중 남대가 도로는 보행전용도로로 하여 개성한옥지구의 관람동선과 자연스럽게 연계한다.
- 대형주차장과 개성한옥지구의 연계
 -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차량을 통제하고, 관광객은 도보와 셔틀을 이용하여 남문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한다.

(2) 관람객 동선과 거주자 동선 구분

- 역사문화자원(남대가~배천~개성남대문)을 활용한 보행체계 구축
- 관람객(배천과 남대가 주변으로 관광 제한)
 - 1코스(순환) : 안내센터~배천 좌측 천변도로~개성 남대문~남대가(시전거리)~안내센터
 - 2코스 : 개성남대문~관풍대~김일성동상~송양서원
- 거주자
 - 자남동(배천 우측 천변도로를 통한 진입)과 북안동(서쪽으로 진입)의 거주자 동선을 관람객 동선과 구분하여 충돌을 피함
 - 축제, 행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내부 골목길 탐방

8) 종합구상도

(1) 정비 기준연도

- 복원기준연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역사적 흐름과 변화상 파악
 -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 기준인 1950년 이전
- 복원기준연도 : 고려말~조선시대 / 일제강점기~1950년 이전 / 1950년 이후~현재
 - 자료의 한계로 차후 현장조사 시 검토하여 복원기준연도를 설정한다.

(2) 개성한옥지구의 도시공간 구조 회복

- 고려시대 개성의 십자가(‘十’자형 가로망) 회복
- 개성 남대문~남대가를 잇는 남북 간선도로 우선 회복
- 남대가 주변 격자형 가로체계(상가거리 복원), 자남동·북안동 일대 가지형 가로체계 회복
- 배천과 남대가 주변의 상·공업용 한옥의 경우 전시, 체험 등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자남동, 북안동의 한옥보존지구 내 주거용 한옥은 원형을 회복하여 보존
- 한옥보존지구 조정
 - 일부 근대화된 부분은 한옥보존지구에서 제외

(3) 개성한옥의 원형 회복 및 활용

- 개성한옥을 항공사진(2011년)의 한옥지붕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필지 일치(원형유지) 여부에 따라 분류 후 보수·정비
- 배치, 평면형태 등 개성한옥의 특징(튼 □자형 배치, ㄱ자형 평면 등)을 검토 후 보수·정비
- 배천변 한옥, 1면·2면 도로에 면한 한옥, 남대가 주변 상점 및 공장 딸린 한옥 등 유형별로 도로와의 관계를 원형고증 후 보수·정비
- 기와집, 돌너와(청석)집, 초가집 등으로 민가복원(자남산 자락, 북안동 서편으로 돌너와(청석)집, 초가집 일부 회복)
- 개성한옥 정비 후 보존과 활용을 구분 : 활용가옥에 민구(수공예, 공업, 농업 관련) 전시 및 개성한옥 체험공간 조성

(4) 한옥숙박시설

- 숙박시설(개성민속려관)의 확대 개장
 -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개성을 찾는 관람객 증가 예상
 - 현재 숙박시설에 약 120~140명/19동 1일 수용 가능(1동 6~7실, 1실1인 기준)
 - 숙박시설을 약 180~210명/일 수용 가능하도록 확대(19동→30동)

(5) 상가지역(시전거리)

- 남대가 좌우로 시전거리 회복하여 한옥상가거리로 활용
- 남대가 시전거리 뒤쪽을 수공업, 상업용 한옥으로 복원

(6) 관광편의시설

-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휴게실, 안내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부족
- 차량동선과 연계하여 주차장 및 안내센터 건립
- 휴게시설, 화장실, 안내판 등 관광편의시설 정비

(7) 이벤트공간

- 개성한옥지구만의 독특한 체험, 먹거리 등 부족
- 이벤트공간을 마련하여 개성한옥, 민속놀이, 먹거리 등 체험
- 공연장을 조성하여 개성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

(8) 관광

- ① 이동방법 : 남측 도라산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경수속을 하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후 북측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경수속을 밟는다.
- ② 관광코스 : 오전에는 관음사, 박연폭포, 왕건왕릉, 공민왕릉, 남대문을 둘러보고 통일관과 민속여관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오후에는 송양서원, 선죽교, 표충비, 영통사, 고려박물관을 둘러본다.
- ③ 관광일정 : 7시부터 8시30분까지 입·출경 수속 후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개성관광을 한 후 16시 3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입·출경 수속을 하게 된다.
- ④ 관광코스 제안 : 개성한옥을 볼 수 있도록 남대문~만월대 코스 추가
개성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 기대효과를 높임

● 기본구상도

정비 기준년도

- 고려~조선시대 : 발굴조사
- 일제강점기 : 지적원도, 사진
- 해방 이후 : 항공사진

개성한옥지구의 도시공간 구조 회복

- 고려시대 개성의 십자가(‘十’자형 가로망) 회복
- 개성 남대문~남대가를 잇는 남북 간선도로 우선 회복
- 남대가 주변 격자형 가로체계, 자남동·북안동 일대 가지형 가로체계 회복(골목길 복원)
- 남대가 주변의 상업용 한옥과 자남동, 북안동의 주거용 한옥 구성 회복

한옥숙박시설

- 개성민속려관 확대
- 기존 한옥을 보수하여 활용

한옥보존지구 조성

- 일부 근대화된 부분은 한옥보존지구에서 제외

범례

- 한옥보존지구
- 한옥숙박
- 한옥상가
- 이벤트공간
- 관광편의시설
- 차량동선(우회)
- 보행동선(계획)
- 수변공간(정비)
- 한옥보존지구

관광편의시설

- 대형주차장 및 안내센터
-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개성한옥의 원형회복

- 기와집, 청석집, 초가집 등 민가 복원(자남산자락, 북안동 서면으로 청석집, 초가집 일부 회복)
- 민구(수공업, 공업, 농업 관련) 전시
- 개성한옥체험촌 조성

상가지역(시전거리)

- 남대가 좌우로 시전거리 회복하여 한옥상가거리로 활용
- 남대가 시전거리 뒤쪽을 수공업, 상업용 한옥으로 복원

이벤트공간

- 개성한옥 체험
- 민속놀이, 먹거리 체험
- 공연장 조성

그림 26. 개성한옥 보존지구 종합정비계획 구상도

표 5. 개성한옥 정비기준

구분	A형 (일치하는 경우, 1900년 이전 건립)	B형 (2~3필지를 차지하는 경우, 1912년 이후 건립)	C형 (불일치하는 경우, 남북분단 이후 신축)
기본 원칙	• 개성한옥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 하고 있는 가옥은 원형대로 보존 - 튼'ㅁ'자 배치, 'ㄱ'자 평면, 집약적·내향적 공간구성, 안채(안방은 크고 대청은 좁음, 부엌은 건물 끝에 위치) 구성, 사랑채의 생략 및 약화 등 - 실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 금지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 - 대지의 통합이나 분할 금지, 가옥의 배치·마당·담장 등 전체적인 공간구조 유지, 변형된 것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		
정비 방향	• 방 및 공간 - 전통평면은 원형 유지 - 내부구조의 원형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의 용도변경 및 통합 가능 - 별동의 신축 금지	• 방 및 공간 - 외형의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용도변경 및 실 통합 가능	
	• 부엌 • 평면 변형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엌 및 방에 설치 • 가옥 구조 및 외형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부엌 설치 가능	• 부엌 - 외형의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부엌 설치 가능	
	• 화장실 및 욕실 - 가옥 구조 및 외형 변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화장실 설치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 설치	• 화장실 및 욕실 - 외형 변형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화장실 설치 - 생활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및 욕실에 한하여 별동의 신축 가능 - 별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외형은 가옥에 어울리는 전통양식, 내부는 현대식 설비	
	• 지붕, 창호 등 외형 및 전통재료 - 전통양식 및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원형 유지	• 지붕, 창호 등 외형 및 전통재료 - 전통양식 및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원형 유지	

(9) 개성한옥의 정비계획

① 개성한옥 정비기준 : 항공사진(2011년)의 한옥지분선과 지적원도(1912년)의 필지 일치(원형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성한옥의 등급을 분류하여 정비 추진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② 단계별 개성한옥 정비계획

가. 단 기 :

- 남대문 앞쪽의 남대가 주변, 배천 주변 등 주요가로를 중심으로 변형·퇴락 가옥을 우선 정비하여 탐방로와 연계하여 활용
- 주거용, 상업용 한옥 보존·정비
- 원필지의 한옥 보존·정비

나. 중·장기 :

- 개성방직공장 부지 남대가의 변형·퇴락 가옥 정비
- 자남동, 북안동의 한옥보존지구 내 변형·퇴락 가옥 정비

9) 단계별 정비계획

(1) 단기 정비계획

① 남대가~배천 주변

- 탐방로 정비 : 남대가, 배천변, 관덕정, 송양서원, 남대가~배천 골목길 등
- 남대문 앞쪽부터 남대가 좌우로 시전 복원(십자가 북쪽)
- 배천변 수변공간 정비 및 인접한옥 보수

② 한옥보존지역(자남동, 북안동)

- 남대가 북쪽 시전 뒤쪽으로 수공업, 상업용 한옥 보존정비
- 골목길 포장 및 담장 정비, 가로등 설치

③ 관광편의시설

- 매표소 및 안내센터 건립 / 주차장 조성
-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 안내판 및 음수대 설치

(2) 중·장기 정비계획

① 남대가~배천 주변

- 개성방직공장 주변 시전 복원
- 개성민속려관 확대(19→30동)
- 남대문 좌우성벽 일부 복원 / 십자가 동서방향으로 개성 성곽 및 가로 형상화

● 단계별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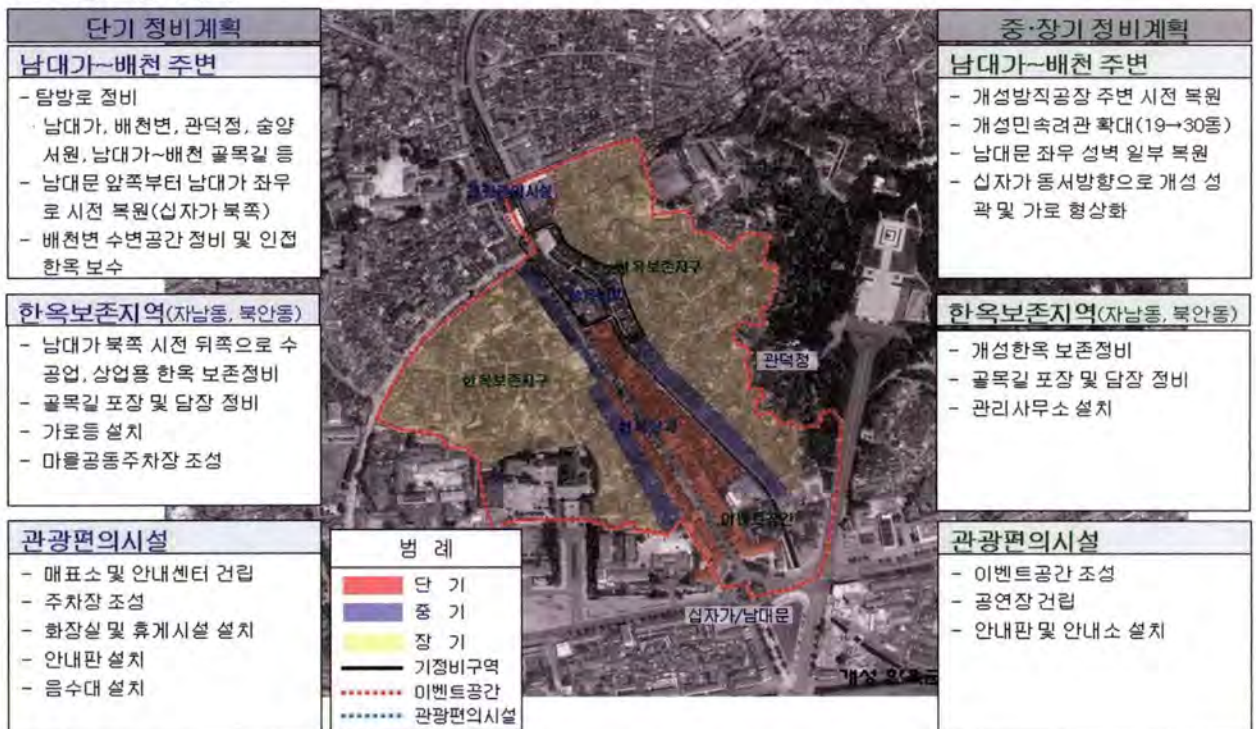


그림 27. 개성한옥 보존지구 단계별 정비계획 구성

② 한옥보존지역(자남동, 북안동)

- 개성한옥 보존정비
- 골목길 포장 및 담장 정비 / 관리사무소 설치

③ 관광편의시설

- 이벤트공간 조성 / 공연장 건립
- 안내판 및 안내소 설치

4. 사업추진계획

1)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

(1) 기본원칙

- 개성한옥지구 종합정비사업은 주변경관을 포함하여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성특급시와 북한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 원형보존만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되며 주민소득향상에 도움이 됨을 인식한다.

(2) 기본방향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부문별, 단계별, 사업내용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성격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기반시설, 비수익성·수익성 사업 등 사업성격에 따른 정부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구분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재원조달방향

- 개성한옥지구 종합정비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관계기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재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다.
- 북한측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원조달을 위해 재정능력이나 현실적 여건을 바탕으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림 28. 개성한옥 보존지구 정비구상 조감도

Ⅲ.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제작

1. 현황분석

1) 도면제작 대상

- 위 치 : 자남동(지정)으로 추정
- 주변여건 : 전면이 도로에 면해 있고, 안채와 사랑채의 좌향으로 보아 남향한 대지에 위치함
- 건축연대 : 20세기 초로 추정 (용자유리창, 벽돌로 쌓은 화방벽, 아래층의 일본식 살창 등이 근거)

2) 도면제작 참고자료

(1) 도면자료

- 평면도, 단면도(1933년 제작) : 「조선과 건축」, 노무라 다카부미, 1933년
- 평면도, 단면도(1997년 제작) : 「조선의 주거건축」, 노무라 다카부미, 1997년
- 개성의 살림집 평면도(19세기초) : 「조선건축」, 제12호

(2) 스케치 자료

- 지정 조씨댁 내·외부 스케치 : 「조선과 건축」, 노무라 다카부미, 1933년
- 개성한옥 전경 :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 제1책」, 1924년

(3) 사진자료

- 지정 조씨댁 내/외부 사진 : 「조선과 건축」, 노무라 다카부미, 1933년
- 개성역사유적지구 내 한옥 사진 : 「일본지리풍속대계」,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 제1책」
- 1920년대 배천부근의 한옥 전경 : 「조선의 민속전통3」,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1997년

(4) 학술자료

- 「조선건축사」, 리화선
- 「북촌한옥실측도면집」, 서울특별시,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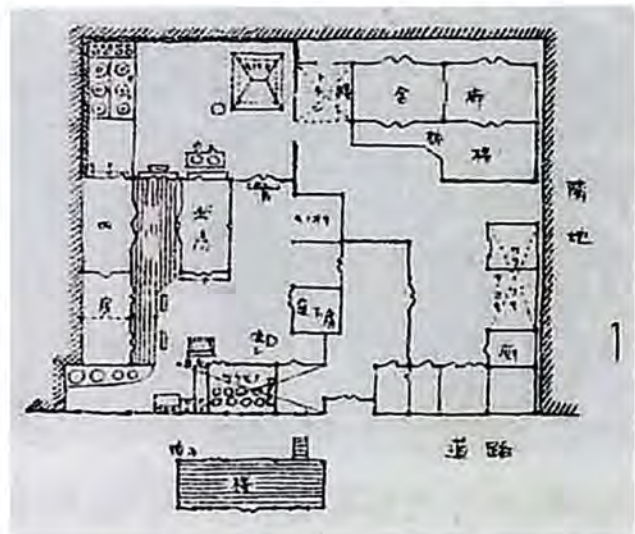


그림 29. 자남동 조씨댁(개성 상업자본가 조씨 집)

- 「북한향토사학자가 쓴 개성이야기」, 송경록, 2000년
- 「한국의 건축문화재-경기편」, 김홍식 · 김왕직, 2012년
- 「한국의 전통건축 제4집-민가건축1」, 대한건축사협회,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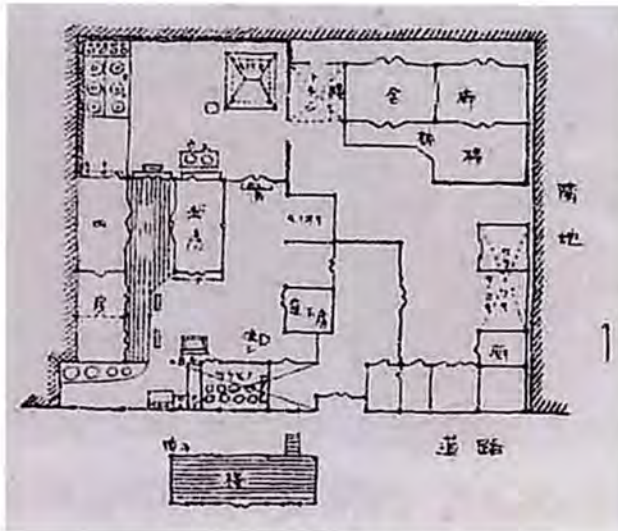


그림 30. 1933년 「조선과 건축」, 노무라 다카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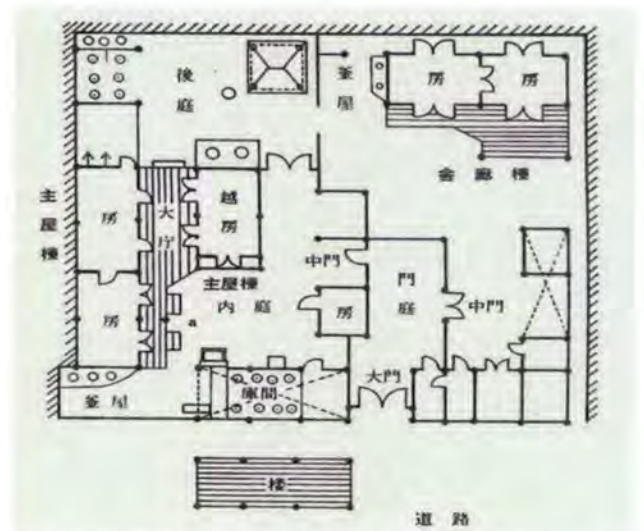


그림 31. 1997년 「조선의 주거건축」, 노무라 다카부미

3) 개성한옥의 특징

개성한옥은 경기도라는 지역적 보편성과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이라는 특징, 개성의 독특한 도시구조가 갖는 특수성과 농업경제와 상업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특수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 ① 중부지방형 민가 : 중부지방형 민가 특징을 보이며, 안채의 평면은 중부내륙 지방에서 보는 가장 정형된 ㄱ자 모양이다. 안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이루어졌고, 안방과 부엌은 남쪽에 면해 있다.
- ② 파리집 혹은 튼'ㅁ'자집 : 대체적으로 튼'ㅁ'자형 배치에 'ㄱ'자형 안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③ 도시형 한옥 : 밀집되는 도시에 위치하여 남향을 포기하기도 하는 집약적인 공간구조를 가진다.
- ④ 내향적인 공간구성 : 대부분 상인인 남성들의 긴 외유에 대비하여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동선 구조와 함께 각 실이 구성되었다.
- ⑤ 안채와 대청의 크기 : 안채 중 큰방은 긴 통간으로 실을 구성한다. 'ㄱ'자집 중에서도 대청이 한 칸 정도로 좁은 특징을 지닌다.
- ⑥ 부엌의 위치 : 꺾임부와 몸체의 가운데에 크게 대청마루를 놓고, 부엌은 오히려 건물의 끝 공간에 배치하였다. 부엌에 연달아 2칸의 안방과 옷방을 붙이고 꺾어져서 대청과 건넌방을 두는 방식이다.
- ⑦ 사랑채의 생략과 약화 : 상업이 발달한 개성에서 객지생활이 많은 남성공간(사랑채)이 약화되었다.

4) 사례연구

(1) 경기도 민가⁹⁾

- ① 배치 및 평면구성 :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며, ‘二’ 자형, 튼 ‘ㄷ’ 형, 튼 ‘ㄱ’ 자형으로 배치
- ② 평면형태 : ‘ㄱ’ 형 건물이 많이 나타나며, 바깥채는 사랑방, 대문간, 헛간, 광, 외양간 등으로 구성
- ③ 마루의 구성 : 안채의 회침 아래 공간의 쪽마루는 대부분 안방과 부엌에 면하여 세로축 방향으로 구성되며, 뒷마루는 대청 전면 가로축 방향으로 구성하고 집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방과 부엌에 면한 세로축 방향으로 뒷마루 구성
- ④ 마당공간 : 안마당, 뒷마당, 바깥마당으로 매우 발달된 문화의 양상을 보이며, 그 쓰임새와 공간의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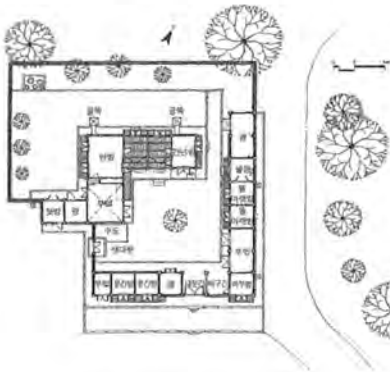


그림 32. 경기도 민가
(양주 백수현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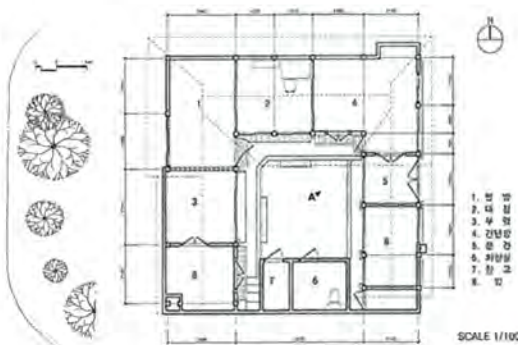


그림 33. 도시형 한옥
(북촌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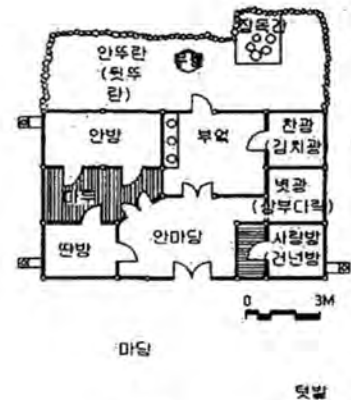


그림 34. 강화도 민가
(교동면 황경준 가옥)

(2) 도시형 한옥¹⁰⁾

- ① ‘ㄷ’자 또는 ‘ㄱ’ 자형의 채 구성 : 서울의 1900년대 도시한옥의 경우 계획적 필지에 지어진 것으로, ‘ㄱ’자형 안채를 중심으로 문간채와 부속채 등이 결합되어 ‘ㄷ’자 또는 ‘ㄱ’ 자형으로 구성
- ② 외부공간의 축소 : 건폐율이 높아지면서 바깥마당, 뒷마당, 안마당 순으로 외부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좁은 대지로 인해 외부공간 집약
- ③ 평면구성 : 경기도 민가(튼 ‘ㄱ’ 자형 한옥의)의 안채 평면구성과는 거의 변화가 없음, 사랑채가 없는 구성을 보이기도 함, 대지의 조건 등에 따라 바깥채의 구성이 달라지게 됨, 바깥마당은 바깥채의 앞쪽에 좁은 폭으로 남겨지며, 열린 방향도 도로쪽으로는 완전히 닫히게 되고 안마당을 향해 개방

(3) 강화도 민가¹¹⁾

- ① 일반적 특징 : 한일합방 이전에는 ‘ㄱ’자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부터 평면에

9) 정연성,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평면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003년 12월 참조.
김동욱,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전통민가의 가치와 경기문화재단 조사의 의의』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003년 12월 참조.
이경미,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구조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년 12월 참조.

10) 송인호 『북촌 튼ㄱ자형 한옥의 유형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년 12월 참조.

송인호 · 김영수, 『북촌도시한옥의 지붕가구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4권, 2005년 12월 참조.

11) 이희봉 · 권오경, 『거주자의 문화를 통해 본 강화도 최소중정형 특입구자집(11형 평면)의 해석』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년 12월 참조.

변화가 생겨 ‘ㄷ’자형이나 ‘ㄴ’자형 등장, 강화도 민가는 외부에서는 폐쇄적이지만 내부에서는 개방적, 내부공간에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나, 외부공간에 있어서는 마당이 분리가 뚜렷, 마루의 설치보다 흙바닥을 사용하여 봉당의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화되어 있음

- ② 배치 : 강화도 서북부 지방의 독특한 주거형태, 좌우대칭 외관의 폐쇄형 완결형태를 보이고, ‘ㄱ’자 형태의 지붕사이에 좁은 안마당이 형성되고, 트인 정중앙 끝에 담을 막고 대문을 뒀, ‘ㄱ’자의 터진 쪽으로 담과 대문을 달아서 안마당과 마당의 분화 발생
- ③ 안방 : 안방은 노동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2:1에 가까운 정방형이지만 분화가 일어나지 않음, 방은 3개로 구성되어 있음, 안부분 본체에는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안방과 거른방이 위치, 안방 앞에 부엌이 한 날개로 꺾임, 다른 날개는 거른방 아래쪽에 외부로 연결되는 사랑방 또는 벚광으로부터 시작됨, 벚광이 안체에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강화도는 섬이지만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벼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④ 봉당, 거른방(건넌방) : 봉당은 널문이나 떠살문으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고, 바닥은 흙으로 구성, 마루를 봉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원래 흙바닥이었음을 알 수 있음, 거른방은 건넌방이라고도 하며 ‘함실방’이라 불릴 정도로 함실아궁이가 일반적으로 설치됨, 굴뚝도 다른 벽에 붙은 허담지 굴뚝 등의 간이굴뚝이 많이 사용
- ⑤ 부엌 : 안방 옆으로 위치하여 안마당과 뚜란 벚광 등과 연계되어 다른 공간보다 이용밀도가 높음, 바닥은 다른 부분의 지면보다 다소 낮음
- ⑥ 뚜란(뜰) : 주로 부엌과 안방 뒤쪽에 형성되며 부엌으로만 출입이 가능, 높은 담으로 뜰안의 기밀성 유지

2. 기본계획도 제작

1) 평면계획

- ① 배치 : 길가로 일정하게 행랑채가 가고 중앙에 대문이 있는데 들어가면 바깥마당에 해당하는 올래가 있고 양쪽으로 살림집이 있는데 왼쪽은 안채이고 오른쪽이 사랑채이다, 행랑에서는 소매를 하고 안채, 사랑채에서 도매가 이루어짐
- ② 안채 : 안채 영역은 ‘ㄱ’자형 평면에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의 비교적 작은 대청을 가운데 두고 건넌방과 안방이 있으며, 안방과 연이어 방과 부엌이 자리잡고 있음, 건넌방과 안방의 문을 개방하여 대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온돌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뒷마당이 마련되어 있음, 뒤란 한 쪽에는 뒷간(아니면 조그만 정자)이 자리함
- ③ 사랑채 : 사랑채는 7칸 ‘ㄱ’자집(곱은자집)으로 구성, 사랑채 마당은 올래(대문에서 중문으로 가는 통로)가 파고 들어서 마당은 ‘ㄱ’자처럼 만들어졌음
- ④ 부속채 :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에 도로에 면한 행랑에는 부엌과 대문간, 하인방, 광이 일렬로 있으며, 곳간의 좌측 3칸은 이층으로 되어 있어 상층은 루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에서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어서 여름에는 실로 사용하였다고 함, 대문을 제외한 외부로의 통로가 없으며, 대문간채에는 비교

적 넓은 작업공간을 갖추고 있음, 마당 바깥으로 'ㄷ'자 행랑채가 구성되어 있음,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에 3칸의 중문채가 있음

2) 주칸분석

(1) 사례연구

① 경기도 민가 중 파리집(튼'ㅁ'자집) 주칸분석

표 6. 경기도 민가(파리집) 주칸

가옥명	지역	창건시기	주칸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곶간채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군포시 속달동24-4	안채(1783) 사랑채(1877)	2,100mm	2,100mm	1,900mm	1,900mm
양주 백수현가옥	양주군 남면 매곡리282-3	1870년경	2,450mm	2,450mm	2,310mm	2,310mm
이항로선생 생가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535-6	미상	2,500~2,800mm	2,400mm	—	2,400mm
화성 정용채가옥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109	안채(1887이전) 사랑채(1887년)	2,400~2,610mm	2,400mm	—	2,400mm
홍승인 고가	화성시 정남면 문학1리 628	조선말기	2,450mm	2,450mm	2,450mm	2,450mm
명성황후 생가	여주군 여주읍능현리250-2	1687년	2,100mm	2,100mm	2,100m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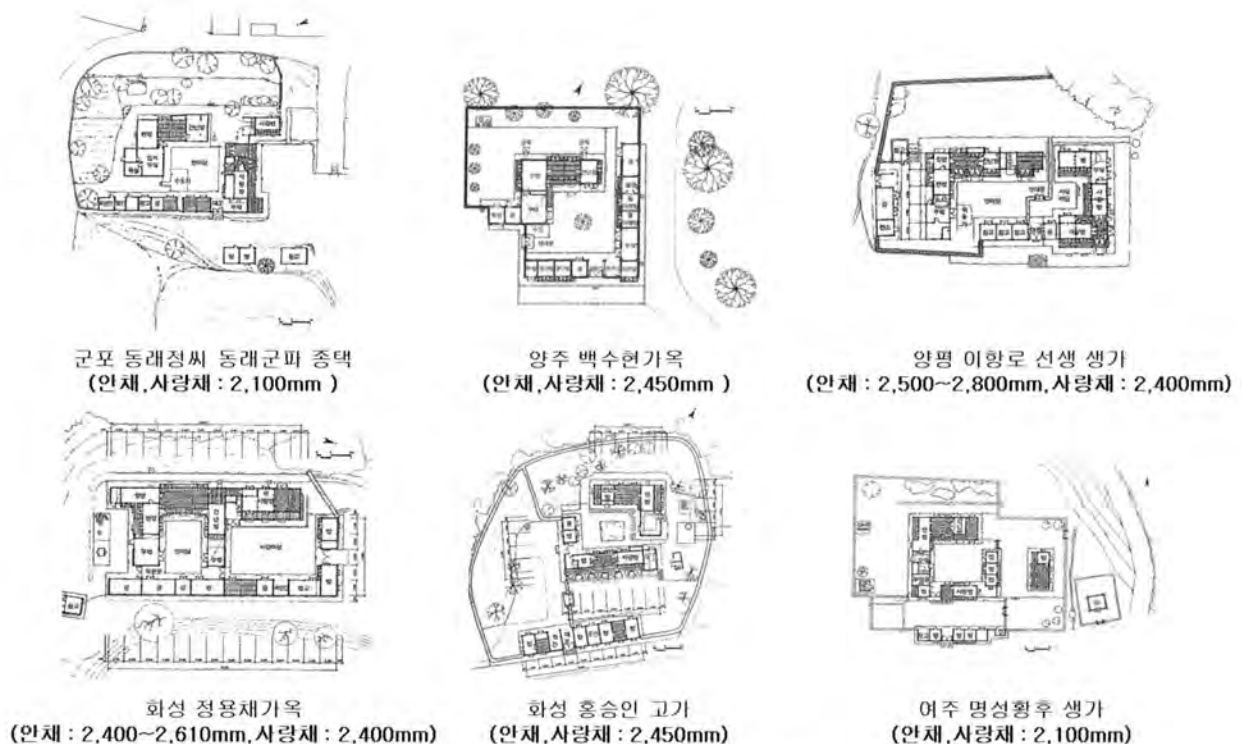


그림 35. 경기도 민가의 평면도와 주칸

② 북촌한옥 중 'ㄱ'자집의 주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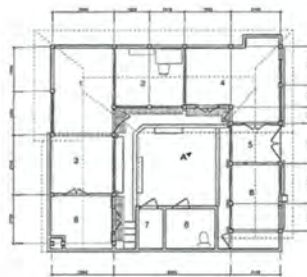
집 주소	건축면적	주간		
		안방	건넌방	사랑방
계동 2-54	42.31(m ²)	2,000mm	1,820mm	2,490mm
삼청동 35-129	52.89(m ²)	2,680mm	2,140mm	1,830mm
계동 67-3	57.19(m ²)	2,130mm	2,150mm	2,130mm
계동 32-11	76.03(m ²)	2,720mm	2,740mm	2,720mm
계동 140-39	70.74(m ²)	2,470mm	2,300mm	2,140mm
계동 38-3	56.19(m ²)	2,750mm	2,140mm	2,140mm

(2) 분석결과

항목	1933년	1997년	검토사항	검토결과
주간	도면의 축척 확인 불가	도면의 축척은 1/100로 추정됨	경기도 민가와 북촌의 한옥들의 주칸을 참고하여 안채의 주칸을 결정함	기준은 7.5자(2,250mm)로 결정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주칸의 크기를 조절하여 계획



계동 2-54
(안방 : 2,000mm, 사랑방 : 2,490mm)



삼청동 35-129
(안방 : 2,680mm, 사랑방 : 1,830mm)



계동 67-3
(안방, 사랑방 : 2,130mm)



계동 32-11
(안방, 사랑방 : 720mm)



계동 140-39
(안방 : 2,470mm, 사랑방 : 2,1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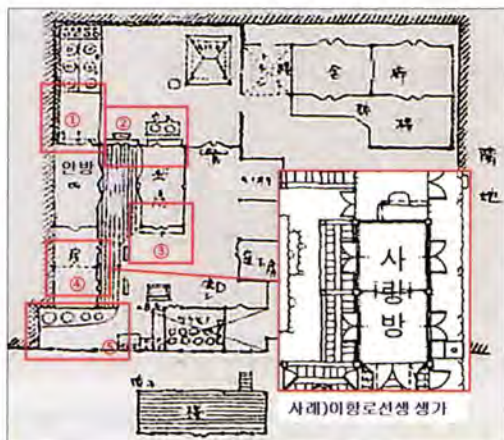


계동 38-3
(안방 : 2,750mm, 사랑방 : 2,1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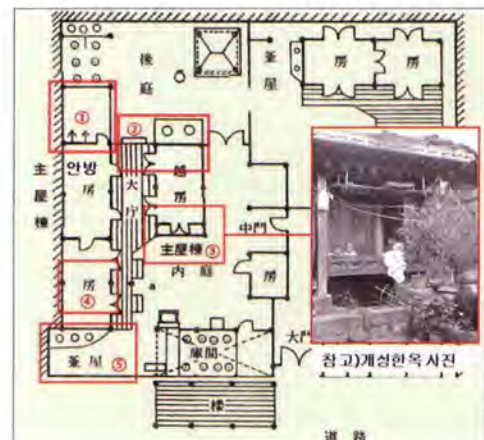
그림 36. 북촌한옥의 평면도와 주간

(3) '자남동 조씨택' 안채 세부평면계획

항목	1933년과 1997년 재작 평면도 비교			검토사항	평면계획
①공간	• 쪽마루를 통해 후원으로 나갈 수 있음	➡	• 벽체를 두른 후 내부공간(옷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안채의 내부공간 확장을 위해 옷방을 만든 것으로 판단됨	• 안방에서 여닫이 문을 통해 옷방(내부작업실)으로 이동가능하도록 계획
②공간	• 건넌방에서 후원으로 나가는 경로가 있고, 방과 떨어져서 온돌시설을 설치함	➡	• 외부로 나가는 문이 없이 방에 바로 붙어서 온돌이 설치되어 있음	• 건넌방의 난방을 위해서 건넌방 후면 벽에 붙여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후원으로는 대청을 통해서 가도록 하고 건넌방의 후면은 난방을 위한 자리로 계획
	• 대청에서 후원으로 디딤돌 두 개를 밟고 나갈 수 있도록 함	➡	• 대청에서 후원으로 나가는 곳에 큰 디딤돌이 하나 놓여 있음	• 북측면 안채 대청마루와 바닥레벨간의 크기차이에 많이 남 • 안채 후면은 기단 내밀기가 없음	• 안채 북측은 대청마루와 바닥레벨간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하여 디딤돌 2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③공간	• 기둥밖으로 쪽마루를 덧달아 내어 사용함	➡	• 기둥 안쪽에 툇기둥을 세워 툇마루(들마루)를 설치함	• 안채 전면에 반칸 정도의 툇마루(들마루)를 내어 사용하는 집이 발견됨	• 기단에서 레벨을 띄워 툇마루(들마루)를 설치함
④공간	• 아래방의 공간을 네쪽미서기문을 통해 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함	➡	• 아래방의 공간을 통간으로 사용하여 내부 공간을 넓게 사용	• 세로방향으로 상당히 긴 방(15자) 사이에 미서기문을 달아 구획하는 것이 타당함	• 필요 시 떼어낼 수 있는 미서기문을 달아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⑤공간 (부엌)	• 행랑채 바깥 기둥열에 따라 기둥을 두 개 더 설치하여 부엌을 만들	➡	• 부엌의 서면과 남면을 담으로 구성하여 부엌을 만들	• 외부벽면은 기둥을 세우고 사괴석담장을 쌓는 형태가 일반적임	• 안채 세로 기둥열과 일치시켜 기둥을 세우고 독집형태로 부엌벽체를 계획



1933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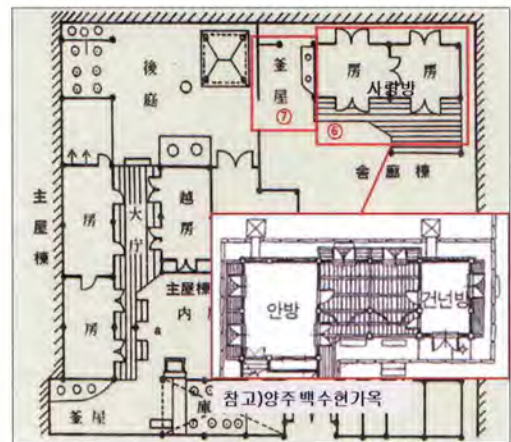
1997년 평면

(4) 사랑채 세부평면계획

항목	1933년과 1997년 재작 평면도 비교			검토사항	검토결과
⑥공간	• 대청의 정면과 후면 모두 두짝 여단으로 사용함	→	• 좌동	• 정면은 사분합문으로, 후면은 우리판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랑방 정면은 사분합문으로 후면은 판문 두짝 여단으로 계획
	• 사랑방을 4짝 미서기문으로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 사랑방을 2짝 미서기문으로 두 영역으로 구분	• 사랑방 공간이 한방으로 사용하기에는 넓기 때문에 두 공간으로 분리하여 사용함	• 필요시 떼어내고 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짝 미서기문으로 사랑방을 구획
⑦공간	• 온돌공간을 사랑방 퇴칸 벽장아래에 설치한 것으로 추측	→	• 사랑방 난방을 위한 아궁이를 부두막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	• 사랑방 함살아궁이를 사랑방 벽장아래에 두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함	• 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해 아래는 아궁이를 만들고 위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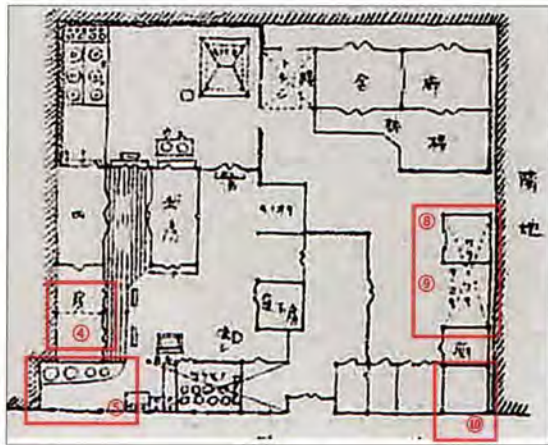
1933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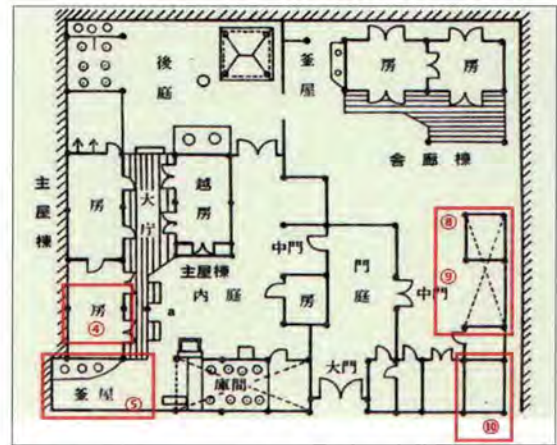
1997년 평면

(5) 곳간채 세부평면계획

항목	1933년과 1997년 재작 평면도 비교			검토사항	검토결과
⑧공간	• 광채로 추정되며, 사랑마당방향으로 미단이 문 설치	→	• 광채로 추정되나, 사방이 벽으로 다 막혀있는 공간임	• 광채에 드나드는 물품을 고려해 두짝여단이 창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임	• 두짝여단이문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반층정도 레벨에서 마루바닥을 설치함
	• 반층 높이에서 바닥을 설치한 것으로 추측	→	• 좌동	• 수납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복층구성을 함	• 위아래 경계인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함
⑨공간	• 서쪽 중정방향으로 한면이 트여있음	→	• 좌동	• 큰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을 설치하지 않음
⑩공간	• 사방으로 벽이 둘러져 있어 문이 없음	→	• 좌동	• 실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윗공간으로 미서기문을 내어 드나들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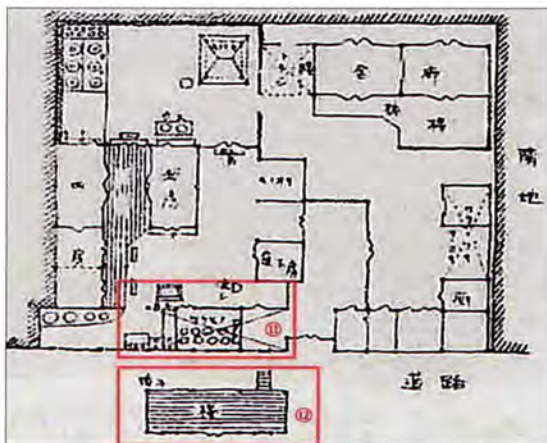
1933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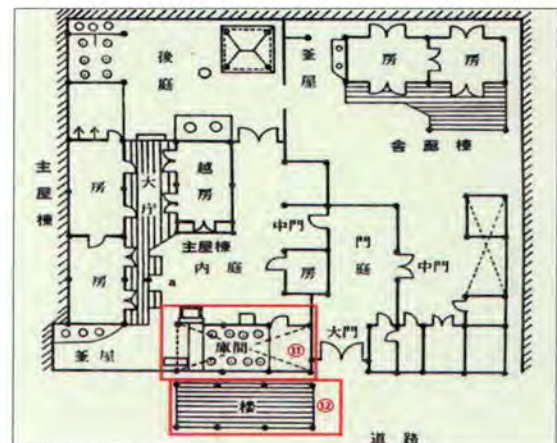
1997년 평면

(6) 행랑채 세부평면계획

항목	1933년과 1997년 재작 평면도 비교			검토사항	검토결과
㉠공간	대문을 들어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쪽 면이 일부 트여 있음	→	대문을 들어와서 좌측 중문을 돌아서 이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 안채를 외부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음	벽체로 동측면을 막고 안채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공간 (누다락)	- 정면 양협칸에는 미닫이문, 정칸에는 여닫이문 설치 - 후면 서측협칸에는 여닫이문이, 정칸과 동측협칸은 트여 있음	→	창이 표현되어 있지 않음	- 여름을 위한 공간으로 추축되며 통풍이 잘 되도록 계획함 - 노무라 다카부미의 내·외부 스케치참조	- 정면은 모두 네짝 미서기창으로, 후면은 서측협칸만 두짝 여닫이로 계획 - 동측협칸에 계단을 설치해서 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	계단이 표현되어 있지 않음	상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필요함	상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나무계단을 이용함



1933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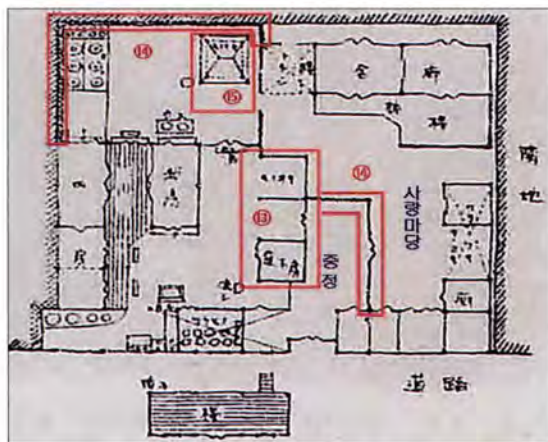
1997년 평면

(7) 중문채 세부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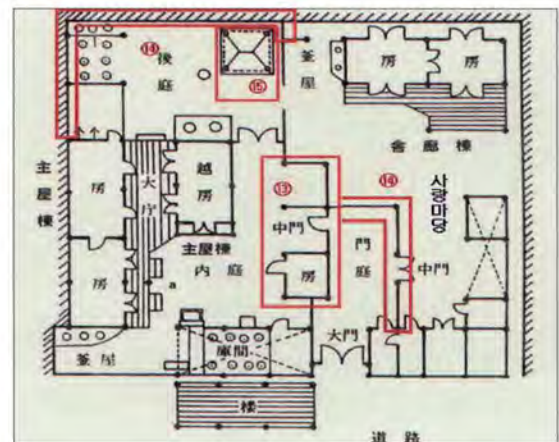
항목	1933년과 1997년 재작 평면도 비교			검토사항	검토결과
㉓공간	• 아래쪽 방의 문은 두 짝 여닫이로 설치함	→	• 아래쪽 방의 문은 한 짝 여닫이로 설치함	• 아래쪽 방은 하인이 사는 방일 것으로 판단됨	• 방의 용도와 크기가 작은 것을 고려해서 한 짝 여닫이로 계획
	• 안채방향의 중문은 두 짝 여닫이로 설치함	→	• 안채방향의 중문은 한 짝 여닫이로 설치함	• 안채의 폐쇄성을 고려한 중문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	• 중문은 한 짝 여닫이로 계획

(8) 기타

항목	1933년과 1997년 재작 평면도 비교			검토사항	검토결과
㉔담장	• 후원영역이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 것으로 추측	→	• 좌동	• 담은 상류층 반가에 걸맞은 담장 설치를 고려	• 아래는 사괴석으로 하고 위는 전돌을 사용하여 담장을 쌓음
	• 사랑마당과 중정사이에 기둥 없이 담을 돌렸음	→	• 사랑마당과 중정사이에 기둥을 사용해서 담을 돌렸음	• 사괴담은 기둥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담장은 기둥없이 사괴석담장으로 계획
㉕건물	• 정자 또는 뒷간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건물이 그려져 있음	→	• 정자 또는 뒷간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건물이 그려져 있음	• 후원영역에 있을만한 건물용도에 대한 검토 ← 장방형의 건물임을 염두	• 평면 형태상 뒷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계획



1933년 평면



1997년 평면

3) 입면·단면 계획

(1) 입면 분석

- ① 지붕 : 조선시대 개성의 주택양상은 강세황의 「개성시가도(18세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남대문을 중심으로 남대가를 따라 기와집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초가집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십자가를 따라 대부분 전통기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배후로 초가집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비율은 적지만 슬레이트나 판석 등이 지붕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개성의 돌너와집



그림 38. 개성 구릉변 초가집

- ② 화방벽 : 최근 촬영된 개성지역 한옥사진과 1900년대 초반 촬영된 배천인근의 모습을 보면 길가와 면한 도로가에는 모든 집들이 화방벽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높이는 창틀 하단까지 올라올만큼 높다. 화방벽은 방형의 지대석을 1~2단 놓고 그 위로 징두리를 사괴석으로 5~6단 쌓는다. 징두리 위로는 적벽돌을 5~6단 쌓았다. 뇌문은 보이지 않지만 긴 네모꼴로 테를 두르고 모퉁이를 접은 모습이 서울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9. 화방벽-자남동 골목길



그림 40. 개성민속려관



그림 41. 자남동 조씨댁으로 추정

- ③ 굴뚝 : 개성한옥의 굴뚝은 벽체에 붙어서 지붕을 뚫고 나와 지붕위로 올라간다.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설치된다.



그림 42. 굴뚝-개성민속려관 전경



그림 43. 굴뚝-자남동1



그림 44. 굴뚝-자남동2

- ④ 기단/초석 : 개성한옥의 기단은 대부분 가공한 장대석을 사용하였고, 초석 또한 가공석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⑤ 창호 : 세살창호를 기본으로 하되 유리로 된 창이나 미닫이 문 등 현대식으로 변형된 창호형태도 눈에 띈다.



그림 45. 창호-개성민속려관1



그림 46. 창호-개성민속려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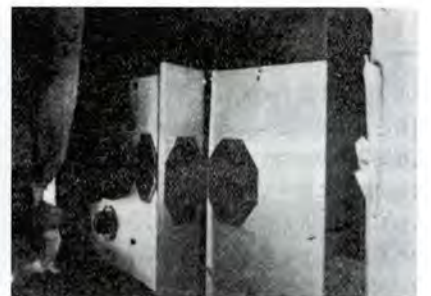


그림 47. 자남동 조씨댁으로 추정

- ⑥ 2층 구조 : 개성지역의 집들은 행랑채나 대문간채에 2층의 누마루가를 마련한 집이 많이 보인다.



그림 48. 지정 조씨댁(추정)



그림 49. 개성한옥 입구



그림 50. 이희창씨댁

이는 더 많은 수장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거밀도가 높은 개성 시가지 내의 택지내에서 공간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된다.

(2) 구조 및 양식 분석

① 안채 :

- 안채는 보칸 15자(4,500mm)인 본채에 보칸 11.5자(3,450mm)인 날개채가 전면에 남북으로 길게 붙어 있음
- 본채 북측에는 보칸 8자(2,400mm) 건물이 딸려 있음, 본채는 5량가인데 중앙에 기둥을 하나 두어 맞보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들보 위에 중도리는 대략 사분 지점에 위치시킴
- 남쪽 날개채는 전퇴가 있는 1고주 5량 가구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중도리는 대략 삼분 지점에 위치시킴
- 북쪽 부속채는 짧은 보칸을 감안하며 평4량 가구로 계획함, 회첨부에는 회첨기둥을 두지 않고 날개채의 주심도리가 본채의 주심도리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음, 경기도 민가들에서 많이 보이는 회첨부 구성방식과 일치하는 부분임
- 건축양식을 보면 보아지는 없지만,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고 그 아래 장여를 둠

② 사랑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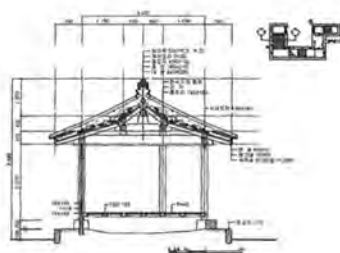
- 건축양식은 안채와 같은 양식으로 계획함
- 사랑채는 보칸 11자(3,300mm)인 본채에 보칸 10자(3,000mm)인 날개채가 동서로 붙어있음, 본채는 일반적인 무고주 5량가이며, 날개채는 전퇴가 있는 1고주 5량가로 구성
- 긴 보칸의 중도리는 사분 지점에 위치시켰고, 짧은 보칸의 중도리는 앞과 동일한 위치에 놓음
- 회첨부에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회첨기둥을 두지 않음
-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에 쓰이는 종대공은 제형대공을 사용하여 의장미를 높임

③ 대문간, 행랑, 곳간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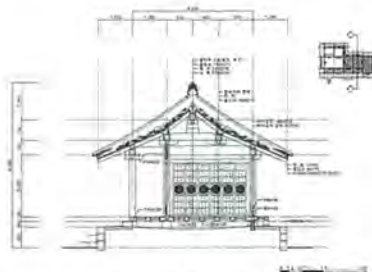
- 세 건물 모두 3량가의 단순한 가구 구조를 취하고 있음

(3) 주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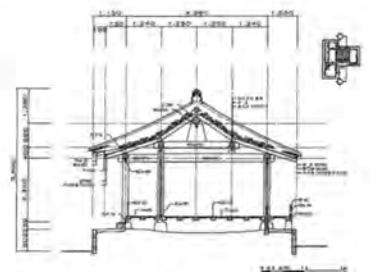
① 경기도(서울) 민가의 주고 분석



오위정 김준영가옥
(안채, 사랑채 : 2,20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안채 : 2,450mm, 사랑채:2,250mm)



도편수 이승업가옥
(안채 : 2,350mm, 사랑채 : 2,250mm)

그림 51. 경기도(서울) 민가의 단면도와 주고

가옥명	지역	창건시기	주고		
			안채	사랑채	행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서울 중구 필동2가 84-1일원	1890년대	2,220mm	2,220mm	2220
부마도위 박영호가옥	서울 중구 필동2가 84-1일원	미상	2,450mm	2,250mm	—
도편수 이승엽가옥	서울 중구 필동2가 84-1일원	1860년대 후반~ 1870년대 초반	2,350mm	2,250mm	—
여주 김영구가옥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190	1860년대	2,495mm	2,535mm	—
양주 백수현가옥	양주군 남면 매곡리 282-3	1870년대	2,370mm	2,450mm	2,225mm
궁집	남양주시 평내동 462-1	영조시대	2,350mm	2,350mm	—

② 분석결과

분석 항목	1933년	1997년	검토사항	검토결과
주고	• 도면의 축척 확인 불가	• 도면의 축척은 1/100로 추정됨	• 경기도 민가와 북촌의 한옥들의 주고를 참고하여 건물의 주고를 결정함	• 주건물의 주고는 8자(2,400mm)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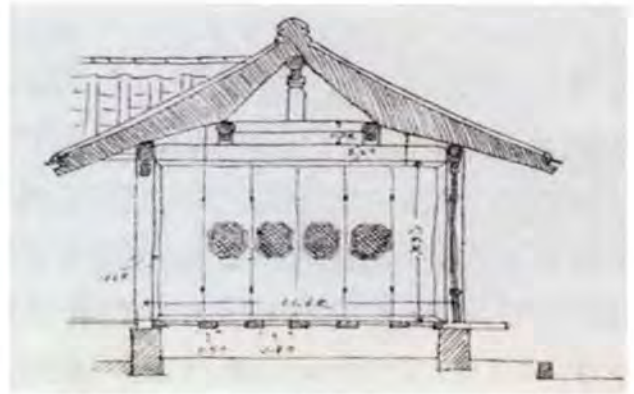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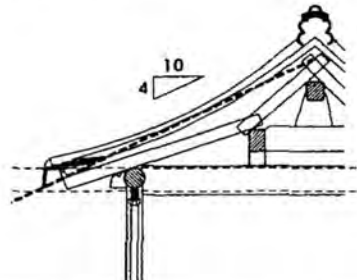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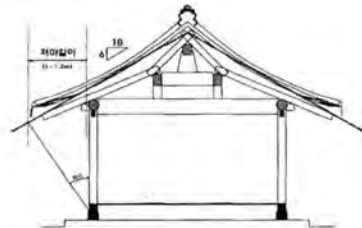


그림 52. 자남동 조씨택 사랑채 단면도
(1933년 작도, 1:30으로 추정)

(4) 안채 세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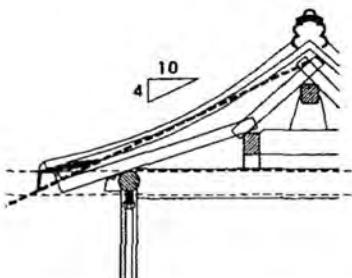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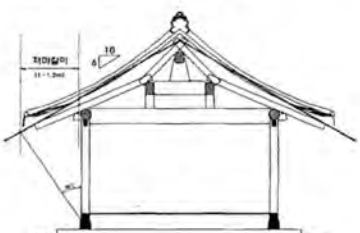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규모 (면적)	9칸	- 9칸 정도 규모의 'ㄱ' 자형으로 아랫방, 건넌방에는 전퇴를 두어 뒷마루를 설치		
기둥 단면적	180*180	- 단면스케치 참고		
도리	굴도리 D210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북촌 한옥 5채(굴도리 집에 해당)		
		가옥명 및 주소	도리 단면	도리칸 최대길이
		계동 127-6	210mm	2,410mm
		가회동 11-103	210mm	2,700mm
		가회동 127-6	210mm	2,410mm
		삼청동 35-167	210mm	2,720mm
		계동 127-7	230mm	2,580mm

12) 김영수, 송인호 「북촌 도시한옥의 기둥상부 결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2005년 11월.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물매	장연	4치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장연:4.1치, 단연:7.5치) - 지붕가구 계획 참조 *주심도리 하부에서 종도리 하부를 이은 선의 경사															
	단연	8치																
지붕 물매 (맞지름 물매)		5.3치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약 6.1치)  - 맞지름 물매를 기준으로 할 때 북촌한옥들의 물매는 보통 4치(약22도) 물매 ¹⁴⁾ *맞지름 물매: 처마서까래 끝에서 지붕마루까지 직선으로 이은 선															
처마 깊이		18도(828.6mm) (기둥외면에서 처마끝지점 까지 수평거리)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주초부터 기둥상부 보머리까지의 높이를 7자(2.1m)로 잡고 계산해 보면 전통한옥에서의 처마길이는 약 1~1.2m이다. 															
기단 내밀기	기둥 옆면에서 약 71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약 765mm)															
기단 단수	1단 270mm/2단 24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장여	75*150mm		- 북촌한옥 장여폭 평균 - 안채 단면, 입면 스케치 참고 - 경기도(서울) 민가 장여 춤 <table border="1" data-bbox="638 1376 1342 1547"><thead><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head><tbody><tr><td>도편수 이승엽가옥</td><td>80*180</td><td>75*150</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85*150</td><td>90*150</td></tr><tr><td>가회동 31-69</td><td>75*110</td><td>-</td></tr><tr><td>가회동 31-4</td><td>75*150</td><td>-</td></tr></tbody></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도편수 이승엽가옥	80*180	75*150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85*150	90*150	가회동 31-69	75*110	-	가회동 31-4	75*150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도편수 이승엽가옥	80*180	75*150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85*150	90*150																
가회동 31-69	75*110	-																
가회동 31-4	75*150	-																
대들보	240*30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대들보 크기 <table border="1" data-bbox="638 1674 1342 1808"><thead><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head><tbody><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270*330</td><td>330*420</td></tr><tr><td>도편수 이승엽가옥</td><td>240*300</td><td>240*300</td></tr><tr><td>계동 31-69</td><td>260*300</td><td>-</td></tr></tbody></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270*330	330*420	도편수 이승엽가옥	240*300	240*300	계동 31-69	260*300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270*330	330*420																
도편수 이승엽가옥	240*300	240*300																
계동 31-69	260*300	-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종보	180*210mm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서울·경기도 민가 대들보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65*210</td><td>180*210</td></tr><tr><td>도편수 이승업가옥</td><td>165*250</td><td>165*240</td></tr><tr><td>계동 31-69</td><td>260*300</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5*210	180*210	도편수 이승업가옥	165*250	165*240	계동 31-69	260*300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5*210	180*210																					
도편수 이승업가옥	165*250	165*240																					
계동 31-69	260*300	—																					
화방벽 높이	1,610mm 초석하부면부터	서울·경기도 민가 화방벽 높이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대문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680mm</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610mm</td></tr><tr><td>계동 2-39</td><td>1,615mm</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대문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68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10mm	계동 2-39	1,615mm													
가옥명 및 주소	대문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68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10mm																						
계동 2-39	1,615mm																						
서까래	D=120mm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서울·경기도 민가 서까래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05mm</td><td>105mm</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20mm</td><td>135mm</td></tr><tr><td>가회동 31-69</td><td>120mm</td><td>—</td></tr><tr><td>계동 2-39</td><td>120mm</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05mm	105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20mm	135mm	가회동 31-69	120mm	—	계동 2-39	120mm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05mm	105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20mm	135mm																					
가회동 31-69	120mm	—																					
계동 2-39	120mm	—																					
동귀틀, 창귀틀 크기	대청: 180*150mm 뒷마루: 150*120mm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서울·경기도 민가 귀틀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50*120mm</td><td>—</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80*120mm</td><td>150*120mm</td></tr><tr><td>가회동 11-91</td><td>150*100mm</td><td>150*100mm</td></tr><tr><td>계동 2-39</td><td>165*120mm</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50*120mm	—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80*120mm	150*120mm	가회동 11-91	150*100mm	150*100mm	계동 2-39	165*120mm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50*120mm	—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80*120mm	150*120mm																					
가회동 11-91	150*100mm	150*100mm																					
계동 2-39	165*120mm	—																					
인방	중인방,상인방-145mm 하인방-180mm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 서울·경기도 민가 인방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중인방, 상인방</th><th>하인방</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75*135mm</td><td>75*150mm</td></tr><tr><td>양주 백수현가옥</td><td>75*150mm</td><td>75*180mm</td></tr><tr><td>도편수 이승업가옥</td><td>75*150mm</td><td>75*180mm</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85*150mm</td><td>85*180mm</td></tr><tr><td>계동 15-32</td><td>70*120mm</td><td>70*180mm</td></tr><tr><td>가회동 11-91</td><td>65*145mm</td><td>70*180mm</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중인방, 상인방	하인방	오위장 김춘영가옥	75*135mm	75*150mm	양주 백수현가옥	75*150mm	75*180mm	도편수 이승업가옥	75*150mm	75*18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85*150mm	85*180mm	계동 15-32	70*120mm	70*180mm	가회동 11-91	65*145mm	70*180mm
가옥명 및 주소	중인방, 상인방	하인방																					
오위장 김춘영가옥	75*135mm	75*150mm																					
양주 백수현가옥	75*150mm	75*180mm																					
도편수 이승업가옥	75*150mm	75*18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85*150mm	85*180mm																					
계동 15-32	70*120mm	70*180mm																					
가회동 11-91	65*145mm	70*180mm																					
초석	280*280*240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약 255*255*240)																					

(5) 사랑채 세부계획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규모 (면적)		7칸	- 8칸 정도 규모의 'ㄱ' 자형, 좌측 방에는 뒷마루를, 우측 방에는 누마루를 설치																		
기둥 단면적		180*180	- 단면스케치 참고, 사랑채 누마루만 원기둥																		
도리		굴도리 D210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장연:4치, 단연:1자) - 북촌 한옥 5채(굴도리 집에 해당)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도리 단면</th><th>도리칸 최대길이</th></tr><tr><td>계동 127-6</td><td>210mm</td><td>2,410mm</td></tr><tr><td>가회동 11-103</td><td>210mm</td><td>2,700mm</td></tr><tr><td>가회동 127-6</td><td>210mm</td><td>2,410mm</td></tr><tr><td>삼청동 35-167</td><td>210mm</td><td>2,720mm</td></tr><tr><td>계동 127-7</td><td>230mm</td><td>2,580mm</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도리 단면	도리칸 최대길이	계동 127-6	210mm	2,410mm	가회동 11-103	210mm	2,700mm	가회동 127-6	210mm	2,410mm	삼청동 35-167	210mm	2,720mm	계동 127-7	230mm	2,580mm
가옥명 및 주소	도리 단면	도리칸 최대길이																			
계동 127-6	210mm	2,410mm																			
가회동 11-103	210mm	2,700mm																			
가회동 127-6	210mm	2,410mm																			
삼청동 35-167	210mm	2,720mm																			
계동 127-7	230mm	2,580mm																			
물매	장연	4치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장연:4치, 단연:1자) - 지붕가구 계획 참조 *주심도리 하부에서 종도리 하부를 이은 선의 경사																		
	단연	8치																			
지붕 물매		5.4치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  - 맞지름 물매를 기준으로 할 때 북촌한옥들의 물매는 보통 4치(약22도) 물매 *맞지름 물매: 처마서까래 끝에서 지붕마루까지 직선으로 이은 선																		
처마 깊이		18도(828.6mm) :기둥외면에서 처마 끝지점 까지 수평거리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주초부터 기둥상부 보머리까지의 높이를 7자(2.1m)로 잡고 계산해 보면 전통한옥에서의 처마길이는 약 1~1.2m이다. 																		
기단 내밀기		기둥 옆면에서 약 710mm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약 718mm)																		
기단 단수		1단 240mm	- 사랑채 스케치 참고																		
장여		75*150mm	- 북촌한옥 장여폭 평균(참고 논문:「북촌 도시한옥의 기둥상부 결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김영수,송인호) - 사랑채 단면, 입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장여 춤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장여	75*150mm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도편수 이승엽가옥</td><td>80*180</td><td>75*150</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85*150</td><td>90*150</td></tr><tr><td>계동 15-26</td><td>70*120</td><td>—</td></tr><tr><td>가회동 31-69</td><td>75*110</td><td>—</td></tr><tr><td>가회동 31-4</td><td>75*150</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도편수 이승엽가옥	80*180	75*150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85*150	90*150	계동 15-26	70*120	—	가회동 31-69	75*110	—	가회동 31-4	75*150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도편수 이승엽가옥	80*180	75*150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85*150	90*150																		
계동 15-26	70*120	—																		
가회동 31-69	75*110	—																		
가회동 31-4	75*150	—																		
대들보	240*30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대들보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270*330</td><td>330*420</td></tr><tr><td>도편수 이승엽가옥</td><td>240*300</td><td>240*300</td></tr><tr><td>계동 31-69</td><td>260*300</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270*330	330*420	도편수 이승엽가옥	240*300	240*300	계동 31-69	260*300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270*330	330*420																		
도편수 이승엽가옥	240*300	240*300																		
계동 31-69	260*300	—																		
종보	180*21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대들보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65*210</td><td>180*210</td></tr><tr><td>도편수 이승엽가옥</td><td>165*250</td><td>165*240</td></tr><tr><td>계동 31-69</td><td>260*300</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5*210	180*210	도편수 이승엽가옥	165*250	165*240	계동 31-69	260*300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5*210	180*210																		
도편수 이승엽가옥	165*250	165*240																		
계동 31-69	260*300	—																		
화방벽 높이	1,610mm 초석하부면부터	- 서울·경기도 민가 화방벽 높이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대문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680mm</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610mm</td></tr><tr><td>계동 2-39</td><td>1,615mm</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대문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68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10mm	계동 2-39	1,615mm										
가옥명 및 주소	대문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680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610mm																			
계동 2-39	1,615mm																			
서까래	D=12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서까래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05mm</td><td>105mm</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20mm</td><td>135mm</td></tr><tr><td>가회동 31-69</td><td>120mm</td><td>—</td></tr><tr><td>계동 2-39</td><td>120mm</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05mm	105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20mm	135mm	가회동 31-69	120mm	—	계동 2-39	120mm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05mm	105mm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20mm	135mm																		
가회동 31-69	120mm	—																		
계동 2-39	120mm	—																		
동귀틀, 장귀틀 크기	루: 180*150mm 뒷마루: 150*120mm	- 안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귀틀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안채</th><th>사랑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50*120mm</td><td>—</td></tr><tr><td>부마도위 박영효가옥</td><td>180*120mm</td><td>150*120mm</td></tr><tr><td>가회동 11-91</td><td>150*100mm</td><td>150*100mm</td></tr><tr><td>계동 2-39</td><td>165*120mm</td><td>—</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50*120mm	—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80*120mm	150*120mm	가회동 11-91	150*100mm	150*100mm	계동 2-39	165*120mm	—			
가옥명 및 주소	안채	사랑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50*120mm	—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180*120mm	150*120mm																		
가회동 11-91	150*100mm	150*100mm																		
계동 2-39	165*120mm	—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인방	중인방,상인방-145mm 하인방-180mm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민가 인방 크기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옥명 및 주소</th><th>중인방, 상인방</th><th>하인방</th></tr> </thead> <tbody> <tr> <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75*135mm</td><td>75*150mm</td></tr> <tr> <td>양주 백수현가옥</td><td>75*150mm</td><td>75*180mm</td></tr> <tr> <td>도면수 이승업가옥</td><td>75*150mm</td><td>75*180mm</td></tr> <tr> <td>부마도위 박영호가옥</td><td>85*150mm</td><td>85*180mm</td></tr> <tr> <td>계동 15-32</td><td>70*120mm</td><td>70*180mm</td></tr> <tr> <td>가회동 11-91</td><td>65*145mm</td><td>70*180mm</td></tr> </tbody> </table>	가옥명 및 주소	중인방, 상인방	하인방	오위장 김춘영가옥	75*135mm	75*150mm	양주 백수현가옥	75*150mm	75*180mm	도면수 이승업가옥	75*150mm	75*180mm	부마도위 박영호가옥	85*150mm	85*180mm	계동 15-32	70*120mm	70*180mm	가회동 11-91	65*145mm	70*180mm
가옥명 및 주소	중인방, 상인방	하인방																					
오위장 김춘영가옥	75*135mm	75*150mm																					
양주 백수현가옥	75*150mm	75*180mm																					
도면수 이승업가옥	75*150mm	75*180mm																					
부마도위 박영호가옥	85*150mm	85*180mm																					
계동 15-32	70*120mm	70*180mm																					
가회동 11-91	65*145mm	70*180mm																					
초석	280*280*240 장초석: 320*320*610	- 사랑채 단면 스케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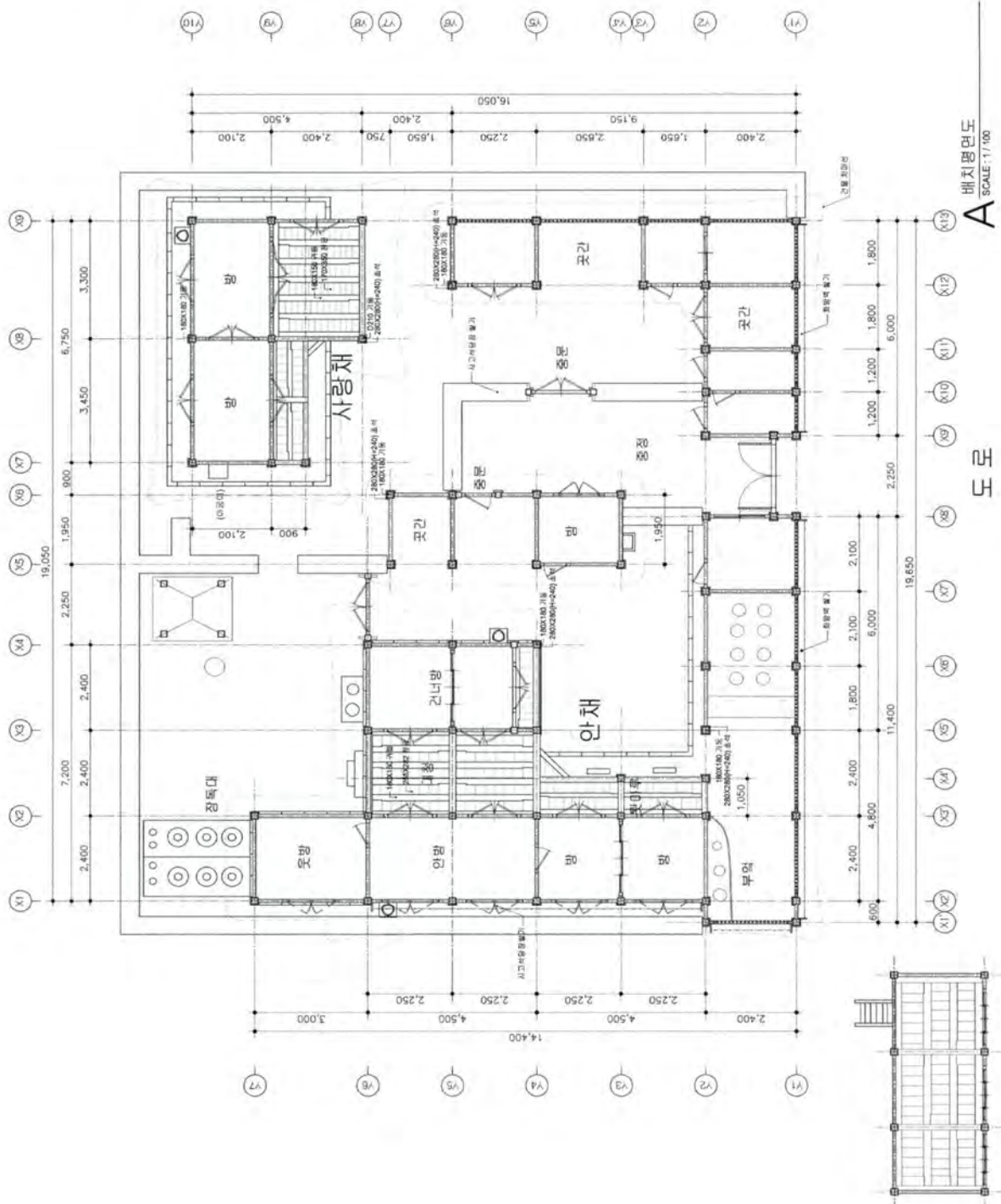
(6) 중문채, 행랑채 세부계획

구분	크기(치수)	검토사항																		
규모(면적)	9칸	- 중문채는 3칸 정도 규모의 'ㅡ' 자형, 행랑채는 10칸 규모의 역 'ㄱ'자형																		
기둥 단면적	180*180	- 안채, 사랑채와 동일																		
도리	납도리 150*210	- 행랑채 배면 스케치 참고 - 서울·경기도, 북촌한옥 단면 참고(납도리에 해당)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도리 단면</th><th>도리칸 최대길이</th></tr><tr><td>양주 백수현가옥</td><td>150*210mm</td><td>2,460mm</td></tr><tr><td>계동 15-26</td><td>120*180mm</td><td>2,700mm</td></tr><tr><td>가회동 11-18</td><td>120*180mm</td><td>2,550mm</td></tr><tr><td>계동 2-39</td><td>120*180mm</td><td>2,580mm</td></tr><tr><td>계동 11-91</td><td>130*170mm</td><td>2,700mm</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도리 단면	도리칸 최대길이	양주 백수현가옥	150*210mm	2,460mm	계동 15-26	120*180mm	2,700mm	가회동 11-18	120*180mm	2,550mm	계동 2-39	120*180mm	2,580mm	계동 11-91	130*170mm	2,700mm
가옥명 및 주소	도리 단면	도리칸 최대길이																		
양주 백수현가옥	150*210mm	2,460mm																		
계동 15-26	120*180mm	2,700mm																		
가회동 11-18	120*180mm	2,550mm																		
계동 2-39	120*180mm	2,580mm																		
계동 11-91	130*170mm	2,700mm																		
서까래 물매	4.56치	- 북촌한옥 실측도면 단면 참고																		
지붕 물매	4.56치	- 북촌한옥 실측도면 단면 참고																		
처마 깊이	12도(460mm):기둥외면에서 처마 끝지점까지 수평거리	- 북촌한옥 실측도면 단면 참고																		
기단	없음	- 부속채들의 기단 내밀기를 두지 않는 북촌(도시)한옥의 특징 차용																		
장여	75*150mm	- 안채, 사랑채와 동일																		
대들보	180*240mm	- 서울·경기도 민가(삼량가) 대들보 크기 <table><tr><th>가옥명 및 주소</th><th>행랑채, 문간채</th></tr><tr><td>오위장 김춘영가옥</td><td>165*210</td></tr><tr><td>양주 백수현가옥</td><td>165*210</td></tr><tr><td>가회동 11-91</td><td>160*240</td></tr></table>	가옥명 및 주소	행랑채, 문간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65*210	양주 백수현가옥	165*210	가회동 11-91	160*240										
가옥명 및 주소	행랑채, 문간채																			
오위장 김춘영가옥	165*210																			
양주 백수현가옥	165*210																			
가회동 11-91	160*240																			
화방벽 높이	1,610mm 초석하부면부터	- 행랑채 입면 스케치 참고 - 북촌한옥 실측도면 참고																		
서까래	D=120mm	안채, 사랑채와 동일																		
인방	중인방,상인방-145mm 하인방-180mm	안채, 사랑채와 동일																		
초석	280*280*240	안채, 사랑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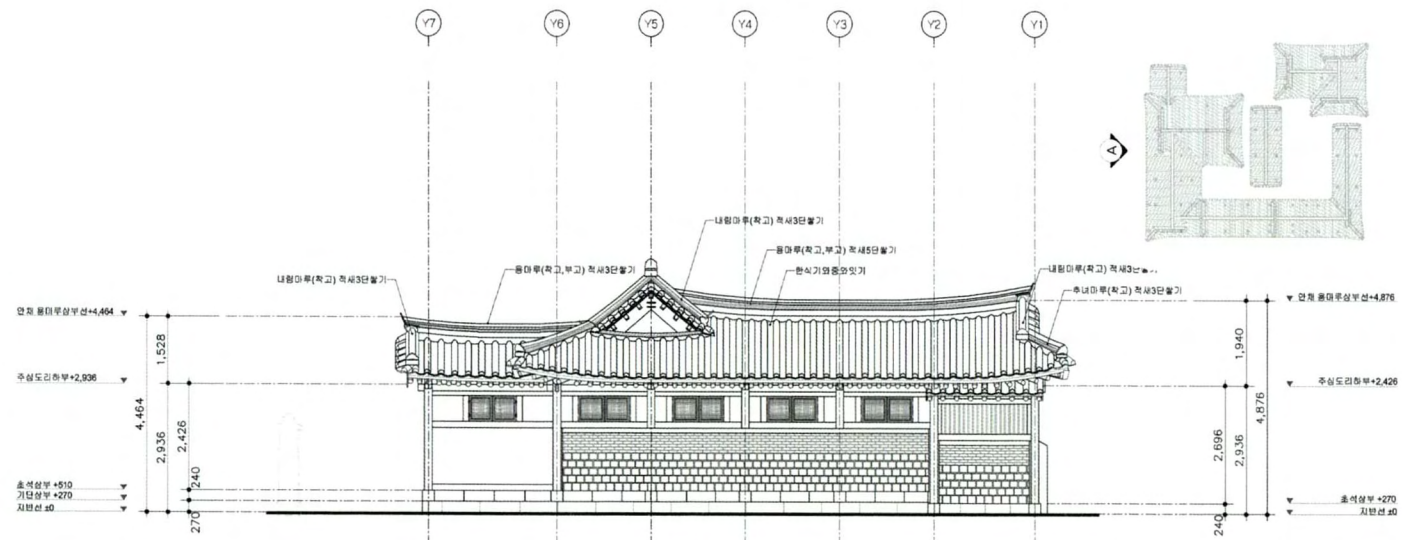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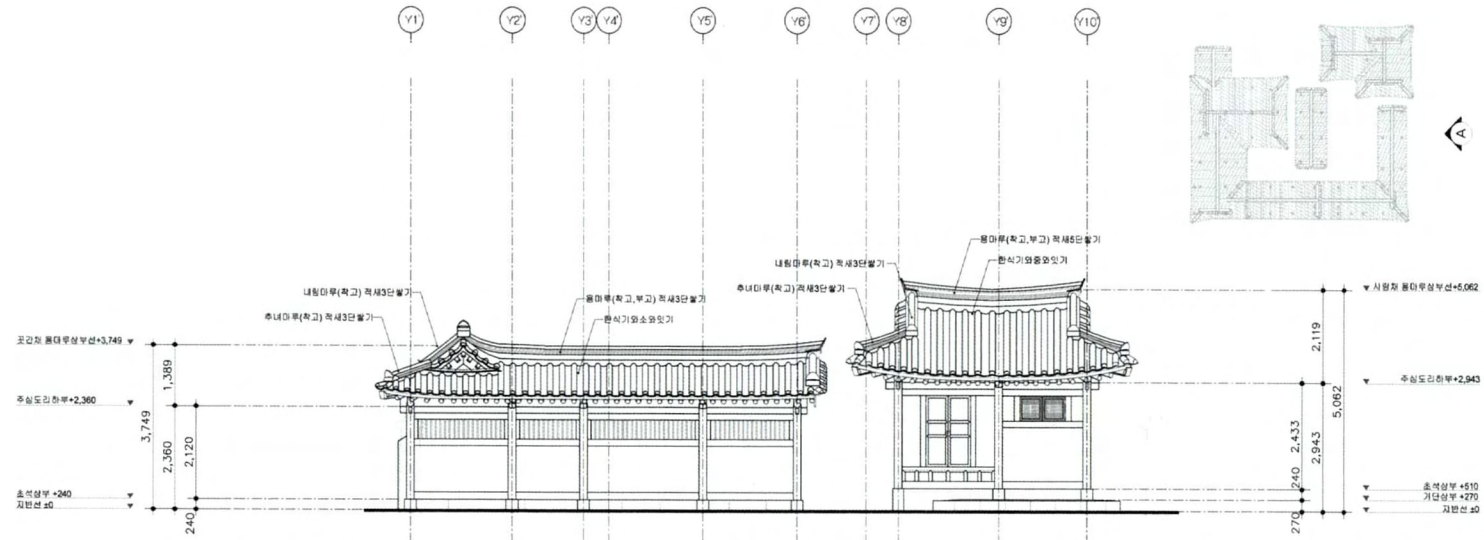
3. 개성한옥 기본계획도

1) 자남동 조씨댁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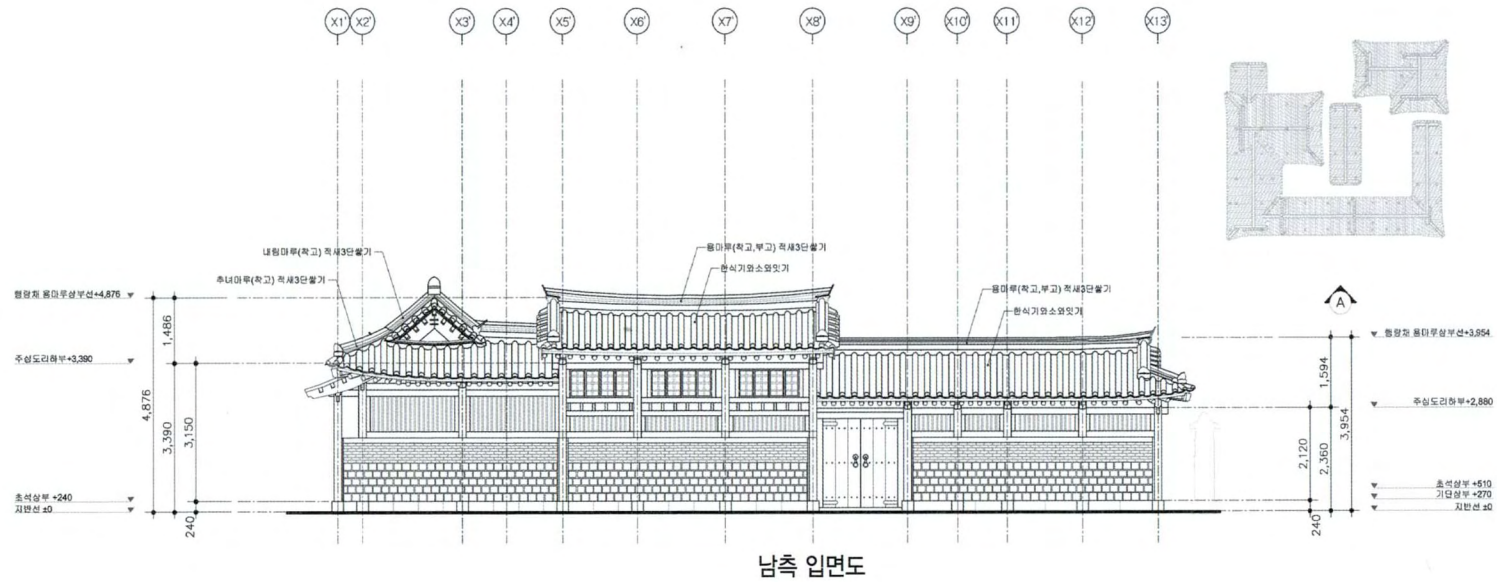
(1)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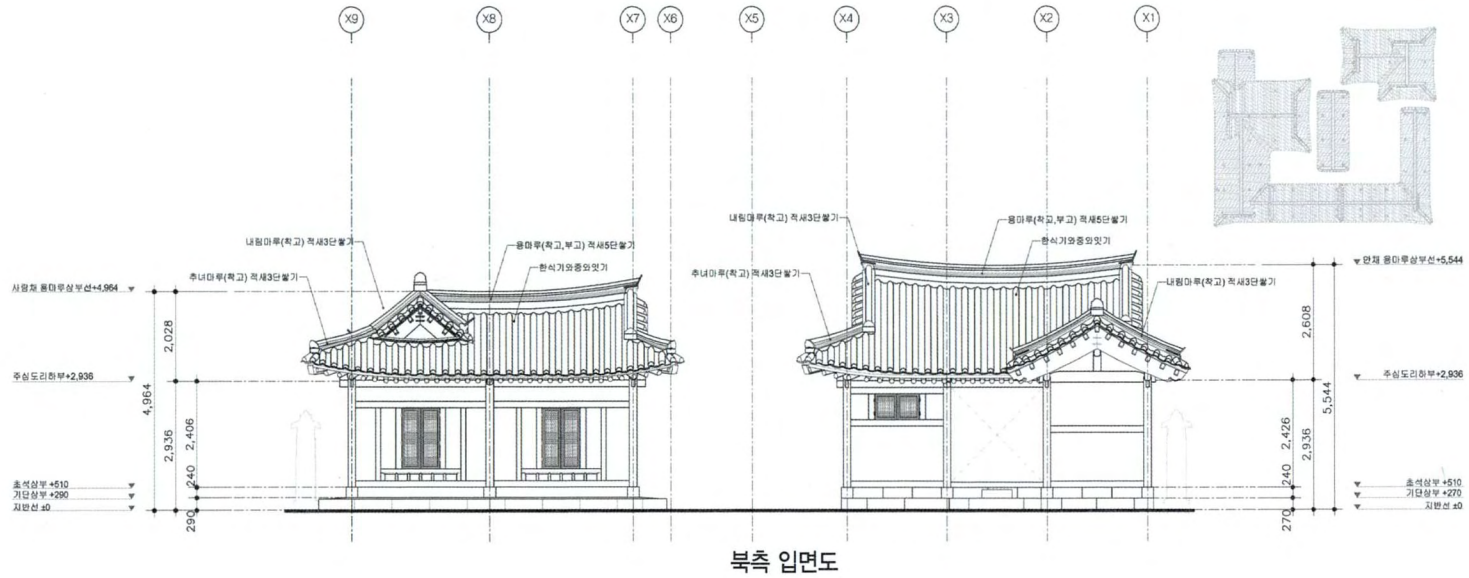
(2) 동, 서측 입면도



(3) 남,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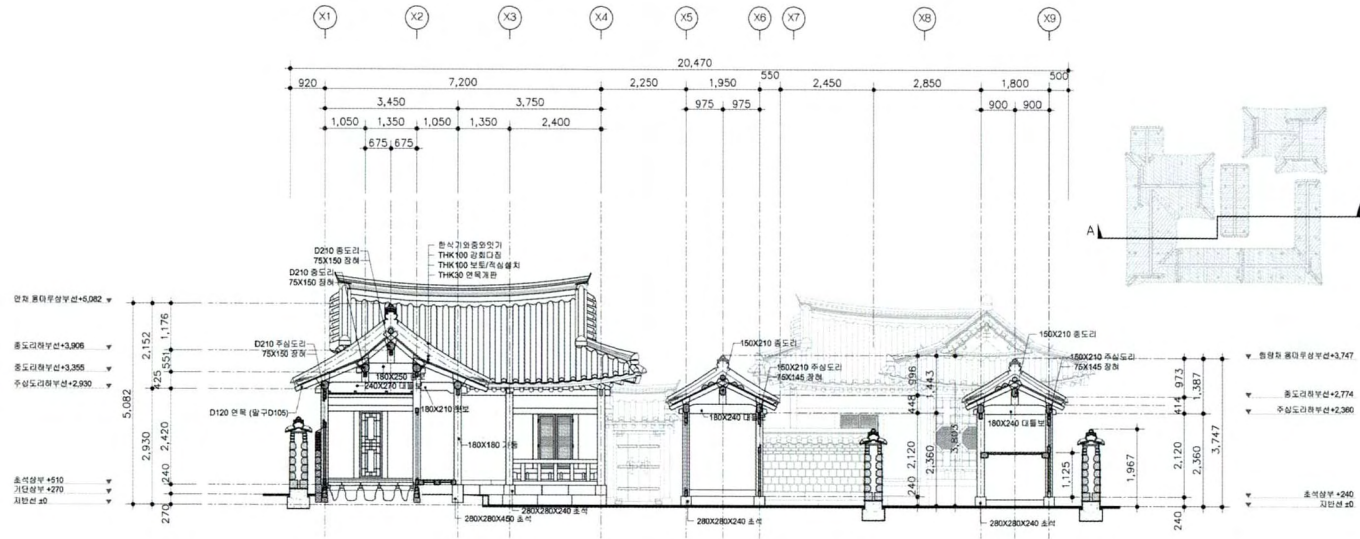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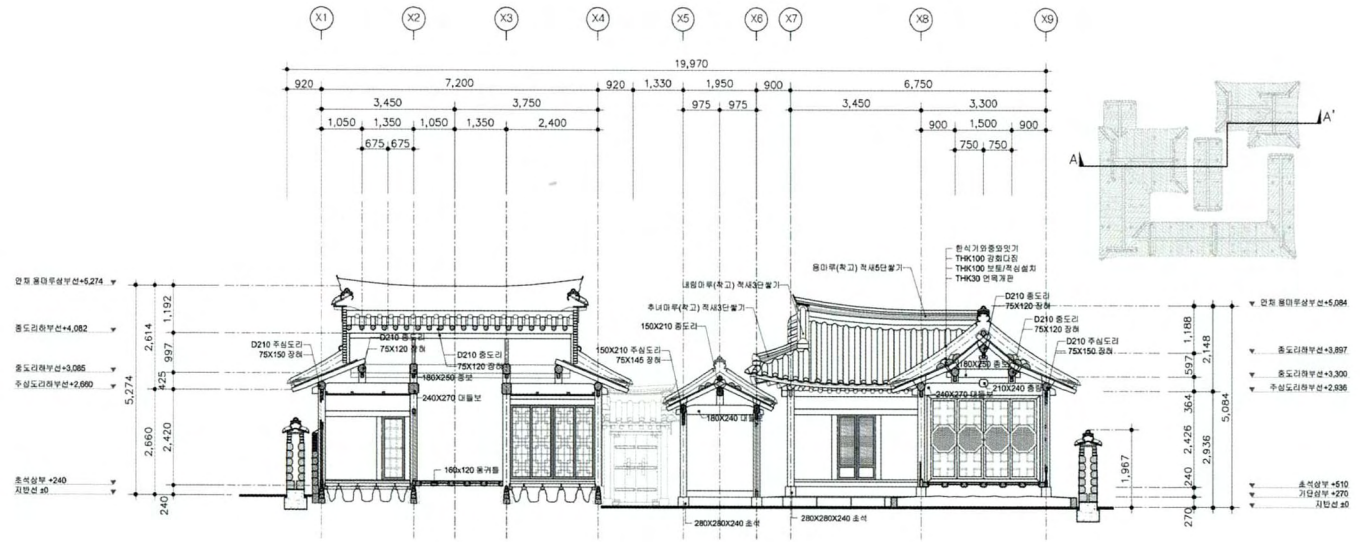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4) 동-서 단면도



동-서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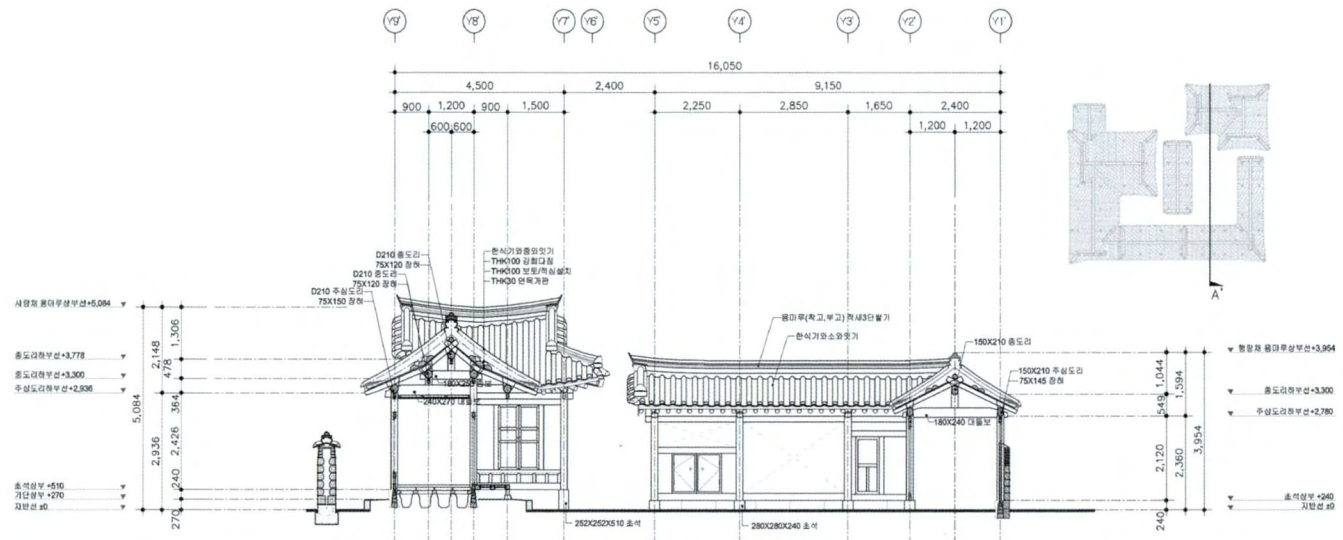


동-서 단면도 2

(5) 남-북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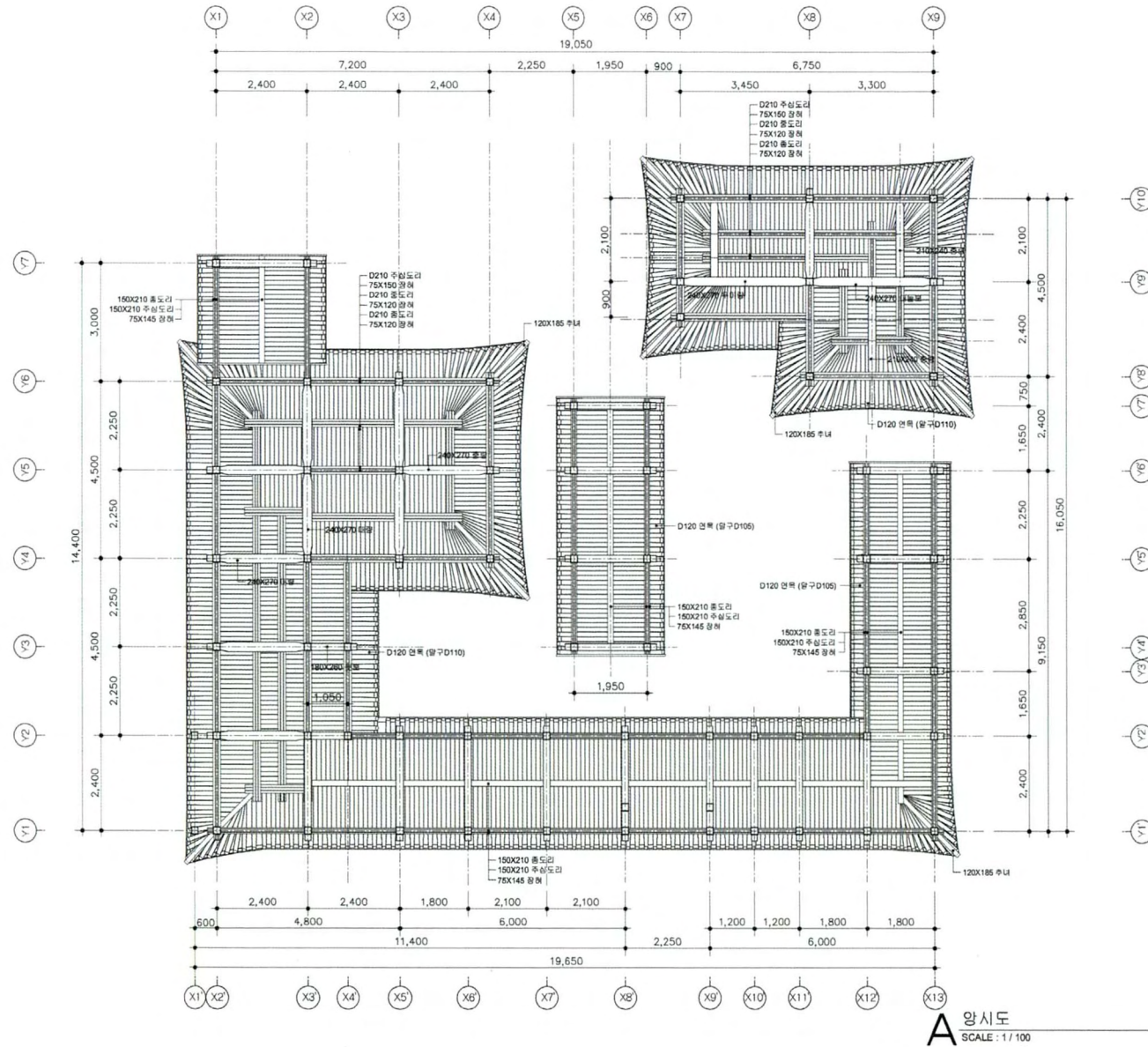


남-북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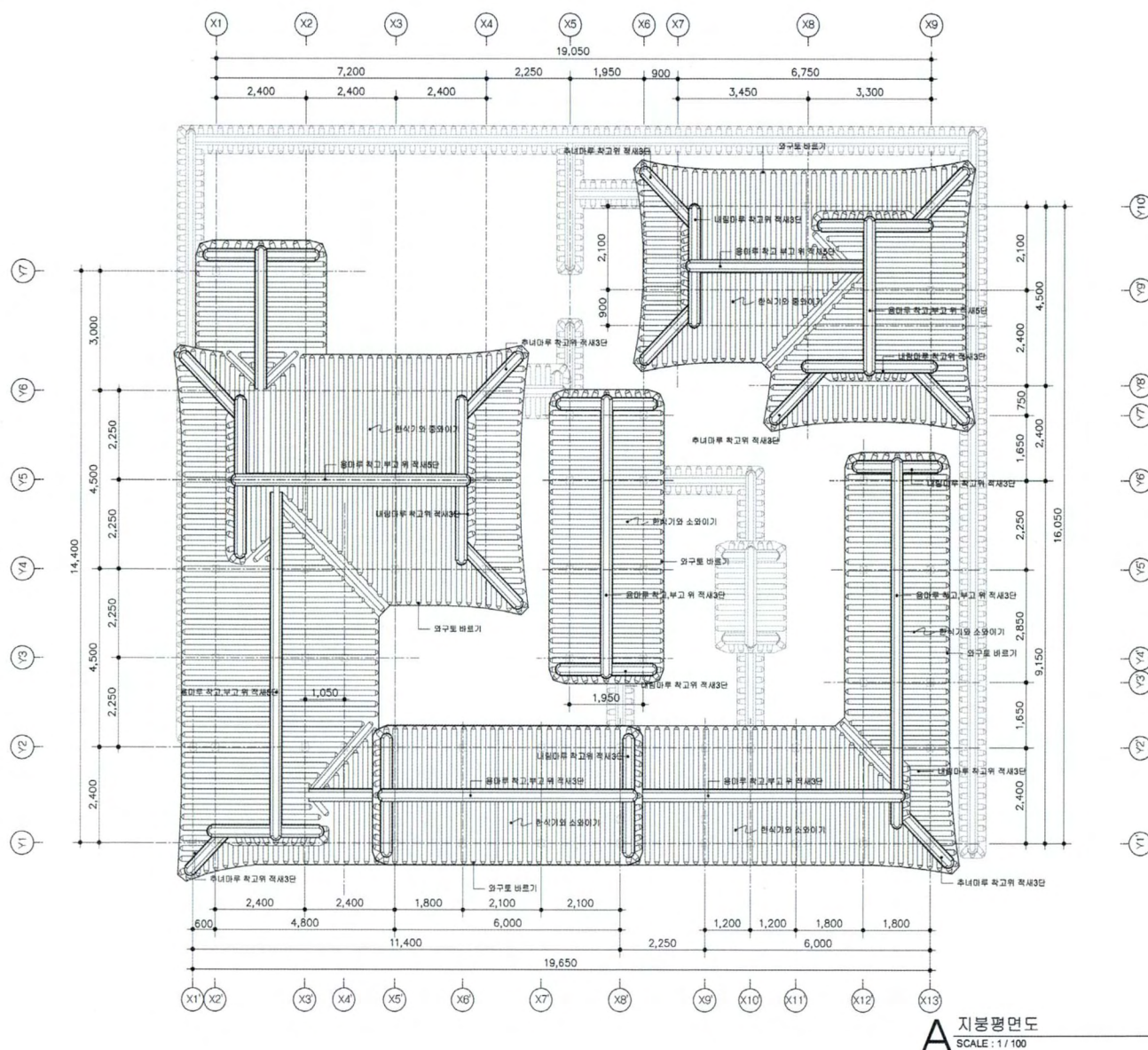


남-북 단면도 2

(6) 양시도



(7) 지붕평면도



4. 개성한옥 3차원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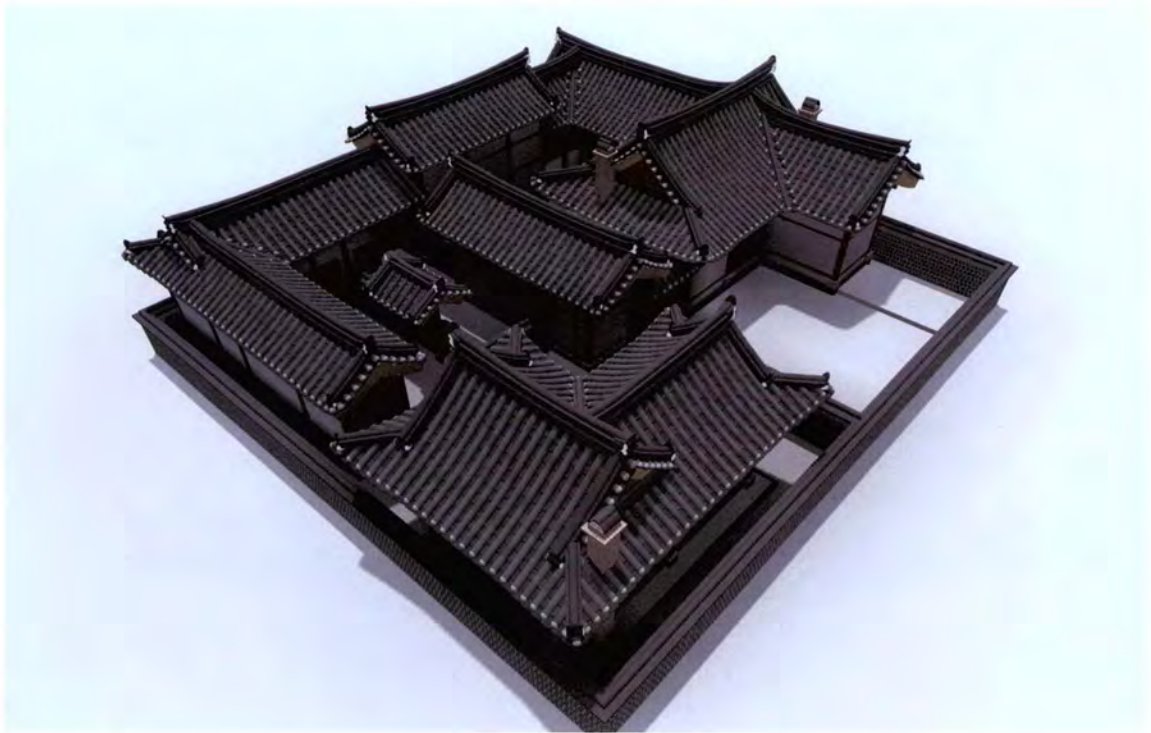
(1) 조감도



남동측



남서측



북동측



북서측

(2) 투시도



남동측



북동측



북서측



남서측

(3) 입면도



남측면



북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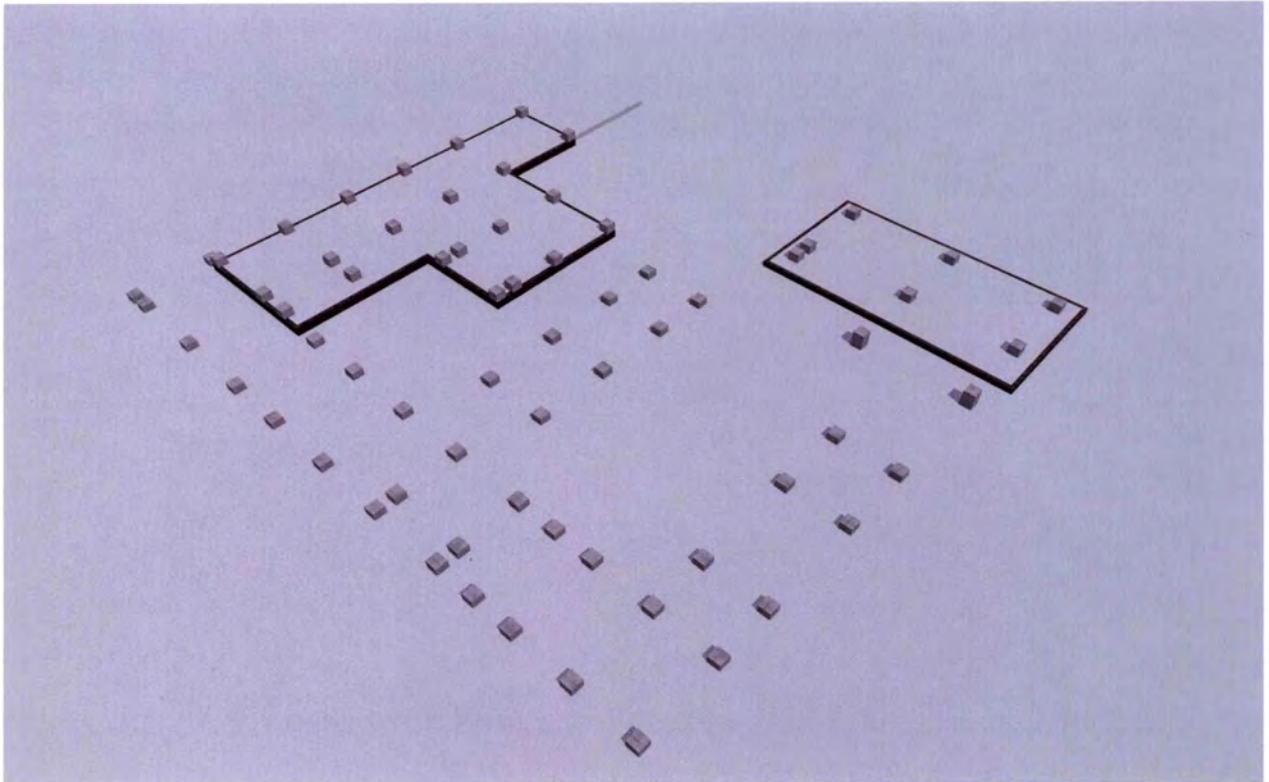


동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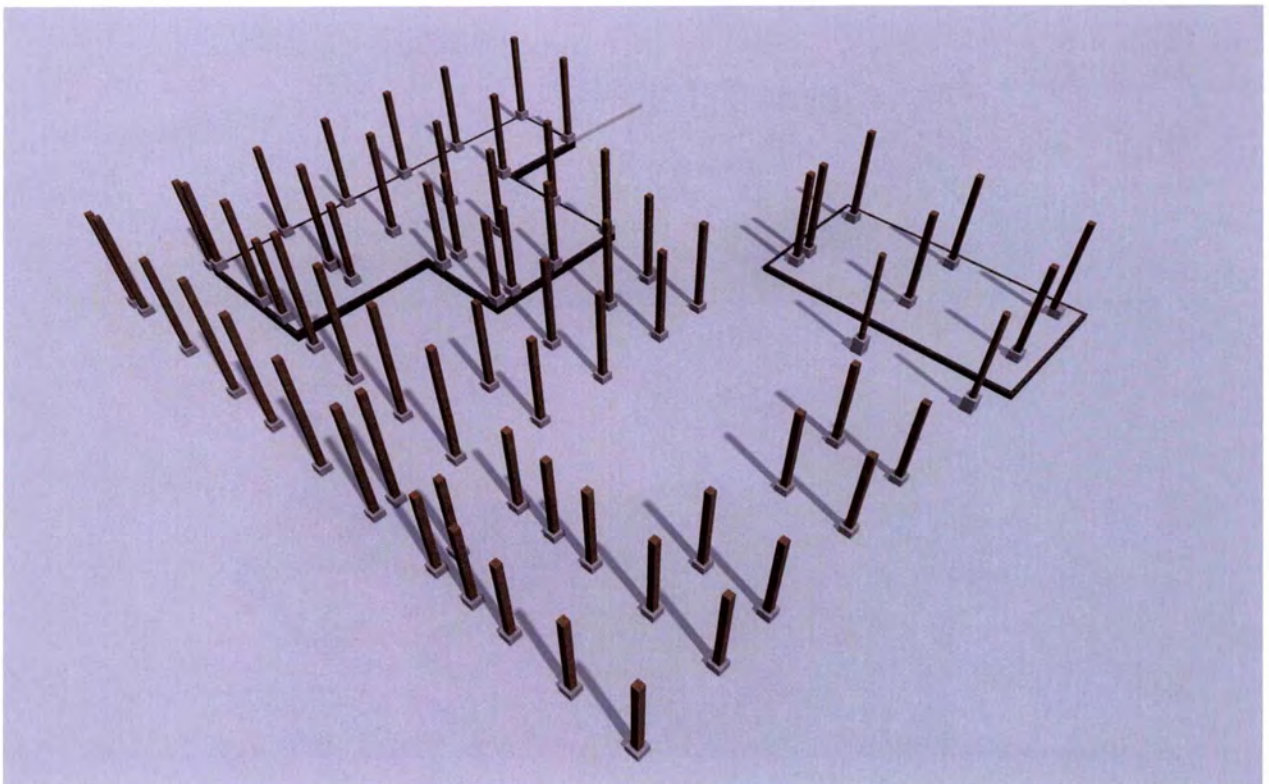


서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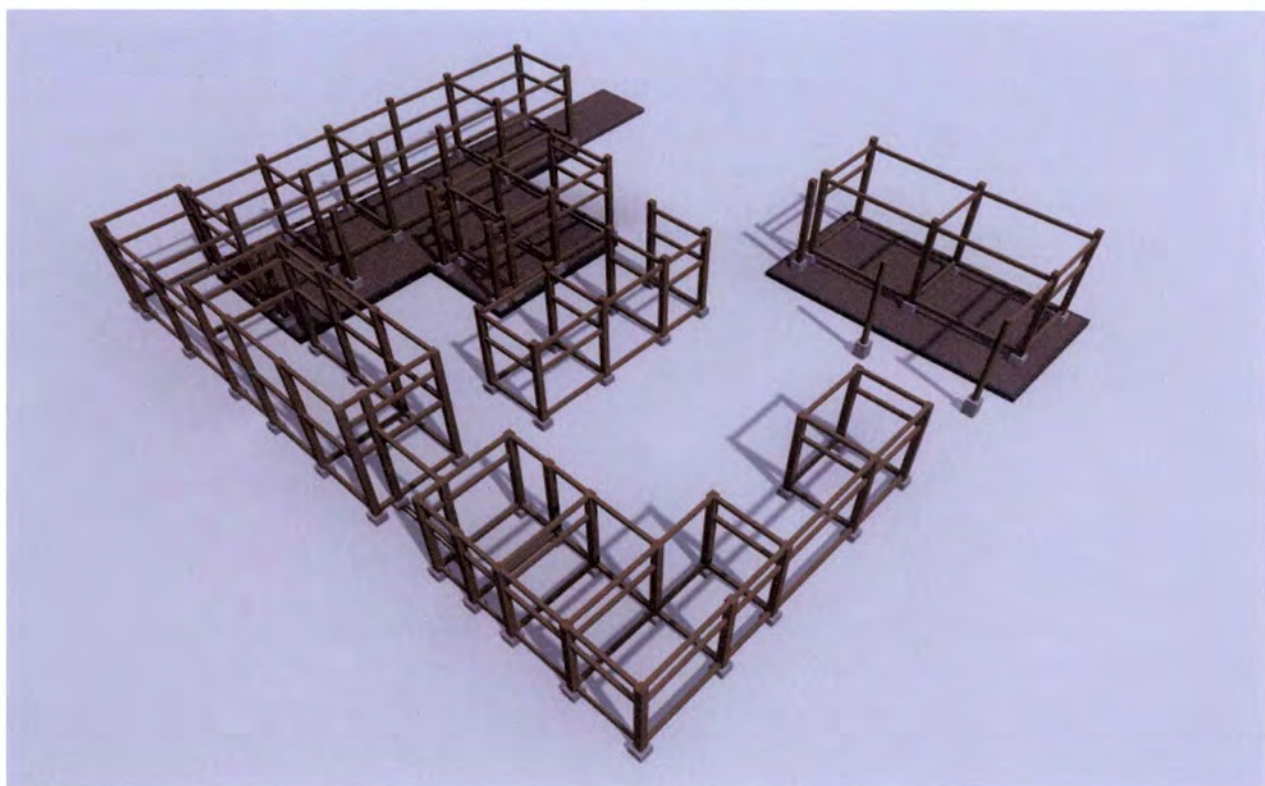
5. 개성한옥 3차원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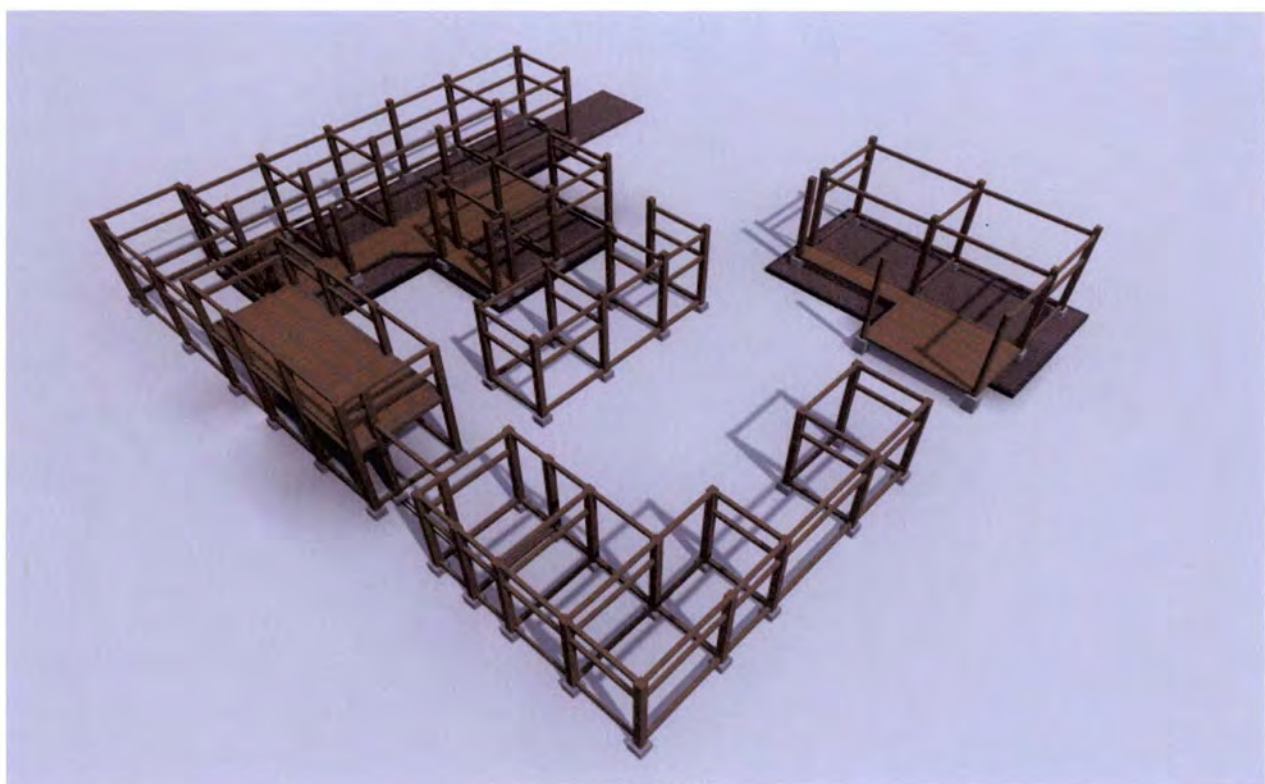
초석 설치



기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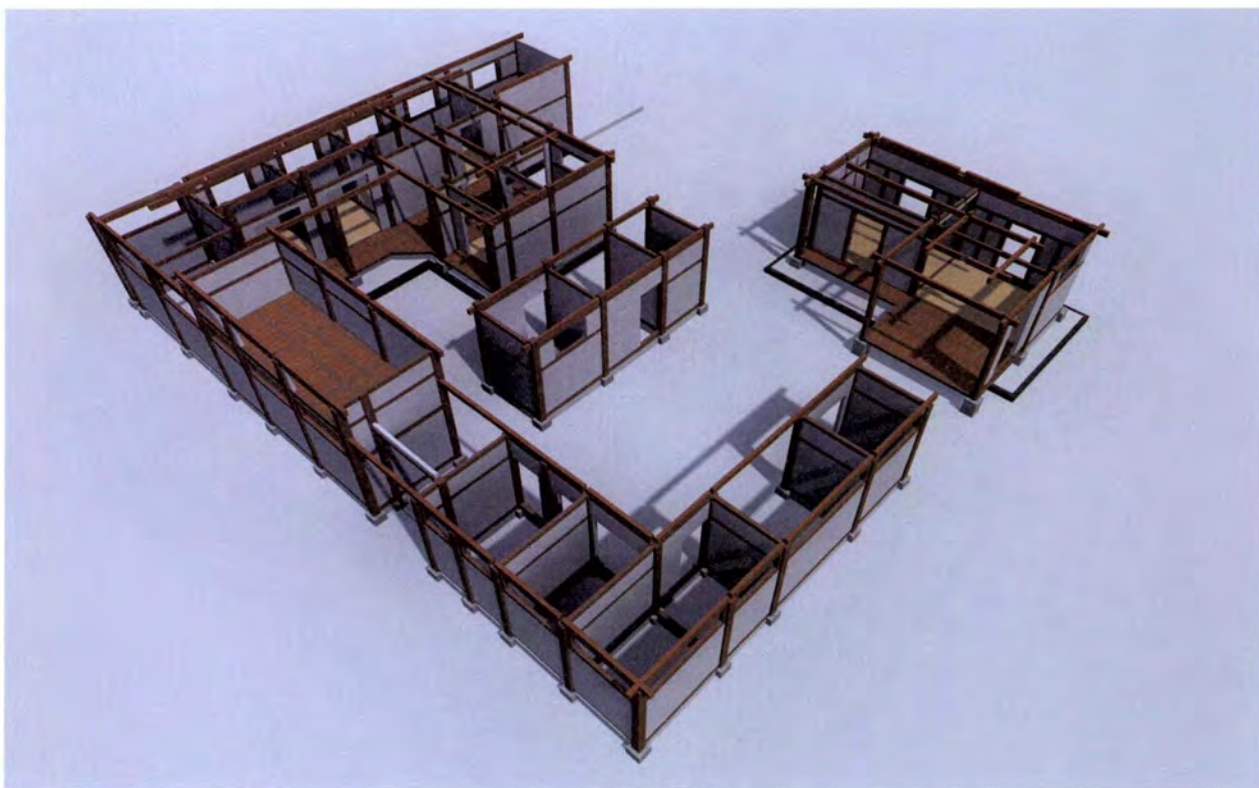
상인방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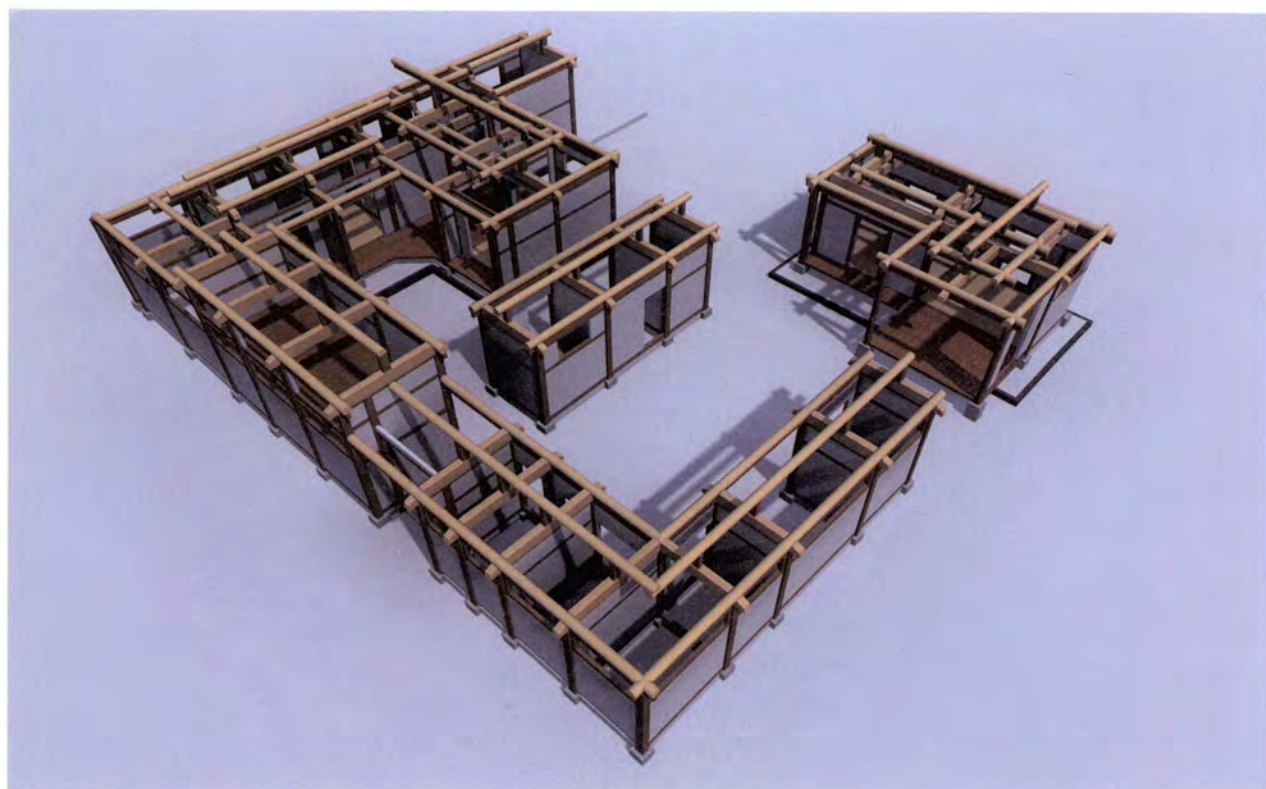
마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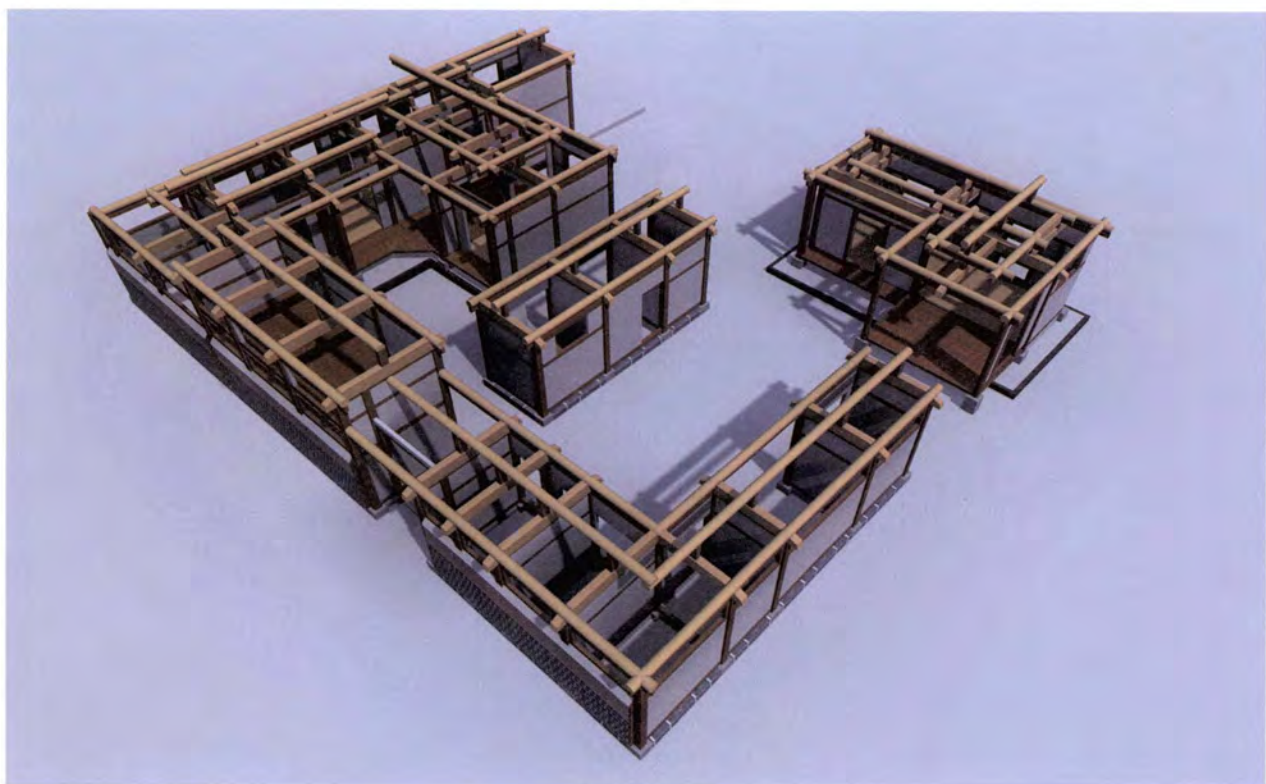
벽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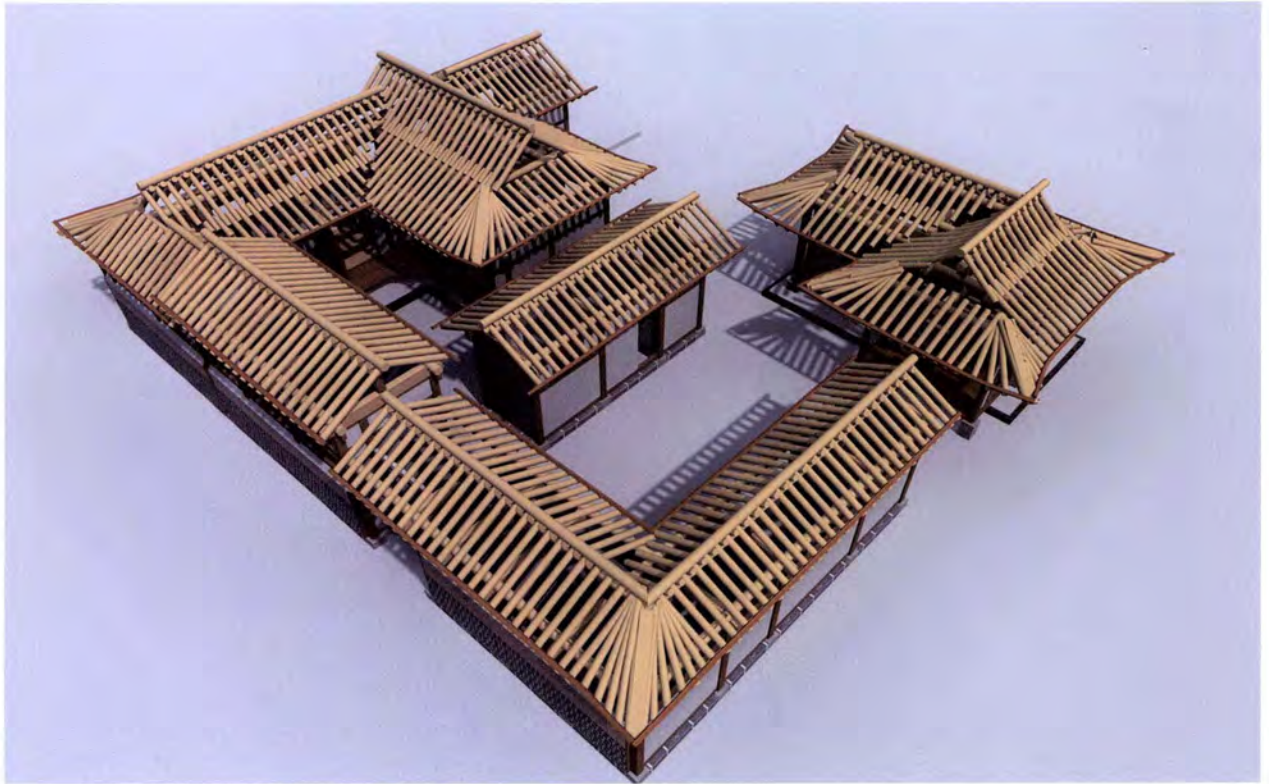
장여 조립



보 조립



화방벽 설치



서까래 조립



기와 이기

※ 참고문헌

- 김기주, 「고려의 황도 개경」, 『건축역사연구』 제11권, 2002년 3월 참조
- 김동욱,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전통민가의 가치와 경기문화재단 조사의 의의」,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003년 12월 참조
- 김동욱, 「황도 개경의 비밀」, 『건축역사연구』 제11권, 2002년 3월 참조
- 김태영, 「개성 지역 한옥군락의 분포와 배치」,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 박언곤 · 한옥, 「강화도민가의 실측조사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제4권, 2000년
- 송인호 · 김영수 「북촌 도시한옥의 기둥상부 결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2005년 11월
- 송인호 · 김영수, 「북촌도시한옥의 지붕가구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4권, 2005년 12월
- 유지아, 「경기도지방의 전통민가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
- 윤정숙 · 김성우 · 유영희, 「강화도 교동도 지역 민가의 주공간 및 주생활 특성과 변화」, 『생활과학논문집』 제10권, 1996년
- 이정미,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구조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년 12월
- 이희봉 · 권오경, 「거주자의 문화를 통해 본 강화도 최소중정형 튜입구자집(Ⅱ형 평면)의 해석」,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004년 12월
- 정연상,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평면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2권, 2003년 12월
- 홍영의, 「고려시대 개경의 도시구조와 주거」,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 경주시청, 『양동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2002
- 경기문화재단, 『2012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012
-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2002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남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2
- 문화재청,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2004
- 서울특별시청, 『문화재 관리·활용정책 학술연구』, 2009
- 안동시청, 『안동 하회마을 종합정비계획』, 2001
- 제주특별자치도청,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2012

○사업주최 : 경기도

윤 승 일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김 대 경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1팀장)
이 민 호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이 원 준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허 창 열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사업주관 : 경기문화재단

조 유 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 원장, 사업단장)
김 지 욱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이 지 훈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책임연구원)
남 창 근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전문연구원)
유 은 수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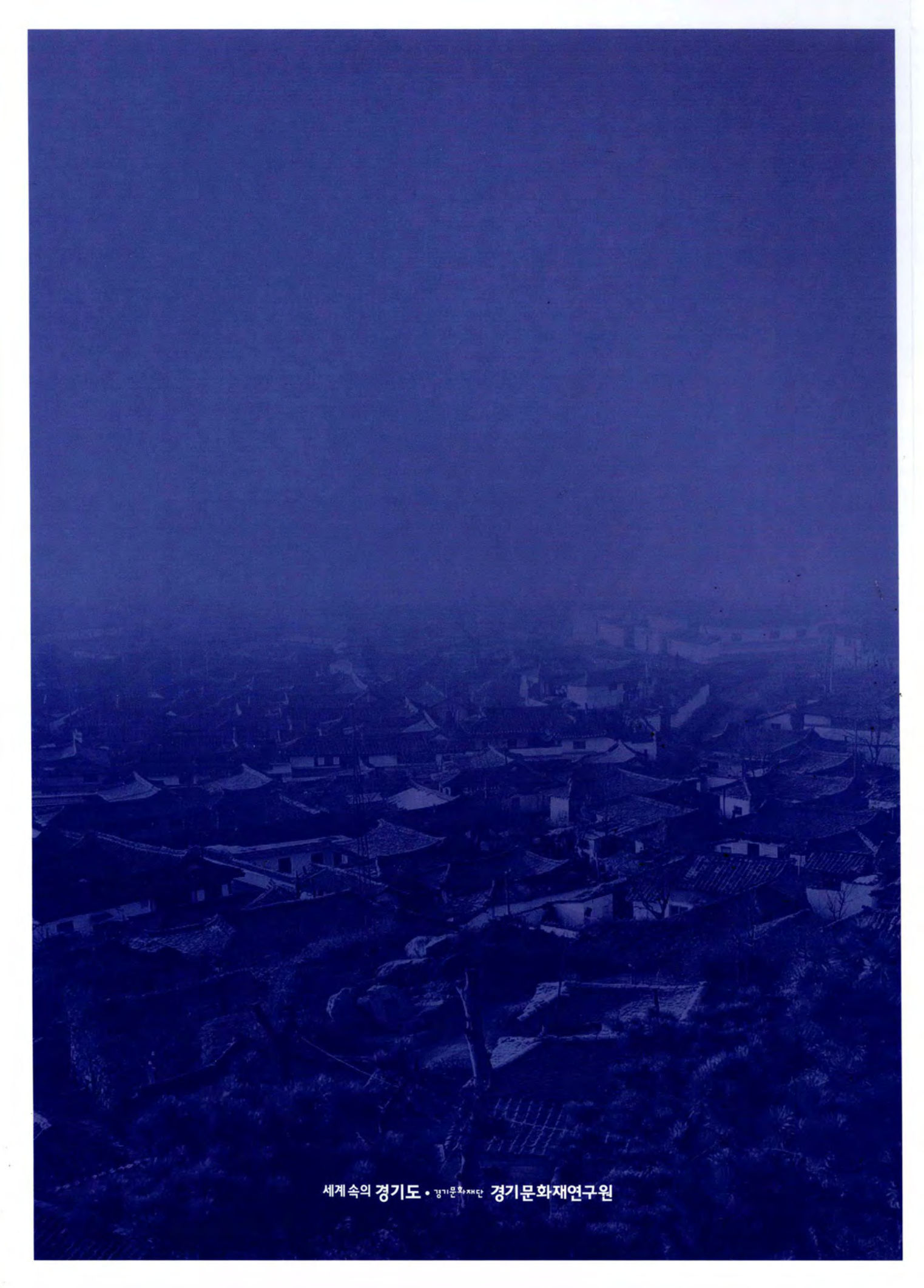
2013년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2·3부) (비배출)

2013년 12월 31일 인쇄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T.031-231-8570 F.031-898-7970

디자인/제작 경인일보(T.031-231-5285)

An aerial photograph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likely a Hanok village, showing numerous traditional houses with tiled roofs. The village is surrounded by a stone wall,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is hilly and forested. The image is in black and white, with a slightly grainy texture.

세계 속의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